



20주년사를 발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지나온 소중한 발자취를 돌아보면서 한 권의 책으로 기록하여 후손들에게 전하고 또한 우리들도 후일에 지난 일들을 추억할 수 있으니 참으로 감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 하나님, 한 예수님, 한 성령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김종훈 담임목사님의 지도 아래 찬양과 선교와 구제와 여러 가지 다양한 봉사로 열심을 다하여 달려왔고, 또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달려갈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심히 패역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학은 표류하고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하며 이기주의와 불신이 가득한 이러한 세대에서 예일교회는 세상을 닦지 않고 예수님을 닦아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교회가 되며, 뉴욕에서 믿는 자의 본이 되어 세계 속으로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생수로 흘러 들어갈 것입니다. 《예수님 제일 그 20년》책을 펼쳐 읽는 모든 분들에게 감동과 주님을 향한 열정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 윤희주 장로

예수님 제일 그 20년

사진으로 보는 뉴욕 예일장로교회 20년

I.

II. 20

1. 뉴욕 예일장로교회의 태동
 - 1) 이민사적 배경
 - 2) 신학적 배경
 - 3) 교단적 배경
 - 4) 김종훈 담임목사에 대하여
2. 뉴욕 예일장로교회의 시작
 - 1) 가정 모임
 - 2) 가정 모임에서 칼리지 포인트의 교회로 이전
3. 뉴욕 예일장로교회의 기반 조성기(칼리지 포인트)
 - 1) 이웃과 사회를 위한 손길 - 선한 사마리아인 주일
 - 2) 신앙 공동체 훈련 - 캠프
 - 3) 효도관광
 - 4) 전 교우 체육대회
 - 5) <예수 마을>창간
 - 6) 추수감사절 감사 찬양제
 - 7) 세인트폴 성공회 교회와의 관계
4. 뉴욕 예일장로교회의 성장기(베이사이드)
 - 1) 창립 5주년 기념 예배와 임직식
 - 2) 전 교우 여름 신앙수련회
 - 3) 교육 여행
 - 4) 각 선교회 주관 대회들
5. 뉴욕 예일장로교회의 정착기(히스빌 자체 성전)
 - 1) 자체 성전 시대
 - 2) 자체 성전을 얻은 후의 변화
 - 3) 담임목사의 대외 활동
6. 뉴욕 예일장로교회의 미래를 바라보며
 - 1) 담임목사 비전과 교회의 미래

III.

1. 제직 명단
2. 제직회 구성
3. 교회학교 및 한글학교
4. 교구 및 구역 변천사
5. 선교 사역

예수님 제일 그 20년



뉴욕 예일장로교회

예수님 제일 그 20년



뉴욕 예일장로교회
YALE KOREAN PRESBYTERIAN CHURCH IN NEW YO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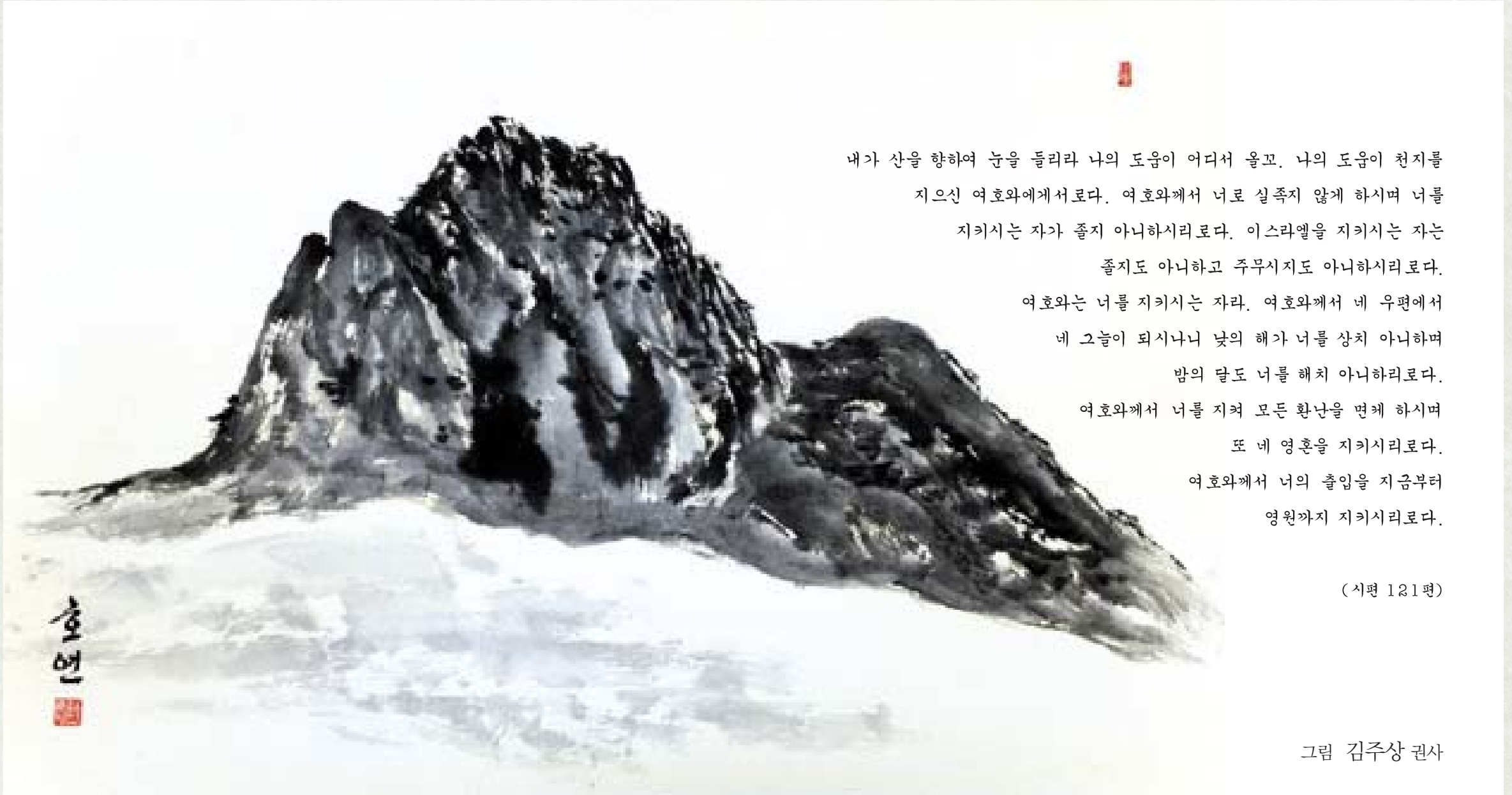
“예수님 제일 그 20년”

지난 20년을 되돌아보니 남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초창기 개척 시절 멋진 예배당이 아니라 한 성도의 가정에서 예배드려도 그렇게 감사했었습니다. 수없이 찾고 찾아도 보이지 않던 예배 처소도 하나님의 시간이 되니 허락해 주셨습니다. 많은 기도와 눈물 끝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롱아일랜드 히스빌에 있는 성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계속 늘어나는 성도들로 인해 부족한 교육관과 친교실, 그리고 파킹장 시설을 위해 2008년에는 증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증축도 얼마나 은혜롭게 진행되었는지 그저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었습니다. 자체성전 구입과 증축 중에도 그동안 지원해 오던 약 50곳의 선교지에 선교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신 것도 큰 감사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체성전과 함께 지역을 섬기는 교회로 사역의 폭도 넓혀 주셨습니다. 이제 20주년을 맞으면서 지난 세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앞으로 또한 베푸실 은혜를 기대해 봅니다.

김종훈 담임목사

뉴욕 예일장로교회
20주년사

축 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네 우편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시편 121편)

그림 김주상 권사



김중훈 담임목사

발 간 사

지난 20년을 되돌아보니 남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초창기 개척 시절 멋진 예배당이 아니라 한 성도의 가정에서 예배드려도 그렇게 감사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쉽게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수없이 찾고 찾아도 보이지 않던 예배 처소도 하나님의 시간이 되니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후 2시에 드려야 하는 예배, 더운 여름날은 앉은 의자에서 페인트가 묻어나는 교회, 교육관과 교회가 차로 3분 정도 떨어져 있는 교회였지만 온 성도들이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우리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한인들이 드문 외진 곳에서 까다로운 규율의 미국 성공회 교회를 빌려서 드리는 예배였지만, 그 가운데서도 성령의 감동이 있었고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베이사이드 유대인 회당에서 보낸 7년은 마치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 7년을 하루같이 봉사했던 시절과도 같았습니다. 십자가를 붙이지 못한다, 음식물 반입을 금하며 오직 회당에서 제공하는 코셔(Kosher)만 먹어야 한다, 안식일과 정해진 예배시간 외에는 출입

을 금한다, 유대인 회당과 우리 교회가 행사 일정이 중복될 때는 회당에 우선권이 있다는 등등의 많은 제약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 된 교회를 사랑하는 한결 같은 성도들의 마음이 7년 동안 오히려 예일 교회에 많은 부흥을 가져오는 기회가 되게 했습니다. 이것 또한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자연스럽게 성도들의 기도에서 나오는 탄식은 “하나님 우리에게도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자녀들을 위한 신앙교육을 할 수 있는 자체성전을 주옵소서.”였습니다. 많은 기도와 눈물 끝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롱아일랜드 히스빌에 있는 성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새 성전으로 이사하는 날은 정말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 한 가지 이상 짐을 들고 이사를 하는데 7년 동안 쌓여진 짐을 단 4시간 만에 옮기는 놀라운 저력을 보였습니다. 마음대로 음식을 먹지 못하고 거의 7년 동안 90%는 베이글로 친교를 나누다가 새 성전 부엌에서 김밥을 먹으니 그 맛이 그렇게 좋은 줄 미처 몰랐습니다. 한 달가량 온 성도들이 함께 페인트를 다시 칠하고, 성전을 새롭게 단장하고 2005년 2월 1일부터 감격적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크고 놀라우셨습니다.

우리가 이곳으로 이사 오는 것을 환영하듯이 교회 옆 도로가 다시 닦아지고, 교회 오는 동맥인 495번 도로가 넓혀지고, 교회와 붙어 있는 타운 소유의 축구장은 인조 잔디구장으로 바뀌고, 놀이터도 새롭게 단장되었습니다. 미국 루터란 교회를 사서 왔는데 그 전에 있던 미국교인들

뉴욕 예일장로교회

20주년사

이 찾아와서 자신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 교회가 이곳에 오게 되었다면서 그렇게 기뻐했습니다. 한 때 융성했던 교회였지만 노인들만 남아서 루터란 본부에서 상업용 목적으로 팔려고 할 때 그들이 복음을 위해 세워진 교회를 다른 상업용 목적으로 팔아서 안 된다고 탄원서를 내고, 모여서 기도회를 정기적으로 가졌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만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미국 성도들의 기도도 응답하셔서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성전을 주신 것을 알고 눈물이 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감격했었습니다.

계속 늘어나는 성도들로 인해 부족한 교육관과 친교실, 그리고 파킹장 시설을 위해 2008년에는 증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증축도 얼마나 은혜롭게 진행되었는지 그저 하나님께 감사할 것 밖에 없었습니다. 자체성전 구입과 증축 중에도 그동안 지원해 오던 약 50곳의 선교지에 선교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신 것도 큰 감사의 조건이었습니다. 구제와 단기선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전달하는 일도 점점 더 지경을 넓혀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체성전과 함께 지역을 섬기는 교회로 사역의 폭도 넓혀 주셨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실버클럽(Silver Club), 취학 전 아동을 위한 마미 앤 미(Mommy & Me), 다음 세대들에게 한글과 함께 한국 문화를 가르치는 예일 한국학교, 학교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보충해 주는 예일 크리스찬 아카데미를 통해 지역을 섬길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커서 모두 무료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도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제 20주년을 맞으면서 지난 세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감사

하며, 앞으로 또한 베푸실 은혜를 기대해 봅니다. 되려고 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되어지는 인생이 있을 것입니다. 되려고 하는 인생은 자기의 제한된 힘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되어지는 인생은 되게하시는 분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처음부터 되어지는 인생이 되고 싶었습니다. 처음부터 되어지는 교회가 되고 싶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므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였느니라”(요 8:29). 이 말씀은 영원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20주년 준비위원장
윤희주 장로

편찬사

말씀하시고 경영하시고 정녕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예일교회를 20년 전에 뉴욕 땅에 세우시고 십자가의 사랑 아래서 선교와 전도, 교육과 봉사에 힘쓰며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20주년사를 발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지나온 소중한 발자취를 돌아보면서 한 권의 책으로 기록하여 후손들에게 전하고 또한 우리들도 후일에 지난 일들을 추억할 수 있으니 참으로 감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로 인도하여 주신 아름답고 소중한 일들을 연대와 날짜별로 구분하였습니다. 한 하나님, 한 예수님, 한 성령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김종훈 담임목사님의 지도 아래 찬양과 선교와 구제와 여러 가지 다양한 봉사로 열심을 다하여 달려왔고, 또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달려갈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심히 패역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학은 표류하고 물

질만능주의가 팽배하며 이기주의와 불신이 가득한 이러한 세대에서 예일교회는 세상을 닮지 않고 예수님을 닮아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교회가 되며, 뉴욕에서 믿는 자의 본이 되어 세계 속으로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생수로 흘러 들어갈 것입니다.

많은 시간을 내어 수고하신 20주년사 편찬위원들과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제일 그 20년》 책을 펼쳐 읽는 모든 분들에게 감동과 주님을 향한 열정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 지리라 하더라”(계 10:7).

마라나타!

회 고 사



송광수 장로

“여호와와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함이어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 산이 그러하도다”(시 48:1-2).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위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 시온을 찬양하는 시이지만 우리 예일교회가 그러한 것 같아 마음이 흐뭇합니다.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일교회를 통하여 극진히 찬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복된 소식을 온 세계에 전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견고한 교회가 Hicksville에 있는 예일교회입니다.

예수님 제일의 뉴욕 예일장로교회가 스무 돌을 맞게 되었습니다. 짧은 기간은 아니었지만 무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을 지나며 나이테가 이십 개나 되어 단단한 등지가 되었군요. 변함없는 ‘예수님 제일’이란 표어 아래, 말씀과 기도로 깊이 뿌리가 내려져 허리케인 Sandy가 와서 해할지라도 넘어지지 않는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널리 풍기며 솔로몬의 성전에 기둥같이 쓰임 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지난 15주년사에서 언급하였듯이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여호와의 궤가 오벰에돔의 집에 석 달 머문

것같이 가정에서 예배드리며 시작하였습니다. 초창기에는 ‘엔학고레의 샘’이었습니다. 지치고 상처받은 영혼을 치료하고 소생함을 얻었습니다. 성장기에는 ‘베들레헴의 우물’이었습니다. 헌신과 희생으로 신실하게 섬겼습니다. 성숙기의 예일교회는 ‘생명수 은혜의 강’이었습니다. 이 은혜의 물로 소성하고 변성하고 부흥케 하셨습니다. 2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가 ‘생명의 샘’이 될 줄 믿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라 사람으로 사망의 그물을 벗어나게 하느니라”(잠 13:14),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잠 14:27). 생명은 살아 있는 자만의 것입니다. 산 것 같으나 죽은 자들을 구원하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예일교회가 쓰임 받을 것입니다.

참 지혜는 오직 주께만 있으니 그 지혜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하늘의 지혜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나아갈 때 세상의 악한 세력이 막지 못할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복음 전파의 성전 터를 넓히고 말씀을 견고히 하는 교회가 되어 지나는 동안 잘 훈련된 교회학교, 선교회, 목장, 실버클럽, 여름학교, 단기선교, 드라마팀, 찬양사역 등 교회 대내외 어느 행사에도 넉넉히 잘 감당하셨던 모습들이 무척 자랑스럽고 행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참된 섬김이었고 헌신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이끄시는 담임목사님, 부교역자님들, 모든 성도님들, 20주년을 다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누어 봅시다. 계속 사용하여도 마르지 않는 생명의 샘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 받기 원합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학 29상).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뉴욕 예일장로교회의 큰 기쁨이 되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덕이 되며 하나님께 길이 영광 돌리는 견고한 교회로 서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목 차

축시(시편 121편)	2	(1) 예배 프로그램	139
발간사_ 김중훈 담임목사	4	(2) 훈련 및 교육 프로그램	139
편찬사_ 윤희주 장로	8	가. 필수 훈련 과정	139
회고사_ 송광수 장로	10	나. 말씀 훈련	140
		다. 기도 훈련	140
		라. 찬송 훈련	140
		마. 가정 예배	140
		바. 영성 훈련	141
		사. 수련회	141
		아. 세미나	141
		자. 다니엘 잠언 프로젝트	141
		(3) 나눔 프로그램	141
		가. 신앙의 생활화	141
		나. 커뮤니티 봉사	141
		다. 전도	141
		라. 선교	142
		① 국내	142
		② 모국	142
		③ 해외	142
		④ 방송	142
사진으로 보는 뉴욕 예일장로교회 20년	21		
I . 뉴욕 예일장로교회 연혁	89		
II . 뉴욕 예일장로교회 20주년사	135		
1. 뉴욕 예일장로교회의 태동	136		
1) 이민사적 배경	136		
2) 신학적 배경	138		

뉴욕 예일장로교회 20주년사

3) 교단적 배경	143	(1) 교회 주변 거리 청소	161
4) 김종훈 담임목사에 대하여	143	(2) 맨해튼 홈리스들을 찾아서	161
(1) 가족 배경	144	2) 신앙 공동체 훈련-캠핑	163
(2) 교육 배경 및 안수	145	3) 효도관광	165
(3) 목회 이야기	146	4) 전 교우 체육대회	167
2. 뉴욕 예일장로교회의 시작	149	5) <예수 마을> 창간	169
1) 가정 모임	149	6) 추수감사절 감사 찬양제	169
2) 가정 모임에서 칼리지 포인트의 교회로 이전	151	7) 세인트폴 성공회 교회와의 관계	171
(1) 초창기 교회 예배 처소를 얻기까지 숨은 이야기	152	4. 뉴욕 예일장로교회의 성장기(베이사이드)	173
(2) 창립 기념 예배와 임직식	155	1) 창립 5주년 기념 예배와 임직식	176
(3) 초기의 제직 활동	156	2) 전 교우 여름 신앙수련회	177
(4) 초기의 교회학교	157	3) 교육 여행	178
가. 교회 창립 당시의 교회학교	157	4) 각 선교회 주관 대회들	179
나. 초창기 주일학교 여름수련회	159	(1) 성경 암송대회	180
다. 초창기 청년부	159	(2) 성경 퀴즈대회	180
3. 뉴욕 예일장로교회의 기반 조성기(칼리지 포인트)	160	(3) 성경 스피드 퀴즈대회	181
1) 이웃과 사회를 위한 손길-선한 사마리아인 주일	160	(4) 찬송가 외워 부르기 대회	182
		(5) 활발한 구역(현 목장) 활동	183

뉴욕 예일장로교회 20주년사

5. 뉴욕 예일장로교회의 정착기(히스빌 자체 성전)	185		
1) 자체 성전 시대	185		
(1) 목회적 차원의 의미	185		
(2) 성도들의 기쁨과 감사	187		
(3) 본 교회 건물의 역사적 배경	192		
가. 교회의 시작과 발전	192		
나. 변혁기	193		
(4) 성전 증축과 마스터플랜	194		
2) 자체 성전을 얻은 후의 변화	197		
(1) 예배 프로그램	199		
가. 장년 예배	199		
나. 영어 예배	200		
① 영어 예배 탄생 배경	200		
② 영어 예배의 오늘	201		
다. 교회학교	201		
① 영아부	201		
② 유치부	203		
③ 유년부	205		
④ 중고등부	207		
⑤ 청년부	211		
(2) 훈련과 교육 프로그램	212		
		가. 제자 훈련	212
		나. 선교회	214
		다. 목장	215
		(3) 봉사 프로그램	216
		가. 사역 부서 활동	216
		① 중보 기도 사역	216
		② 바나바 사역	218
		③ 도서 사역	219
		④ 찬양 사역	220
		⑤ 바디워십 사역	224
		⑥ 드라마 사역	225
		나. 커뮤니티 봉사	225
		① 실버클럽	225
		② Mommy & Me	227
		③ 뉴욕 예일한국학교	228
		④ 봄성경학교와 여름성경학교(Yale Disciple Land & Spring Vacation Bible School)	231
		(4) 전도와 선교	234
		가. 국내 선교	234
		① 국내 선교지 지원 사역	235
		② 방송 선교	235

뉴욕 에일장로교회 20주년사

③ 개인 전도 사역 및 맨해튼 전도	235
④ Work Camp	236
나. 해외 선교	237
① 1차 단기선교(칠레의 빈야 델마르, 1996)	239
② 2차 단기선교(케냐, 2000)	240
③ 3차 단기선교(중국 연변 회망복지촌, 2001)	242
④ 4차 단기선교(니카라과, 2002)	244
⑤ 5차 단기선교(볼리비아 라파스, 2003)	245
⑥ 6차 단기선교(인도, 2004)	247
⑦ 7차 단기선교(볼리비아, 2004)	248
⑧ 8차 단기선교(러시아 세르프홉스카야 에일교회 설립, 2005)	248
⑨ 9차 단기선교(니카라과, 2005)	249
⑩ 10차 단기선교(필리핀, 2006)	250
⑪ 11차 단기선교(볼리비아, 2007)	251
⑫ 12차 단기선교(도미니카공화국, 2008)	252
⑬ 13차, 14차 단기선교(뉴멕시코 나바호 인디언, 2009~2010)	252
⑭ 15차 단기선교(도미니카공화국, 2010)	253
⑮ 16차 단기선교(볼리비아, 2011)	254
⑯ 17차 단기선교(필리핀, 2012)	254
3) 담임목사의 대외 활동	255
(1) 총회 임원으로서의 섬김	255

(2) 대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 회장으로 피선	256
---------------------------	-----

6. 뉴욕 에일장로교회의 미래를 바라보며 258

1) 담임목사 비전과 교회의 미래 258

(1) 양육	259
--------	-----

(2) 복음 전파	259
-----------	-----

(2) 치유 사역	259
-----------	-----

III. 부록 261

1. 제직 명단	262
----------	-----

2. 제직회 구성	286
-----------	-----

3. 교회학교 및 한글학교	304
----------------	-----

4. 교구 및 구역 변천사	319
----------------	-----

5. 선교 사역	333
----------	-----



해외 한인 장로회
뉴욕 예일 장로교회
YALE KOREAN PRESBYTERIAN CHURCH IN NEW YORK

뉴욕예일장로교회 Logo 설명

- 1) 물고기 모양의 바깥 선은 뉴욕예일장로교회가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는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을 의미한다.
- 2) 물고기 안에 있는 십자가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 즉 예수 제일의 교회임을 의미한다(Jesus Centered Church).
- 3) 성경책이 펼쳐진 모양은 뉴욕예일장로교회가 성경에 기초한 교회임을 말해 준다(Bible Based Church).
- 4) 지구 모양은 온 세계에 나아가서 말씀을 전파(막 16:15)하기 위한 선교 중심의 교회임을 의미한다(Mission Oriented Church).
- 5) 성경책 안에 있는 불길의 모양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임을 의미한다(Holy Spirited Church).

뉴욕예일장로교회는 영어명이 Yale Korean Presbyterian Church in New York이며 창립연도는 1993년으로 교회가 지향하는 방향이 로고에 모두 제시되어 있다.

(로고 디자인 : 김종훈 목사)

사진으로 보는
뉴욕 예일장로교회 20년



담임 목사



김 중 훈



조 유 경
사모



박 성 하
전도사 (음악)



조 태 성
전도사 (새생명전도)



신 경 호
전도사 (천양 청년)

부목사



윤 승 진



강 세 훈

CCM 목사



안 예 중

사 모



홍 지 연
강세훈 목사



김 호 진
유명근 전도사



이 옥 경
박성하 전도사



차 은 경
조태성 전도사

교육담당



홍 정 자
목사 (영아부)



김 송 기
전도사 (유치부)



박 에스 더
전도사 (유년부)



유 명 근
전도사 (중고등부)



신 은 영
신경호 전도사

사무장로



송 광 수



윤 희 주



한 대 영



김 현 수



한 정 원



김 준 택

은퇴장로



한 기 하



이 주 익



지 재 홍



정 수 영



김 성 울



유 영 식



성 태 섭



최 영 진

사역장로



유 학 준

협동장로



오 현 섭



조 중 희

명예장로



김 중 호

안수집사



정 건 수



김 용 호



이 근 만



임 병 설



김 두 성



박 성 우

피택안수집사



강 수 형



이 인 화



장 관 우



윤 용 근



지 장 유



김 창 욱



정 재 남



서 병 구



권 철 훈



신 영 필



박 재 우



권 영 신



김 광 남



김 종 수



강 성 식



오 성 섭



김 동 환



박 용 훈

협동집사



장 봉 용



이 태 호



심 도 현



신 동 인



조 성 식



류 석 환



안 강 철

사무권사



방 영 희



이 영 희



구 숙 자



정 태 인



이 재 덕



이 길 자



오 분 례



권 미 자



최 정 희



노 청 순



이 유 화



박 춘 희



이수정



이영선



이포영



강혜옥



조춘자



정영신



이사라



김효선

피택시무권사



김필중



김미향



이연희



천매자

은퇴권사



정남순



이순옥



김주상



김성애

협동권사



김경숙



정현아



김미라



라은숙



노영실



여승희



박재순



강 애 자



김 말 행



백 성 숙



박 혜 자



최 진 화



김 영 자



장 청 자



한 상 숙



박 문 자



김 순 호



교역자 일동



당회원 일동



장로 일동



권사 일동



안수집사 일동



창립20주년사 기획팀



제 직 일동



1 선교회



2 여선교회



2 남선교회



3 남선교회



3 여성교회



4 여성교회



4 남성교회



5 남성교회



5 여성교회



6 여성교회



6 남성교회



7 남·여 선교회



청년부



1 예수마을



E.M



2 예수마을 (행복한, 사론목장)



3 예수마을 (하나, 쉐키나목장)



5 예수마을 (실로암, 믿음목장)



4 예수마을 (제일좋은, 에바다목장)



6 예수마을 (예능, 시온목장)



7 예수마을 (벤엘, 달리다곰목장)



9 예수마을 (에덴, 예찬목장)



8 예수마을 (임마누엘, 감사목장)



10 예수마을 (글로리아, 할렐루야목장)



11 예수마을 (예모, 소망목장)



13 예수마을 (예향, 예진목장)



12 예수마을 (샘솟는, 예사전목장)



14 예수마을 (청년부, EM)



영아부



유년부



유치부



중고등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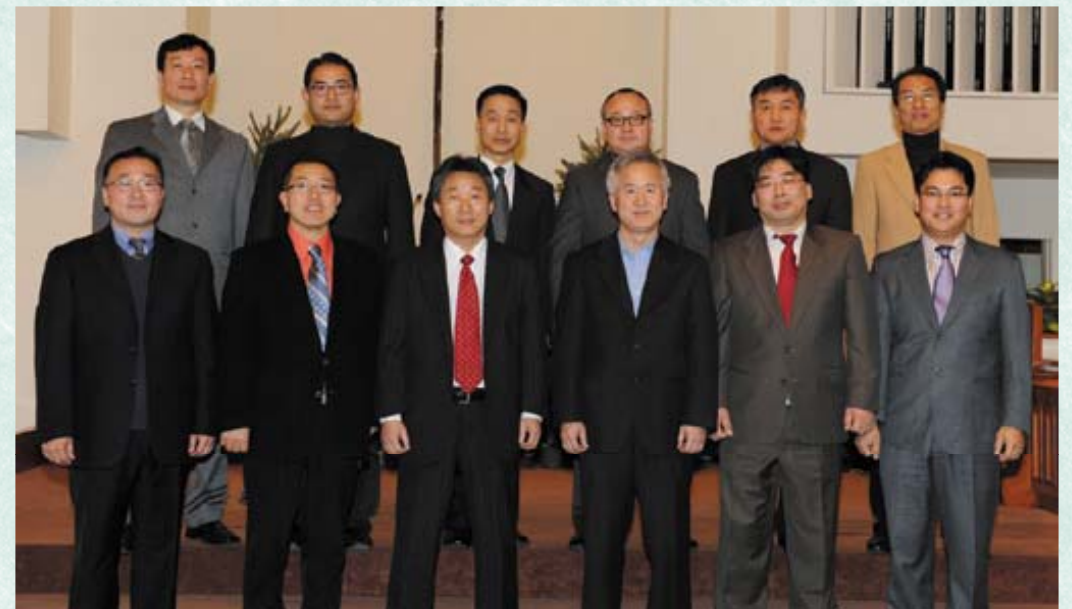
할렐루야 찬양대



에일 찬양단



글로리아 찬양대



두나미스 남성중창단



에이레네 여성중창단



에일 크로마하프단



에일관악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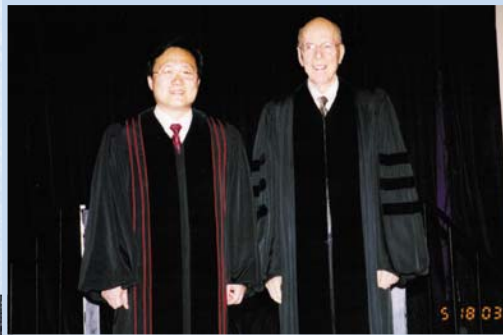
드라마사역팀



바디워십팀



- 1_ 창립 3주년 유년주일학교 성탄발표회
- 2_ 창립 초기 체육대회
- 3_ 초창기 추수감사절 찬양제



- 1_ 창립 10주년 예배를 마치고
임직자들과 함께
- 2_ 10주년 기념예배-마펏 목사와 함께
- 3_ 창립 10주년 담임목사 위임식

- 1_ 창립 10주년 드라마 고백을 마치고
- 2_ 유대인 회당에서 유년주일학교
성탄발표회
- 3_ 연변 단기선교



- 1_ 볼리비아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이마라 교인들과 함께하는 점심시간
- 2_ 예일관악단 성탄절 발표회
- 3_ 볼리비아 단기선교 어린이 사역



- 1_ 창립13주년 임직자 일동
- 2_ 실버클럽 예배
- 3_ 2010년 실버클럽 회원들이 준비한 종강파티 케이크



- 1_ 새신자 환영회의 감격적인 순간들
- 2_ 전 교우 Beach Day
- 3_ 국제 장애인 초청 예배를 마치고



- 1_ 창립 15주년 임직자 일동
- 2_ 효도관광
- 3_ 새 성전에서 유치부의 성탄 발표회



- 1_ 창립 17주년 임직자 일동
- 2_ 주일 3부예배를 마치는 성도들을 기다리는 부엌
- 3_ 전 교우 체육대회 응원전



- 1_ 체육대회의 백미 줄다리기
- 2_ 크리스찬 아카데미
- 3_ 에일 여름학교 발표회



- 1_ 예일한국학교의 국악시간
- 2_ 할로윈을 대신하는 Holywin 행사
- 3_ 추석을 맞은 예일한국학교 어린이들



- 1_ 생후 첫 예배에 출석한 아이를 축복하는 담임목사
- 2_ 바자회의 수익금을 선교비와 장학금으로
- 3_ 손님들을 기다리는 바자회의 물품들



- 1_ 니카라과 마사야 전도 집회에
참석한 현지인들
- 2_ 자체 성전 감사 탁구대회
- 3_ 새신자 환영



- 1_ 강세훈 목사 안수
- 2_ 유스그룹 중등부 교사진
- 3_ 유스그룹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추수감사 찬양



1_ 에일한국학교 교사진
2_ 선교회 헌신예배
3_ 성경 퀴즈대회



1_ 새신자 환영회를 마치고 기념 촬영
2_ 실버클럽의 즐거운 시간
3_ 실버클럽 국민체조 시작



- 1_ 프린스턴 배구대회 전경
- 2_ 여름 수련회에서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
- 3_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수련회의 쓴 뿌리 치료시간



- 1_ 온 교우들이 함께하는 수련회 식사 시간
- 2_ 새교우 종강파티를 마치면서
- 3_ 웨체스터 장로교회와의 친선 축구경기



1_ 수련회에서의 주니어 유스들
2_ 자녀의 발을 닦아주며 기도하는 수련회 세족식 행사
3_ 터스카로라 수양관에서 함께한 여름 수련회

1_ E.M의 수련회 발표회
2_ 2011년 졸업생 일동
3_ 드라마 사역팀의 부활절 공연



1_ 에일 크리스찬 아카데미
학생들과 스태프들
2_ 뉴멕시코 단기선교
3_ 니카라과 단기선교 파송예배



1_ 부산 산성교회와 연합하여 함께 드린
단기선교 파송예배
2_ 볼리비아 단기선교를 마치고 돌아온
선교팀과 마중나온 성도들
3_ 창립 18주년 임직자 일동



- 1_ 실버클럽 여행
- 2_ 찬양단과 함께하는
담임목사의 울동 시범
- 3_ Praise Night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유스그룹 찬양팀

- 1_ 수련회의 십자가 체험
- 2_ 어린이날 유년부 발표회
- 3_ 어린이날 유아부 발표회



- 1_ 워크캠프를 위한 출발 전 기도
- 2_ 워크캠프에서 사용할 개인장비와 도구들
- 3_ 맨해튼 다민족 전도사역

- 1_ 선한 사마리아인들의 너싱홈 방문
- 2_ 뉴멕시코 단기사역
- 3_ 담임목사 55회 생일을 기념하며



1_ 목사 총무 위로의 밤 행사
2_ 필리핀 민다나오 단기선교 파송예배
3_ 단기 선교팀을 격려하는 교우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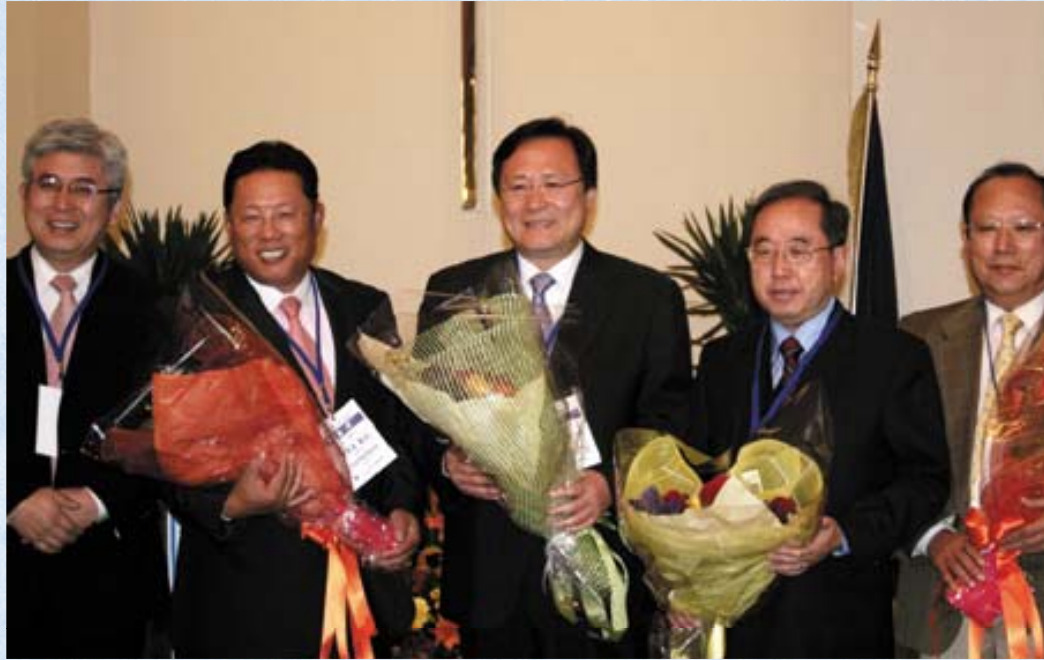
1_ 장학금 모금을 위한 에일 골프대회
2_ 제자훈련 발표회
3_ 신년예배 모습



1_ 연합 찬양대의 성탄절 칸타타
2_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

1_ 권사들이 주관해서 드린 신년
새벽기도회
2_ 예일연합성가대의 밀알선교회 주최
카네기홀 공연

뉴욕 매일장로교회 20주년사



- 1_ 교회협의회 신·구 회장 이·취임
- 2_ 니카라과 마사야 전도대회에서 감사패를 증정 받는 김종훈 담임목사
- 3_ 대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 회장 김종훈 목사·이사장 이주익 장로 취임식



I. 뉴욕 예일장로교회
연혁



뉴욕 예일장로교회 연혁



1993.	3. 3.	김중훈 목사 인도로 남홍우 집사 집에서 장년 12명과 3명 어린이가 첫 수요 성경 공부로 모임
	5. 2.	예배 장소를 칼리지 포인트(College Point)의 세인트폴 성공회 교회(St. Paul's Episcopal Church)로 이전
	5. 23.	창립 예배 및 장로, 안수집사, 권사 취임식 장로 취임: 박순영, 송광수 집사 취임: 우윤석, 김연수, 김현수 권사 취임: 정남순, 김옥순
	5. 30~31.	제1차 예일 전 가족 캠핑(Ox Bow Camp Site)
	6. 20.	선한 사마리아인 주일 시작(매달 1회 실시)
	7. 24~26.	제1차 신앙 수련회(포코노) 강사: 이광선 목사(서울 신일교회) Rev. Elsie Ezzo(유년주일학교 강사)
	9. 14.	제자 훈련(I) 제1기 시작(12주)

	10. 3.	성경 퀴즈대회(제1회)
	10. 31.	라디오 방송 선교 시작(미주 기독교 방송국)
	11. 7.	성경 암송대회(제1회)
	11. 21.	추수감사절 구역 감사 찬양제(제1회)
1994.	1. 2.	국내외 선교지를 10곳으로 확장
	1. 23.	김형석 전도사 유년주일학교 담당 전도사로 부임
	3. 13~16.	제1차 심령 부흥성회 주제: 성령이여, 우리를 새롭게! 강사: 이광선 목사(서울 신일교회)
	3. 18.	제자 훈련(I) 제2기 시작(13주)
	3. 27~4. 3.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4. 17.	선한 사마리아인 주일(봄맞이 대청소)
	5. 1.	가족 찬양대회(제1회)
	5. 12.	효도관광(제1차)
	5. 29.	교협 축구대회 참가(2등 입상)
	7. 3~4.	제2차 예일 전 가족 캠핑 및 여름 신앙 수련회 (Clarence Fahnestock Memorial Camp Site)
	8. 7.	TV 방송 선교 시작(Ch. 53)
	8. 11~14.	제2차 심령 부흥성회 주제: 은혜를 받아야 한다 강사: 이용남 목사(서울 장석교회)
	9. 4.	안종설 전도사 중고등부 학생회 담당 전도사로 부임
	9. 25.	전 교우 체육대회(제1회)
	10. 2.	성경 퀴즈대회(제2회)
	10. 4.	제자 훈련(I) 제3기 시작(13주)
	10. 30.	성경 암송대회(제2회)

	11. 6.	예일 가족 탁구대회(제1회)
	11. 20.	추수감사절 구역 감사 찬양제(제2회)
1995.	1. 1.	국내외 선교지를 13곳으로 확장
	1. 1~2	신년 금식 기도(제1차)
	1. 20~22.	제3차 심령 부흥성회(영적 각성 수련회) 강사: 방지일 목사
	1. 22.	소그룹 구역 성경 공부 시작
	1. 29.	구정 맞이 웃놀이 대회(제1회)
	2. 21.	제자 훈련(I) 제4기 시작(13주)
	4. 4.	미주한인장로회 뉴욕노회 가입
	4. 9~15.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4. 21~23.	제4차 심령 부흥성회(선교 부흥회) 주제: 눈을 열어 깨닫게 하소서! 강사: 허원구 목사(칠레 선교사)
	5. 7.	어린이주일 행사
	5. 13~14.	효도관광(제2차)
	5. 14.	가족 찬양대회(제2회)
	5. 21.	창립 2주년 기념 및 교단 가입 축하 예배
	5. 28.	창립 기념 탁구대회(제2회)
	5. 29.	교협 축구대회 참가(3등 입상)
	6. 11.	성경 암송대회(제3회)
	7. 2.	교회지 <예수마을> 창간
	7. 2~4	제3차 예일 전 가족 캠핑 여름 신앙 수련회 (Mountain Lake Camp) 주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요나서 강해) 강사: 김종훈 목사

	9. 10.	성경 퀴즈대회(제3회)
	9. 21.	제자 훈련(I) 제5기 시작(13주)
	10. 15.	찬송가 외워 부르기 대회(제1회)
	11. 3~5.	제5차 심령 부흥성회 강사: 황의춘 목사(트렌톤 한인장로교회)
	11. 19.	추수감사절 구역 감사 찬양제(제3회)
1996.	1. 1~2	신년 금식 기도(제2차)
	1. 7.	국내외 선교지를 16곳으로 확장
	1. 11~26.	제1차 단기선교(칠레) 참가자: 김종훈 목사, 김연수 집사, 이수일 집사, 김원태, 김성인, 김성원 (총 6명)
	1. 14.	제직 세미나
	1. 27~28.	제직 수련회(강사: 황의춘 목사)
	2. 4.	이덕재 전도사 청년부 담당 전도사로 부임
	2. 18.	구정 맞이 웃놀이 대회(제2회)
	3. 7.	제자 훈련(I) 제6기 시작(13주)
	4. 7.	부활절 총동원 주일
	4. 21.	선한 사마리아인 주일(봄맞이 대청소)
	4. 26~28.	제6차 심령 부흥성회 강사: 조석규 목사(광명시 남광교회)
	5. 12.	가족 찬양대회(제3회)
	5. 13~15.	효도관광(제3차)
	6. 1~2	가정 세미나 강사: 원효식 목사(서울 북가좌제일교회)
	6. 9.	창립 기념 탁구대회(제3회)
	6. 16.	성경 암송대회(제4회)

	7. 3~4	제4차 여름 신앙 수련회(포코노) 강사: 신명동 목사(뉴저지 한민교회)
	8. 11.	1일 영적 대각성 집회 강사: 이광선 목사(서울 신일교회)
	8. 18.	전 교우 체육대회(제2회)
	9. 15.	성경 퀴즈대회(제4회)
	9. 19.	제자 훈련(I) 제7기 시작(13주)
	9. 22.	김형석 전도사 사임
	10. 6.	Ch.17(TV 방송 변경)로 방송 설교 시작
	10. 20.	찬송가 외워 부르기 대회(제2회)
	11. 24.	추수감사절 구역 감사 찬양제(제4회)
1997.	1. 5.	국내외 선교지를 20곳으로 확장 제직 세미나(I)
	1. 12.	제직 세미나(III)
	2. 2.	구정 맞이 웃놀이 대회(제3회)
	2. 16.	성경 스피드 퀴즈대회(제1회) 사순절 새벽 기도회 시작
	3. 2.	한글학교 개학
	3. 4.	제자 훈련(I) 제8기 시작(13주)
	3. 6.	제자 훈련(II) 제1기 시작(13주)
	3. 16.	자녀교육 세미나(도르가 여선교회 주최) 주제: 자녀의 신체적, 정신적, 영적 발달과 부모의 뒷받침 강사: 안영희 박사
	4. 6.	선한 사마리아인 주일(봄맞이 대청소)
	4. 20.	창립 기념 탁구대회(제4회)
	5. 11.	가족 찬양대회(제4회)

	5. 22~25.	제7차 심령 부흥성회(창립 4주년 기념 부흥회) 주제: 은혜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합시다! 강사: 설삼용 목사
	5. 25.	창립 4주년 기념예배 조귀엽, 차정희 명예권사 취임
	6. 2~4	효도관광(제4차)
	6. 15.	성경 암송대회(제5회)
	6. 22.	선한 사마리아인 주일(노방전도)
	7. 20.	시와 찬미의 밤(제1회)
	8. 3.	김용일 목사 교육목사로 부임
	8. 17.	전 교우 체육대회(제3회)
	8. 31.	이덕재 전도사 사임
	9. 28.	성경 퀴즈대회(제5회)
	9. 29.	제자 훈련(I) 제9기 시작(13주)
	9. 30.	제자 훈련(II) 제2기 시작(13주)
	10. 16~18.	제8차 심령 부흥성회(영적 각성 전도 집회) 주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행 16:25~34) 강사: 호성기 목사(필라델피아 안디옥교회)
	10. 26.	찬송가 외워 부르기 대회(제3회)
	10. 27~12. 5.	성전을 위한 40일 릴레이 금식 기도 시작
	11. 16~23.	감사절 특별 새벽 기도회
	11. 23.	추수감사절 구역 감사 찬양제(제5회) 한순규 전도사 유년주일학교 담당 전도사로 부임
1998.	1. 2~3.	신년 금식 기도(제3차)
	1. 4.	국내외 선교지를 24곳으로 확장
	1. 19.	교회와 성전을 위한 40일 릴레이 금식 기도 시작

- 1. 25. 구정 맞이 웃놀이 대회(제4회)
- 2. 1. 예배 장소를 베이사이드(Bayside)의 오클랜드 주이시 센터(Oak-land Jewish Center)로 이전
- 2. 16. 제자 훈련(I) 제10기 시작(13주)
- 2. 17. 제자 훈련(II) 제3기 시작(13주)
- 2. 22. 성경 스피드 퀴즈대회(제2회)
- 3. 1. 사순절 새벽 기도 시작
- 3. 15~18. 제9차 심령 부흥성회(성전 이전 기념 부흥성회)
주제: 의미 있는 인생을 열라
강사: 호성기 목사(필라델피아 안디옥교회)
- 4. 12. 부활절 총동원 주일
- 4. 26. 김용일 목사 사임
창립 기념 탁구대회(제5회)
- 5. 3. 변창욱 목사 청년부 담당 교육목사로 부임
- 5. 10. 가족 찬양대회(제5회)
- 5. 17. 자녀 교육 세미나(강사: 이상원 박사)
주제: 사춘기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 5. 24. 창립 5주년 기념 예배 및 임직식
장로 취임: 윤희주
장로 장립: 김연수
집사 취임: 함영호, 이백우, 이득배, 이수일
집사 안수: 김종호
권사 임직: 한양숙, 곽영란, 방영희
- 6. 8~10. 효도관광(제5차)
- 6. 14. 성경 암송대회(제6회)
- 6. 21. 선한 사마리아인 주일(노방전도)

- 7. 4. 전 교우 가족 야외 예배(F.D. Roosevelt State Park)
- 9. 13. 전 교우 체육대회(제4회)
- 9. 27. 찬송가 외워 부르기 대회(제4회)
- 9. 29. 제자 훈련(I) 제11기 시작(13주)
- 10. 4. 시와 찬미의 밤(제2회)
- 10. 25. 성경 퀴즈대회(제6회)
- 10. 26~29. 제10차 심령 부흥성회
강사: 손인화 목사(버지니아 장로교회)
- 11. 15. 감사절 특별 새벽 기도회 시작
- 11. 22. 추수감사절 구역 감사 찬양제(제6회)
- 1999. 1. 1~2. 신년 금식 기도(제4차: 라마나웃 기도원)
- 1. 3. 국내외 선교지를 28곳으로 확장
- 1. 10. 제직 수련회 I
- 1. 17. 제직 수련회 II
- 1. 24. 제직 수련회 III
- 1. 31. 제직 수련회 IV
- 2. 14. 구정 맞이 웃놀이 대회(제5회)
- 2. 17. 사순절 릴레이 금식 기도 시작
- 2. 28. 건강 정보 세미나(일반 건강 상식과 메디케이션)
강사: 권철훈 교수(St. John's Univ. 약대), 이수일 집사
- 3. 7. 성경 스피드 퀴즈대회(제3회)
- 3. 16. 제자 훈련(I) 제12기 시작(13주)
- 3. 18. 제자 훈련(II) 제4기 시작(13주)
- 4. 4~6. 교육 여행(제1차)
워싱턴
- 4. 11. 자녀 교육 세미나

주제: 유대인의 자녀 교육
 강사: Michael Erlich(Rabbi of Oakland Jewish Center)

5. 9. 가족 찬양대회(제6회)
 5. 16. 창립 기념 탁구대회(제6회)
 6. 6. 성경 암송대회(제7회)
 6. 7~9. 효도관광(제6차)
 6. 14~17. 제11차 심령 부흥성회
 주제: 성령의 신선한 기름 부음
 강사: 이근호 목사(남가주 헬로쉽 교회)

6. 25. 노방 전도
 7. 3~5. 제5차 전 교우 여름 신앙 수련회(포레스트힐 수양관)
 주제: 십자가 있는 삶
 강사: 김종훈 목사

7. 11. 영어 예배 시작(담당: 안종설 전도사)
 8. 8. 시와 찬미의 밤(제3회)
 9. 12. 전 교우 체육대회(제5회)
 9. 19. 찬송가 외워 부르기 대회(제5회)
 9. 21. 제자 훈련(I) 제13기 시작(13주)
 9. 23. 제자 훈련(II) 제5기 시작(13주)
 9. 26. 케이블 TV(Ch. 76) “예일의 시간” 방송 설교 시작
 10. 24. 성경 퀴즈대회(제7회)
 11. 15~21.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 기도회
 11. 17. 시와 찬미의 밤(제3회)
 11. 21. 추수감사절 구역 감사 찬양제(제7회)
 11. 28~12. 2. 제12차 심령 부흥성회
 주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엡 5:18)

강사: 김찬중 목사(과천교회)

12. 17~1. 3. 송구영신 새벽 부흥회
 주제: 복된 삶을 누리는 7가지 영적 원리
 강사: 김종훈 목사

2000. 1. 1. 김인선 전도사 음악 전도사로 부임
 1. 2. 국내외 선교지를 31곳으로 확장
 제직 수련회 I
 1. 9. 제직 수련회 II
 강사: 황의춘 목사(뉴저지 트렌톤 한인장로교회)

1. 30. 구정 맞이 웃놀이 대회(제6회)
 2. 8~10. 제13차 심령 부흥성회(신앙 간증 전도 집회)
 주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 8:32)
 강사: 박효진 장로(서울 명문교회)

2. 13. 성경 스피드 퀴즈대회(제4회)
 2. 17. 노방 전도
 3. 8. 사순절 릴레이 금식 기도 시작(40일)
 3. 12.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시작
 3. 14. 제자 훈련(I) 제14기 시작(13주)
 3. 16. 제자 훈련(II) 제6기 시작(13주)
 4. 23. 부활절 총동원 주일
 4. 25. 교육 여행(제2차)
 펜실베이니아 주 랭커스터 성막, 아미쉬 타운, 리빙워터 극장
 <Abraham & Sarah A Journey of Love> 관람

5. 14. 가족 찬양대회(제7회)
 5. 21. 창립 7주년 기념 예배
 5. 22~24. 효도관광(제7차)

5. 29.	교협 체육대회 참가(여학생부 배구 준우승)
6. 4.	창립 기념 탁구대회(제7회)
6. 11.	성경 암송대회(제8회)
6. 25.	노방 전도
7. 2.	정은숙 전도사 중등부 전도사로 부임
7. 2~4.	제6차 전 교우 여름 신앙 수련회(포코노) 주제: 하나님의 나라 강사: 김종훈 목사(장년), 조유경 사모(유년부), 정은숙 전도사/Thomas Job(중고등부)
8. 16~30.	제2차 단기선교(케냐) 참가자: 김종훈 목사, 안종설 전도사, 성명구 전도사, 한대영 장로, 김옥순 권사, 김현수 집사, 지재홍 집사, 박아담, 김보람, 이효진, 김윤희, 김디모데, 유명근, 정지혜, 김정철, 한경민, 권순천, 김조나 단, 이호빈 (총 19명)
9. 10.	전 교우 체육대회(제6회)
9. 17.	찬송가 외워 부르기 대회(제6회)
9. 26.	제자 훈련(I) 제15기 시작(13주)
10. 1.	전 교우 여름 체육대회(제6회)
10. 19.	제자 훈련(II) 제7기 시작(13주)
10. 22.	성경 퀴즈대회(제8회)
10. 23~26.	제14차 심령 부흥성회 주제: 성령으로 변화된 삶 강사: 이근호 목사(남가주 헬로쉽 교회)
10. 29.	추수감사절 삼이레 릴레이 금식 기도(3주간) 및 특별 새벽 기도회 시작
11. 19.	추수감사절 구역 감사 찬양제(제8회)

	12. 3.	시와 찬미의 밤(제4회: 중고등부)
2001.	1. 1~2.	신년 금식 기도(제5차: 포코노)
	1. 7.	국내외 선교지를 35곳으로 확장 유아부 신설(2~4세) 제직 수련회 I
	1. 14.	제직 수련회 II
	1. 21.	구정 맞이 윗놀이 대회(제7회)
	2. 4.	BOOM Service(제1회) 말씀: 하나님의 사랑(요 3:16) 드라마: 왜 날 사랑하나?
	2. 11.	성경 스피드 퀴즈대회(제5회)
	2. 22.	제자 훈련 202 신설(총 33주) 시작
	2. 25.	노방 전도
	2. 28.	사순절 릴레이 금식 기도 및 특별 새벽 기도회 시작
	3. 4.	BOOM Service(제2회) 말씀: 지금도 못 박는 소리가 들립니까?(막 15:16~17) 드라마: 녹슨 세 개의 못
	3. 6.	제자 훈련(I)을 제자 훈련 101로 이름 변경하여 제16기 시작(16주)
	3. 25.	노방 전도
	4. 1.	BOOM Service(제3회) 말씀: 메시아의 고난(사 53:5~6) 드라마: 구원받은 강도
	4. 10.	교육 여행(제3차) 펜실베이니아 주 랭커스터 밀레니엄 극장 〈Behold the Lamb〉 관람
	4. 15.	부활절 총동원 주일

- 4. 22. 어린이 야구단(King's Kid) 발족
- 5. 13. 가족 찬양대회(제8회)
- 5. 20. 창립 8주년 기념 예배
- 5. 28. 교협 체육대회 참가(여학생부 배구 3위 입상)
- 6. 3. BOOM Service(제4회)
말씀: 전도합시다(눅 16:19~31)
드라마: 천국과 지옥
찬양 세미나
강사: 김일환 목사(기독교 찬양 신학장)
- 6. 4~6. 효도관광(제8차)
- 6. 10. 성경 암송대회(제9회)
- 6. 18~21. 전도 훈련 세미나
강사: 조복섭 사모(LA 실로암 장로교회)
- 7. 1~4. 제7차 전 교우 여름 신앙 수련회(포코노)
주제: 내 영의 눈을 열어 주소서
강사: 김종훈 목사(장년), 김 영 사모(유아부), 한순규/최호섭 전도사(유년부), 정은숙 전도사/Terry Cobban(중고등부)
- 7. 8. 창립 기념 탁구대회(제8회)
- 8. 5. 교사 예배 시작
- 8. 5~17. 제3차 단기선교(중국 연변 희망의 집)
주제: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사 40:1)
참가자: 김종훈 목사, 조유경 사모, 김연수 장로, 윤희주 장로, 한대영 장로, 김옥순 권사, 지재홍 집사 (총 7명)
- 9. 16. 전 교우 체육대회(제7회)
- 9. 23. 찬송가 외워 부르기 대회(제7회)
- 10. 7. BOOM Service(제5회)

- 말씀: 사랑의 복음(눅 15:11~24)
- 드라마: 돌아온 아들
- 10. 21. 성경 퀴즈대회(제9회)
안중설 전도사 목사 안수
- 10. 28. 안중설 목사 사임
- 10. 29. 추수감사절 삼이레 릴레이 금식기도 및 특별 새벽 기도회 시작
- 11. 5~8. 제15차 심령 부흥성회
주제: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
강사: 이용걸 목사(필라델피아 영생교회)
- 11. 18. 추수감사절 구역 감사 찬양제(제9회)
김은주 전도사 EM 담당으로 부임
- 2002. 1. 1~2. 신년 금식 기도(제6차: 라마나웃 기도원)
- 1. 6. 국내외 선교지를 37곳으로 확장
제직 수련회 I
- 1. 13. 제직 수련회 II
강사: 김정국 목사(한민교회)
- 2. 3. BOOM Service(제6회)
말씀: 이 마음을 품으라(빌 2:1~11)
드라마: 설날 이야기
- 2. 10. 구정 맞이 율놀이 대회(제8회)
- 2. 13. 사순절 릴레이 금식 기도 시작(40일)
- 2. 17. 성경 스피드 퀴즈대회(제6회)
- 2. 24. 시와 찬미의 밤(제5회: 중고등부)
- 2. 29. 제자 훈련 101 제17기 시작(13주)
- 3. 31. BOOM Service(제7회) - 부활절 태신자 초청 잔치
말씀: 명든 가슴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요 4:7~26)

4. 2. 드라마: 호테니우스
교육 여행(제4차)
펜실베이니아 주 랭커스터 밀레니엄 극장
〈Daniel〉 관람

4. 9~11. 제16차 심령 부흥성회(신앙간증 집회)
강사: 황수관 박사

5. 12. 가족 찬양대회(제9회)

5. 19. 창립 9주년 기념 예배 및 임직식
장로 취임: 한대영
장로 장립: 김현수
집사 취임: 한기하, 지재홍, 유학준
집사 안수: 남홍우, 한상근
권사 취임: 김은숙, 라은숙, 노영실, 이영희

5. 27~30. 제17차 심령 부흥성회
주제: 내게 주신 은혜
강사: 곽선희 목사(서울 소망교회)

6. 2. BOOM Service(제8회)
말씀: 네 가지 좋은 교회(행 2:42~47)
드라마: 참 좋은 교회

6. 6~8. 효도관광(제9차)

6. 9. 성경 암송대회(제10회)

6. 16. 노방 전도

7. 1~10. 제4차 단기선교(니카라과)
참가자: 김종훈 목사, 정은숙 전도사, 한순규 전도사, 한대영 장로,
윤희주 장로, 정건수 집사, 지재홍 집사, 유명근, 안희재, 지은혜,
이호빈, 박영준, 김경훈, 성기호, 유은혜, 정준원, 문승리, 박슬기(어

른 7명, 학생 11명)와 중부교회 이선애 권사, 이종원 집사(소아과 의
사 2명)
예일교회 선교 팀에 합류 총 20명

7. 14. 창립 기념 탁구대회(제9회)

8. 4. BOOM Service(제9회)
말씀: 한 알의 밀(요 12:24~26)
드라마: 하늘 가는 밝은 길이

8. 25~27. 제8차 전 교우 여름 신앙 수련회(포코노)
주제: 주여 나를 품어 주소서
강사: 김종훈 목사(장년), 김 영 사모(유치부), 최 영 전도사(유년
부), 정은숙 전도사(중고등부)

9. 15. 찬송가 외워 부르기 대회(제8회)

9. 17. 제자 훈련 101 제18기 시작(13주)

9. 22. 전 교우 체육대회(제8회)

10. 14~18. 제18차 심령 부흥성회
주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강사: 한명수 목사(수원 창훈대교회)

10. 20. 성경 퀴즈대회(제10회)

11. 3. 추수감사절 삼이레 릴레이 금식 기도 시작
(감사절 새벽 기도 및 태신자 기도)
김인선 전도사 사임

11. 10. BOOM Service(제10회)
말씀: 십자가의 길(요 12:24~26)
드라마: 뭐이 어드레

11. 24. 김윤배 목사 교육목사로 부임
추수감사절 구역 감사 찬양제(제10회)

2003.	11. 29.	교육 여행(제5차) 펜실베이니아 주 랭커스터 밀레니엄 극장 〈Miracle of Christmas〉 관람
	12. 31.	변창욱 목사 사임
	1. 1	예배를 1부(오전 9:30), 2부(오전 11:00)로 개편 1부와 어린이 성가대 지휘자: 김용경 집사 임명 2부 성가대 지휘자: 이다윗 집사 임명
	1. 1~2	신년 금식 기도(제7차: 라마나웃 기도원)
	1. 5.	국내외 선교지 41곳으로 확장 제작 수련회 I
	1. 19	제작 수련회 II 강사: 림형천 목사(롱아일랜드 아름다운교회)
	1. 26.	구정 맞이 웃놀이 대회(제9회)
	2. 16.	성경 스피드 퀴즈대회(제7회)
	2. 23.	시와 찬미의 밤(제6회: 중고등부)
	3. 2	BOOM Service(제11회) 창립 10주년 기념 신구약 66권 필사 운동
	3. 4	제자 훈련 101 제19기 시작(13주)
	3. 4~4. 15.	사순절 릴레이 금식 기도 및 특별 새벽 서원 기도
	3. 30.	선한 사마리아인 주일(노방전도)
	4. 6.	창립 10주년 기념 CD 녹음
	4. 20.	BOOM Service(제12회): 부활절 새 생명 축제
	4. 22.	교육 여행(제6차): 플리머스
	4. 26.	학생회 프린스턴 배구대회
	4. 29~5. 1.	니카라과 선교지 방문 (마사야 제일장로교회 헌당식: 김종훈 목사, 한대영 장로, 박인호)

		집사)
5. 4.		창립 10주년 기념 어린이 축제
5. 11.		창립 10주년 기념 청소년 축제 강사: 박반석 목사
5. 18		창립 10주년 기념 주일 말씀: Rev. Dr. Samuel H. Moffett(프린스턴 신학교 명예교수) 위임식과 임직식 위임식: 김종훈 목사 집사 취임: 박선동, 손상근, 이주익, 박인호 집사 안수: 한민구, 박명호, 이영수, 정수영 권사 취임: 여승희, 홍길자, 양경남 권사 임직: 김영자, 구숙자, 정태인, 임명순, 김용신 홈페이지 오픈: www.yalechurch.org 《뉴욕 예일장로교회 10주년사》 발행 김종훈 목사 설교집 발행
5. 26~29.		제19차 심령 부흥성회(창립 10주년 기념) 강사: 이용걸 목사(필라델피아 영생교회) 교협 체육대회 참가(여학생부 배구 2위 입상)
6. 3~5.		효도관광(제10차): Finger Lake
6. 15.		창립 10주년 기념 메시아 공연
6. 22.		노방 전도
6. 29.		BOOM Service(제13회) 창립 10주년 기념 드라마: 고백
6. 30~7. 10.		제5차 단기선교(볼리비아) 참가자: 김종훈, 정은숙, 한대영, 박인호, 박재우, 김근혜, 옥치진, 정수영, 안선애(이선애), 윤희주, 지재홍, 이경옥, 김미향, 김연수,

권철훈, 홍길자, 박연지(이연지), 안데이빗, 박슬기, 이제프, 유알빈, 지그레이스, 정피터, 박잔, 이호빈, 박피터, 권제니퍼, 유에스터, 문엘리야, 윤에스터

7. 6. 김윤배 목사 부목사로 사역

7. 13. 가족 찬양제(제10회)

7. 20~26. 학생회 Work Camp(Finger Lake)

8. 3. 성경 암송대회(제11회)

학부모 세미나

강사: Flushing YWCA

주제: 미국 공립학교의 불법 퇴학과 이중 언어 서비스 제도에 대한 합법적인 보호

8. 24~26. 제9차 전 교우 여름 신앙 수련회(뉴저지 크리스천 아카데미)

9. 7. 하선영 전도사 유년주일학교 담당 전도사로 부임

9. 8~9. 김복남 전도사 초청 간증집회(연세대학교 병원 원목)

9. 15~16. 제29회 뉴욕노회에서 김종훈 목사 노회장으로 피선

9. 16~12. 16. 제자 훈련 101 제20기 시작(13주)

9. 17. 미국 복음주의 교회 성경 프로그램

AWANA 세미나

9. 18~12. 18. 제자 훈련 201 제2기 시작(13주)

9. 21. 찬송가 외워 부르기 대회(제9회)

9. 28. 전 교우 체육대회(제9회): 알리폰드(AlleyPond) 파크

10. 1. 유년주일학교 AWANA 시작

10. 5. BOOM Service(제14회)

최명자 사모 초청 간증과 찬양 집회

10. 26. 성경 퀴즈대회(제11회)

11. 2~22. 추수감사절 삼이레 릴레이 금식 기도 및 새벽 기도

주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11. 10~13. 제20차 심령 부흥성회

강사: 박성규 목사(타코마 중앙장로교회)

주제: 주여! 이 땅과 교회에 부흥을 주소서!

11. 16. 하선영 전도사 사임

11. 23. 추수감사절 구역 감사 찬양제(제11회)

12. 14. BOOM Service(제15회)

<예수 마을> 6호 발간(창립 10주년 기념호)

12. 26. 교구장, 구역장, 총무 위로의 밤

12. 27~1. 1. EM Urbana Mission Conference 참석

12. 28~31. 학생회 겨울 신앙 수련회(티스카로라 수양관)

2004. 1. 1~2. 신년 금식 기도(제8차: 워러젯 수양관)

1. 4. 국내외 선교지 48곳으로 확장

1. 18. 제직 수련회

구정 맞이 옷놀이 대회 및 제기차기 대회(제10회)

1. 26~28. 김기홍 장로 초청 간증집회

2. 2~11. 제6차 단기선교(인도)

2. 15~16. 유년주일학교 겨울 신앙수련회(라마나웃 기도원)

2. 22. Praise Night(학생회)

2. 25~4. 10. 사순절 릴레이 금식 기도 및 새벽 서원 기도

2. 29. 성경 스피드 퀴즈대회(제8회)

3. 7. BOOM Service(제16회)

3. 8~11. 제21차 심령 부흥성회

강사: 이석환 목사(토론토 영락교회)

주제: 새 역사 창조를 위하여

3. 28. 노방 전도

- 3. 30~6. 22. 제자 훈련 101 제21기 시작(13주)
- 4. 1~6. 24. 제자 훈련 201 제3기 시작(13주)
- 4. 11. BOOM Service(제17회)
- 5. 8. 가족 찬양제(제11회)
- 5. 23. 창립 11주년 기념 예배
- 5. 31. 교협 체육대회 참가
- 6. 6. 박에스터 전도사 유년부 담당 전도사로 부임
- 6. 10~12. 효도관광(제11차): 뉴햄프셔 워싱턴 마운틴
- 6. 20. 노방 전도
- 6. 29. 교육 여행(제7차)
펜실베이니아 주 랭커스터 밀레니엄 극장
<노아> 관람
- 7. 6~15. 제7차 단기선교(볼리비아)
참가자: 김종훈, 정은숙, 송광수, 정수영, 김근혜, 옥치진, 지재홍,
김미향, 윤희주, 박재우, 홍길자, 안선애, 한대영, 권철훈, 이경옥,
문엘리아, 고미첼, 권제니퍼, 유제임스, 박슬기, 정크리스, 박데이빗,
박잔, 유에스터, 이에스터, 권데니엘, 유알빈, 지그레이스, 운에스터,
강맥스
- 7. 11. 뉴욕노회 여선교회연합회 주관 간증 집회
강사: 정정숙 박사(가정생활 교회 교육 세미나 강사)
- 7. 18. 효도 경로 잔치
- 7. 25~31. 학생회 Work Camp
- 8. 1. 성경 암송대회(제12회)
- 8. 29~31. 제10차 전 교우 여름 신앙 수련회(뉴저지 크리스천 아카데미)
주제: 모든 해답은 하나님께 있다
- 9. 19. 찬송가 외워 부르기 대회(제10회)

- 9. 21~12. 21. 제자 훈련 101 제22기 시작(13주)
- 9. 23~12. 23. 제자 훈련 201 제4기 시작(13주)
- 9. 26. 전 교우 체육대회(제10회)
- 10. 17. 성경 퀴즈대회(제12회)
- 11. 1~20. 추수감사절 세이레 릴레이 금식 기도
- 11. 7. BOOM Service(제18회)
제18회 연합 찬양제(뉴욕노회 여선교회 주관)
- 11. 8~13. 감사절 십자가 새벽 기도
주제: 십자가
- 11. 15~18. 제22차 심령 부흥성회
강사: 신승훈 목사(LA 주님의영광교회)
주제: 이 땅과 교회에 부흥을 주소서!
- 11. 21. 추수감사절 구역 감사 찬양제(제12회)
- 12. 19. <예수 마을> 7호 발간
- 12. 26. 한순규 전도사 사임
- 12. 27~30. 학생회 겨울 신앙 수련회(터스카로라 수양관)
- 12. 28. 교구장, 구역장, 총무 위로의 밤
- 2005. 1. 2~3. 신년 금식 기도(제9차: 라마나웃 기도원)
- 1. 2. 국내외 선교지 49곳으로 확장
신년 청지기 수련회 I
- 1. 9. 신년 청지기 수련회 II
- 1. 28. 목장 모임 시작(23개 목장)
- 2. 1. 희스빌 새 성전 예배 시작
1부 예배 오전 9:00, 찬양 예배 오후 1:30
- 2. 6. 새 성전 입당 축하 구정 맞이 율놀이 대회(제11회)
- 2. 9~3. 26. 사순절 릴레이 금식 기도 및 새벽 기도

주제: 목적이 이끄는 40일 캠페인

2. 20. 제직 수련회
강사: 이종안 목사(뉴저지연합장로교회)

2. 27. 성경 스피드 퀴즈대회(제9회)

3. 1~5. 31. 제자 훈련 101 제23기 시작(13주)

3. 3~6. 2. 제자 훈련 201 제5기 시작(13주)

3. 27. BOOM Service(제19회)

3. 31~4. 7. 제8차 단기선교(러시아 세르프홉스카야 지교회 개척)
참가자: 김종훈, 김현수, 한대영, 이영희, 한기하, 홍길자, 김영자, 김옥순

4. 25~27. 제1회 봄성경학교 시작
주제: Kids Go Wild for Kingdom of Son

4. 30. Praise Night(학생회)

5. 1. Community Open House

5. 8. 가족 찬양제(제12회)

5. 23~25. 효도관광(제12차) : Lake George

5. 29. 창립 12주년 기념 예배 및 새 성전 이전 감사 예배

5. 30. 교협 체육대회 참가(학생부 배구 남자 2위, 여자 3위 입상)

6. 4. 바자회(제1회) : 단기선교와 교회 증축 기금 마련

6. 13~16. 제24차 심령 부흥성회(새 성전 이전 감사)
강사: 이종안 목사(뉴저지연합장로교회)

6. 27~29. 청년부 코스타 참석(인디애나)

6. 30. 교육 여행(제8차)
펜실베이니아 주 랭커스터 밀레니엄 극장
<룻> 관람

7. 3~9. 학생회 Work Camp

7. 5~8. 19. 제1회 예일여름학교 Disciple Land 시작

7. 18~27. 제9차 단기선교(니카라과)
참가자: 김종훈, 정은숙, 김연수, 김종호, 박승재, 김옥순, 김춘경, 이경옥, 이정우, 김미향, 윤희주, 김근혜, 조영숙, 지재홍, 서현숙, 이민우, 권성희, 이제프, 박데이빗, 박인주, 유에스더, 박잔, 장폴, 이쵸셉, 문엘리야, 하제임스, 이셋별, 박인용, 유알빈, 구한나, 박조이, 이데니엘

8. 5~6. EM 여름 신앙수련회(Olmsted Retreat Center)

8. 21. 성경 암송대회(제13회)

8. 24. 바나바 사역 훈련 4주

8. 28~31. 제11차 전 교우 여름 신앙 수련회(뉴저지 크리스천 아카데미)
주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라

9. 18. 찬송가 외워 부르기 대회(제11회)
효도 경로 잔치

9. 20~12. 20. 제자 훈련 101 제24기 시작(13주)

9. 22~12. 15. 제자 훈련 201 제6기 시작(13주)

9. 25. 찬양대 찬양 세미나

10. 2. 전 교우 체육대회(제11회) : Bethpage Park

10. 16. 성경 퀴즈대회(제13회)

10. 17~19. 제25차 김수웅 장로 초청 성령 축제
주제: 성령과 꿈

10. 23. 자녀 교육 세미나
강사: Sam Kim
주제: 학자금 용자와 대학 진학 안내

10. 31~11. 19. 추수감사절 삼이레 릴레이 금식 기도

11. 6. 연합 성가제(뉴욕노회 여성교회연합회 주관)

	11. 20.	목장 연합 감사 찬양제(제1회)
	12. 11.	새 가족 성경 공부(5주) 제1기 수료
	12. 25.	박순영 장로 시무장으로 은퇴
	12. 27.	목자, 총무 위로의 밤
2006.	1. 1~2	신년 금식 기도(제10차: 라마나웃 기도원) 찬양 예배 시간을 2시 30분으로 변경 최근선 전도사 심방 전도사로 부임 국내외 선교지를 51 곳으로 확장
	1. 3~7.	새해 첫 주 특별 새벽 기도회 주제: 영이 살아야 내가 산다
	1. 8.	청지기 수련회 I
	1. 15.	청지기 수련회 II 새 가족 성경 공부(5주) 제2기
	1. 22.	자녀 교육 세미나
	1. 29.	구정 맞이 웃놀이 대회(제12회)
	2. 8~9.	한동대 김영길 총장, 김영애 권사 초청 간증 집회
	2. 12.	<예수 마을> 8호 발간 1부 글로리아 찬양대 지휘자로 박성하 집사 임명
	2. 19.	성경 스피드 퀴즈대회(제10회)
	2. 19~20.	유년주일학교 겨울 신앙 수련회
	2. 25.	Praise Night(학생회)
	2. 26.	새 가족 성경 공부(5주) 제3기
	3. 1~4. 15	사순절 릴레이 금식 기도 및 새벽 기도
	3. 2.	커뮤니티 봉사 프로그램 시작 (Mommy & Me, 실버클럽, 뉴욕 예일한국학교)
	3. 20~22.	제26차 심령 부흥성회

		강사: 정영환 목사(서울 청운교회) 주제: 믿음의 사람들
	3. 28~6. 27.	제자 훈련 101 제25기 시작(13주) 화요 성경 공부 제1기 평신도 조직 신학(13주) 부부의 삶(13주)
	3. 30~6. 29.	제자 훈련 201 제7기 시작(13주)
	4. 2.	전도 사역부 주관 전도 간증집회 강사: 박차숙 전도사(순복음 뉴욕교회) 이다윗 집사 2부 찬양대 지휘자 사임 김인선 전도사 2부 찬양대 지휘자로 부임
	4. 16.	Boom Service(제20회) L.I. 낫소 지역 새벽 연합 예배
	4. 17~19.	제2회 봄성경학교
	4. 25~5. 5.	성지 순례 I(터키)
	5. 14.	가족 찬양제(제13회)
	5. 21.	창립 13주년 기념 예배 및 임직식 장로 취임: 옥치진 장로 장립: 한기하 집사 취임: 이다윗
	5. 25~27.	효도관광(제13차): Vermont
	5. 28.	제1회 예일 부부 세미나 강사: 김종훈 목사, 조유경 사모 주제: 건강한 부부, 가정, 교회 새 가족 성경 공부(5주) 제4기
	5. 29.	교협 체육대회 참가(학생부 배구 우승, 장년부 배구 3위 입상)
	6. 4.	김송기 전도사 유치부 전도사로 부임

- 6. 11. 성경 암송대회(제14회)
- 6. 17. 바자회(제2회) : 단기선교 및 증축 기금 마련
- 6. 24. 국제장애인선교회 초청 예배
- 7. 2~4. 제12차 전 교우 여름 신앙 수련회(뉴저지 크리스천 아카데미)
주제: 십자가를 통한 변화
- 7. 5~8. 18. 제2회 예일여름학교 Disciple Land
- 7. 16~8. 13. 새 가족 만남(5주) 제5기
- 7. 23. 제1회 자체 성전 감사 탁구대회
IMMTV 기획 “교회 탐방” 본 교회 촬영
- 7. 30~8. 5. 학생회 Work Camp
- 8. 6. 효도 경로잔치
- 8. 11~12. EM 여름 신앙수련회(Olmsted Retreat Center)
- 8. 14~22. 제10차 단기선교(필리핀)
참가자: 김종훈, 정은숙, 박중기, 김미향, 지재홍, 권철훈, 오현섭,
김영자, 김옥순, 박성우, 권미정, 정피터, 구한나, 이캔디스, 이테니
엘, 김보영, 정크리스, 변잔, 홍제시카, 조마이클, 남에스터, 문엘리
야, 하제임스, 박인용, 장미셀, 홍데이빗, 장폴, 이앤드류, 권리차드,
박인주, 박성현, 권예나, 유알빈, 김효수아, 박마크, 박조셉, 지에스
더, 김프리실라
- 9. 10. 새 가족 만남(5주) 제6기
- 9. 14~12. 21. 제자 훈련 201 제8기 시작(13주)
- 9. 17. 찬송가 외워 부르기 대회(제12회)
도서실 오픈
- 9. 19~12. 19. 제자 훈련 101 제26기 시작(13주)
- 9. 24. 전 교우 체육대회(제12회) : Bethpage Park
- 9. 30. 자녀 교육 세미나(Syosset 한인 학부모회 주관)

- 강사: Mr. Jeffrey Kasper, 제임스 표
주제: 미국 사회에서의 학부모의 역할, 대학 진학 상담
- 10. 9. 교육 여행(제9차)
펜실베이니아 주 랭커스터 리빙위터 극장
〈Psalms of David〉 관람
- 10. 16~18. 제27차 성령 축제
강사: 이근호 목사
주제: 잃어버린 땅을 회복하라
- 10. 22. 성경 퀴즈대회(제14회)
- 10. 29~11. 18. 추수감사절 삼이레 릴레이 금식 기도 및 새벽 기도
주제: 은혜
- 11. 5. 뉴욕노회 찬양제(뉴욕노회 여성교회연합회 주관)
- 11. 12. 새 가족 만남(5주) 제7기
- 11. 19. 목장 연합 감사 찬양제(제2회)
- 11. 26. 뉴욕노회 선교대회(중남미 단기선교)
- 12. 10. QT 세미나
강사: 박동희 선교사(Global Mission Pioneers, 코스타 강사)
- 12. 24. BOOM Service(제2회)
〈예수 마을〉 9호 발간
- 2007. 1. 1~2. 신년 금식 기도(제11차: 라마나웃 기도원)
국내외 선교지를 52곳으로 확장
김연수 전도사 선교 전도사로 임명
- 1. 7. 제직 수련회
- 1. 10. 제자 훈련 301 수요 성경 일독 학교(20주)
- 1. 14. 새 가족 만남(5주) 제8기
- 1. 18. 증축을 위한 공청회

- 1. 21. 뉴욕노회 신년 하례 예배 및 연합 제직 수련회
- 1. 22~24. 제28차 신년 축복 성회 내적 치유집회
강사: 선우권 목사(수지 제자교회)
- 2. 18. 구정 맛이 옷놀이 대회(제13회)
- 2. 21~4. 7. 사순절 릴레이 금식 기도 및 새벽 기도
주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 2. 24. Praise Night(학생회)
- 2. 25. 성경 스피드 퀴즈대회(제11회)
- 3. 6~6. 19. 제자 훈련 101 제27기 시작(13주)
- 3. 11~4. 8. 새 가족 만남(5주) 제9기
- 3. 15~6. 21. 제자 훈련 201 제9기 시작(13주)
- 4. 1. 김은주 전도사 목사 안수식
- 4. 2~4. 제3회 봄성경학교
주제: God Force Kids
- 4. 5. 교육 여행(제10차)
펜실베이니아 주 랭커스터 밀레니엄 극장
- 4. 8. BOOM Service(제22회)
부활절 낫소(Nassau) 지역 연합 새벽 예배
- 4. 17~27. 성지 순례 II(터키, 그리스, 이탈리아)
- 5. 6. 새 가족 만남(5주) 제10기
- 5. 13. 가족 찬양제(제14회)
- 5. 20. 창립 14주년 기념 찬양제
설교: 안요한 목사(새빛맹인선교회)
주일 예배 1부 7:30, 2부 9:30, 3부 11:30으로 증설
- 5. 24~26. 효도관광(제14차): 뉴햄프셔
- 5. 29. 교협 체육대회 참가

- 6. 16. 바자회(제3회): 단기선교 및 증축기금 마련
- 6. 17. 성경 암송대회(제15회)
- 6. 23. 국제장애인선교회 초청 만찬회
- 6. 25~27. 제29차 심령부흥회 영성 치유 집회
강사: 정태기 목사(크리스천 치유상담연구원 원장)
주제: 생명 주시는 하나님
- 7. 1. 유명근 전도사 중등부 전도사로 부임
- 7. 5~8. 17. 제3회 예일여름학교 Disciple Land
- 7. 8~8. 5. 새 가족 만남(5주) 제11기
- 7. 13~15. 제30차 1907년 대부흥 운동 기념 부흥회
강사: 서정호 목사(서울 영암교회)
- 7. 17~27. 제11차 단기선교(볼리비아)
참가자: 김종훈, 정은숙, 김연수, 한대영, 정건수, 윤희주, 정수영, 김미향, 김옥순, 김현수, 홍길자, 조종희, 김근혜, 박성우, 유에스터, 신알렉스, 김마이클, 남조셉, 정크리스, 윤앤드류, 김케드린, 이샌디, 이앤드류, 김쵸수아, 정브라이언, 김크리스티나, 이조셉, 신리나, 권예나, 하케빈, 변잔, 김알렉스, 윤크리스틴, 정마이크
- 7. 29. 제2회 자체 성전 감사 탁구대회
- 8. 5. 전 교우 Beach Day(Robert Moses Beach)
- 9. 4~12. 18. 제자 훈련 101 제28기 시작(13주)
- 9. 18~12. 18. 제2기 화요 성경 공부 평신도 조직 신학, 가정 세미나
- 9. 20~12. 18. 제자 훈련 201 제10기 시작(13주)
- 9. 23. 찬송가 외워 부르기 대회(제13회)
공동 의회
장로 피택: 유학준
안수집사 피택: 김영길B, 정건수, 조태성, 정재수, 김용호

9. 24.	뉴욕노회 교역자 초청 위로회
9. 30.	전 교우 체육대회(제13회) : Bethpage Park
10. 6.	전 교우 볼링대회(제1회)
10. 7.	김인선 전도사 목사 안수식
10. 14.	새 가족 만남(5주) 제12기
10. 15~18.	제31차 성령 축제 강사: 변용진 목사 주제: 성령과 부흥하는 교회 본 교회 신문 발간(롱아일랜드 좋은 신문)
10. 21.	성경 퀴즈대회(제15회)
10. 28.	건강 세미나 강사: 주기환 박사
10. 29~11. 21.	추수감사절 삼이레 릴레이 금식 기도 및 새벽 기도
11. 4.	뉴욕노회 찬양제(뉴욕노회 여선교회연합회 주관)
11. 18.	목장 연합 감사 찬양제(제3회)
11. 20.	뉴욕 한인 원로목사회 초청 예배 창립 15주년 기념 성경 필사 시작
11. 25.	자녀 교육 세미나 강사: 정정숙 박사
12. 2.	뉴욕노회 선교대회(니카라과 마사야 복음 대회를 위해)
12. 9.	성전(친교실, 교육관) 증축 기공식
12. 16.	BOOM Service(제23회)
12. 28.	목자, 총무 위로의 밤
2008. 1. 1~2	신년 금식 기도(제12차: 라마나웃 기도원) 국내외 선교지를 54곳으로 확장
1. 6.	제직 수련회 I

	윤승진 목사 협동목사로 임명 새 가족 만남(5주) 제13기
1. 13.	제직 수련회 II
1. 27.	<예수 마을> 10호 발간 전도 간증 집회 강사: 박병선 집사
2. 3.	구정 맞이 웃놀이 대회(제14회)
2. 6~3. 22.	사순절 릴레이 금식 기도 및 새벽 기도
2. 17.	성경 스피드 퀴즈대회(제12회)
2. 21~25.	제12차 단기선교(니카라과 마사야 복음화대회)
3. 4~6. 24.	제자 훈련 101 제29기 시작(13주)
3. 7~8.	전도 집회 및 세미나 강사: 조영 장로
3. 20~6. 12.	제자 훈련 201 제11기 시작(13주)
3. 23.	BOOM Service(제24회) 부활절 낮소(Nassau) 지역 연합 새벽 예배
3. 30.	새 가족 만남(5주) 제14기
4. 24~26.	효도관광(제15차) : 버지니아
5. 11.	전 교우 청소의 날 가족 찬양제(제15회)
5. 16~18.	제31차 성령부흥회 강사: 이광선 목사
5. 18.	창립 15주년 기념 및 교육관/친교실 증축 감사와 임직 예배 장로 장립: 유학준 집사 취임: 김영길, 정재수 집사 안수: 정건수, 조태성, 김용호

《뉴욕 예일장로교회 15주년사》 발행

5. 26. 교협 체육대회 참가(학생부 남자부 우승, EM 남자부 3등, 여자부 3등)

6. 1. 창립 15주년 기념 연극제 : 고백

6. 6~7. 학생회 부흥회 강사: Rev. Paul Suh

6. 15. 성경 암송대회(제16회)

6. 21. Walk Thru The Bible Conference (EM)

6. 22. 창립 15주년 기념 찬양제

6. 26~28. EM Retreat(불비수양관)

7. 1~8. 15. 제3회 예일여름학교 Disciple Land

7. 12. 바자회(제4회)

7. 13~19. 학생회 Work Camp

7. 22~31. 제12차 단기선교(도미니카)

8. 3. 제3회 자체 성전 감사 탁구대회

8. 4~15. 서울 남노회 비전 트립

8. 10. Beach Day(각 목장별로)
새 가족 만남(6주) 제15기

8. 24~26. 제13차 전 교우 여름 신앙 수련회(뉴저지 크리스천 아카데미)

9. 5. 목자, 총무 수련회

9. 9~12. 23. 제자 훈련 101 제30기 시작(13주)

9. 18~12. 18. 제자 훈련 201 제12기 시작(13주)

9. 21. 찬송가 외워 부르기 대회(제14회)
선교사 파송식
박인호/이연지 집사(Wycliffe Bible Translators)

9. 28. 전 교우 체육대회(제14회) : Bethpage Park

10. 12~13. 청년부 트립(워싱턴 D.C.)

1선교회 기도회(뉴저지 크리스천 아카데미)

10. 19. 성경 퀴즈대회(제16회)
새 가족 만남(6주) 제16기

10. 31. 주일학교 Holy win 행사

11. 2. 뉴욕노회 찬양제(뉴욕노회 여선교회연합회 주관)

11. 3~26. 추수감사절 세이레 릴레이 금식 기도 및 새벽 기도
주제: 성막을 통한 은혜

11. 8. 전 교우 볼링대회(제2회)

11. 9. 자녀들의 성장 발육 세미나
강사: Dr. 정성문(함소아과)

11. 18. 선한 사마리아 주간 널싱홈 방문(2여선교회 주관)

11. 23. 예수마을별 감사 찬양제(제4회)

11. 30~12. 1. 교역자 Retreat(Olmsted Retreat Center)

12. 7. 호스피스 세미나
강사: 윤승진 목사
마사야 선교대회

12. 14. BOOM Service(제25회)

12. 21. 제1기 전도학교 수료식

12. 26. 목자, 총무 위로의 밤

12. 28. 김윤배 목사 사임

12. 28~31. 학생회 겨울 수련회

2009. 1. 1~2. 신년 금식 기도(제13차: 라마나웃 기도원)
국내외 선교지를 56곳으로 확장

1. 4. 제직 수련회 I

1. 11. 제직 수련회 II
강사: 이덕수 목사

- 1. 25. 새 가족 만남(5주) 제17기
- 2. 15. 구정 맞이 웃놀이 대회(제15회)
- 2. 17. 성경 스피드 퀴즈대회(제13회)
- 2. 17. 할렘 홈리스 방문(2여선교회 주관)
- 2. 21~22. 제12차 단기선교(니카라과 마사야 선교대회)
- 2. 25~4. 11. 사순절 릴레이 금식 기도 및 새벽 기도
- 3. 10~6. 30. 제자 훈련 101 제31기 시작(13주)
- 3. 17~6. 23. 제자 훈련 201 제13기 시작(13주)
- 4. 4. 봄맞이 대청소
- 4. 12. BOOM Service(제26회)
- 부활절 낫소(Nassau) 지역 연합 새벽 예배
- 4. 20. 널싱홈 방문(4여선교회 주관)
- 4. 27~30. 춘계 심령 부흥회
- 강사: 박태경 목사(대구 동산교회 시무)
- 5. 10. 김연수 전도사 목사 안수식
- 새 가족 만남(5주) 제18기
- 가족 찬양제(제16회)
- 5. 17. 창립 16주년 기념 찬양제
- 5. 24. 코트디부아르 CCM 보컬 그룹 라브르 드 비 공연
- 5. 25. 교협 체육대회 참가(EM 여자부 1위, 남자부 2위, 장년 3위 입상)
- 6. 1~2. 효도관광(제16차): 로드아일랜드
- 6. 20. 바자회(제5회: 선교와 건축을 위한)
- 6. 28. 남성 중창 두나미스 발표회
- 김은주 목사 사임
- 7. 5. 성경 암송대회(제17회)
- 홍정자 목사 협동목사로 부임

- 김재영 전도사 EM 담당 전도사로 부임
- 김성국 전도사 중등부 담당 전도사로 부임
- 정은숙 전도사 사임
- 7. 6~8. 14. 제4회 예일여름학교 Disciple Land
- 7. 13~18. 제13차 단기선교(뉴멕시코 나바호 인디언)
- 7. 26. 김연수 목사 사임
- 7. 26~8. 1. 학생회 Work Camp
- 8. 2. 제4회 자체 성전 감사 탁구대회
- 8. 16~18. 제14차 전 교우 여름 신앙 수련회(뉴저지 크리스천 아카데미)
- 주제: 주여! 나를 치유하소서!
- 9. 10. 커뮤니티 봉사 프로그램 시작(2009 가을 학기)
- 9. 13. 새 가족 만남(5주) 제19기
- 9. 15~12. 29. 제자 훈련 101 제32기 시작(15주)
- 9. 20. 찬송가 외워 부르기 대회(제15회)
- 9. 24~12. 17. 제자 훈련 201 제14기 시작(13주)
- 9. 27. 전 교우 체육대회(제15회): Bethpage Park
- 9. 28~30. 성령 축제
- 강사: 허원구 목사(부산 산성교회 시무)
- 주제: 이 불을 끄지 말라
- 10. 11. 자녀 교육 세미나
- 10. 17. 전 교우 볼링대회(제3회)
- 10. 18. 성경 퀴즈대회(제17회)
- 10. 29~11. 21. 추수감사절 세이레 릴레이 금식 기도 및 새벽 기도
- 10. 31. 유년주일학교 Holy win 행사
- 11. 1. 뉴욕노회 찬양제(뉴욕노회 여선교회연합회 주관)
- 11. 14. 추수감사절 맞이 대청소

2010.	11. 15.	새 가족 만남(5주) 제20기
	11. 22.	예수마을별 감사 찬양제(제5회)
	12. 6.	교역자 Retreat(뉴저지 Stony Point Center) 볼리비아 선교대회(뉴욕노회 주관)
	12. 13.	BOOM Service(제27회) 드라마: 돌아온 탕자
	12. 28.	목자, 총무 격려의 밤
	12. 28~31.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
	1. 1~2	신년 금식 기도(제14차: 라마나웃 기도원) 국내외 선교지를 56곳으로 확정 박성하 전도사 음악 전도사로 임명
	1. 3.	제직 수련회 I
	1. 10.	제직 수련회 II
	2. 5~7.	니카라과 마사야 선교대회
	2. 14.	구정 맞이 웃놀이 대회(제16회)
	2. 15~20.	볼리비아 선교대회
	2. 17~4. 3.	사순절 릴레이 금식 기도 및 새벽 기도
	2. 27.	Praise Night(학생회)
	2. 28.	성경 스피드 퀴즈대회(제14회)
	3.2~6. 22.	제자 훈련 101 제33기 시작(16주)
	3. 11.	커뮤니티 봉사 프로그램 시작(2010 봄학기)
	3. 14.	새 가족 만남(5주) 제21기 최근선 전도사 목사 안수식(뉴저지 트랜톤 장로교회)
	3. 16~6. 15.	제자 훈련 제2기 오이코스 전도 시작(13주)
	3. 18~6. 17.	제자 훈련 201 제15기 시작(13주)
3. 27.	피택 안수집사, 권사 전인 치유 수련회	

3. 27~28.	봄맞이 대청소 최근선 목사 사임(낙도 선교 파송)
3. 29~31.	유년부 봄성경학교
3. 30.	널싱홈 방문(4여선교회 주관)
4. 4.	BOOM Service(제28회) 부활절 낮소(Nassau) 지역 연합 새벽 예배 윤승진 목사 플타임으로 사역 시작
4. 5~6.	효도관광(제17차): 볼티모어
5. 2.	가족 찬양제(제17회)
5. 3~5.	심령 부흥회 강사: 김성민 목사(포틀랜드 벤엘장로교회) 주제: 건강과 행복을 누리는 교회
5. 16.	창립 17주년 감사 예배 및 임직식 집사 취임: 이근만, 임병설 집사 안수: 강수형, 이인화, 장관우, 윤용근, 권철훈, 신영필, 박재우, 권영신, 박성우, 김두성 권사 취임: 장청자, 박문자, 이재덕, 이길자, 오분례 권사 안수: 권미자, 최정희, 노청순, 이유화, 박춘희, 김영숙, 이수정, 이영선, 이포영, 차은경, 강혜옥
5. 30.	유명근 전도사 사임
5. 31.	교협 체육대회 참가(배구 고등부 남자 우승, 일반부 3등)
6. 6.	할렐루야 찬양대 지휘자 조성식 집사 임명
6. 13.	새 가족 만남(5주) 제22기
6. 19.	바자회(제6회: 뉴멕시코와 도미니카 단기선교를 위한)
6. 20.	친선 축구 시합(복된장로교회) 정은숙 전도사 고등부 담당 전도사로 임명

6. 27. 김성국 전도사 중등부 담당 전도사로 임명
김인선 목사 사임, 니카라과 선교 파송
성경 암송대회(제18회)

7. 4. 김재영 전도사 사임

7. 5~8. 13. 제5회 예일여름학교 Disciple Land

7. 18. 홍정자 목사 영아부 담당 교역자로 임명

7. 19~24. 제14차 단기선교(뉴멕시코)

7. 31~8. 6. 학생회 Work Camp

8. 2~7. 제15차 단기선교(도미니카공화국)

8. 15~17. 제15차 전 교우 여름 신앙 수련회(포코노 예령 수양관)

8. 22. 제5회 자체 성전 감사 탁구대회

9. 4. 한국학교 교사 강습회

9. 7~12. 21. 제자 훈련 101 제34기 시작(16주)

9. 9. 커뮤니티 봉사 프로그램 시작(2010 가을 학기)
목자, 총무 수련회

9. 12. 새 가족 만남(5주) 제23기

9. 16~12. 16. 제자 훈련 201 제16기 시작(13주)

9. 19. 찬송가 외워 부르기 대회(제16회)

10. 3. 전 교우 체육대회(제16회) : Bethpage Park
윤승진 목사 부목사로 사역

10. 10. 친선 축구 시합(웨체스터 장로교회)

10. 16. 1선교회 기도회 및 단풍 효도관광(뉴저지 크리스천 아카데미)

10. 17. 성경 퀴즈대회(제18회)

10. 18~20. 가을 성령 축제
강사: 양병희 목사(서울 영안장로교회 시무)

10. 23. 전 교우 볼링대회(제4회)

10. 28~11. 20. 추수감사절 세이레 릴레이 금식 기도 및 새벽 기도

10. 30. 주일학교 Holy win 행사

11. 2. 선한 사마리아인 주간 널싱홈 방문(2여선교회 주관)

11. 13. 추수감사절 맞이 대청소

11. 14. 새 가족 만남(5주) 제24기

11. 21. 예수마을별 감사 찬양제(제6회)

11. 28. 강세훈 전도사 행정 담당 전임전도사로 부임

12. 5~6. 교역자 Retreat

12. 12. BOOM Service(제29회)
드라마: 치료자로 오신 예수님

12. 26. 사무 직원 김미향 집사 사임

12. 27. 목자, 총무 위로의 밤

12. 28~31. 고등부 겨울 수련회(티스카로라)

2011. 1. 2. 제직 수련회 I
국내외 선교지를 56곳으로 확정

1. 3~8.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1. 7~9. EM 겨울 수련회(Honor's Haven)
강사: Marc Choi

1. 9. 제직 수련회 II

1. 30. 설 맞이 웃놀이 대회(제17회)

2. 6. 새 가족 만남(5주) 제25기

2. 20. 성경 스피드 퀴즈대회(제15회)

2. 22. 할렘 홈리스 교회 방문(5여선교회 주관)

2. 24~28. 니카라과 선교대회

3. 1~6. 21. 제자 훈련 101 제35기 시작(16주)

3. 3~12. 22. 제자 훈련 301 제1기 시작(40주)

- 3. 5. 커뮤니티 봉사 프로그램 시작(2011 봄 학기)
- 3. 9~4. 23. 사순절 릴레이 금식 기도 및 새벽 기도
- 3. 6. 안예중 목사 EM 담당 목사로 부임
- 3. 13. 친선 축구 시합(하은교회)
- 3. 15.~6. 21. 제자 훈련 201 제17기 시작(13주)
- 3. 26~27. 봄맞이 대청소
- 4. 3. 널싱홈 방문(4여선교회 주관)
- 4. 18~20. 부활절 봄성경학교
- 4. 24. BOOM Service(제30회)
부활절 낫소(Nassau) 지역 연합 새벽 예배
- 5. 9~10. 효도관광
- 5. 15. 가족 찬양제(제18회)
- 5. 15~16. 임직자 수련회(터스카로라 수양관)
- 5. 22. 새 가족 만남(5주) 제26기
창립 18주년 감사 예배 및 임직식
명예장로 추대: 김종호
장로 장립: 이주익, 지재홍, 정수영
- 5. 24. 제1회 장학 기금 마련 골프대회
- 5. 29. 친선 축구 시합(웨체스터 장로교회)
- 5. 30. 교협 체육대회 참가(고등부 배구 2위, 장년 배구 2위)
- 5. 31. 널싱홈 방문(4여선교회 주관)
- 6. 18. 바자회(선교와 건축을 위한)
- 6. 20~22. 심령 부흥회
강사: 이용걸 목사(필라 영생장로교회 시무)
- 6. 26. 볼리비아 단기선교를 위한 찬양제
- 6. 28~7. 1. 창조 과학 탐사 교육 여행(그랜드캐니언, 브라이스캐니언, 세도나)

- 7. 5~8. 12. 제6회 예일여름학교 Disciple Land
- 7. 10. 성경 암송대회(제19회)
- 7. 18~25. 제16차 단기선교(볼리비아)
- 7. 31~8. 6. 학생회 Work Camp
- 8. 7. CIS 교회 탐방
- 8. 12~13. EM 수련회
- 8. 14. 제6회 자체 성전 감사 탁구대회
뉴욕노회 미자립 교회를 위한 선교부 순회 예배
- 8. 21~23. 제16차 전 교우 여름 신앙 수련회(터스카로라 수양관)
- 9. 8. 커뮤니티 봉사 프로그램 시작(2011 가을 학기)
- 9. 13~12. 20. 제자 훈련 101 제36기 시작(15주)
- 9. 15~12. 15. 제자 훈련 201 제18기 시작(13주)
- 9. 18. 찬송가 외워 부르기 대회(제17회)
새 가족 만남(5주) 제27기
- 9. 25. 전 교우 체육대회(제17회): 아이젠하워 파크
- 10. 9. 강세훈 전도사 목사 안수식
웨체스터 장로교회와 연합 예배 및 친선 축구 시합
- 10. 9~10. 1선교회 기도회 및 단풍 효도관광(뉴저지 크리스천 아카데미)
- 10. 15. 전 교우 볼링대회(제5회)
- 10. 23. 성경 퀴즈대회(제19회)
- 10. 28~11. 19. 추수감사절 세이레 릴레이 금식 기도 및 새벽 기도
- 10. 30. 김종훈 담임목사 뉴욕교회협의회 부회장 피선
- 11. 19. 김종훈 담임목사 뉴욕교회협의회 부회장 취임
- 11. 20. 목장 연합 감사 찬양제(제7회)
- 11. 27~28. 교역자 Retreat
- 11. 29. 선한 사마리아 주간 널싱홈 방문(2여선교회 주관)

	12. 4.	니카라과 마사야 선교대회를 위한 뉴욕노회 선교대회
	12. 11.	BOOM Service(제31회) 드마라: 빛으로 오신 예수님
	12. 25.	김성국 전도사 사임
	12. 26~29.	고등부 수련회(터스카로라 수양관)
2012.	1. 1.	제작 수련회 I 국내외 선교지를 59곳으로 확장 이해은 전도사 중등부 전도사로 부임
	1. 2~7.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1. 8.	제작 수련회 II
	1. 22.	설 맞이 웃놀이 대회(제18회)
	1. 23~2. 2.	성지 순례 III
	2. 19.	성경 스피드 퀴즈대회(제16회)
	2. 21.	할렘 홈리스 교회 방문(5여선교회 주관)
	2. 22~4. 7.	사순절 릴레이 금식 기도 및 새벽 기도
	2. 23~27.	니카라과 마사야 선교대회
	3. 2~4.	청년부 수련회(카멜백)
	3. 6~6. 19.	제자 훈련 101 제37기 시작(16주)
	3. 8.	커뮤니티 봉사 프로그램 시작(2012 봄 학기)
	3. 12~6. 11.	제자 훈련 401(새 생명 전도 1기) 시작(13주)
	3. 15~6. 14.	제자 훈련 201 제19기 시작(13주)
	3. 16.	항존직 및 목자, 총무, 선교회장단 수련회(교회)
	3. 17.	봄맞이 대청소
	3. 18.	새 가족 만남(5주) 제28기
	4. 1.	이해은 전도사 사임
	4. 2~7.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주제: 성령으로 충만한 삶
	4. 8.	Boom Service(제32회) 부활절 낫소(Nassau) 지역 연합 새벽 예배
	4. 9~11.	유년부 봄성경학교
	4. 10.	널싱홈 방문(4여선교회 주관)
	4. 16~18.	심령 부흥회 강사: 배동호 목사(서울 창성교회 시무)
	4. 27~28.	EM 수련회
	5. 6.	가족 찬양제(제19회)
	5. 7~8.	효도관광(Honor's Haven)
	5. 20.	창립 19주년 기념 예배 및 찬양제
	5. 27.	친선 축구 시합(웨체스터 장로교회) 〈예수 마을〉 통권 14호 발간
	5. 28.	교협 체육대회 참가
	6. 3.	새 가족 만남(5주) 제29기
	6. 10.	교사 강습회
	6. 17.	교육부 조정 유년부: 1~6학년(지도: 박에스터 전도사) 중고등부: 7~12학년(지도: 정은숙 전도사)
	6. 23.	바자회(건축과 필리핀 선교를 위한)
	6. 24.	성경 암송대회(제20회)
	7. 2~8. 10.	제7회 예일여름학교 Disciple Land
	7. 16~26.	제17차 단기선교(필리핀)
	7. 29~8. 4.	학생회 Work Camp
	8. 12.	제7회 자체 성전 감사 탁구대회
	8. 19~21.	제17차 전 교우 여름 신앙 수련회(뉴저지 크리스천 아카데미)

- 주제: Rise Up
- 9. 11~12. 18. 제자 훈련 101 제38기 시작(15주)
 - 9. 13. 커뮤니티 봉사 프로그램 시작(2012 가을 학기)
 - 9. 16. 전 교우 체육대회(제18회) : 아이젠하워 파크
 - 9. 20~12. 13. 제자 훈련 201 제20기 시작(13주)
 - 9. 30. 찬송가 외워 부르기 대회(제18회)
 - 10. 4. 제2회 장학 기금 마련 골프대회
 - 10. 7. 웨체스터 장로교회와 연합 예배 및 축구대회
 - 10. 7~8. 1선교회 효도 단풍 구경 및 기도회
 - 10. 21. 연합 찬양대 세계밀알찬양축제 참가(카네기홀)
 - 10. 22~24. 성령 축제
 - 22(월): 과테말라 한인교회 김상돈 목사
 - 23(화): 필라 안디옥교회 호성기 목사
 - 24(수): 전용대 목사(찬양 사역자)
 - 10. 26~11. 17. 추수감사절 릴레이 금식 기도(10/26-11/17)
 - 10. 28. 성경 퀴즈대회(4여선교회 주관, 제20회)
 - 11. 9. 뉴욕 교협 회장/이사장 이·취임식
 - 회장: 뉴욕 예일장로교회 김종훈 담임목사
 - 이사장: 뉴욕 예일장로교회 이주익 장로
 - 11. 18. 추수감사주일(Blessing Day) 세례식
 - 목장별 감사 찬양제
 - 11. 25~26. 교역자 Retreat
 - 11. 28. 윤복희 권사 초청 간증 집회
 - 12. 16. BOOM Service 드라마 공연(세레 요한)
 - 12. 26~29. 중고등부 수련회(티스카로라 수양관)
 - 12. 30. 정은숙 전도사 사임



II. 뉴욕 예일장로교회
20주년사

1. 뉴욕 예일장로교회의 태동



1) 이민사적 배경

1903년 1월 13일 새벽, 구한말의 정치적 혼란과 계속되는 가뭄과 흉수, 그리고 전염병으로 먹을 것과 일자리를 찾던 사람들이 인천 용동교회(현 내리감리교회) 담임목사인 조지 존스(George H. Jones)의 권유로 조상이 묻힌 고향을 등지고 이민선에 올라, 102명이 하와이 호놀룰루 항에 도착하면서 한인 이민 역사는 시작되었다. 자연히 인천 용동교회 성도들이 대부분을 이룬 첫 이민자들은 사탕수수 밭 노동자로 고된 일을 하면서도 교회를 중심으로 함께 모여 예배 드리고 친교도 나누며 향수를 달래며 한인 이민 역사의 기초를 닦았다.

1905년까지 약 7천 명이 취업 이민으로 왔지만 고된 노동을 견디지 못하고 약 1천 명은 고국으로 돌아가고, 약 2천 명은 캘리포니아나 다른 주로 이주해서 살게 되었다. 낯선 타국에서 교회는 저들의 신앙과 정신적인 안식처였을 뿐 아니라, 이민 생활의 중심부로서 자녀 교육, 취업 정보 알선, 위기 때 상부상조 등 다양한 기능을 해왔다. 그러므로 한인 이민 사회

는 처음부터 교회와 함께 성장해 왔다고 볼 수 있다.

1965년 미 의회가 종전의 인종과 나라에 따른 이민 쿼터제(quarter)를 철폐하는 이민법을 발효하면서 새로운 흐름의 이민 역사가 펼쳐지게 되었다. 주로 유학생과 주재원, 그리고 전문직 종사자들로 구성된 한인 이민 사회가 본격적으로 확대되어 간 것도 바로 그 이후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특히 1981년과 1989년 사이에 미국으로 이민 온 사람들의 85%가 아시아나 라틴아메리카로부터 온 이민자들이었다고(아시아 47%, 라틴아메리카 38%) 바바라 윌커슨(Barbara Wilkerson)이 말하고, 또 캐럴 젠킨스(Carol A. Jenkins)는 1989년 한 해 동안 한국 출생 미국 이민자의 수가 34,222명이라고 그들의 저서 《다문화 종교 교육》(Multicultural Religious Education)에서 밝힌다. 88올림픽 이후 한국의 경제 성장으로 말미암아 역이민의 동향도 있지만 지금은 무비자 방문과 유학생들의 증가로 인해 이민 사회의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뉴욕에는 1920년 뉴욕한인교회의 설립으로부터 한인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뉴욕에서도 하와이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교회가 이민 사회의 뿌리 역할을 했다. 초창기 초대 뉴욕 한인 회장으로 부터 7대에 이르기까지 뉴욕 한인 회장은 모두 뉴욕한인교회 출신이었던 것을 보아도 이 사실을 잘 알 수 있다. 2010년 연방 센서스국 통계에 의하면 뉴욕 거주 한인 수는 140,994명으로서 2000년 인구 센서스 때의 119,846명보다 17.6%가 증가한 것으로 발표되었다. 그러나 대뉴욕지구 교회협의회 주소록을 보면 2003년도 뉴욕 메트로폴리탄 지역(뉴욕, 뉴저지, 코네티컷) 한인 교회 수가 548개에서 2013년 현재 517개로 다소 감소된 것을 볼 수 있다.

뉴욕 이민 사회에서는 이제 1.5세 또는 2세대들이 서서히 주류 사회로 들어가고 있지만, 대부분의 이민 1세대들은 언어와 문화 차이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잡화, 세탁업, 미용 재료, 생산, 야채와 과일, 델리, 네일 업계 등에서 지속적인 불경기의 고통으로 말미암은 극도의 정신적, 육체적 피곤을 무릅쓰고 성실하게 경제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서도 높은 교육열로 자녀들을 잘 키워 보려고 교육적인 후원을 아끼지 않는다.

2) 신학적 배경

뉴욕 예일장로교회는 이런 이민사적인 배경 안에서 이민자들을 섬기기 위해 1993년에 설립되었다. 인간 역사의 시작인 하나님의 창조와 역사의 끝인 재림 사이에 큰 맥을 이루고 있는 두 가지 사건은 인간의 타락과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이다. 그러므로 현 역사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는 일은 타락한 인간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일이다. 뉴욕 예일장로교회는 이런 관점에서 예수께서 친히 물으시고 베드로가 대답한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마 16:16)라는 고백 위에 세워졌다.

이 고백을 예수께서는 기뻐하셨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고백이라고 칭찬하셨다. 그리고 이 고백 위에 사람의 교회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다. 그럴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밀어 주시는 교회가 되며, 천국 문을 열어 주는 교회가 될 수 있다고 하셨다. 이 영광스러운 꿈을 안고 예수님 제일의 예일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므로(엡 1:22~23) 교회에서 할 일은 예수께서 이 땅에 몸으로 오셔서 하신 일들을 그대로 하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실천 목표로 삼았다. 즉 회당에서 가르치시고(teaching),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preaching), 각색 병자를 고치심(healing)을 예일장로교회의 실천 목표로 삼았다. 그러나 교회는 또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성도 서로 간의 교제가 중요한 본질이므로 영감 있는 예배(worship)와 십자가의 사랑의 교제(fellowship)를 실천 목표에 더했다.

이 모든 것은 기도 없이 안 되기 때문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능력 있는 기도 생활(prayer)을 여섯 번째 실천 목표로 삼았다. 그다음은 이 목표를 성취하는 실천 방안이 필요했다. 실천 방안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실시해 오고 있다. 그것은 예배 프로그램, 훈련과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나눔 프로그램이다.

(1) 예배 프로그램

주일 예배

1부 예배(오전 7시 30분/본당)

2부 예배(오전 9시 30분/본당)

3부 예배(오전 11시 30분/본당)

영어 예배(오전 11시 30분/영어 예배실)

찬양 예배(오후 2시 30분/본당, Boom Service는 분기별로)

영아부 예배(오전 11시/영아부실)

유치부 예배(오전 11시/유치부실)

유년부 예배(오전 11시/유년부실)

중고등부 예배(오전 11시/중고등부실)

수요 예배 : 수요일 오후 8시 30분

새벽 기도회 : 월~토 오전 5시 30분(※ 토요일 새벽 기도회는 각 선교회 주관)

(2) 훈련 및 교육 프로그램

가. 필수 훈련 과정

① 바나바 사역 훈련(새 가족 정착 요원 양성)

② 새 가족 만남

③ 세례 공부

④ 태신자 전도 훈련(부활절과 추수감사절 전 1년 2차)

⑤ 제자 훈련 101(일대일 양육 훈련 15주)

⑥ 제자 훈련 201(영성 훈련 13주)

⑦ 제자 훈련 301(신구약 성경 탐구)

⑧ 제자 훈련 401(전도 훈련 13주)

⑨ PGM(세계 전문인 선교)

나. 말씀 훈련

① QT 모임

② 성경 다독 및 통독 / 매월 100장 이상 다독 및 통독자 시상 / 성경 일천독 쌓기

③ 평삼주오 성경 공부 / 매주 주보와 함께 1년 1독용

④ 목장 모임 / 넷째 주 금요일 한 달에 한 번(목자 교육은 수요 예배 후)

(연말 목장 시상 / 성경 일독 10점, 전도 및 정착 1인당 30점)

⑤ 기타 / 성경 퀴즈대회, 성경 암송대회

다. 기도 훈련

① 새벽 기도(사순절,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 기도 포함)

② 금식 기도(신년 특별 기도, 사순절, 추수감사절, 릴레이 금식 기도)

③ 중보 기도, 작정 기도, 선교회 기도, 산상 기도

라. 찬송 훈련

① 금주의 찬송

② 찬송가 외워 부르기 대회

마. 가정 예배 : <오늘의 양식> 사용을 권장

바. 영성 훈련 : 부흥회 연 2회

사. 수련회 : 제직, 교사, 찬양대, 전 교우 수련회

아. 세미나 : 자녀 교육, 부모 교육, 부부 세미나

자. 다니엘 잠언 프로젝트

(3) 나눔 프로그램

가. 신앙의 생활화

선한 사마리아인 주일(월 1회), 구제, 의료 사업, 불우이웃돕기, 환경 정화 작업, Nursing Home 방문, 장애인 방문, 할렘 선교

나. 커뮤니티 봉사

Mommy & Me(매주 금요일 오전 10시~11시 30분)

실버클럽(매주 목요일 오전 10시~2시)

뉴욕 예일한국학교(매주 토요일 오전 9시 30분~12시 30분)

다. 전도

문서 전도(예수마을 교회지, 전도지), 방송 전도(KCBN, TKC, USAAmen.net, CZONEUS.net, 기독교 TV 방송, CTS), 새 생명 전도

라. 선교(총 56곳-2013년 기준)

① 국내

뉴욕청소년센터, 뉴욕한인청소년센터, 국제장애인선교회, 샬롬문서선교회, 한민자선선교회, 밀알선교회, 브니엘선교회, 미동부 국제기아 대책기구, 무지개의 집, 밀알 선교합창단, MOM, 미국 인디언 선교, Family In Touch, 뉴욕 선교사의 집, Youth & Family Focus, 생명의 전화, 고어헤드, 농아인 교회, 선한이웃 어린이선교회, 국제사랑재단, 뉴욕노회 미자립교회 2곳, 뉴욕장로회신학교 (23곳)

② 모국

새빛 맹인선교회, 실로암 안과병원 (2곳)

③ 해외

로마 장로교회(한인성 목사), 에티오피아(김명환 선교사), 키르키즈스탄(이찬우 선교사), 케냐(유니스 뉴콤 선교사), 니카라과(이동홍 선교사), 멕시코(임원석 선교사), C국(장자매), 볼리비아(윤도근 선교사), T국(김진영 선교사), 월드비전(필리핀), C국(이브리스길라 선교사), 터키(임금희 선교사), 탄자니아(최재선 선교사), 도미니카(한순구 선교사), CSCM, 필리핀(김정철 선교사), Wycliff Bible Translators(박인호 선교사), 토론토 인디언 신학교, 몽골(이현호 선교사), 니카라과(김인선 선교사), 우크라이나 신학교(김오현 목사), 북방선교 훈련원(시민교회), 라이베리아(조형섭 선교사) (23곳)

④ 방송

미주 기독교 방송국, TKC, USAAmen.net, 기독교 TV 방송, kidoknews.net, CTS, 교회넷, 기독교일보 (8곳)

이런 실천 목표와 방안을 통해 에스겔 47장의 성전 환상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비전

을 안고 뉴욕 예일장로교회는 진행해 가고 있다. 즉 신앙생활의 행복으로 이민 생활이 정착되고 행복해지는 꿈이다. 교회 생활을 중심으로 성전으로부터 흘러내리는 생명수를 마시고, 은혜의 강물에 메마른 가슴들과 가정들이 적셔져 살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결실하고, 만국을 치료하는 꿈이 매일같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공동체로 살고 있다.

3) 교단적 배경

뉴욕 예일장로교회는 해외한인장로회(KPCA)에 속해 있다. 이 교단은 한국의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측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1976년에 설립된 교단이다. 이 교단에 뉴욕 예일장로교회가 가입하게 된 동기는 우선 담임목사인 김종훈 목사가 이 교단의 제29회 동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으며, 처음 개척 당시 모인 성도들 중에 이 교단 출신 성도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1995년 창립 2주년을 맞아 해외한인장로회(전 미주한인장로회) 뉴욕노회에 가입하게 되었다.

4) 김종훈 담임목사에 대하여

신앙생활을 하면서 좋은 목자를 만나는 것은 크나큰 복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뉴욕 예일장로교회 성도들은 큰 복을 받은 이들이다. 뉴욕 예일장로교회를 개척하여 지금까지 20년 동안 시무하는 김종훈 목사는 모습만 보아도 평안함을 안겨 주는 외유내강한 분이다. 더욱이 영력, 지력, 체력, 능력을 다 갖추고도 겸손하며, 신령한 통찰력이 있어서 시대와 상황을 바로 판단하고, 여러 면에서 앞서 가지만 결코 하나님보다는 앞서지 않는 지혜로운 분이다. 말씀의 은사와 가르침의 은사가 있어 교우들의 신앙 훈련과 제자 훈련을 잘 시키고, 양 떼들을 위해 늘 기도하는 김종훈 목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한다.

(1) 가족 배경

김종훈 목사는 1958년 9월 13일 경상북도 안동에서 김상한 목사와 전후숙 권사의 8남매 중 3남으로 태어났다. 4대째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김 목사는 가문에서 처음 예수를 믿은 증조부의 신앙이 언제나 그의 신앙의 뿌리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한다.

김 목사의 증조부인 김영목 옹은 경상북도 안동군 월곡면 마동에서 문중 토지를 소작하여 생계를 꾸려가던 가난한 농부였다.

미국의 북장로교 선교사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면서 그에게는 말할 수 없는 핍박이 문중으로부터 임하게 되었다. 문중에서는 더 이상 문중 토지를 소작하지 못하게 했고, 항렬이 낮은 젊은이들을 시켜 백사장으로 이리저리 끌고 다니며 말할 수 없는 모욕을 주었다. 심지어는 밧줄을 기둥에 묶어 집을 무너뜨리려고도 했다는 것이다. 그래도 '예수님이 날 위해 목숨을 버려서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주를 안 믿는다고 부인할 수 없다'고 끝까지 신앙을 지켰다.

처음에는 자신의 마을에 교회가 없어서 주일이면 도시락을 싸 들고 20km를 걸어 안동 시내까지 가서 예배를 드렸다. 그러다가 선교사가 월곡면 소재지에 교회를 세우려 하자 자신의 마을인 마동에 교회를 세워 달라고 눈물로 호소하면서, 그 당시 집안의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송아지 한 마리를 건축 헌금으로 바쳐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했다고 한다. 또 1년에 몇 차례 교역자들이 그 시골 교회를 순회하게 되면 식구들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키우던 암탉을 잡아 주의 종들을 대접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여 즐겨 읽으면서 이렇게 좋은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기뻐하였다.

한겨울에도 밤이면 그 당시 호랑이가 나온다고 하는 아무도 없는 깊은 산중에 들어가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새벽이면 긴 수염에 고드름이 주렁주렁 달린 채로 돌아오곤 했다고



김종훈 목사와 조유경 사모

한다. 한 분뿐인 외동아들을 선교사의 도움으로 평양신학교에 보내서 목사가 되게 했는데, 그분이 대한예수교장로회 경안노회 공로 목사인 김진호 목사이다. 3·1운동 때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세 운동에 참여했다가 일본 경찰에 붙잡혀 서대문형무소에서 1년간 복역했다. 그로 인해 나중에 정부로부터 국민훈장을 받았다.

김종훈 목사는 증조부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말씀과 기도를 사랑하는 마음, 주의 종들을 귀히 여기는 마음,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신의 신앙의 뿌리로 자리하고 있다고 한다. 초등학교 4학년 겨울, 부흥회 때 부모님을 따라 새벽기도회에 나가기 시작해서 찬 마룻바닥에서 순수하게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 지금도 늘 영적 고향처럼 생각된다고 한다. 특히 밤이 새도록 산에서 기도하던 증조부의 기도의 유산에 부끄럽지 않도록 새벽에 하나님께 엎드리는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으려고 지금도 애쓴다.

김종훈 목사의 조부인 김진호 목사와 김 목사의 부친인 김상한 목사도 이 신앙의 뿌리를 자신들의 목회와 삶을 통하여, 그리고 추도 예배를 통하여 후손들에게 전달해 주었다.

김진호 목사는 특히 6·25전쟁 후 전쟁 고아들을 안동의 자기 집에서 돌봐 주다가 미국 선교사의 도움으로 경안신육원을 설립하고 목회와 고아원 사역을 함께 감당하였다. 목회와 사회사업 양면의 사역을 감당한 조상들의 신앙의 영향으로 김종훈 목사도 교회를 세워 나가는 일뿐만 아니라 할렘 홈리스 사역, 장애인 사역 등에 협력하며, 단기선교를 통한 선교와 구제 사역을 지금까지 병행해 나가는 목회를 하고 있다.

김종훈 목사는 특히 그의 부친 김상한 목사로부터 성실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어려서부터 보고 배워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종, 진실한 종, 겸손한 종이 되게 해달라고 새벽마다 기도한다고 한다.

(2) 교육 배경 및 안수

김종훈 목사는 안동에서 소년 시절을, 그리고 서울에서 청소년 시절을 보내고 대구에 가서 계명대학교 영문과를 졸업한(B.A.) 후, 안동에서 고등학교 영어 교사로 약 1년간 교편 생활을 했다. 그러다가 먼저 미국에 와서 목회하던 부친 김상한 목사의 초청으로 1982년 1월

뉴욕에서의 이민 생활을 시작했다. 그 당시 모두가 새로운 기회의 땅이라고 부르는 미국에서 20대 중반의 젊은이로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각오로 접시닢이로 이민 생활을 시작했다. 그 후 야채 가게, 컬러 사진 전문 취급 실험실인 미국 회사, 그리고 청과물 도매상 매니저 등의 일들을 통해 학비를 벌어가며 뉴욕 신학대학(New York Theological Seminary)에서 신학 훈련을 마치고 교역학 석사(M. Div.) 학위를 받았다.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과 학비를 벌어가면서 미국 신학교의 어려운 신학 훈련 과정을 병행하는 것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이런 시간을 통해 ‘고통은 진정한 성숙의 부활을 위한 가장 비옥한 토양’이라는 것과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고후 12:10)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고 한다. 특히 뉴욕 신학대학 시절은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복음적인 신앙 토대 위에 행동하는 신앙(Doing Theology)의 의미를 더하는 중요한 시간이었다고 회상한다.

목사 안수는 1989년 4월 해외한인장로회(전 미주한인장로회) 동노회에서 받았다. 목사가 된 동기에 대한 질문에 그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모든 가식을 벗고 벌거벗은 채로 섰을 때 하나님께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의 백성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다고 대답한다. 삶의 성공과 실패를 통해 하나님의 사역자로서의 자신의 삶을 여기까지 계속해서 엮어가고 계셨다는 인생의 새로운 각성 앞에 울며 헌신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3) 목회 이야기

김종훈 목사는 부친이 시무하던 뉴욕 시온성교회에서 전도사로서 사역을 시작하여 신학교 졸업 후 뉴욕 한성교회에서 전임전도사와 부목사로 6년을 섬겼다. 그 후 1993년에 뉴욕 예일장로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시무하고 있다.

김 목사는 이민 교회 교육부에서의 풍부한 사역 경험을 토대로 조지아 주 애틀랜타에 있는 미국 장로교 신학교인 컬럼비아 신학대학원(Columbia Theological Seminary)에서 “신앙 전수 이론”을 연구하여 목회학 박사(D. Min.) 학위를 받았다.

그는 이 논문에서 이민 교회의 문제와 방향 제시를 아울러 하고 있다. 신앙은 한 세대에

서 다음 세대로 전수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신앙을 전수해 주는 주체인 이민 1세대가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대 속에서 그 시대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경륜과 계시를 분별하여 다음 세대에 전달해 주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그가 본 이민 교회는 이런 사명에 대한 각성과 실천이 부족하며, 오히려 자녀들에게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면을 많이 보여주어서 신앙에 대한 이탈 현상을 초래하는 아픔을 겪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그는 ‘행복한 교회 생활론’을 늘 강조한다. 교회 생활이 행복해야 가정 생활도 이민 생활도 안정이 된다는 논리이다. 그러기 위해 신앙 전수의 주체인 이민 1세대들을 부지런히 제자 훈련을 통해 영적 변화와 성숙한 길로 이끌고 있다. 그리고 신앙은 교실에서보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events)을 통해 잘 전달되기 때문에 청소년들을 이끌고 교회의 장성한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매년 단기선교를 다녀오고 있다.

김종훈 목사는 이런 자신의 목회 방향에서 성도들이 잘 협조하여 함께 가며 기도해 주는 것이 뉴욕 예일장로교회의 자랑이요 목회의 보람이라고 한다. 그리고 성도들이 예배와 훈련을 통해 변화되어 가는 것을 보면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를 정도로 감격한다. 사실 이렇게 변화된 성도들이 지금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렵고 중요한 일들을 기쁘게 감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찬송가 135장(새 150장)을 좋아한다. 고생하며 신학교를 졸업할 때 마지막 시간에 불렀던 찬송이므로 기억이 늘 새롭게 다가온다. 목회를 하면서는 204장(새 288장)을 즐겨 부르게 되었다. 이 찬송가 가사를 쓴 크로스비(Fanny J. Crosby)의 신앙이 너무 아름답고 본이 되기 때문이란. 좋아하는 성구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전 1:18)이다.

김종훈 목사는 전도사 시절 퀸즈 한인교회 유년주일학교에서 사역하던 조유경 전도사를 만나 결혼해서 지금은 슬하에 주혜(22세), 미혜(20세), 형수(16세) 등 3남매를 두고 있다.

결혼에 대한 조유경 사모의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다. 조유경 사모는 한창 은혜를 받던 청년 시절 신앙 수련회에서 기도 중 하나님으로부터 목사 사모가 될 것이라는 음성을 듣고 그때부터는 결혼에 대한 기도의 방향이 오직 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 큰 틀 안에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결혼에 대하여 기도해 왔는데 몇 가지 예를 든다면, 아내



가족 찬양제에 참가한 담임목사 가정

를 충분히 사랑해 주는 사람, 건강한 사람, 예수 성품을 닮아 성실한 사람, 가정적인 사람, 자기보다 미국에 일찍 온 사람, 미국에 살지만 한문도 많이 아는 사람, 노래 잘하는 사람, 키 크고 잘생긴 사람, 믿음의 가정의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좋은 시부모님 등등 기도 제목이 참 많았다는 것이다. 이런 기도를 하면

서 너무 조건이 많아 하나님께서 골치 아프시겠다는 생각도 했었다. 그런데 결혼을 위해 만난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또 어떤 것은 기도한 것보다 더 넘치게 응답하셨다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렸다고 한다.



2. 뉴욕 예일장로교회의 시작

뉴욕 예일장로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예비하심 가운데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설립되었는데, 그 시작은 가정에서 몇 사람들이 모인 작은 수요 모임으로부터 출발한다.

1) 가정 모임

1993년 3월 3일 사순절을 지나던 수요일 저녁, 뉴욕의 퀸즈 지역 베이사이드에 있는 남홍우 집사 가정에 12명의 장년들이 수요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 모여들었다. 여러 해 동안 섬겨 오던 교회를 떠나 교회를 정하지 못한 사람들과 또 섬기던 교회의 담임목사의 부재로 인한 성도들 간의 마찰과, 그로 인해 계속된 신앙의 갈등과 고통을 겪다가 슬한 상처를 안고 흩어졌던 양 무리들이 새로운 믿음의 결단과 소망으로 모여온 것이었다.

이 작은 모임은 섬기던 교회를 사임하고 기도원에서 앞으로의 진로를 위해 기도하던 김중훈 목사를 모시고 박순영 장로, 송광수 장로 등 두 분의 장로 가정과 남홍우 집사 가정, 김



창립 초창기 가정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영자 집사 가정, 이요섭 집사 가정, 고신화 집사 등이 참가해서 말씀 공부를 하며 시작되었다. 당시 김종훈 목사는 35세로 젊고 참신하고 성결한 신앙의 소유자로서, 겸손한 언행으로 부목사 시절부터 성도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고 있었다.

김종훈 목사의 인도로 시작된 가정에서의 첫 성경 공부는 그동안 짓눌리고 목말랐던

그들의 영혼의 밭에 단비가 되어 푸릇푸릇 영의 새싹이 돋아나게 했으며, 통성으로 드렸던 그 뜨거웠던 기도들은 간혀 있던 영의 호흡이 마침내 터져나와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마가의 다락방이 되게 했다. 그로부터 주일마다 삼삼오오 모여 오는 성도들로 인해 조용한 주택가가 약간은 소란해지기도 했으나, 하나님의 교회의 새로운 태동으로 인함인지 누구도 불평하는 주민들 없이 오히려 신기한 구경이라도 하듯 모여오는 무리들을 바라보곤 하였다.

낮 예배는 김종훈 목사의 집례로 거실에서, 중고등부는 조유경 사모의 인도로 진행되었다. 유년주일학교는 김성덕 선생이 맡아 인도했으며, 찬양대는 김용경 집사의 지휘로 5명이지만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 드렸다. 예배 후에는 준비한 음식으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다. 교회 건물은 마련되지 않았지만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감격과 기쁨의 눈물로 예배드리고 친교를 나누었다.

그런 한편, 김종훈 목사가 교회를 개척한다는 소식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날이 갈수록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니 그 가정의 방, 계단, 부엌, 복도가 뻑뻑이 들어찰 정도가 되었다. 그들의 모임은 마치 하나님께 대한 영적 갈망의 분화구와 같았고, 진실한 목회를 꿈꾸었던 김 목사의 기도의 응답이요, 생명 없는 마른 뼈의 뼈격거림에 대한 말씀과 성령의 도전이요, 새로운 생명과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 번 창조해 보려는 의지의 결단이었다. 약 2개월 동안 남홍우 집사 가정에서 수요 성경 공부와 주일 예배를 드리다가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는 인원이 되니,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칼리지 포인트(College Point)의 세인트폴 성공회 교회(St. Paul's Episcopal Church)로 그해 5월 첫 주일부터 옮겨 가서 5월 23일 주일

에 정식으로 '뉴욕 예일장로교회'라는 이름으로 창립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제는 예수님 제일로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고 모인 무리들을 '예일교회'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이렇게 이루게 하였고, 남홍우 집사 가정을 법궤가 머물렀던 오벰에돔의 집처럼 탄생하는 교회를 위해 준비하시고 사용하셨다.

어느새 20년의 세월이 흘렀다. 김종훈 목사의 그 푸르렀던 30대의 젊음이 이제는 50대의 중년을 넘기고 있다. 좋은 성도가 좋은 교회를 만든다는 믿음으로 모인 성숙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며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확장을 위해 꾸준히 기도하며 노력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이웃을 돌아보고, 세계를 향해 복음을 전하는 데 열심을 다하고 있다.



칼리지 포인트 성공회 교회로 들어가기 전 가정 예배를 마치고

2) 가정 모임에서 칼리지 포인트의 교회로 이전

매주 수요일과 주일 약 2개월 동안 남홍우 집사 가정에서 모여 예배를 드리던 김종훈 목사가 교회명을 짓기 위하여 기도원에 다녀왔다. 김종훈 목사는 기도원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가지고 예수님 제일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를 따서 '예일교회'라는 교회명을 정하고 날로 많아지는 성도 수로 인해 감사함으로 예배 처소를 구하는 데 박차를 가하였다. 여기에 칼리지 포인트에 예배 처소를 얻기까지 눈물 나는 경험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살펴보자.

(1) 초창기 교회 예배 처소를 얻기까지 숨은 이야기

예수 제일의 '예일교회'라고 교회명을 정하고 가정집에서 예배를 시작하였지만 하나 둘씩 몰려오는 성도들로 인해 자리가 비좁아지게 되자 속히 예배 처소를 구해야 하는 긴박함을 느끼게 되었다. 김 목사와 사모는 플러싱, 베이사이드, 와잇스톤, 더글라스톤, 리틀넥, 포레스트 힐, 엘머스트 등 교회란 교회는 다 돌아보면서 임대해 줄 교회를 찾았다. 한번은 러시아 정교회를 빌려 보려고 주임 신부를 만났는데, 그 신부는 난처했는지 교단의 특성을 들어 점잖게 거절하기도 했다. 또 한번은 건물도 괜찮아 보이고 교육관도 꽤 커 보여서 문을 두드렸는데, 담임목사가 고개만 빼죽 내밀더니 귀찮은 장사꾼 대하듯 인상을 쓰면서 “너같이 교회 빌리려고 오는 사람들이 한 달에 두세 명은 된다”고 차갑게 말한 뒤 문을 꽁 닫아버렸다.

교회 없는 서러움을 한껏 느끼며 두 내외는 힘없이 집으로 돌아왔다. 어떤 교회는 안면이 있는 목사들을 통해 교단적으로 알아보기도 하고 직접 찾아가서 미국 교회를 빌리려고 애를 써 보았지만, 약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격이었다.

어느 날 예배 처소를 찾아 헤매던 김 목사가 아무런 수확 없이 집으로 돌아오는데 처량하게 비가 주룩주룩 내리기 시작했다. 마음에 허전함과 쓸쓸함이 몰려오면서 김 목사는 하늘을 향해 기도드렸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 예비하신 처소가 도대체 어디입니까? 속히 보여주소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비를 흠뻑 맞으며 힘없이 걷는 그의 얼굴은 빗물로, 또 눈물로 젖어 있었다.

며칠 후 교회를 빌려 보려고 모든 교회의 주소가 들어 있는 옐로 페이지 전화번호부를 뒤지며 교회를 찾아보고 있던 사모가 갑자기 말을 꺼냈다. 신학교 다닐 때 함께 공부했던 목사님의 교회가 새 성전을 마련해서 이사를 했으며, 그 교회 창립 예배 때 본 자그마한 성전이 괜찮았다고 말을 꺼냈다. 이 말을 듣자마자 김 목사는 바로 연락해 보라고 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마침 사모가 김상의 목사 사택으로 전화를 했더니 바로 연락이 되었다.

김상의 목사는 칼리지 포인트에 위치한 성공회 교회에 어떻게 한국 교회가 들어가게 되었으며, 자신이 담임한 안디옥선교교회가 그동안 어떻게 그 교회를 빌려 썼는지 함께 지낸

과정과 교회를 이전하게 된 동기, 미국 성공회 교회의 근황을 알려 주면서 한번 시도해 보라고 조언해 주었다. 안디옥선교교회가 나올 때는 미국 성공회 교회에 타 민족에게 임대해 주는 것을 반대하는 무리가 있었지만, 지금은 재정적으로 어려울 테니 한번 연락을 해보면 자기들의 사정에 따라 다시 임대를 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말에 희망을 걸고 김 목사와 사모는 곧장 칼리지 포인트에 있는 세인트폴 성공회 교회로 갔다.

그 당시 성공회 교회는 재정난으로 담임 신부가 없고 임시 파트타임 하비 신부(Father Harvey)가 예배를 인도하고 있었다. 그는 김 목사의 제의를 흔쾌히 받아들이고 의논을 거친 후 결과를 알려 주기로 약속했다. 김 목사 내외는 흥분을 감출 수 없어 매우 기뻐하며 온 교인들에게 이 일을 알리고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기다렸다. 드디어 성공회 교회에서 허락한다는 연락이 왔다. 매 주일과 수요일을 정기적으로 쓰기로 하고 5월 2일 첫 주일부터 칼리지 포인트의 세인트폴 성공회 교회로 이전하여 예배를 드리기로 했다. 오매불망 찾고 기다리던 예배당을 드디어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이렇게 찾게 되니 모두들 감격해 하며 곧 있게 될 창립 예배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했다.

그런데 아쉽게도 임대한 성공회 교회는 성전 옆에 교육관이 있는데, 그곳에서 정규 학교를 운영하고 있어 교실을 빌려 쓸 수가 없었다. 장소의 한정으로 인해 교육관이 더 필요하고 새벽 기도도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하기에 두 장로들이 사택을 좀 큰 것으로 얻어서 그곳을 사용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 당시 김 목사 가정은 투 베드룸 아파트에서 살았는데 교회 주보를 만들기 위해 컴퓨터와 복사기를 놓았기에 비좁은 상태였으며, 새벽 기도도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여의치 않아 이 제안에 동의하고 집을 구하기 시작하였다. 사택이 교육관을 겸하기 위해서는 꾸민 지하실이 있는 집이어야 하며, 동네 사람들에게 소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집과 집 사이의 거리가 조금은 떨어져 있는 곳이 좋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주차가 용이해야 한다는 조건도 들어갔다.



칼리지 포인트 성공회 교회당 전경

김 목사 내외는 이런 조건을 갖춘 사택을 찾을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했다. 많은 집을 보고 두 장로들도 같이 여러 집을 다녀 보았지만 마땅한 집이 없었다. 고민하던 차에 어느 날 사모가 <뉴욕 뉴스테이> 신문을 사가지고 와서 보고 있노라니 갑자기 집 렌트 광고가 눈에 크게 들어왔다. 재빨리 전화를 걸어 보았더니, 부동산에서 내놓은 광고로 집이 칼리지 포인트에 있는데 당장 들어갈 수 있는 빈 집이라며 와보라고 했다. 부동산 관계자와 함께 가서 보니 과연 교회 교육관으로 쓰기에 안성맞춤인 곳이었다. 교회와의 거리도 차로 2-3분, 걸어서도 15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인 데다가 막다른 T자 골목이라 동네가 한적한 곳으로 주차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도로였다.

또한 사택 뒷마당이 넓어서 차가 몇 대 설 수 있을 뿐 아니라 드라이브 웨이가 길어서 즐줄이 주차할 수 있었다. 게다가 창고로 쓸 수 있을 만큼 넓은 투 카 가라지(two car garage) 옆에 작은 창고로 쓸 수 있는 헛간이 또 하나 있었다(후에 작은 창고는 선한 사마리아인 주간에 쓰는 청소 기구들을 보관하는 창고로 썼다). 또 지하실에서 성가 연습을 해도 옆 집과의 거리가 있어서 잘 안 들릴 것 같아 정말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지 않고서는 이렇게 꼭 합당한 집을 얻을 수는 없을 것 같았다. 지하실도 뒷마당에서 직접 들어갈 수 있고 넓으며, 화장실도 있어서 정말 교육관으로 쓰는 데 어려움이 없는 조건이었다.

마침 그곳 지하실에 전 주인이 썼던 피아노가 한 대 있었다. 김 목사 내외가 피아노에 대해서 물으니 전 주인은 그랜드피아노를 새로 구입했기 때문에 업라이트 스타일인 피아노를 팔려고 한다는 것이었다. 여호와 이레, 정말 또 한 번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다. 당장 피아노가 필요했는데 아예 놓여져 있는 것을 보고 김 목사 내외는 그것을 200달러 깎아 1,300달러에 구입하여, 교회가 사택을 사용하는 날까지 지하실에서 학생들이나 성가대나 누구든지 필요하면 쓸 수 있도록 하였다. 사택 부엌도 넓어서 여러 사람들이 와서 음식을 해먹어도 불편이 없었다.

그뿐 아니라 부엌 옆을 바로 패밀리 룸으로 썼던 전 주인이 필요하면 쓰라면서 팔각형 식탁을 놓고 갔다. 할렐루야! 예비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드렸다. 청년들이 와서 먹고 중고등부 학생들이 와서 쓰고 찬양대원들이 식사할 때나 모임이 있을 때마다 그 식탁은 유용하게 잘 쓰였다. 교인들마다 와서 보고는 모두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딱 맞는 사택을 주셨다

고 놀라면서 감사를 드렸다.

그 당시 둘째 아이의 출산을 앞두고 만삭이 다 된 사모는 창립 예배 3일을 앞두고 집을 이사하고 교회 첫 출발 예배를 준비했다. 새로 이사한 사택을 사람들은 목사관이라 부르며 이곳을 중고등부, 청년부가 정기적으로 쓰는 교육관으로, 매일 새벽마다 모이는 새벽기도회 실로 사용했고, 제자 훈련 공부뿐만 아니라 부흥회 강사 목사 접대실로, 또 찬양대가 연습실로 사용하여 초기 예일장로교회가 성장해 나가는 데 목사관은 초석의 역할을 하였다.

(2) 창립 기념 예배와 임직식

1993년 5월 23일, 당시만 해도 한인 교포 사회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칼리지 포인트 14 Ave. 한적한 곳에 예수의 피로 값 주고 사신 주님의 몸 된 교회가 사랑과 생명의 공동체로 새 움이 트기 시작했다. “주는 그리스도 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마 16:16)라며 예수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마 16:18)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세우시는 교회에 쓰임 받게 된 것이다.



창립 1주년 기념 예배를 주관하는 김종훈 목사

창립 예배 때 말씀을 전하신 김정국 목사의 설교 제목도 이에 부합하게 “반석 위에 세운 교회”였다. 창립 예배와 아울러 취임식도 있었는데, 취임 받은 이들은 장로로는 박순영, 송광수, 안수집사로는 우윤석, 김연수, 김현수, 권사에 정남순, 김옥순 이상 7명이었다. 하나님께서는 뜻 없이 막연하게 일꾼을 세우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의 뜻 가운데서 교회의 초석이 되어야 할 일꾼들을 이날 세우신 것이다. 정도인 목사는 임직자들과 교우들에게 충성하라고 하였고, 이 권면을 받은 취임자들은 부족하지만 충성을 다짐하였다. 또 축사를 해주신 세인트폴 성공회 교회의 신부인 하비(Dr. Joel Harvey) 씨와 권오현 목사도 예수님이 제일

인 교회의 일꾼 됨을 축하해 주셨다.

교회 차량 밴 구입을 위한 다운 페이먼트를 송광수 장로가 취임하는 이들의 대표로 헌납하였고, 답사를 한 박순영 장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잘 섬기겠노라고 하며 임직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고 또 잘 믿어 달라는 부탁의 말도 곁들였다. 김상한 목사의 축도로 취임식은 끝났지만 교회의 일꾼 된 취임자를 세워 나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중들로 아름답게 쓰임 받기를 기도하고 있었다.

철이 철대로 있고 나무가 나무대로 있으면 큰 힘을 내지 못하나 이것이 서로 맞추어져서 조직되면 큰 배를 지어 능히 태평양을 건널 수가 있듯이, 우리가 각각 한 사람으로 있다면 미약하기 그지없지만 하나님의 교회로 지체가 되어 서로 연합하고 순종하여 일할 때는 구원의 방주가 되어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며, 또 누구나 그 안에서 평화, 기쁨, 사랑을 맛보고 누리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뉴욕 예일장로교회는 오고 오는 세대에서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다하여 이민 교회의 모델이 되는 교회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굳게 서리라 믿는다.

(3) 초기의 제직 활동

개척 초기에는 부서에 관계 없이 누구나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일을 맡아서 했다. 아직 교회 밴이 없던 터라 승용차나 개인 밴으로 모두들 스스로 연락해서 차가 없는 교우들을 섬겼고, 청소도 다함께 하는 등 무엇이든지 닦치는 대로 몸을 아끼지 않고 다들 열심을 내었다. 서로 한마음이 되어 일하는 모습을 보고 새로 온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말할 정도로 모두들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봉사했다.

개척 초기에 제직들은 교회 물품들을 위해 헌물을 작성할 때에도 모두 힘 닿는 대로 정성껏 봉헌했다. 자기 이름으로 혹은 자녀 이름으로도 하고, 더 나아가 온 식구들의 이름을 다 넣어서 초창기 교회 물건 구입에 자발적으로 정성껏 헌물과 헌금을 했다. 교회 창립 예배 때 장로, 안수집사, 권사 취임이 있는 후 교회가 제직의 골격이 세워지고, 이듬해부터 체계적으로 제직 부서가 생기면서 좀 더 분업화, 체계화된 활동이 시작되었다.

초기에 교회 차량이 없는 관계로 차량부는 없었지만 교회 1호 밴이 생긴 후로는 관리부에서 관리하며 차량 운영을 시작하였다. 교회 밴이 두 대가 된 1997년부터 차량부는 독립된 부서로 출범하였다. 교회가 칼리지 포인트에 있을 때에는 봉사부와 관리부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교회의 어려운 일을 위해 서로 협력했다.

초기 제직 부서 중 홍보부는 기독교 방송에 담임목사의 설교가 나가면서부터 방송 홍보에 역점을 두고, 홍보부 부원인 최운규 집사의 활약으로 홍보부가 교회를 알리는 데 일익을 담당했다. 방송 전도의 핵이었던 라디오와 TV 방송 설교는 복음 전파라는 차원에서 1995년에는 전도부에서 이 일을 맡게 되었고, 홍보부는 출판부로 이름을 달리하여 창립 2주년 기념 회보 <예수 마을>을 발간하였다.

(4) 초기의 교회학교

가. 교회 창립 당시의 교회학교

1993년 3월 남홍우 집사 가정집에서 성경 공부로 모여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됨에 따라, 부모들을 따라 함께 온 자녀들을 조유경 사모가 교육하게 되었다. 교육전도사로 계속 주일학교를 돌보았던 터라 전도사를 따로 청빙하지 않고 담임목사의 목회관에 맞추어 쉽게 교회학교를 시작할 수 있었다. 처음 모임 때에는 남제인 어린이의 방에서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모였고, 3월 말부터 중고등부는 남 집사 가정의 패밀리 룸에서 모이게 되었다. 다른 교육전도사가 없는 관계로 3월 말부터 사모가 중고등부를 맡아서 예배를 인도하고, 주일학교는 주로 김성덕 선생이 맡아서 수고하였다. 그리고 김양옥 선생이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위하여 함께 수고하게 되어 남제인 어린이 방에서 두 선생의 지도 아래 주일 어린이 예배가 진행되었다. 창립 후 첫 부활절은 남제인 어린이 방에 13명의 어린이가 모여 부활절 계란 공작을 하며 함께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축하했다.

교회 예배 장소를 칼리지 포인트의 세인트폴 성공회 교회로 이전한 5월 이후부터 주일학교는 교회 친교실인 2층을 예배실로 사용하게 되었고, 중고등부는 교회에서 차로 2-3분 거리인 목사관의 지하실을 예배실로 쓰게 되었다. 임대한 교회 장소의 협소함과 시간적 제약

으로 말미암아 목사관 지하실은 교육관으로서의 기능을 잘 감당하게 되었다. 예배를 드리러 온 교인들의 어린 자녀들은 친교실로, 조금 큰 중고등부 자녀들은 목사관으로 모이게 되었는데, 개중에는 걸어서 오기도 하였고 교사들이 차량 운행을 하여 학생들을 데리고 오기도 했다.



창립 1주년 기념 주일학교 아이들의 성탄 발표회

아직 교육전도사가 없던 초창기에는 조유경 사모가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설교를 함께 하느라 수고가 많았다. 주일학교는 성경 공부부터 먼저 시작하게 하고, 그 시간에 사모는 중고등부 학생들 찬송 인도와 설교를 하였다. 예배가 끝나면 천일웅, 손희선 두 교사가 학생들을 나누어 성경 공부를 하는 동안 주일학교에 다시 와 어린이 예배 설교를 했다. 이렇게 첫해를 보낸 후 1994년 1월 23일에 프린스턴 신학교에 재학 중인 김형석 전도사가 주일학교 담당으로 오게 되었다. 교사로는 김양옥, 김진옥, 김원태, 김성덕 선생들이 수고하였다. 김형석 전도사가 1996년 9월 말 사임한 후에는 이덕재 전도사가 청년회와 함께 주일학교를 담당하였다.

1997년부터 주일학교 부장 제도가 생기면서 김용신 집사가 주일학교 부장으로 교사로서 수고하게 되어 주일학교는 더욱 체계가 이루어져 갔다. 교육 전문가인 전도사는 커리큘럼과 내용에 충실하였고, 부장은 주일학교에 관련된 행정 처리와 진행에 있어서 일을 분담할 수 있게 되었다.

중고등부는 1994년 가을 9월부터 프린스턴 신학교에 갓 입학한 안종설 전도사가 담당 교역자로 오기까지 조유경 사모가 계속 이 부서를 지도했다. 초기에 많은 수고를 담당했던 천일웅 교사가 1994년 봄, 결혼을 하면서 교회를 떠나게 되었고, 곧이어 손희선 선생과 더불어 청년회 부회장으로 있던 계현민 선생이 학생들을 위해 수고하였다. 중고등부는 안종설 전도사가 부임하기 전까지 13명의 학생들이 있었는데 담당 전도사가 부임한 후에야 비로소 중고등부 토요 모임이 시작되었다.

나. 초창기 주일학교 여름수련회

창립한 해인 1993년 여름 7월 24~26일(토~월)에 펜실베이니아 주 포코노 기도원에서 어린이 캠프를 Elsie Ezzo 목사를 모시고 2박 3일 동안 “Pioneers for Christ”라는 주제로 진행했다. 이듬해부터는 김형석 전도사의 지도하에 같은 장소에서 “Come along with Jesus”라는 주제로 캠프가 있었고, 그 후 매년 한 차례씩 2박 3일의 어린이 캠프를 여름에 실시하였다.

다. 초창기 청년부

교회학교 소속으로 대학교 이상 대학원생, 그리고 미혼인 남녀를 중심으로 매주 금요일 혹은 토요일에 모여서 담임목사의 지도 아래 성경 공부를 목사관에서 했다. 청년회가 조직되어 활발하게 움직이기까지 손희선, 김성덕, 김양옥, 김원태, 계현민, 홍건 등의 청년회원들의 헌신과 수고가 많았다. 1996년 교회가 점차 부흥함에 따라 청년회를 전담하는 전도사가 부임하였다. 2월 4일에 이덕재 전도사가 부임하여 1997년 8월 말까지 청년회가 활성화되었는데 특별히 유학생들이 많이 모이던 시기였다. 그 후 청년회는 교육목사로 8월초 부임한 김용일 목사가 맡아 성경 공부를 계속 인도하였다.

3. 뉴욕 예일장로교회의 기반 조성기 (칼리지 포인트)



칼리지 포인트로 이전하여 예배를 교회당에서 드리게 되고 일꾼들이 세워지자 이때부터 유형 교회로서의 골격을 갖추게 된 예일교회는 이 시기를 기점으로 착실히 기반을 닦기 시작했다. 먼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가지고 그리고 이웃과의 수평적 관계를 바로 갖 고자 김종훈 목사는 초창기부터 교회가 사회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하여 선한 사마리아인 주일을 만들고 이를 실천해 나갔다.

1) 이웃과 사회를 위한 손길—선한 사마리아인 주일

신앙의 생활화를 위한 나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선한 사마리아인 주일을 지키기 시작한 것은 교회가 창립된 1993년도부터이다. 담임목사의 목회 계획에 따라 매월 한 주간씩 이 일을 실천한 것은 누가복음 10장 30~37절에 나오는 강도 만난 사람과 그 곁을 지나간 세 사람의 모습에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선한 사마리아인이었기 때문이며, “너희도 이

같이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며, 예수님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섬기러 오셨기에 ‘예수님 제일’이 표어인 본 교회가 예수님을 본받고자 이 일을 행하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매달 한 번씩 선한 사마리아인 주일을 지키게 되었다.

(1) 교회 주변 거리 청소

선한 사마리아인 주일 그 첫 번째 행사로 1993년 6월 20일 주일 예배 후 교회 주변 거리 청소를 시작하였다. 유치부로부터 소망회(지금은 제1선교회)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가 여기에 동참하였다. 소망회는 공원 안쪽, 남선교회는 교회에서 왼쪽 블록, 여선교회는 교회 정면 블록, 유년부, 중고등부, 청년회는 교회 오른쪽을 맡았다. 하얀 바탕에 검정 글씨로 쓴 ‘뉴욕 예일장로교회’란 어깨띠를 두른 예일의 천사들이 분주하게 깨끗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 움직였다. 빗자루를 들고 쓰는 이들, 쓰레기를 줍는 이들, 쓰레기 봉투에 담아 넣는 이들, 특히 연세가 많으신 소망회원인 김성울 장로와 차정희 권사, 정남순 권사는 더욱 열심히 하여 성도들의 본이 되었다.

온 교우들의 얼굴에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기쁨의 웃음꽃이 피었고, 열심히 움직이는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함께 거들기도 하는 김종훈 목사도 함박웃음을 지으며 기뻐하였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본 교인들의 모습은 주변 이웃들을 감동시켜 교회 왼쪽에 있는 피자 가게에서는 시원한 콜라를 대접하는 등 수고한다고 치하하기도 했다. 온 교우들의 협력으로 이 일을 실천할 때, 이웃이 기뻐하고 우리 자신들이 기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행사가 되었다.

(2) 맨해튼 홈리스들을 찾아서

1993년 12월 5일과 12월 12일자 예일교회 주보에 불우이웃 노숙자(homeless)들을 위해

코트를 수집한다는 광고가 나가자마자,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이 많은 교우들이 아직 입을 만한 깨끗하고 좋은 코트, 스웨터 등 따뜻한 옷들을 가져오기 시작했다. 예일교회는 세탁소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 말긴 옷을 찾아가지 않아 세탁소에 방치해 둔 옷들 중에 좋은 코트들을 많이 가져와서 차곡차곡 큰 비닐봉투에 넣으니 열 개가 되었다. 거기에는 담요와 양말들을 많이 사서 보태니 거의 이삿짐처럼 큰 짐이 되었다.

1993년 12월 18일(토)은 겨울 날씨에 걸맞게 꽤 추웠다. 그 당시 구제부장 김연수 집사(현 주느교회 담임목사)의 주관 아래 김종훈 목사를 비롯하여 박순영 장로, 남홍우, 김문호, 이수근 집사 등이 그 많은 짐을 교회 댐에 싣고 맨해튼 중앙역(Manhattan Grand Central Penn Station), 메디슨 광장 지하철(Madison Square Garden Subway)을 중심으로 추위에 떨고 있는 불우이웃 홈리스들을 찾아갔다.

그 당시는 딘킨스(David Dinkins)가 뉴욕 시장을 할 때로 지하철 부근에 상당히 많은 홈리스들이 있었지만, 이들을 찾는 이는 많지 않았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안전상의 이유,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 신변의 위협을 이유로 이들을 피해 가는 게 보통이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받은 예일의 천사들은 이 사랑을 전하고 나누기 위해 추운 겨울 일을 마친 후에 보따리를 들고서 맨해튼의 차가운 밤거리로 나섰다.

홈리스들은 자기들을 도우려고 온 예일의 용사들을 알아보고 옷가지와 코트, 담요, 양말 등을 받아 들고 좋아하며 금세 친구들에게 연락하여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 어떤 이는 이가 다 빠져서 하나밖에 남지 않은 이를 드러내고 웃으며 고마워했고, 어떤 이는 종이상자

집에서 나와서 이것들을 받아갔고, 어떤 이는 맨바닥에 누워 있다가 일어나서 받아가며 좋아했다. 또 금방 받아 감추어 놓고 또 받으러 오는 이도 있었다.

코트와 옷을 줄 때는 전도지도 곁들여 주었다. 이렇게 나누어 주는 일은 저녁 8시부터 시작하여 새벽 1시가 넘는 시각까지 계속되었다. 모두들 하루 일을 마친 후 저녁 시간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할렘 선교사역

에 나와서 봉사했지만 피곤도 있고 나눔의 즐거움을 맛보며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렸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약 2:15-16) 라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일의 성도들을 아름다운 도구로써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 후에도 선한 사마리아인 주일로 한 달에 한 번씩 지키고 있다. 1994년에는 12월 17일에, 1995년에는 12월 16일에 본 교회 이수일 집사가 근무하는 브롱스 레버넌 병원(Bronx Lebanon Hospital)의 홈리스 환자들을 위해 수집한 의류를 담임목사와 장로, 안수집사들이 함께 찾아가서 전달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었다. 이 귀한 일에 쓰임 받으며 나눔의 기쁨을 맛보게 하신 주님께 찬양드린다. 할렐루야!

2) 신앙 공동체 훈련—캠핑

초창기 예일교회는 가족 같은 분위기여서 캠핑을 자주 갔었다. 그 당시 캠핑은 젊고 패기에 찬 담임목사의 도전 정신과 용기에서 이루어진 교회 행사이기도 했다. 1993년 현충일(Memorial Day) 연휴에는 캐츠킬로, 1994년 독립기념일 연휴에는 클레런스 파네스톡 메모리얼(Clarence Fahnestock Memorial)로, 1995년 7월 독립기념일 연휴에는 마운틴 레이크 캠프(Mountain Lake Camp)로 갔었다.

장소를 선정하는 일이나 답사하는 일은 남선교회에서 주로 맡아 수고해 주었다. 온 성도



옥스 바우 캠핑 사이트에서 캠프 파이어 뿔감을 준비하며

들은 어린아이들이 소풍 갈 때처럼 이날을 기다리며 텐트, 따뜻한 옷, 먹을 것 준비 등으로 들뜬 분위기였다.

처음 캠핑을 갔던 캐츠킴의 옥스 바우 캠핑 사이트(Ox Bow Camping Site)는 그 전경이 너무 아름다웠다. 마치 병풍을 둘러놓은 것 같았고, 바닥은 연록색 잔디로 덮여 있어 그 위에서 뒹굴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했다. 그곳에서 예일의 가족들이 옹기종기 텐트를 치고 사랑의 공동체로 이들을 함께 생활했다. 준비해 가지고 간 그릴에 불을 피워 소금에 살짝 절여 간 콩치를 맛있게 구워서 성도들을 먹이느라 차정희 권사와 이정화 집사 두 모녀가 수고를 많이 했다. 그날 이후로 콩치구이를 좋아하게 된 이들도 있다고 한다. 또 유만식 집사가 준비해 온 통돼지 새끼를 직접 구워서 온 성도들에게 맛보일 때 그 맛 또한 아무 데서나 쉽게 경험할 수 없는 일품이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마른 통나무들을 모아 긴 톱으로 톱질하는 우윤석 집사, 공창일 집사가 나무를 자르는데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 주려고 나무를 타고 붙들고 앉아 있는 김성울 장로, 이는 마치 흥부네 박을 톱질하는 것을 연상케 하는 참으로 흔히 볼 수 없는 아름다운 풍경들이었다. 탁 트인 벌판에서 자유롭게 뛰고 달리는 아이들, 이 모두가 지금도 그리워지는 추억의 시간들이다.

어찌 이뿐이라! 육의 양식 못지않게 영의 양식도 캠핑 중이었지만 풍성했다. 기회를 놓칠세라 열심히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은혜 받은 성도들이 기뻐하며 “할렐루야! 주를 찬양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하였고,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얼굴에는 기쁨이 충만하여 입을 다물지 못했다. 집회가 끝났는데도 돛자리를 깔아 놓고 그 위에 모여 앉아서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내게 강 같은 평화, 샘솟는 기쁨,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넘치네……” 하며 기뻐하였다.

그처럼 은혜가 넘치고 끈끈한 정을 나누는 화목한 캠핑이 된 것은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로 준비하여 갔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쏟아부어 주신 것이라 생각된다.

지금은 성도들이 많아져서 온 성도가 함께 캠핑을 갈 수 없지만, 그때의 캠핑은 영육 간의 포식, 심신 단련, 마음껏 소리 높여 찬양, 성도들 간의 사랑의 공동체 생활로 주 안에서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확인하는 좋은 기회였다. 이렇게 은혜 가운데 캠핑을 다녀올 수 있었던 데에는 보이지 않게 수고를 아끼지 않은 많은 사랑의 손길이 있었음을 기억한다.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 또 찬양드린다.

3) 효도관광

뉴욕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예일교회처럼 정말 효도관광다운 효도관광을 보내는 교회는 많지 않을 듯하다. 교회 창립 때부터 매년 5-6월에 한 차례씩 담임목사가 연로하신 여러 부모님들을 모시고 효도관광으로 짧은 여행을 다녀온다. 그러면 주변 모든 사람들과 타교인까지 부러워하는 예일교회의 효도관광에 대해서 알아보자.

예일교회의 효도관광은 정말 효도 그 자체라 하겠다. 여러 남녀 선교회에서 제1선교회(구 소망회)의 나이 드신 어르신들을 위하여 효성의 마음을 담아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낸다. 그뿐만 아니라 자원하여 식사를 제공하는 분들이 있고, 필요한 물품들도 기증해 주어서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오랜만에 함께 짧은 기간이지만 여행하시는 데 불편이 없도록 세밀히 신경 쓰는 분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인지 갈 때마다 늘 풍성한 여행이 되었다.

효도관광은 예일교회의 아름다운 효의 전통으로 자리 잡아 흐뭇하고 따뜻하며 은혜가 넘치는 여행으로, 모든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창립 초기 소망회와 함께한 효도관광



온 교우들이 섬기는 제1선교회의 효도관광 여행

1년을 꼬박 기다리는 여행 프로그램이 되었다. 효도관광은 창립한 이듬해인 1994년부터 지금까지 행해져 오고 있다. 첫 번째 효도관광은 뉴욕 업스테이트의 사라토가 온천으로 당일에 갔다 왔는데, 온천에서 목욕을 하신 여러 어른들은 뽕얇고 핑크빛 도는 뺨질뺨질한 얼굴을 보고 서로 웃고 기뻐하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1995년은 소망회(현 제1선교회) 자체 내에서 다녀 오시도록 하우 동굴과 불빛 기도원 일정을 잡아 드리고, 마침 관광 회사 버스를 운전하시는 분이 있어서 약도를 주어 교회 밴 한 대로 다녀오시게 하였다. 그런데 불행히도 길을 못 찾아 헤매느라 장시간을 차 안에서 머물러야 하는 일이 생겼다. 오랜 시간 동안 차를 타고 길을 헤매다 보니 피곤하여 효도 관광이 아니라 불효 관광이 되어 버렸다. 다녀오신 분들이 모두 다시는 안 가겠다는 말씀을 하실 정도로 불만족스런 여행이 되어 다음해부터는 목사와 사모가 직접 함께 동행하게 되었다.

짧은 시간에 장거리 여행은 무리가 따르는 것을 감안하여 2박 3일의 넉넉한 여정으로 바꾸고 1996년은 뉴햄프셔 주의 스톤 마운틴으로 다녀왔다. 교회 밴 한 대로 소망회 회원들을 모시고 담임목사가 손수 운전하여 다녀왔다. 이때부터 효도관광은 짜임새가 있게 되어 말씀과 기도 그리고 휴식이 어우러진 알찬 여행으로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효도관광은 목적지에 도착하여 방 배정을 하고, 준비해 온 음식들로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예배로 시작된다. 담임목사가 직접 말씀을 전하고 기도회로 마치면 첫날 스케줄은 끝난다. 다음 날은 아침 예배로 시작하여 목적지 관광을 한 후 저녁 예배가 있다.

연세가 많으신 관계로 무리한 스케줄은 잡지 않지만 감사하게도 여행지에서 크게 아프거나 사고를 당한 적은 이제까지 한 번도 없었다. 돌아오는 날은 아침 예배와 기도 시간이 긴데 이는 효도관광을 통해 받은 은혜를 듬뿍 나누기 때문이다. 눈물을 흘리거나 간증으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감사를 나누다 보면 떠날 시간이 된다. 예배 때마다 이번 관광을 위해 사랑을 베푸는 손길들을 위해 마음으로 감사하는 기도가 빠지지 않는다.

효도관광은 바쁜 이민 생활 가운데 잇기 쉬운 부모님들의 노고와 사랑에 보답하는 기회가 되어 효를 실천하는 장이 되었고, 그래서 숨은 아름다운 마음이 많이 담긴 미담들이 매년 쌓여가고 있다. 이제까지 효도관광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동기가 있기도 하였다.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해서 못 다한 효도를 하고

자 돕는 분들, 교회 어른들을 나의 친부모님처럼 생각하여서 돕는 분들 등등, 모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자원함으로 도시락도 제공하고 반찬, 음료수, 과일, 여행 경비 보조 등 푸짐한 손길을 아끼지 않았다. 그런 관계로 효도관광은 늘 풍성한 관광으로 맛있는 음식도 풍성했다. 처음에는 교회 밴 한 대로 가던 인원이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하면서 2002년에는 교회 밴이 3대로 늘어났다.

효도관광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나이 많은 분들의 선교회에서 매년 가는 행사로, 교회에서 경로사상 차원에서 숙박비를 제공하고 나머지는 모두 기부금으로 여행 경비가 충당되고 있다.

효도관광을 다녀오신 분들은 한결같이 교회에서 베푸는 사랑과 정성에 큰 감동을 받는다. 효도관광은 늙은이는 아비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는 어미에게 하듯 하라는 성경의 가르침이 소리 없이 행해지는 은혜로운 행사이다.

4) 전 교우 체육대회

전 교우 체육대회는 1994년부터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전 교우들의 단합과 심신 단련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대회는 몇 구역을 합쳐서 청팀, 홍팀으로 나누어 체전이 있게 된다. 주로 오전에는 예배를 드리고 점심 식사 후에는 본격적인 경기에 들어간다.

매 해 팀을 구분하기 위해 교회에서 모자 혹은 티셔츠를 배부하며,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두들 마음껏 하나님이 주신 자연에서 하루를 잘 즐기도록 게임을 구성한다. 게임은 단체 게임과 개인 경기로 구분하여 각 게임에서 얻은 점수를 합하여 마지막 시간에 푸짐한 시상을 한다.

경기 내용을 살펴보면, 전 교인을 청·홍 두 팀으로 나누어 하는 ‘줄다리기’는 가장 싫어하면서도 가장 인기 있는 경기다. 앞으로 전진함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죽기를 다해 뒷걸음을 쳐야 하는 이 게임은 공평한 편가르기 덕분에 막상막하의 결사적인 투쟁으로 몰아넣는다. 손바닥이 까지는 것은 예사이고, 40대 장년이면 사나흘 동안 온몸이 빠근하고, 여자들은



전 교우 체육대회 전 몸을 풀기 위한 스트레칭



전 교우들이 함께 즐기는 바구니 터트리기

일주일 동안 근육통과 씨름한다. 이래서 다시는 안 하겠노라 다짐을 하지만 다음 해에도 줄은 길어만 간다.

체육대회를 위한 준비위원들은 소외되는 성도들이 없도록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짠다. 릴레이, 주일학교 피구, 단축 마라톤, 족구, 소프트 볼, 풍선 불기, 부부 업고 달리기, 여자 발야구 등과 개인 경기도 많다. 구역 행사

나 선교회별 행사와는 달리 온 성도가 게임에 따라서 이리 쉼이고 저리 뭉친다. 여러 사람이 소탈하게 엮히고 또 설키면서 예일의 성도들은 정말 한식구가 되어 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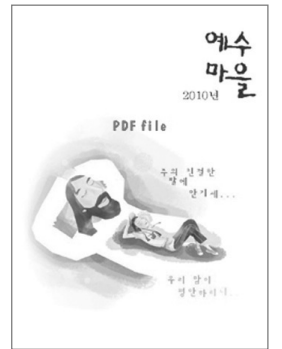
체육대회의 마지막 장식은 각 여선교회에서 만든 오재미로 청년회에서 비밀리에 속을 채운 바구니 터트리기이다. 온갖 사탕과 초콜릿, 껌들이 만나처럼 하늘에서 터져 내리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테이프가 길게 펼쳐지며 바람에 흩날리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 것을 잊지 않게 한다. 목자와 양 떼가, 부모와 자식이, 선생과 학생이 하나님의 품에 안겨 그가 창조하신 자연 속에 아름다운 수를 놓는다. 팔다리가 저리고 아파도 기울어 가는 햇살이 아쉽기만 하다.

흐트러진 공원을 말끔히 청소한 다음 내년을 위해 기구들을 기쁨으로 챙기게 됨은 육신의 힘만을 겨누고자 하는 체육대회가 아니요, 서로의 영성이 날개를 타고 부딪치고 밀어주

고 붙들어 주고 서로를 싸매며 사랑으로 연합하는 성도 간의 영적 기쁨이 있기 때문이다.

5) <예수 마을> 창간

뉴욕 예일장로교회에서 발간하는 <예수 마을>은 1995년 교회 2주년 기념으로 창간되었고, 현재 2012년까지 통권 14호까지 발간되었다. <예수 마을>은 여러 성도들의 신앙 간증과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자신이 겪은 좋았던 경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사랑하는 자녀에게 보내는 편지, 건강 정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글을 실고 있다.



6) 추수감사절 감사 찬양제

예일교회의 추수감사절 구역 감사 찬양제는 교회의 창립과 함께 시작되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시 100:4).

시편 말씀에서 발상된 담임목사의 계획이니 교회의 창립과 동시에 시작된 것이 우연은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조건적 감사가 아닌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무조건적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하며,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찢으신 그리스도의 희생적 감사로 동참해야 한다(1993년 9월 21일 첫 감사주일 설교)는 것을 말씀하였다. 뒤이어 오후 3



아이들도 함께하는 감사찬양제



간단한 소품으로 일체감을 표시한 모습

시 칼리지 포인트 성전에서 구역 감사 찬양제의 제1막을 올렸다.

매주 성경 공부 모임을 갖는 구역별로 구역장의 인솔하에 준비했고, 바울선교회 주관으로 진행되었다. 전도사로 있는 조유경 사모와 지휘자 김용경 선생의 심사 기준과 선교회에서 준비한 상품 설명이 있는 후 김효삼 전도사의 매끈한 사회로 다섯 구역에서

준비한 은혜스러운 찬양제가 열렸다. 자발적 참여로 열린 찬양제로, 모든 성도들의 열의와 감사하는 마음이 이 시간을 충만하고 역동적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작한 찬양제는 그 후 20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그 내용에 많은 노하우를 쌓으며 '예수님 제일'을 모토로 하여 살려는 예일의 성도들의 영적 성장과 성도 간의 사랑의 유대를 끈끈하게 다져 주는 아름답고 감격스러운 찬양제로 발전하였다.

이 찬양제를 통해서 얻어진 영적 수확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각 구역(현 목장) 멤버들을 하나가 되게 하였다. 찬송(지정곡, 자유곡)을 함께 연습하다 보면 마음이 하나가 되고,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함께 울동을 하며 찬양을 하면 모두들 순수한 동심으로 돌아가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다. 의상이나 장식품 통일에도 어느 누구 예외가 없다.

둘째로, 소속감과 연대의식을 강하게 했다. 보통 때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여가 부진했던 구역원들도 이때만은 만사를 제쳐놓고 참여하게 된다. 나 하나쯤 빠져도 상관없으리라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적극적인 모습으로 바뀌는 것이다. 점차 교회 부흥으로 인해 교인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때는 찬양제의 참여도가 보통 90%를 넘었다.

셋째로, 새 가족들을 동참시키는 역할을 한다. 함께 찬양을 하는 가운데 생소함과 어색함 또는 소외감이 용해되고 더불어 믿는 믿음의 동지들과 융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다음은 기발한 창의력이 동원되는 장이기도 했다. 각 구역(현 목장) 간의 선의의 경쟁 의식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색하게 했다. 어떻게 하면 차별화되고 감격스러운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까 머리를 싸매고 연구들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기 구역만의 독특성을

끝까지 비밀로 지켜야 하는 지조와 스티도 많아졌다. 해를 거듭할수록 열의가 더해졌고, 독특한 아이디어가 넘쳤다. 솔뚜껑이 악기로 등장하는가 하면 장구, 탬버린, 그리고 아동들의 악기 연주도 온 성도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하였다. 그저 일렬로 서서 찬송만 부르는 것이 아닌 악기와 울동, 다양한 의상 등을 동원하여 하나님께 마음껏 헌신의 찬양을 드리는 것이다.

끝으로, 이 행사를 통해 약한 자를 배려하는 아름다운 마음이 생김이 큰 수확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감사 찬양제를 통해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자랑하는 모습으로 변하며, 나 혼자만이 아닌 서로가 있기에 내가 있다는 자세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게 된다. 그동안 개인적으로나 구역(현 목장) 속에서, 또는 교회적으로 겪어야 했던 모든 고난과 난관 속에서도 해마다 감사의 찬양을 이어온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일 제단의 감사의 찬양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대상을 차지한 마을의 발표

7) 세인트폴 성공회 교회와의 관계

뉴욕 예일장로교회가 세인트폴 성공회 교회를 빌려 쓰게 되었을 때 김종훈 목사는 미국 교회와의 관계를 위해 신경을 많이 썼다. 성공회 교회는 교회 위원 제도(Church warden)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당시 위원장인 글로리아(Gloria)는 교회를 사용하는 데 매우 까다롭게 조건을 붙였다. 교회 부엌에서 한국 음식을 만드는 것을 금지하였고 대신 따뜻하게 데우는 것은 허락했다. 이런 이유로 예배 후 친교는 빵과 커피로 국밥을 대신할 수밖에 없었다.

예배 후 뒷정리와 청소를 위해 누구 하나 얼굴 찡그리는 일 없이 남녀 모두 청소를 시작



세인트폴 성공회 교회에서 지낸 추수감사절

했다. 남자들이 쓸고 닦고 테이블을 접고 무거운 물건들을 옮기는 동안, 여자들은 부엌을 청소했다. 청소를 다 끝나치고 쓰레기 봉투를 아래층으로 내려다 놓으면 그날의 예배는 다 마치게 되는데, 특별히 봉사부원들의 수고가 많았다.

아무리 청소를 깨끗하게 한다고 해도 가끔씩 실수가 있게 마련인 것이다. 하루는 글

로리아 위원장이 교회 예배당에 떨어져 있던 껌 껌질, 사탕 껌질 등 쓰레기들을 모아 편지 봉투에 넣은 다음 예일교회 메일 박스에 김종훈 목사 앞으로, '예일교회가 예배드린 본당에 떨어져 있던 쓰레기' 라면서 작은 쪽지와 함께 넣어 놓았다. 편지를 받은 김종훈 목사는 처음에는 기분이 상했지만 곧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교회를 깨끗하게 사용하고 아끼는구나' 하며 우리가 본받을 만한 일이라 여기고, 교회 광고 시간에 하나님의 성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신경써서 깨끗하게 관리하도록 했다.

무엇이든지 온유하게 받는 담임목사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성공회 교회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 예일교회가 처음 이곳을 임대할 때 있었던 하비(Harvey) 신부가 사임하고, 디 로렌조(Di Lorenzo) 신부가 새 담임신부로 왔는데 그 신부와의 좋은 관계를 가졌다. 보다 좋은 관계를 위해 성공회 교회에서 하는 그라지 세일이나 성공회 학교에서 개최하는 행사에 사모가 참석하기도 했으며, 학교 선생들과도 인사를 나누었다.

연말에는 성공회 교회에서 펀드 레이징을 위해 "산타와 함께 아침을"이라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는데, 이 행사에도 김종훈 목사 내외가 여러 동네 학부모와 자녀들을 데리고 가서 아침 식사를 하기도 하면서 관심을 갖고 참여하며 한국인 교회가 함께 돕는 모습을 보여주었더니, 성공회 교회에서 매우 고마워했다.

예일교회가 칼리지 포인트 세인트폴 성공회 교회에서 베이사이드 유대인 회당으로 옮겨 올 때에도 성공회 교회 위원들은 김 목사가 추천하는 교회에 다시 임대해 주고 싶다고 의뢰해 올 정도로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



4. 뉴욕 예일장로교회의 성장기 (베이사이드)

칼리지 포인트에서 기반을 조성한 뉴욕 예일장로교회는 또 한 번의 중요한 계기를 맞게 되었다. 그것은 곧 교회 이전으로, 교회가 학군이 좋고 한인들이 밀집해 사는 지역인 베이사이드(Bayside)로 이전, 교회 성장에 활력을 불어넣게 된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칼리지 포인트에서 베이사이드로 교회를 이전하게 된 경위를 알아보자.



베이사이드 유대인 회당 전경

칼리지 포인트의 성공회 교회는 예배 좌석이 120석이였다. 교회를 개척하여 1년이 되기까지 예배실을 그럭저럭 비좁지 않게 쓸 수가 있었지만, 그 이후로 방송 설교가 계속 나가게 됨에 따라 말씀을 들으려고 찾아오는 사람들과 교회가 조금씩 부흥됨으로 인해 예배 좌석이 모자라게 되었다. 매번 예배 전에 2층에서 접는 의자를 내려다가 예배실 뒤쪽에 놓다

보니 좀 더 큰 예배실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결론이 자연스럽게 대두되었다. 모처럼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추수감사주일이나 성탄절에는 예배실 뒤 공간도 턱없이 부족하였고, 게다가 예배드리려고 찾아온 사람들도 앉을 자리가 없어서 망설이고 주춤거리다가 그냥 가는 일도 생겨 하루속히 넓은 예배 처소를 구하는 것이 시급하게 되었다.

그래서 여기저기 부동산에 교회 자리를 알아보던 중 한 부동산 업자로부터 베이사이드에 있는 유대인 회당이 매물로 나왔다는 연락이 왔다. 교인들은 1997년 10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성전을 위해 40일 릴레이 금식기도를 드렸는데, 기도를 마친 며칠 후에 연락이 온 것이다. 그 당시 교회에서 새 예배 처소를 찾고 있던 중 교회 제직인 이수일 집사의 아들이 베이사이드의 유대인 회당에서 하는 방과 후 학교를 다니는데, 그 장소가 참 좋다는 이야기를 하며 주차장도 있고 한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콘도 앞이라 앞으로 전망도 있어 보이는데, 마침 회당장이 렌트를 하려고 한다는 말을 교회 당회에 알려온 적이 있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우리 교단 소속의 팔복교회가 이를 빌려 쓰고 있어서 무산된 적이 있었다. 그러나 다시 매물로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수일 집사를 통해 회당장에게 연락을 하고 김 목사 내외와 당회원들이 건물 안을 둘러보았다. 그러나 건물을 본 후의 느낌은 건물이 겉에서 보기보다 훨씬 규모가 있어서 건물 구입뿐만 아니라 건물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어 현재 교회 사정으로는 부담이 매우 크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하여 더 이상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회당장이 다시 사는 조건으로 세를 들어오는 ‘Rent with option to buy’ 와 ‘Sale by owner’ 라는 제안을 해왔다. 그러나 살 때까지는 렌트로 있어야 하는데 같은 한인 교회인 팔복교회가 있기에 두 한인 교회, 그것도 같은 교단의 교회가 한 장소를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 일을 없던 것으로 하고 다시 다른 건물을 보러 다녔다.

그런데 약 2주 후인 12월 30일, 팔복교회 목사님으로부터 12월 말까지만 그 장소를 사



유대인 회당 지성소를 가리고 드린 성탄 발표회

용하고 당신은 하나님이 새로운 계획을 주셨다는 연락이 왔다. 그러면서 이왕 장소가 비는데 다른 교단의 교회보다는 예일교회가 들어오는 것이 좋을 것 같으니 회당장에게 연락을 해보라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회당장도 마음을 열어 이제까지는 예배실을 빌려 주지 않고 연회장만 임대해 주는 조건이었는데, 예일교회에는 유대인들만 사용하는 예배실을 열어 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예배실에는 지성소와 같은 것이 중앙에 있는데, 그것을 이방인이 보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커튼으로 가려야 한다는 조건이었다.

회당장의 제의를 받아 그들이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한인 교회도 마땅히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에 동의하고, 후에 값비싼 짙은 자줏빛 벨벳 천으로 법궤가 있는 등 그런 기둥 부분을 모두 가리도록 했다. 그래서 유대인이 쓸 때에는 그 부분을 열어 놓고 예배를 드리고, 한인이 쓸 때에는 법궤를 가리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그리하여 1월 중순까지 계약서를 작성하고, 여러 가지 사용상의 까다로운 조건을 감수하고서 2월 초부터 예배당을 사용하게 되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유대인 회당 건물 이야기가 나오면서, 제2차 성전을 위한 릴레이 금식 기도에 들어갔는데, 그 기간 동안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 팔복교회와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고, 예배실 사용에 있어서도 유대인들의 회의에서 회당장의 재량하에 통과되어 예일교회가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가 났으며, 계약도 잘되었다.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신 이곳 베이사이드 유대인 회당에 예일교회가 입당하는 일이 모두 이 기간 동안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제껏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예배실을 어떤 민족, 어떤 종교 단체에도 빌려 주지 않았는데 한인 교회가, 그것도 예수 제일의 예일교회가 이 예배실을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뉴욕에 있는 유대인 회당 예배실을 사용하는 것은 거의 기적과 같은 일로, 하나님이 한 번 열면 닫을 자가 없다는 것을 직접 체험하는 놀라운 사건이었다.

1) 창립 5주년 기념 예배와 임직식

예일교회가 개척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가고 성도의 수가 나날이 더하여지던 무렵, 4년여의 시간이 지났을 때 기존의 장로 두 분, 안수집사 세 분, 시무 권사 두 분의 항존직으로는 봉사와 섬김의 직무를 행하기에 벅찰 만큼 교회가 성장하였다. 1997년 가을 성도들의 투표로 윤희주 장로 취임, 김연수 장로 장립, 함영호, 이백우, 이득배, 이수일 집사 취임, 김중호 집사 안수, 한양숙, 곽영란, 방영희 권사 임직 대상으로 10명이 피택되었다.

그러던 중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교회가 칼리지 포인트에서 유대인 회당으로 옮기게 되었고, 1998년 5월 24일 오후 5시 창립 5주년 기념 예배와 함께 임직식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다. 교회 창립 후 5년 동안 담임목사를 중심으로 성도 모두가 하나 되어 열심히 예배, 선교, 교육, 구제 등으로 주를 섬기며 아름답게 성장한 결실이었다. 많은 교우들과 친지, 또 노회의 목사님들이 참석하여 축하해 줌으로 더욱 기쁘고 즐거운 잔치였으며, 하나님께 다시 한 번 새로운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다.

그날의 예배를 살펴보면 김중훈 목사의 사회와 기원, 찬송가 40장으로 성령님의 함께하심을 간구하였으며, 당시 뉴욕노회 동 시찰장이었던 이상일 목사의 기도, 노회장 이승재 목사의 베드로전서 5장 1-4절을 본문으로 한 “모범적인 장로상”이라는 제목의 설교가 있었다. 특별히 여성교회가 연합하여 고운 한복을 차려입고 오랫동안 준비하였던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린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곧이어 임직식에는 새롭게 임직한 장로, 집사, 권사들의 진지하고 충정 어린 서약이 있었고 윤희주 장로의 취임, 김연수 장로의 안수식, 이수일, 이득배, 이백우, 함영호 집사의 취임, 김중호 집사의 안수식이 이어졌으며, 한양숙, 곽영란, 방영희 권사가 취임하였다. 노회의 여러 목사님들이 나와서 안수



창립 5주년 기념예배를 드리는 임직자들

식과 함께 기도할 때에는 임직자들이 하나님께 ‘아멘’으로 화답하며 눈물의 기도로 그 자신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마음을 숙연케 하기도 했다. 이제 저들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종이 되어 죽도록 충성하며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기로 서원하였던 것이다.

또 새로 장립한 김연수 장로의 감사와 감격의 답사가 이어졌을 때 온 교우들과 모인 무리들이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사랑으로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어서 교회가 취임하는 이들에 대한 기념품 증정의 시간이 있었고, 김정국(증경 총회장) 목사와 안찬수(뉴욕노회 부회장) 목사의 권면과 축사가 이어질 때 진지하게 ‘아멘’으로 화답하였다. 그리고 찬송가 246장(새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라고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충성할 것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도 했다.

끝으로, 증경 노회장 김상한 목사의 축도로 창립 5주년 기념 예배와 임직식을 마쳤고, 온 성도들이 한결같이 이 일을 기뻐하였다. 그 후로 초대 교회와 같이 더욱 성령 충만하게 교회가 성장하여 많은 주의 일을 감당하며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한 가지 아쉬웠던 것은, 예배당이 유대인 회당인 관계로 교회 내에서 한국 음식을 푸짐히 나누지 못하고 도시락과 수건을 기념품으로 준비해서 하객들에게 하나씩 나눠 준 점이였다.

2) 전 교우 여름 신앙수련회

전 교우 여름 신앙수련회는 창립한 해부터 이제까지 해마다 계속되는 여름 행사이다. 여름수련회를 통하여 전 교인이 영적인 변화와 신앙의 재충전으로 성령 충만을 피하며, 또한 이 신앙수련회를 통하여 주 안에서 기쁨과 쉼을 나누고 단체 생활을 통하여 한 형제자매의 사랑을 나누는 것을 취지로 해마



신앙수련회에서 POP 발표를 준비하는 그룹

다 한 차례씩 실시한다. 초기에는 캠핑 스타일로 수련회를 다녀왔지만, 점차 수련회에 대한 비중이 커지면서 1999년부터는 구역별 촌극을 프로그램에 포함시키고, 규모나 내용 면에 있어서 짜임새 있는 수련회로 신앙수련회를 발전시켰다.

매년 말씀의 주제를 놓고 새벽 예배, 아침 예배, 저녁 예배 시간에 강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한 영성 훈련을 받고, 매 예배 전마다 찬양 팀의 찬양과 율동은 성도들의 마음을 주께로 활짝 열어 놓게 하였다. 특별히 빼놓을 수 없는 각 구역별 촌극 대회는 그간 알지 못했던 성도들의 귀한 달란트를 발견하게 되는 시간이기도 했다. 이 촌극은 복음적인 내용을 가지고 짧은 시간에 의상과 소품 등을 준비하여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미해 설교를 직접 보고 듣게 했다. 이때 발굴된 숨은 인재들은 남여 주연상을 받게 되며, 나중에 드라마 사역 팀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졌다.

저녁 집회 후에는 자녀와의 기도 시간을 가졌다.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며 서로를 마음껏 축복해 주는 이 시간은 해를 거듭할수록 뜨겁고 가슴 벅찬 경험이 되었고, 여름수련회의 하이라이트로 자리 잡았다. 모든 집회가 마친 후에는 잠자기 전 성도 간에 중보 기도를 나누거나 개인적으로 철야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기도 한다.

3) 교육 여행

예일교회 교육 프로그램 중 1999년부터 좀 특이한 것이 생겼다. 그것은 곧 교육 여행이다. 이 역시 예일교회 자랑거리 중 하나이다. 이 행사는 초등학교 어린이들 중심의 여행으로, 견문과 경험을 신앙 안에서 배우고 넓히는 전 인격적인 신앙 교육 여행이다.

뉴욕에는 매년 부활절을 전후로 초, 중고등학교가 봄방학이 일주일씩 있는데, 이 기간에



은혜를 경험하는 전 교우 신앙수련회

는 많은 부모님들이 학교에서 접하지 못한 여러 경험들을 자녀들에게 경험하게 하려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다. 그러나 이민 사회에서 일하면서 자녀들을 위하여 특별히 계획을 세우고 시간을 내어 여행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마음 놓고 자녀들을 보낼 수 있고, 또 신앙적이며 교육적인 관광을 교회 교육의 차원에서 제공하여 이민 가정에 많은 도움을 주고, 가족적으로도 유익하며, 성도 간의 교제도 도모할 겸해서 계획된 것이 매년 봄에 가는 교육부 주관의 교육 여행이다.

예일교회에서 가는 교육 여행은 단순한 흥미 위주의 수준을 벗어나 부모, 형제, 교우, 교사들이 함께 어울려 서로 돌보아 주는 사랑의 현장 체험이다. 그리고 가서 보고 듣고 느끼고 말미암아 믿음을 더 돈독히 해줄 뿐 아니라,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의 추억이 한껏 배어 있는 은혜스러운 교육 여행이다.

4) 각 선교회 주관 대회들

예일교회에는 성경과 찬송에 관련된 여러 가지 대회가 있다. 여러 선교회가 주관이 되어 대회를 이끌어 오고 있는데, 그 방법들이 너무 현대적으로 앞서 있고 재미있어서 참여도가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이 대회들은 곧 성도들의 영적 성숙에 보이지 않게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며, 내용 면에서나 진행 방법에서나 고도의 수준에서 행해지고 있음을 참가자나 방청객이나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펜실베이니아 랭캐스터 밀레니엄 극장 교육 여행

(1) 성경 암송대회

성경 암송대회는 말씀으로 교제하며, 훈련하고, 준비하면서 은혜를 받는 프로그램이다. 1993년에 시작되었고 1994년에는 남선교회 주관으로 주일 오후 찬양 예배 후에 본당에서 열렸으며,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회, 초창기 남여 선교회, 소망회(현 제1선교회) 등 전 교인이 참여하는 대회였다. 각 기관마다 2명 이상이 출전하여 시편 1편, 23편, 고린도전서 13장 등을 암송했다.



성경암송대회에 참가한 2남선교회 단체 선수들

이후 1995년에 에스더 선교회(현재 제5여선교회)가 생기면서 에스더 선교회에서 1995~2002년까지 암송대회를 주관하게 되었다. 시편이나 고린도전서 등 장수를 외워야 함으로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는 단점을 보완해 가며 성경 암송대회는 꾸준히 발전해 왔다. 성경을 막연하게 암송하는 것보다 체계적으로 암송하며, 대회의 참여도를 높이고 재미를 더하기 위하여 구원의 확신, 죄와 죄 사함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인도하심의 확신, 승리의 확신 등 제목을 만들고, 그 제목들이 쓰여 있는 문제 판에 화살을 쏘아 맞추어 제목에 속해 있는 말씀들을 암송했고, 암송 열차를 만들어서 외우며, 암송 열차를 타고 즐거운 말씀 여행을 하기도 했다. 선교회원들이 하나 되어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한목소리로 합송을 하며,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말씀으로 세워져 나가는 데 이바지했다.

(2) 성경 퀴즈대회

예일교회의 말씀 훈련 프로그램의 하나인 성경 퀴즈대회는 성도들의 성경 지식과 신앙 향상에 이바지하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대회이다. 이 대회는 1993년 10월 3일 주일 찬양 예배 후에 본당에서 여선교회(현 제4여선교회) 주최로 열렸다. 퀴즈 벨과 문제 판을 사용하

여 교리, 성경 인물, 성경 지리, 성구 암송, 성경 책명, 성경 수학, 공통점 및 종합 문제 등이 출제되었다.

단체전과 개인전으로 진행되었으며, 단체전에는 구역별로 참가하였다. 1997년 이후부터는 단체전이 구역별에서 선교회별로 바뀌면서 많은 수의 성도들이 참여하며 더욱더 활성화되었다. 해를 거듭하면서 대회는 더욱 발전하여 1회전과 3회전에서는 각 2명의 선수가 퀴즈 벨과 문제 판을 사용하여 문제를 풀어 나가고, 2회전과 4회전에서는 각 선교회원 전원이 협력하여 성경 문제를 풀게 된다. 또한 이 대회에 빼놓을 수 없는 순서는 방청석 퀴즈이다. 방청석에서 문제를 맞히면 소속되어 있는 선교회에 점수가 가산되면서 개인적으로도 푸짐한 상품이 걸려 있는 재미있는 순서이다.



마지막 문제까지 맞추기 위해 열심히 선교회 대표들

성경 퀴즈대회를 통하여 성도들의 성경에 대한 해박한 수준이 높아져서 목사님이 매년 문제를 출제하면서 많은 어려움 아닌 어려움을 겪지만, 그동안 성경 퀴즈대회는 성경 지식에 대한 수많은 장학생들을 배출하였고, 성도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말씀을 더 가까이하게 되는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3) 성경 스피드 퀴즈대회

성경 스피드 퀴즈대회는 1997년 2월 16일 디모데 선교회(현 제5남선교회) 주관으로 주일 오후 찬양 예배 후 본당에서 시작되었다. 제4여선교회에서 주관하는 성경 퀴즈대회처럼 성도들의 성경 지식과 신앙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정해진 시간에 출제 범위 안에 있는 성경 낱말들을 성경



6선교회를 대표한 선수들

적으로 상대방에게 풀어서 설명을 하고 답을 맞히는 퀴즈대회로 차별성을 두었다. 부모와 자녀가 팀을 이루거나 부부 또는 그 누구든지 팀을 만들어서 참여했다.

1998년도부터는 선교회별로 참여하게 되면서 학생회도 함께 참여하였으며, 주일학교에서는 자체적으로 성경 스피드 퀴즈대회를 열게 되었다. 성경 스피드 퀴즈대회는 주일학교, 학생회, 청년회, F.M. 장년에 이르기까지 퀴즈대회가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웃음이 끊이지 않는 인기 프로그램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4) 찬송가 외워 부르기 대회

많은 성도들이 찬송가를 그냥 부를 때와 외워서 음미하여 부를 때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고백한다. 그래서 교회적으로 '금주의 찬송'이라는 것을 정해서 부르게 되었다. 온 성도가 은혜스럽게 찬송을 부르고, 찬송의 생활화를 꾀하며, 찬양을 통해 온 성도가 하나가 되어 신령한 영적 교제를 경험하게 함을 목적으로 1년에 한 번 제1선교회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다.



3남선교회원들의 찬송

이 대회는 1994년 10월 9일 주일 찬양 예배 후 본당에서 처음 열렸다. 1994년부터 1997년까지 디모데 선교회에서 주관했으나, 1998년에는 소망회(현 제1선교회), 1999년부터는 갈렙 선교회(현 제1선교회)의 주관으로 열렸다.

각 선교회별로 1회전은 선수 2명이, 2회전은 찬송가 외워 부르기 대회에 한 번도 출전하지 않은 3명이, 3회전은 각 선교회의 회원 모두가 한목소리로 찬송가를 외워서 부른다. 성도들이 찬송가 외워 부르기 대회를 준비하면서 한 곡 한 곡 외워서 부르다 보면 큰 은혜를 받는다고 한다. 그 이유는 찬송에는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5) 활발한 구역(현 목장) 활동

예일교회는 구역(현 목장)이 매우 활발하게 움직인다. 구역은 교회 속의 또 하나의 작은 교회로서, 마치 숨쉬는 세포와 같이 역동적으로 그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구역 모임은 매주 금요일 성경 공부로 모이며, 한 달에 한 번 마지막 주 금요일에는 식사와 함께 구역 예배로 모인다. 이렇게까지 자주 모이는 것이 습관화되기까지 초기에는 매우 힘들고 자주 모인다는 불평도 있었다. 그러나 뚜렷한 목회관과 소신을 가진 담임목사의 열정과 진취적인 지도력은 끝내 매주 안 모이면 허전하다고 말할 정도로 사람들을 변화시켜 갔다.

일방적으로 말씀 선포를 듣기만 하는 것에 비해 소수의 가족들이 한 가정집에 모여 얼굴을 마주하고 성경을 공부할 때는 참여하는 각 구역원이 자기의 느낀 바를 함께 나누게 된다. 때로는 생활의 문제를 성경 안에서 해답을 찾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는 간증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일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또는 한 가정 한 가정을 통해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 주일날 설교 말씀과 수요 예배, 새벽 제단에서 들은 말씀이 일주일 동안 각자의 삶의 현장을 거치고 이 시간 다시 점검이 되고 재고되는 것이다. 살아온 삶과 살아가는 삶이 말씀에 기준해서 재평가되며, 서로의 생각과 경험이 열린 마음들의 만남을 통해 허심탄회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교류된다. 그리고 새 힘과 비전을 얻는다.

모두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는 각 가정의 기도 제목, 약한 식구, 신분의 문제, 결혼 문제, 사업 문제, 자녀 문제를 내놓고 통성으로 기도한다. 그리고 목회자와 교회 각 기관, 모든 사역자, 선교지 등을 위해 잊지 않고 기도한다. 주일 예배에서 다루지 못하는 개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위해 합심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구역 모임을 활기 있게 만드는 요소가 된다. 구역 예배 모임을 마칠 때마다 자리를 뜨기가 아쉬워지지만 다음 날의 일정을 위해 10시가 넘으면 모임을 마치는 걸로 정해 놓는다.

목회자 혼자 힘으로 일일이 개개인 성도와 상담을 할 수는 없으나 이러한 모임은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가교 역할을 감당한다. 마치 심장이 끊임없이 혈액을 펌프질해 주는 것과 같이 교회는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영력을 공급하고 구역(현 목장)은 이를 공급하는 실핏줄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각 구역(현 목장)은 교회 안의 작은 교회가 되며, 각 구역의



한 해 동안 목원들을 잘 섬기기 위한 목자, 총무의 수련회 기도 모임

역동적인 운영은 우리 교회를 다이나믹하게 발전시킨다. 그리고 예일 구역(현 목장)은 확장 가족(Extended Family)이 된다.

매주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깨닫고, 서로가 생의 고락을 나누다 보면 남의 일도 나의 일 같고, 서로의 아픔을 함께 하게 된다. 각 가정의 어린아

이들은 물론 연세 많으신 어른들도 한 식구처럼 사랑과 관심을 받게 되는 것은 이러한 구역(현 목장) 모임을 통해서만 가능해진다. 주일이 되면 구역장(현 목자)은 물론 구역원들(현 목원)도 자기 구역원들(현 목원)의 얼굴을 살피고 모든 경조사의 정황은 담임목사에게 전달된다.

지난 20년 동안 예일의 모든 구역(현 목장)을 이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이후로도 모든 구역의 가족들을 역동적으로 이끌어 올리시어 창대하게 하시고 보다 크신 그의 뜻을 위하여 그 지경을 넓히실 것이다. 매년 재편성될 때에는 정든 구역(현 목장) 가족들은 이별이나 하듯이 아쉬움과 아픔을 느낄 정도로 친밀하고 끈끈하다. 그러나 이 또한 발전과 부흥을 가져오는 일이기에 예일의 성도들은 그저 감사할 뿐이다.



5. 뉴욕 예일장로교회의 정착기 (히스빌 자체 성전)

1) 자체 성전 시대

(1) 목회적 차원의 의미

1993년 가정 교회 형태로 시작된 예일장로교회가 칼리지 포인트의 성공회 교회를 빌려서 예배드리기 시작할 때 그 감격이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 그때만 해도 미국 교회를 빌리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기 때문이다. 오후 2시, 하루 중 가장 뜨거운 날씨에도 성전 위에 설치된 낡은 선풍기에 의지하여 열기를 식히면서 예배하는 성도들의 자세는 진지하기만 했고, 교회를 향한 사랑은 뜨겁기만 했다. 그곳에 120석의 좌석이 가득 차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이 베이사이드의 유대인 회당이였다. 300석의 예배실과 넓은 주차장과 여러 개의 부속 교실들이 좁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던 성도들에게는 숨통이 확 트이는 기쁨을 맛보게 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유대인 회당에서 지켜야 할 규칙들이 새로운 어려움으로 부각되었다. 예를 들면, 우리 음식을 반입하지 못하고 반드시 회당에서 준비해 주는 것만 먹어야 하는 것이나, 십자가를 붙이지 못한 채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 유대인의 절기에는 우리가 1년에 한 두 차례 주일 날에도 야외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 등이었다. 유대인 회당에서는 코셔(Kosher)만 먹어야 하는 관계로 그중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베이글만 거의 7년 동안 점심으로 먹었다. 그래도 딱딱한 빵을 씹으면서 화목한 성도들을 보시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새 가족들을 보내 주셨다. 예일교회는 자체 성전이 없으면서도 니카라과, 볼리비아, 인도에 교회를 지어 주고 중국의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 집을 지어 주는 일을 하였다.

점차 늘어나는 성도들과 그와 함께 유대인 회당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은 자체 성전에 대한 간절한 소망과 기도로 이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모든 것은 하루아침에 허락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성도의 기도가 차고, 믿음의 준비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자체 성전을 허락하셨다. 그전까지는 어느 교회가 자체 성전을 마련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다. 그동안 수많은 교회, 유대인 회당, 극장, 공장 건물들을 보았지만, 교회의 사정이 여의치 않았다. 때로는 너무 답답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 경험이 또한 자체 성전을 주실 때 확실히 알아볼 수 있는 눈을 뜨게 만들었다. 롱아일랜드 히스빌(Hicksville) 성전을 주셨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본 건물 중 최상의 것임을 알았고, 하나님은 최상의 것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그동안 여기에 합당한 사람들로 훈련시키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자체 성전 시대가 열리면서 목회 패턴도 많이 변화하게 되었다. 교회는 그 지역을 섬기며 그 지역사회를 밝히는 등대가 되어야 하므로 지역적인 관심을 배제할 수 없었다. 그동안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로서 예일교회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인 “예수님 제일”이란 표어와 그 여섯 가지 실천 목표인 “영감 있는 예배”, “십자가 사랑의 교제”, “땅 끝까지 복음 전파”, “천국 일꾼 훈련 양성”, “이민 가정의 치료”, “능력 있는 기도 생활”은 변함 없이 강조되었다.

거기다가 이제는 커뮤니티를 섬기기 위한 ‘Mommy & Me’, ‘실버 클럽’, ‘뉴욕 예일한국학교’, ‘봄 성경학교’ 등의 프로그램이 새로운 사역으로 더해지게 되었다.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무료로 시작한 사역들인데 반응이 너무 좋아 오히려 교회가 지역사회로부터 칭찬을 받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여름에 진행되는 ‘예일여름학교’도 여름방학 동안의 자녀 교육에 대한 부모님들의 고민을 많이 덜어 주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호응을 받고 있다.



롱아일랜드 히스빌의 예일교회 자체 성전 전경

감사한 것은 칼리지 포인트 성공회 교회에서 베이사이드 유대인 회당으로 이전할 때 100%의 성도들이 함께 왔고, 롱아일랜드 히스빌에 올 때도 99%의 성도들이 함께 왔다. 환경이나 거리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움직이는 성도들이 고맙기도 했다. 그때 성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 아직도 생생하다. “서울대학이 멀다고 못 갑니까?”

이런 건강한 성도들과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이제는 자체 성전을 통해 더 큰 영광을 돌리고, 더 많이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고자 하는 것이 목회의 큰 꿈이 되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꿈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기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 보내주신 영혼들을 보다 잘 섬기기 위해 목장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기존의 활발한 구역 활동(현 목장)과 훈련된 평신도들이란 자원이 구역에서 목장으로 전환되는 데 큰 힘이 되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계속 부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 속에 흐르고 가정과 삶의 현장 속으로 흘러 들어가며, 동시에 그 복이 우리 이웃과 온 세계에 흘러 들어가서 이 땅을 살리고 치료하고, 그래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복의 근원으로서의 사명을 더욱 잘 감당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2) 성도들의 기쁨과 감사

칼리지 포인트의 성공회 교회에서 5년 동안 성도들은 인내와 감사로 예배를 드리면서 자체 성전의 꿈을 키웠다. 무더운 여름날, 예배실의 의자에 앉았다 일어날 때면 ‘찌익’ 하는 소

리와 함께 오래된 니스가 등에 누렇게 문기도 했고, 한국 음식 냄새가 나는 것을 꺼려하는 그들을 위해 늘 빵과 도너츠, 떡을 먹으며 친교를 나누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다음 장소인 베이사이드 유대인 성전에서는 넓은 성전으로 인해 좁았던 시절에 비하면 너무 감사했지만, 여전히 친교 시간의 한국 음식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더 제약이 엄해져 유대인 음식인 코셔만 먹어야 했으며, 어떤 음식도 반입이 허용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성도들은 가슴에 꿈을 키우며 이 성전이 우리의 것이 되면 예배실에 십자가를 중앙에 걸고 이방인이라 출입이 허용되지 않았던 부엌을 마음껏 드나들며 우리 음식을 해먹으리라 버르면서 자체 성전이 될 날만 기도하며 기다렸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이곳이 아니고 더 넓고 더 할 일이 많은 롱아일랜드 한복판에 우리 교회를 기적과 같이 옮기셨다.

매년 유대인 절기인 ‘Rosh Hashanah’ 때는 연이어 이어지는 절기 행사 관계로 예일교회는 야외에서 예배를 드려야 했다. 6년 동안 기적같이 비가 오지 않은 맑은 날씨 관계로 매년 체육대회를 개최하며 야외에서 예배를 드려 왔는데, 2003년에는 야외 예배를 드릴 수 없을 정도로 아침부터 폭우가 쏟아졌다. 갈 데 없는 예일의 성도들은 하는 수 없이 비가 쏟아지는 알리파크에서 땅에 깔려고 가지고 왔던 푸른 비닐 깔개를 천막으로 해서 기둥을 세우고 빗소리와 함께 눈물과 빗물이 어우러진 예배를 드렸다. 찬양과 폭우 소리가 합창이 되어파크를 채웠다.

예배가 끝난 후 성도들은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이라고 서로를 위로했다. 또 이제까지 비를 멈춰 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를 허락하시는 것을 보니 우리가 셋방살이 설움을 벗을



유대인 절기 때 드린 알리파크에서의 천막 예배

날이 곧 올 것이라고 모두들 희망으로 돌려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그런데 오후가 되니 무섭게 쏟아지던 비가 언제 그랬냐는 듯 화창하고 맑게 개는 바람에, 무사히 또 즐겁게 체육대회를 진행할 수 있었다.

이 일이 있는 지 1년 후 하나님께서는 2004년 10월에 루터 교회였던 지금의 성전을 보여 주시고,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그 자리에서 바인딩을 한 후 11월 초에 계약을 체결하고, 2005년 1월 4일에 클로징을 하게 하셨다. 불과 두 달 만에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되더니 유대인 회당과의 리스 기간이 2005년 1월 31일로 끝나게 되는데 시간을 기가 막히게 맞추어 주셔서, 1월 마지막 주일인 30일 온 교인이 힘을 모아 이사를 하게 하셨다. 유대인 회당장은 오후 6시까지 이사를 모두 마치라고 하면서 늦으면 시간당 부과금을 물게 될 것이라 했다. 이 상황을 알게 된 모든 성도들은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두들 손에 하나라도 물건을 더 들고 빌린 큰 트럭과 교회 밴, 각자 차에 물건을 싣고 이사를 시작하였다. 얼마나 마음이 하나로 잘 뭉쳐졌는지 그 무거운 피아노도 번쩍 들어내며 7년간 묵었던 살림을 속시원히 털어 버리듯 신나게 실어서 불과 오후 4시가 되기 전에 말끔히 비워 버렸다.

겨울이라 해가 짧아서 어둑어둑해져도 어느 누구 하나 집에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새 성전에서 모두 짐을 내려놓으며 얼굴에는 기쁨과 희색이 만연했다. 여기저기 하하 호호 깔깔거리며 웃는 소리가 온 교회에서 퍼져 나왔다. 짐을 풀고 정리하고 12년 만에 처음 가져보는 부엌에서는 여성도들이 즐기고 닦고 모두들 흥분과 기쁨으로 피곤한 줄 모르며 일을 했다.

불과 한 달 동안에 새 성전을 수리하는 데 온 성도들이 힘을 모았다. 페인팅도 각 방마다 나누어서 새롭게 칠하고, 중고등부 학생들도 그동안 워크 캠프에서 배웠던 실력들을 발휘하여 새 성전을 단장하는 데 일조하였다. 누구 하나 불평 없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전을 감사함으로 구석구석 즐기고 닦고 새롭게 단장하는 데 한마음이 되었다.



루터 교회를 새 단장하고 드리는 주일 예배 전경



커뮤니티 초청 오픈 하우스 예배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사 오자마자 계속 찾아오는 이웃 주민들이 있었다. 우리 교회가 이사 온 후로 가끔씩 전화도 오고 방문하기도 하면서 언제 오픈 하우스를 하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았다. 관심을 보이는 그들이 고맙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의아하기도 했는데, 그들은 다름 아닌 누가 이 교회에 이사 왔는지 궁금해서 찾아온, 그전에 있던 루터

교회 교인들이었다. 그들이 와서 하는 말이 이 자리에 교회가 이사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했다. 알고보니 루터 교회가 초창기에는 헌신적으로 사람들이 일하고 부흥해서 자기들의 손으로 감자밭에 교회를 직접 지으면서 좀 더 부흥하면 2층을 올릴 것을 예상하고 지금의 건물을 튼튼하게 철골을 넣어서 지었던 것이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젊은이들이 빠져나가고 교회에는 힘없는 노인들만 남게 되었다.

루터 교회 본부에서는 이 교회를 이웃 교회와 병합하고 이 건물을 팔아서 다른 프로젝트를 위해 사용하는 계획을 세웠다. 그리하여 많은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여러 가지 방안으로 달려들었지만 이 계획에 반대하던 루터 교인들이 본부에 탄원서를 내고,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복음을 위해서 세워진 이 건물에 교회가 들어와서 계속해서 복음의 메시지가 전달되도록 그들은 함께 기도하며 싸워 왔던 것이다.

이들의 요청과 필요성을 절감하며 커뮤니티를 위한 오픈 하우스를 교회에서 정하고 5월 1일 루터 교회 교인들과 주민들을 초청했다. 오픈 하우스를 준비하고 있던 중 루터 교회에서 25년 동안 담임목사로 섬겼던 그랜트(Grant) 목사가 방문하여서 다시금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그는 “그것은 매우 힘든 싸움이었습니다”(It was a tough fighting)라고 말하였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 다시금 경이로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저들은 누구를 위해 싸운 것인가? 루터파 본부를 상대로 그 길고 지겹고 힘든 싸움을 싸우게 하시며, 우리를 가장 합당한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자리에 앉히신 하나님의 완



예배를 마친 후 교회 잔디에서 축구를 하며 친목을 다지는 교우들

전한 계획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을까! 저들은 자기들이 못 다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예일교회에 부탁했다.

오픈 하우스 예배가 끝난 후 그들은 또 자원하여 모은 찬조금을 나무나 화초를 사서 심어 자기들을 기억해 달라며 예일교회에 전달했다. 나무가 자라듯이 자기들의 기억 속에도 이 교회가 살아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었다. 이 얼마나 아름답고 은혜로운 일인가!

넓은 잔디밭은 모든 성도들이 즐기기에 충분했다. 중고등부는 배구 네트를 여러 개 설치하고 저녁 늦게까지 운동을 했다. 장년들도 축구 팀을 만들어서 주일 찬양 예배가 끝난 후에 축구를 하며 친목과 더불어 각자 체력 관리도 했다. 덕분에 건강을 되찾은 분들이 많아졌다. 유년주일학교 학생들은 교회 바로 옆이 놀이터인 관계로 맘껏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을 얻게 되었다. 엄마들은 아이들이 활개치며 노는 모습을 보며 함께 기뻐했다.

날씨가 좋은 날에는 잔디밭 위에서 바비큐 파티를 하며 온종일 교회에서 지내게 되니, 자체 성전을 가진 성도들의 기쁨과 감사는 이루 말할 수 없었다. 12년 동안 먹던 마른 빵과 이별하여 뜨끈뜨끈한 국밥 그리고 맛있는 한국 음식을 마음 놓고 먹고 있는 우리,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예일교회에 베푸신 은혜이며 선물이다.

자체 성전이 생기니 할 일이 더욱 많아졌다. 교회 안팎 정리, 청소, 화단 정리, 강단꽃 장식, 부엌 봉사, 주차장 관리뿐만 아니라 교회가 매일 바쁘게 돌아가게 되었다. 그러나 교인 수가 매주 늘어나는 만큼 일의 양도 많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이곳 롱아일랜드 한복판인 히스빌에서부터 잠자는 영혼들



우리 손으로 해먹는 식사의 즐거움으로 가득한 부엌 봉사

을 깨우기에 넉넉했으며, 목적 있는 신앙생활로 가정마다 말씀으로 든든하게 서 가는 모습을 보게 되니 어두움을 밝히는 교회의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것 같아 다시 한 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었다.

(3) 본 교회 건물의 역사적 배경

이 성전은 약 50년 동안 다양한 민족의 예배와 찬양과 기도의 처소로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어왔다.

가. 교회의 시작과 발전

한 성도의 개인 집 지하실에서 시작한 38명의 ‘Redeemer Lutheran Church’는 ‘Richard Weiskotten’ 목사의 사택(Plainview) 지하실을 예배소로 만들어 이어지게 된다. 그러다가 1959년 현 위치의 2.9에이커의 빈터를 구입한다. 1960년, 당시에 57,000달러에 매입한 땅에 총공사비 38,000달러를 들여 지금의 본당을 건축한다. 이후로 계속 증가하는 교인 수에 의해 성전의 앞쪽, 지금의 친교실과 교실 등의 순서로 세 번이나 추가 증축을 한다. 50년 전 당시까지 히스빌 주변은 거의 감자 농장이었다고 한다. 그러다가 제2차 세계대전 후 전쟁에서 돌아온 재향 군인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프로젝트로 레빗타운(Levittown)과 이곳 히스빌에 부담스럽지 않은 주택들을 한꺼번에 짓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타운의 인구와 그에 따른 모든 구조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1967년에 이 교회로 부름을 받고 부임하여 가장 오래 목회한 그랜트(Rev. Theodore Grant) 목사는 그의 지나간 30년의 목회를 회상할 때마다 깊은 감회에 젖는다. 전임인 신달 목사(Rev. Sindahl)가 시작한 ‘Open Door Policy’ 목회 방침을 계속 발전시켜 ‘Redeemer Lutheran Church’를 열린 교회



예일교회를 방문한 옛 루터 교회 성도들과 함께한 시간

의 대표적 상징으로 인식하게 했다. 1981년 건축을 전공하는 젊고 촉망되는 교인 샌드그렌(John Sandgren)의 설계에 따라 원래의 목조건물이던 본당이 지금의 벽돌로 옷을 갈아입고 아름다운 스테인드글라스들이 설치되었다.

나. 변혁기

1985년 교인들의 결정으로 목회에 일대 변혁이 왔는데 지역의 홈리스들을 위하여 ‘Soup Kitchen’을 오픈하기로 한 것이다. 매일 70~80명의 홈리스들에게 점심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외에 Alcohol Anonymous Program, Dirty Dozen Service(재정적 이유로 이삿짐을 운반할 수 없을 때 무료로 운반해 주는 그룹) 등 지역을 위한 커뮤니티 사역에 집중하게 되었고, 이러한 헌신을 계속하는 중 자체 내에서 6-8명의 목회자도 배출되었다.

지금은 목회자가 없는 교회에서 Interim Base로 설교하는 그랜트 목사는 이 성전과 함께 지내온 30년의 목회 인생을 회고하며 잊을 수 없는 심각한 분석을 한다. “우리는 여러 가지 사회복지 활동, 지역사회 구제 활동에 몸을 아끼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점점 젊은 세대를 잃어 가고, 그래서 세월을 따라 교회가 쇠약해져 가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이 비통한 자문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자답한다.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빼놓았기 때문입니다.”

정부나 타운 기관에서 차츰 구제 기능을 대신하게 되니 구제사역에 전력을 기울였던 교회 사역이 그 구심점을 잃게 되었다는 것이다. 반면에,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가장 중요한 ‘복음’을 몰랐다.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무지했다. 주일학교 교재도, 교육의 테크닉도 발전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빼놓았으니 그것은 곧 ‘그리스도’였던 것이다. 부끄러운 일이나 심지어는 많은 목회자들도 말씀에 무식했다는 것이다.

“우리가 실패한 곳에서 이제부터는 열심 있는 당신 한국 사람들이 나서서 이 기울어 가는 나라에 기독교 부흥을 다시 일으켜 줄 것을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고 당신들 손에서 복음의 센터로 남아 있을 수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전의 뜨거웠던 부흥의 시절에 대한 그리움, 그러나 냉철하게 현실을 직시하며 인종과 문화를 넘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다시 살려 줄 것을 부탁하는 겸양과 소망을

보였다. 그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지금 증축된 건물과 앞으로 진행되어야 할 건물의 마스터 플랜도, 그리고 그와 함께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도 영원히 변함없이 복음의 반석 위에 서야 한다는 뼈아픈 충고를 듣는 기회가 되었다.

(4) 성전 증축과 마스터플랜

오랜 세월 예일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어 2005년 2월 이곳 히스빌에 자체 성전을 하나님께 허락받았다. 예배의 처소를 위해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니며 고생해 온 지난 12년의 세월이 광야의 성막 생활이라면, 자체 성전을 얻음으로 예루살렘 성에서의 자체 성전의 시대를 연 것이다. 과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는 말씀을 생생하게 체험한 것이다(롬 5:3~4).



성전 증축 기공 예배를 드린 후 축도하는 김종훈 담임목사

하나님께서 자로 재어 주신 이 성전의 터는 이 땅의 표기대로 하면 ‘17 New South Rd, Hicksville, New York, 11801’이다.

총 1만 1천 스퀘어피트의 검소한 단층 건물이 80여 대의 주차장과 그보다 큰 잔디밭을 양쪽에 두고 총 2.56에이커의 땅 거의 중앙에 자리 잡고 있다. 동쪽으로는 지금은 새로운 시설로 단장된 커뮤니티 운동장과 어린이 놀이터가 철조망을 사이에 두고 인접해 있으며, 나머지 3면은 차도를 향해 오픈되어 있어서 주택가에 있으면서도 섬처럼 따로 독립해 있는 땅이다. 본당의 내부는 원목의 아치 모양의 천장으로 그 높이가 25피트, 양쪽 벽의 대부분은 스테인드글라스로 우아하고 아름답다. 강대상 위의 선루프(Sun Roof)를 통해 들어오는 빛은 광채나는 금속 십자가에 반사되어 더욱더 내부에 가득하다.

십자가를 달 수 없었던 유대인 회당을 생각하면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해도 감사하고 행복하다. 탁 트일 만큼 넓지는 않으나 교실과 친교실, 도서실, 기도실, 목회자 사무실 등 그런

대로 충분했다. 3분의 1쯤 부족한 본당 좌석은 다행히도 본당 뒤쪽과 복도 사이에 공간이 있어서 그 벽을 철거 자리를 확보할 수 있었다. 오래된 부엌 시설만큼은 대부분 새 디자인으로 우리의 식사 형태와 친교 형식에 맞도록 탈바꿈시켰다. 복도 편의 벽을 열고 오픈 서비스 카운터를 만들어 친교실로의 음식 운반 유통을 간소화시켰다. 유대인 회당에서 베이글로만 간단한 식사를 했던 때와는 전혀 다른 타입의 봉사와 섬김의 사역이 전개되었다.

본당의 침침한 조명 시설에 마지막 손질을 해야 했다. 검정색 메탈 전등과 갓들을 떼어내고 물고기형 골드 프레임에 성령의 열매를 연상시키는 9개의 알라바스터 전등 갓 상들리에들로 바꾸고 나니 훨씬 부드럽고 우아했다. 이 입당 준비 작업을 위해서 본당 내부와 도서실, 그리고 복도와 실내 페인트 등 바닥 왁스칠까지 자작할 수 있는 부분들은 모두가 솔선수범하여 자원하는 성도들의 수고로 마무리되었다.

고된 하루의 일과 끝에 무시로 교회에 와서 남모르게 즐거운 마음으로 수고한 많은 성도들의 숨은 손길이 아니었다면 한 달이라고 하는 그토록 빠듯한 시일 내에 모든 준비가 완료될 수 없었을 것이다. 사실 유대인 회당에서 리스가 끝나는 마지막 날, 한 시간이라도 넘기면 추가 렌트비를 계산한다는 회당장의 경고는 오히려 새 자체 성전으로 입당하는 우리에게 는 마치 출애굽하는 기쁨과 감격을 더하여 만반의 준비를 급속하게 하는 뭉쳐진 힘이 되었다.

조만간 모종의 증축은 있어야 하리라 예상은 했으나, 그때가 이처럼 빨리 올 줄은 몰랐다. 자체 성전으로 인한 자유와 흥분이 가라앉기도 전에 어느새 본당 좌석이 비좁기 시작했다. 유아들과 부모들은 친교실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예배도 2부로 드리던 것이 3부로 늘었다. 학생들을 위해서 60피트 트레일러를 렌트해서 사용하여야 했고, 찬양대석도 여의치 않게 되었다. 주차 안내 사역부에서는 잔디밭까지 온통 주차장으로 사용해도 때로는 주차할 곳이 없어 그냥 돌아가는 이들을 보고 가슴을 치는 경우가 잦아졌다. 어느 편이 먼 저인지 알 수는 없으나 한 연령층이 증가하면 동시에 다른 쪽에서도 증가되니,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복도가 터질 것만 같은 체증(traffic jam)이 생기기 시작했다.

모든 유동하는 것이 팽창하고 사역 활동까지 많아지는데 부동산인 건물만 그대로 요지부동이니 그대로는 버틸 길이 없었다. 계속 보내 주시는 성도들을 위해 건물의 증축이 절실히

필요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예일 성도들의 기도는 이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에서 ‘이 성전을 넓혀 주소서’가 되었다. 미국에서도 손꼽을 정도로 까다롭다는 오이스터 베이 타운(Oyster Bay Town)과 뉴욕 빌딩국(Building Dept)에서 건축허가가 나오기까지 담임목사를 비롯하여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계속되었고, 그동안 증축을 위한 모든 준비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하나하나 이루어졌다.

더욱이 감사한 것은, 온 교인들의 합심 333기도(하루 3번, 33초씩), 중보기도 팀들의 철야 기도 등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온 성도의 마음의 성전부터 서로 연결하여 하나로 지어 주신 일이다.

2007년 12월 9일의 기공 예배에서는 김종훈 담임목사의 말씀 선포, 송광수 장로의 대표 기도, 건축위원장 옥치진 장로의 건축 개요 설명이 있었고, 이어서 김윤배 목사, 김인선 목사 그리고 김현수, 윤희주, 한기하, 한대영, 김춘경, 오현섭, 조종희, 김창성, 한정원 장로 등의 감격스러운 테이프 커팅 세레머니(tape cutting ceremony)가 있었다. 새 친교실과 교육관이 세워질 동녘 땅에서 어둑어둑 해가 지도록 늦게까지 한마음과 한 소망으로 참석했던 여러 성도들과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께 올려진 이 기공 예배는 소박하지만 앞으로 담임목사와 예일교회가 꿈을 꾸고 계획하고 있는 엄청난 영적 사역의 기공 예배였다.



잔디를 부분적으로 제거하고 주차 공간을 늘리는 작업



성전 입당 2년 만에 증축을 시작하는 현장

교회 증축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좋은 분들을 준비해 주셨다. 이 공사를 하나의 ‘건물 공사’라는 차원을 넘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사역으로 맡았다고 자신의 신앙자세를 피력하는 프로그레시브 디자인(Progressive Design) 회사의 피터 알렉시스(Peter Alexes)와 건축가 리처드 마키 위츠(Richard

Markiewicz), 닉 발로타(Nick Varlotta), 그리고 허가 취득 과정을 계속 맡아 주었던 잭 엘리버츠 사무소(Jack L. Libert's Office) 등이다. 무엇보다 본 교회 건축위원들의 기도와 눈물과 사랑의 희생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것이다. 앞으로도 예일교회를 통해 구원과 위로, 생명의 역사가 계속될 것이며, 그와 함께 불가피해질 본당, 교육관, 체육관 확장을 위한 마스터플랜에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함께하실 것을 믿는다.

2) 자체 성전을 얻은 후의 변화

“새 술은 새 부대에”라는 말씀을 예수께서 하셨다. 복음의 본질은 변하지 않으나 우리의 환경은 날마다 변한다.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변하지 않는 복음을 어떻게 선포하며, 어떻게 미래의 세대에 전달해야 하는가 하는 것은 교회로서 언제나 고민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여기서는 자체 성전 후의 변화를 기록한다.

특히 교회 전반적인 예배와 사역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조직표를 새롭게 만들었다. 교회 조직표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말씀의 역사, 사랑의 나눔, 성령의 교통이라는 본질을 담기 위한 그릇이라고 볼 수 있다. 이 틀의 특징은 은사 중심이라는 것이다. 기존의 제직회 부서 체제에서 성도들이 은사를 중심으로 다양하게 주의 몸을 섬길 수 있도록 섬김의 세분화를 시도했다. 그리고 제직회 부서라고 부르기보다 사역 부서라고 불렀다. 용어 자체에서 개념이 형성되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한 부서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보다 사역이라는 주님의 일을 위해 부름을 받았다는 더욱 적극적인 의미를 담은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역 부서를 유기적으로 통괄하고 또 사역 부서 간의 협력 체제를 형성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그래서 성격이 비슷한 사역 부서를 함께 묶어 9개의 위원회로 조직하고, 시무장로와 협동장로를 중심으로 위원장을 맡게 했다. 그러나 이 모든 사역은 담임목사의 목회 방향과 일치해야 하기에 담임목사와 긴밀한 협조 관계에서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계획하였다.

< 2013년 교회 조직도 >



예배위원회	교육위원회	찬양위원회	전도위원회	양육위원회	홍보출판위원회
예배 사역부 미화 사역부 중보 기도 사역부 방송 사역부	영아 사역부 유치 사역부 유년 사역부 중고등 사역부 장년 교육 사역부	글로리아 찬양대 할렐루야 찬양대 예일찬양단 예일관악단 크로마하프단 두나미스 에이레네	노방 전도 사역부 새생명 전도 사역부	바나바 사역부 도서 사역부	출판 사역부 사진 사역부 미디어 사역부

선교위원회	커뮤니티위원회	봉사위원회	행사위원회	차량위원회	관리위원회
선교비 발송 사역부 단기선교 사역부	커뮤니티 사역부 실버클럽 Mommy & Me 뉴욕 예일 한국학교	주방 운영 사역부 의료 사역부	친교 사역부 드라마 사역부 바디 워십 사역부	교회 버스 운영 사역부 주차장 관리 사역부	건물 관리 사역부 비품 관리 사역부 정원 관리 사역부

재정위원회	청년사역부	CCM사역부
부 장 기록회계 건축회계 부 원		

(1) 예배 프로그램

가. 장년 예배

예일장로교회의 실천 목표 여섯 가지 중 첫 번째는 교육도 선교도 아닌, 바로 영감 있는 예배이다. 교회의 대내외적 어떤 활동보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기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아야만 교육도 선교도 구제도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힘은 우선적으로 예배를 통해 주어지기 때문이다. 이것은 교회 창립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다.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이다.



히스빌 성전에서 11시 30분에 드려지는 주일 3부 예배

지난 20년의 모든 순간들을 되돌아보면, 특별히 예배와 관련해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가 자체 성전을 통해서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지난 2005년 1월 말까지 성공회 교회와 베이스айд 유대인 회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릴 때에는 아무래도 많은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가 같은 해 2월부터는 룡아일랜드의 히스빌에 있는 자체 성전에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다. 그 기쁨이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이런 놀라운 은혜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늘 감사와 기쁨으로 영감 있는 예배 드리기를 가장 소중히 여긴 예일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어진다.

예배 때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더 크게 감사하며 영광을 돌렸다. 주일의 모든 예배는 이런 성도들로 가득 채워져 갔고, 자연스럽게 교회의 부흥으로 이어졌다. 그 결과 2007년 5월 20일 창립 14주년 기념 주일부터 주일 오전 예배가 두 번(1부 예배 오전 9시, 2부 예배 오전 11시)에서 세 번(1부 예배 오전 7시 30분, 2부 예배 오전 9시 30분, 3부 예배 11시 30분)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이와 함께 찬양대도 더 확장되고 조직화되어 1부 예배는 악기를 다루는 학생들과 성도들, 그리고 예일관악단이, 2부 예배는 글로리아 찬양대가, 3부

예배는 할렐루야 찬양대가 담당하였다.

나. 영어 예배(English Ministry)

① 영어 예배 탄생 배경

예일교회 교인들 중 1970년대에 이민 온 이들의 자녀들은 그 당시 한국 학교가 없어서 한국어 사용이 어려운 자녀들이 대다수이다. 주일이 되면 부모님과 함께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렸지만 한국말에 익숙지 못했던 저들에게는 매우 힘든 시간이었다. 한국말을 잘 알아들을 수 없으니 예배에 집중이 안 되고 지루한 시간을 보내다가 다른 생각을 하는 한편, 심지어는 다른 책을 꺼내어 놓고 읽기도 하였다.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는 목회자나 부모님들 그리고 여러 성도들은 매우 안타까워하며 마음 아파하였다. 그러다가 교회가 베이사이드로 자리를 옮긴 후에 동시통역 시설을 해놓고 변창욱 목사가 통역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도 이곳에서 자라 이곳 말에만 익숙해진 그들에게는 그리 효과적인 수단이 되지 못하였다. 결국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저들만의 예배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하여 1999년 7월 11일부터 안중설 전도사가 담당하여 영어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기존의 부서였던 청년부도 둘로 나뉘었다. 영어 예배는 영어권 자녀들을 중심으로, 청년부는 유학생과 미국에 갓 이민 온, 즉 한국말이 더 편한 청년들을 중심으로 나뉘었다. 당회에서도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새로 시작하는 영어 예배에 필요한 예산 등을 적극 지원하였다. 특히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의 신앙 지도가 더욱 효과적으로 될 것을 기대하며 대단히 환영하였다.

영어 예배를 시작하면서 몇 가지 당면한 목표가 설정되었다. 그것은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여 우리 자녀들이 복음을 들음으로 말마암아 믿음이 생기도록 돕는 것이며, 둘째는 자라나는 우리 2세들에게 신앙 공동체적 소속감을 마련해 주자는 것이었다. 이러한 취지 아래 1999년 7월 11일 영어 예배가 탄생하게 되었다.

② 영어 예배의 오늘

예일교회의 영어 예배는 대학교 1학년부터 장년까지 참석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다. 무엇보다 감사한 일은 과거에는 1세대만 참석하였는데, 현재는 1세대와 2세대가 함께하는 것이다. 예일의 예배 비전은 초대 교회처럼 말씀과 기도와 교제를 뜨겁게 나누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려고 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순결하게 성장하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재능을 나 자신만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남을 위하여 사용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다. 끝으로 우리 영어 예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소명을 이해하고 발전하기 위해 이름을 'Christ Centered Ministry'로 변경하였다. 하나님께 영광을!

다. 교회학교

① 영아부

영아부는 2010년 교육부서로 시작되었다. 지도 홍정자 목사, 부장 한진영 집사, 교사 김지애 집사가 영아부를 섬기며 예배를 드렸다. 이어 박은혜 집사가 교사로 합류하였다. 2012년 현재 지도 홍정자 목사, 부장 오연숙 집사, 교사 김지애, 박은혜, 나현아, 김문차, 최경희 집사가 영아부를 섬기고 있다. 2011년 7월 4명(강사랑, 김비안, 한샘, 홍민준)이 유치부로 진급했으며, 2012년 7월 5명(박효근, 손예진, 유진, 윤하음, 이송민)이 진급하였다.

2011년 하나님이 줄로 재어 주신 아름다운 구역(시 16:6) 영아부 예배 장소가 마련되었다.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기들(김이안, 김하늘, 유란, 정태울, 황로완, 계승빈, 남윤서, 차유이, 채한결, 홍안나, 소우진, 이다연, 이동연, 한상호, 김유진, 김비안, 정태휴, 윤하울, 김혜나, 라경석)이 부모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



주일 영아부 활동

영아부는 네 가지 중요한 교육 목적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친다.

첫째가 바로 예배이다. 단순히 부모님이 예배를 드릴 때 아기를 돌보는 탁아 차원이 아니라 아기가 주체가 되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종려주일이 지난 후에 어린이들의 찬양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다(마 21:16). 또한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를 위해 안수하고 축복하셨다(막 10:16).



Grand Parents Day 때 손자 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민 1세대 성도들

둘째는 교육이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딤후 3:14)는 말씀이 아기에게도 필수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는 것(딤후 3:15)이 매우 중요하다. 어리면 어릴수록 더욱 중요한 것을 알 수 있다.

셋째가 친교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딤후 3:17). 어려서부터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천하며 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마 22:39).

넷째는 전도이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딤후 3:15). 아기에게 전해야 할 큰 사명이 있다. 영아부는 아기 혼자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함께 있어야 한다. 부모가 구원의 확신을 얻고 자녀가 성령 충만으로 전도의 열매가 맺히리라 본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어야 한다(롬 1:16).

앞으로 영아부는 구역을 넓혀야 한다(시 16:6). 태아를 위한 축복의 시간이 필요하다. 세례 요한에 대하여 성경은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을 말하고 있다(눅 1:15). 마리아가 수태하였을 때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복이 있고 그녀의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고 말하였다(눅 1:42). 아기 예수를 잉태한 마리아가 문안하는 소리를 들을 때 엘리사벳은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노는 아기를 말하고 있다(눅 1:44).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소중

함 그리고 축복이 영아부를 통하여 더욱 확장되리라 본다.

② 유치부

“이제 나도 예수님을 예배하는 참 예배자가 될 수 있어요.”

혼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마음으로 아빠 엄마에게 “바이바이”를 하고 그들의 예배실로 들어가는 유치부 아이들의 모습은 아주 귀엽고 대견하다. 아직은 어리지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잠 22:6)는 말씀을 기초로, 예배를 드리고 선생님들과 분반 공부를 하는 모습이 참으로 진지하다.

처음 유치부의 시작은 베이사이드에서 본당 옆의 친교실에서 엄마를 따라온 네 살 미만의 아이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이루어졌다. 그들을 모아 장난감을 주어서 놀게 하여 부모님들이 친교실에서 화면을 통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왔다. 아이들의 숫자가 늘어나 2층 교육관으로 옮겨지게 되면서 그들만을 위한 예배를 준비하게 되었다. 그 결과 2001년 새해부터 김영 사모(변창욱 목사 사모)가 중심이 되어 네 살 미만의 유아들을 데리고 첫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설교는 변창욱 목사, 조유경 사모가 수고를 했고, 김사무엘, 김정훈, 박지영, 박성지 선생님이 분반 공부를 맡았다.

유아부가 신설되고 첫 졸업 예배를 드린 후 7월부터는 유아부를 다섯 살까지로 늘리고 명칭을 유치부로 변경하여 두 살부터 다섯 살까지의 아이들로 확대하였다. 유치부 부장은 김



아빠 엄마와 바이바이 하고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유치부 자녀들

영 사모가 계속 맡았고, 옥현정, 이강희, 홍현숙 교사가 보충되었다.

약 2년 동안의 기초 작업이 든든하게 이루어진 유치부는 2003년을 기해 더욱더 활발한 양질의 교육이 행해지게 되었고, 유치부 부장으로 이강희 집사, 서기와 반주에는 이재옥, 회계에 주지혜 집사, 그리고 박선애 사모(김윤배 목사 사모), 옥현정 집사, 홍현숙

집사, 이유신 집사가 교사로 봉사하였다. 설교는 한윤선(한순규 전도사 사모) 사모와 조유경 사모가 하였다. 성경 공부 교재도 예일교회가 속한 미주한인장로회(KPCA) 총회와 자매 교단인 모국의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측에서 발행하는 한국장로교출판사의 성경 공부 공과로 새롭게 바꾸었다.

그 후 2005년에 성전을 히스빌로 이전한 후 유치부의 활동은 더욱 활발해졌으며, 아이들에게 마음대로 간식을 줄 수 있게 되었고, 한결 좋아진 환경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 교사로 오산나 집사, 지은혜, 최광희 집사가 보충되었고, 2006년에는 한미선 집사, 김정민 집사, 나현아 집사가 교사로 보충되어 한미선 집사가 총무로 많은 수고를 하였으며, 설교는 조유경 사모가 하였다.

2006년도 6월부터 김송기 전도사가 유치부를 맡게 되었고, 한미선 집사가 부장으로, 이강희 집사가 회계로 활동하였다. 그리고 이연선 집사, 정경숙 집사, 정수미란 집사가 교사로 보충되었다. 교재를 <David C. Cook>으로 바꾸고 더욱 말씀 중심의 교육을 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2008년도에는 이연선 집사가 부장 교사로, 이강희 집사가 회계로 임명되었으며, 2009년도에는 정경숙 집사가 부장 교사로 임명되었고, 서주옥 집사, 한규만 집사, 한진영 집사, 이정은 집사, 박제진 집사가 교사로 보충되었다.

유치부는 어리지만 매 주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참 예배자로 키우기 위해서 예배에 모든 선생님들이 힘쓰고 있다. 또한 어릴 때부터 말씀을 가까이하고 기도하는 아이들로 자라게 하기 위하여 <성경 읽기, 기도하기>를 매일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권하고 있으며, 매달 'Memory Verse'가 스티커를 가방에 달아 주어 하나님의 말씀을 외울 수 있도록 권한다. 친구들과 '중보 기도 짝'을 서로 만들어 주어서 어릴 때부터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훈련을 하고 있다. 또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아이들로 키우기 위해 미얀마에 있는 고아 2명을 매달



유치부의 성탄 발표회

헌금과 기도로 도와주었고, 지금은 필리핀에 있는 2명의 친구를 도와주고 있다.

2007년에는 처음으로 '유치부 1일 수양회'를 교회에서 가졌다. 많은 아이들이 참석하여 즐겁고 신나고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다. 또한 할로윈데이에 아이들을 교회에 모아 '홀리윈데이'를 가짐으로 세상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또 하나의 크리스천 문화를 정착시켰다. 또한 유치부는 인형극과 교사들의 연극을 통하여 아이들이 더욱 흥미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치부는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매일 말씀을 읽고 외우는 훈련을 통하여, 어리지만 그들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어린 제자로 자랄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다. 앞으로 유치부의 더 많은 활동을 기대해 본다.

③ 유년부

유년부는 주일 오전 10시부터 성가대 연습이 있다. 연습을 마치면 오전 11시 30분 예배 시작 전까지 QT 시간으로 조용히 성경을 읽거나 외우면서 예배드릴 준비를 한다. 오후 12시 30분에 예배를 마치고 30분 동안 각 반으로 가서 선생님과 성경 공부를 한다. 점심을 먹고 오후 2시에 어와나(AWANA)를 하면서 성경 말씀을 외우고, 게임을 하면서 스포츠맨십을 키운다.



담당 전도사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유년부 학생들

유년부 어린이들도 주일을 열심히 어린이답게 교회에서 섬긴다. 자체 성전으로 말미암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어 자연스럽게 새로운 프로그램이 많이 생겨났다. 봄에는 봄 성경학교를, 여름에는 여름학교인 Disciple Land를, 여러 공휴일에는 Princess Night, Boy's Night, Choir Lock-In, Leadership Lock-In, Parents' Night, Holy-Win 등 여러 가지 이벤트를 교회에서 할 수 있게 되었다.

Lock-In은 자체 성전이 생기면서 그전에는 하룻밤 기도원에 가서 일일 수련회를 가지고 다음 날 Snow Tubing을 갔던 것을 변형하여, 기도원에 가는 대신 교회에서 하룻밤을 지는 것이다. 주일 저녁 어린이들이 교회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배우면서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지냈던 것처럼 교회에서 지내는 것이다. Lock-In은 자체 교회가 있기에 가능한 것이고, 이것을 함으로 유년주일학교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집같이 느끼는 친근함을 가지게 된다.

매주 수요일 저녁에 어린이 찬양대가 모여 기도와 함께 연습을 하며 찬양의 중요성을 배운다. 교회가 베이스айд에 있을 때부터 시작한 어와나는 히스빌에 와서는 시간을 수요일 저녁에서 주일 오후로 변경하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모인다. 어와나는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을 토대로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기초를 쌓아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도록 훈련하는 프로그램이다. 1시간 동안 말씀을 외우고 또 다른 1시간은 게임을 한다. 처음에는 힘들다고 잘 외우지 못하던 아이도 몇 달이 지나면 힘들지 않게 잘 외우게 되는데, 매주 30여 명의 어린이들이 참석하고 있다.



유년부 만세

Princess Night은 여자 어린이들이 공주같이 대접받고 사랑받는 저녁이고, Boy's Night은 남자 어린이들이 왕자같이 대접받고 사랑받는 저녁이다. 준비된 유년부실에 들어올 때는 한 어린이마다 이름이 불려지면서 여자 어린이들은 아버지의 에스코트를 받아, 남자 어린이들은 혼자서 들어온다. 여자 어린이들은 담임목사님께 인사하고 티아라 왕관을 받고, 남자 어린이들은 담임목사님과 악수를 한다.

이날에는 부모님들이 많은 수고를 한다. 유년부실을 궁전같이 장식하고, 만찬을 할 수 있게 식탁을 멋있게 꾸며 주고, 훌륭한 음식을 만들어서 아버지들이 웨이터가 되어 서빙을 해준다. Five course meal을 대접받은 아이들은 저녁에 slumber party를 하면서 더 친해지고 자기 전에 서로 기도를 해주고 잔다. 다음 날 아침에는 큐티로 시작하고 Tea Party로 프로

그램을 마친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어린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사람인지 알게 해 주고 자존감을 키우는 데 있다. 아이들이 제일 감동받고 좋아하는 것이 아버지가 서빙을 해 주는 것이다. 바쁜 생활 가운데서 사랑하지만 많이 표현하지 못했을 아버지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감동을 아이들에게 선물해 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자체 성전이 생겨서 할 일도 많아졌고 프로그램도 많아졌다. 이제는 더 업그레이드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아이들의 속사람의 질이 말씀 안에서 깊어지고 발전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아이들이 되는 것이다.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믿음으로 힘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자녀의 자존감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유년주일학교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활발하게 성장 발전해 가고 있다.

④ 중고등부

학생회는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을 교육 목표로 '각 사람을 온전케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나가며', 이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힘찬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그동안 예배, 교육, 전도, 봉사와 교제를 통한 영적 성장에 중점을 두고 교육 하던 학생회는 창립 20주년을 맞으며 또 다른 변화와 성장의 시간을 갖게 되었다.

2005년 새 성전으로 옮길 당시 주일 출석이 60여 명이던 학생회는 그동안 두 배가 넘는 성장을 이루게 되었다. 2005년 새 성전으로 옮겨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던 기쁨도 잠시, 학



학생회 찬양대

생회는 예배 공간의 부족이라는 새로운 문제에 당면하게 된다. 지속적인 성장으로 말미암아 2006년 하반기부터는 60-7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교실에서 110명이 넘는 인원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비록 협소한 공간에서 다리조차 마음껏 뻗을 수 없는 형편이었지만 예배의 열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학생회 감사절 발표회

으며, 늘 감사가 넘쳤다. 2007년부터 교육관이 완성될 때까지 중등부는 임시 시설인 트레일러에서, 고등부는 교육관 학생회실에서 주일 예배를 드렸다. 2008년 교육관이 완성되면서 더욱 좋은 환경에서 예배와 교육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학생회는 자체 성전과 교육관의 증축으로 교육을 위한 공간과 자유로운 성전 사용이 용이해지면서 성가대, 오케스트라, 방송부, 성경 읽기 클럽, 새 신자 환영부 등 여러 활동을 시작하였다.

학생회 찬양대에는 현재 20명의 학생들이 홍지연 사모의 지도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기 위해 매 주일 찬양 연습에 정진하고 있다. 학생회 찬양대원들은 대부분이 미국에서 태어난 2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주로 한국어로 찬양하고 있으며, 매 주일 예배를 위한 찬양 이외에도 성탄절, 부활절, 창립 기념일 등에 특별 찬양을 준비하며 많은 행사에 찬조 출연을 하기도 한다.

찬양대 이외에도 여러 부서들이 학생회 활동에 추가되었다. 현재 방송부는 정태규 선생의 지도 아래 학생회 자체 웹사이트를 관리하며 매 주일 예배 시 프로젝터 사용과 음향기기의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또 매년 열리는 학생회 'Praise Night' 을 위해 사진 슬라이드 쇼를 준비하고 사진 콘테스트를 열기도 한다.

학생회 오케스트라도 빼놓을 수 없는 자랑거리이다. 현재 김승아 선생의 지도 아래 발전을 거듭해 가고 있다.

학생회는 지난 2005년 성경 읽기 클럽(BRC)을 조직하였다. BRC는 전 멤버의 성경 1년 1독을 목표로 교회 도서관에 매 주일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정독해 나가고 있다. 성경 읽기 클럽은 매 주일 성경을 함께 읽을 뿐 아니라 각자 가정에서 매일 성경을 읽도록 독려하고, 1년에 3차례에 걸쳐 성경 읽기 클럽 수련회와 Lock-in을 가지고 있다.

새신자 환영부 'Welcoming Committee' 도 2005년도에 결성되었다. 새신자 환영부는 매 주일 늘어나는 새신자들이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새신자부에

서는 본 교회를 처음 방문한 학생들을 위해 예일 학생회 안내서와 작은 선물, 설문지 등을 준비하여 새로 방문하거나 교회를 찾고 있는 학생들의 정착을 돕고 있다. 현재 각 학년별로 2명 이상이 선정되어 연 3차에 걸쳐 훈련을 받고 봉사하고 있으며, 남에스터 선생의 지도하에 학생회 성장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뉴욕교회협의회 체육대회에서 우승컵을 거머쥐고

자체 성전으로 인한 또 다른 변화의 하나는 넓은 잔디밭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동안 배구에 남달리 애정을 쏟아 온 학생회는 새로 생긴 넓은 운동장에서 마음껏 연습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하여 2003년에는 프린스턴 배구 대회에서 남자부 3위, 2004년에는 여자부 2위, 남자부 3위, 교협 주최 배구대회에서 여자부 2위를 차지하며 기염을 토하였다. 2006년에는 프린스턴과 교협 배구 대회에서 모두 1위와 3위를 차지하고, 2007년에는 양 대회에서 모두 1위와 2위를 거머쥐어 명실공히 배구의 예일 왕조 시대를 열게 되었다. 이후에도 2008년에는 프린스턴 배구 대회에서 남자 1등, 교협 주최 배구 대회에서 남자 1등, 여자 1등, 2009년에는 프린스턴 배구 대회에서 여자 2등, 2010년에는 프린스턴 배구 대회에서 여자 3등, 교협 주최 배구 대회에서 남자 1등, 여자 3등, 2011년에는 프린스턴 배구 대회에서 남자 2, 3등, 교협 배구 대회에서 남자 2등, 2012년에는 프린스턴 배구 대회에서 남자 3등, 교협 주최 배구 대회에서 남자 2등, 여자 2등을 차지했다. 학생회는 지금까지 예일 배구 시대의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올해로 13기를 맞는 제자훈련반도 예일 학생회의 빼놓을 수 없는 자랑거리인 교육 프로그램이다. 부모들은 장년부에서 한글로, 자녀들은 학생부에서 영어로 같은 내용의 제자 훈련 과정을 13주에 걸쳐 배운다. 제자 훈련은 자녀와 부모가 가정에서 서로 배운 것을 나누며 '주도 하나'이며, '믿음도 하나' 이고, 우리 신앙의 뿌리도 하나임을 깨달아 가는 귀한 프로그램이다.

국내 선교 사역인 Work Camp와 여름 방학을 통하여 떠나는 단기선교는 학생들의 신앙



국내 선교 사역의 Work Camp

을 삶으로 표현하는 귀한 기회이다. Work Camp는 노약자, 장애우 혹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도와 집수리를 해주는 사역이다. 2001년 12명의 참가자로 시작한 Work Camp는 이제 매년 50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여름에도 로드아일랜드의 Wood River Junction에 장년 10명

과 학생들 40명이 함께 떠날 예정이다.

여름 단기선교의 참여 열기 또한 뜨겁기 그지없다. 예일교회는 해마다 여름방학 기간 중 학생들과 어른들을 볼리비아, 니카라과, 필리핀 등으로 파송하고 있다. 단기선교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제자 훈련을 성공적으로 끝마쳐야 하며, Work Camp 경험이 한 번 이상 있어야 한다. 또 학생들은 단기선교를 떠나기 위해 5개월에서 6개월간의 고된 훈련 과정을 거치며, 선교를 떠나는 날까지 릴레이 금식 기도, 새벽 기도, 선교 기금 모금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훈련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가장 기다리는 것이 단기선교이기도 하다.

Work Camp와 단기선교의 가장 큰 장점은 학생들과 장년들이 함께하는 것이다. 학생들은 부모 세대의 뜨거운 신앙을 보고 배우며, 장년들은 2세들을 더 잘 이해하게 되고, 그들의 순수한 신앙에 감동을 받는다. 1세와 2세가 함께하는 국내외 단기선교는 우리 예일의 가장 사랑받는 프로그램일 뿐 아니라 학생들의 신앙 성장과 선교의 비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시작된 선교에 대한 열정은 학생들이 자신들의 용돈을 아껴 선교사를 지원하며 기도로 세계 선교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학생회는 볼리비아의 20명의 어린이들의 교육비를 지원한다.

예일 학생회는 말씀과 기도에 대한 열정



다민족 전도 팀의 주축인 예일 학생회

도 매우 뜨겁다. 매일 첫 금요일 기도회로 모일 뿐 아니라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한 매일 밤 10시 기도와 주일 아침 기도 모임에 참여하는 학생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창립 20주년을 맞이하는 예일 학생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성숙해 가고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예일 학생회는 이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도구로 크게 사용될 것이다.

⑤ 청년부

예일장로교회 청년부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미혼 남녀로 이루어진 선교회와 목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의 모임이다.

청년회는 주일 예배에 우선적으로 집중한다. 주일 예배는 성인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로, 예일교회 성도로서의 공동체성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청년들에게는 그들만의 독특한 정체성을 가질 필요가 있었다. 기존 성인들과는 다른 그들만의 신앙적 색깔이 필요했다. 이를 위해 만들어진 모임이 토요 청년 모임이었고, 2011년부터는 금요일 모임으로 요일을 변경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친교를 함께 나누고 있다.

매주 모이는 금요일 청년 모임은 순전히 청년들만의 모임이다. 이 시간에는 청년들이 함께 모여 찬양과 말씀, 그리고 서로의 삶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 금요일 모임을 통해서 청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청년들을 향한 비전과 꿈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특별히 다섯째 금요일이 있는 달은 함께 모여 교제할 수 있는 친교의 시간을 갖는다.



새벽 이슬과도 같은 청년부

(2) 훈련과 교육 프로그램



101 제자 훈련을 마치고 양육자들과 함께

가. 제자 훈련

예일교회의 제자 훈련의 기본 틀은 야구 베이스 형태이다.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프로 야구를 접할 기회가 많으므로 그 개념을 잘 알고 있다. 1루, 2루, 3루, 그리고 홈 베이스를 밟아야 마침내 1점이 나게 된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적어도 1점은 내야겠다는 목표를 주는 것이다. 목표가 있

을 때 방향이 잡히고 그 방향을 향하여 교회가 힘을 모을 수 있다.

제자 훈련 101은 일대일 양육 16주 코스이다. 23기까지 담임목사가 직접 가르쳤다. 한기에 평균 10명이 수료했다고 해도 25기까지 250명이 수료한 셈이다. 그동안 이 훈련을 통해 성도들의 신앙이 정돈되며, 구원의 확신이 생기며, 많은 상처가 회복되어 교회 사역부에서 힘있는 일꾼들로 변하는 것을 보았다. 이 훈련이 예일교회 부흥의 뼈대와도 같은 역할을 했다. 담임목사 개인적으로는 큰 축복이었다.

그러나 26기부터는 양육자들을 훈련시켜 그들에게 동반자들의 양육을 맡기는 것을 시도했다. 여기에는 불안감이 없지 않았다. 평신도들에게 양육을 맡길 때 과연 지금까지의 은혜와 축복이 지속될까 고민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까지 양육받은 성도들이 잘 해낼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도들과 부교역자들로 하여금 양육의 축복을 저들도 누리게 하고 싶었고, 이런 양육자들로 가득 찬 교회를 보실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감동이 훨씬 더 컸다.

26기부터 38기까지 평신도들과 부교역자들이 동반자들의 양육을 맡았다. 결론은 빅 히트였다. 일대일로 만나니 마음속 깊이 있는 이야기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나누었다. 그러면서 많은 치유와 회복을 맛보게 되었다. 양육자들 또한 양육하면서 더 큰 은혜를 맛본다고 기뻐하였다.

제자 훈련 201은 제자 훈련 101을 마친 이들이 받는 훈련이다. 제자 훈련 101을 통해 기초를 다진 후 좀더 영적으로 깊이 있는 훈련을 하는 것이다. 이 훈련은 리처드 포스터(Richard J. Foster)의 내적 훈련, 외적 훈련, 단체 훈련을 기본틀로 하고, 각 과의 내용에 상응하는 소책자들을 통해 학습의 폭과 깊이를 더하는 훈련이다. 예일교회에서는 기본적으로 101과 201 제자 훈련을 마친 사람이 목자가 되며 양육자가 될 수 있다.

제자 훈련 301은 성경에 관한 내용으로 교재를 정해 진행되었다. 매주 수요일마다 많은 성도들이 모였고, 훈련 자체가 다시 한 번 부흥을 경험하는 귀한 순간이었다. “성경이 왜 어려운가? 왜 읽다가 말고 읽다가 말고 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극복하고 성경을 일독하게 하기 위해 연대별로 성경을 재구성하고,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며 읽어 나갔다. 읽다가 모르는 것은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질문 용지를 나누어 주었고, 서로 격려하기 위해 성경방을 만들어 방지기가 성경방의 식구들이 성경을 읽다가 낙오되지 않도록 격려하게 했다. 2012년에는 《성령 익스프레스》(테리 홀 저)를 가지고 301 제자 훈련이 진행되고 있고, 모든 성도들이 또 다른 은혜를 맛보고 있다.

제자 훈련 401은 새 생명 전도 훈련으로, 예수님의 지상 명령 성취를 돕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또한 개인의 영적 성장을 위한 환경을 만들어 주고 전도의 기본 훈련을 가르쳐



제자 훈련 201 수료식



제자 훈련 301 “어? 성경이 읽어지네”



새 생명 전도 401 제자 훈련 수료식

을 위한 기도, 목원들 서로를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등이 하나님께 드려진다. 그리고 목장은 생명체이므로 서로 돌아보아 나의 희생을 통해 목원들의 필요를 채우고, 그들의 영혼이 옛 방식으로 돌아가지 않고 날마다 주님을 더 닮아 가도록 격려한다.

지금은 30개의 목장이 있다. 2008년부터는 30개 목장의 유기적인 통합과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해 4-5개의 목장을 하나로 묶어 '예수마을' 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마을지기를 시무장으로 정했다. 시무장로들이 좀더 넓게 성도들을 만나며 섬기는 기회가 되었다. 그리고 제1선교회는 따로 하나의 목장을 만들어 편리한 시간에 모여 담당 교역자와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누고 있다. 그리고 매주 첫 금요일은 목장 연합 모임으로 2008년부터 모이게 되었다. 동일한 장소에서 계속 모이는 가정의 부담을 덜어 주고, 목장의 꿈과 사명을 지속적으로 격려하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2013년부터 목장 조직이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전체 목장을 2개의 교구로 나누어 1교구(1~6목장)는 윤승진 목사가, 2교구(7~12목장)는 강세훈 목사가 담당하게 되고, 각 목장의 목자는 장로들이 맡게 된다. 그리고 목장 모임은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각 목장에서 정하는 장소에서 모여 목장 모임을 갖게 된다.

(3) 봉사 프로그램

가. 사역 부서 활동

① 중보 기도 사역

자체 성전이 생기면서 활성화된 사역 중의 하나가 중보 기도 사역이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던 때와는 달리 주신 성전 안에서 마음껏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중보 기도 사역부가 시작되면서 두 가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렘 29:11-13).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마 18:19-20).



교우들의 기도 제목을 함께 공유하는 중보 기도

중보 기도 사역은 내가 어떤 사람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간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섬기는 사역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심을 믿으며 그의 사역에 동참한다는 영광을 가지고 섬기는 사역이다. 언제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기에 조건 없는 사랑으로 섬긴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피며 말씀과 기도에 깨어 있어 신실한 삶을 살도록 노력하며,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않고, 영적 교만을 갖는 어리석은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섬기고 있다.

중보 기도의 내용은 첫째로 하나님을 알아야 할 자, 하나님과 떨어진 자,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기도하는 것이고, 둘째로 하나님의 종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복음을 힘있게 전하도록 기도하고 있으며, 셋째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고 있다.

현재 예일교회 중보 기도 사역부는 매 주일 오전 11시부터 11시 25분까지와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15분부터 8시 30분까지 재정부실에서 설교자, 기도 담당자, 예배위원(헌금, 안내, 차량부, 주차장 사역부, 찬양대 등)들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또 그 달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한다. 또 월별 기도 제목을 놓고 사역부원들이 날짜별로 분담하여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에 4명 정도가 기도하며, 주일에는 모든 사역부원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다.

또 각 부서별로 나누어서 중점적으로 기도하는데, 첫 항목은 교회, 사역부서, 교역자를 위해, 두 번째 항목은 찬양대, 찬양 팀, 관악단을 위해, 세 번째 항목은 E.M., 교회학교, 교사들

을 위해, 네 번째 항목은 교회에서 후원하는 60여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다섯 번째 항목은 새 가족과 영혼 구원을 위해, 여섯 번째 항목은 커뮤니티 사역, 각 선교회, 목장을 위해, 일곱 번째 항목은 연약한 지체, 기타 기도 제목을 위해 전 중보 기도 사역부원들이 항목 별로 분담하여 기도한다.

② 바나바 사역

바나바 사역이란 새 가족과 이미 정착한 교인 사이를 연결하는 사역으로, 새 가족들이 하루속히 낯선 분위기에서 벗어나 한가족처럼 느끼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을 말한다.

예일교회가 베이사이드에 위치해 있을 때부터 바나바 사역을 시작하긴 했지만 이론에 그



바나바 선교회가 주관이 되어 준비하는 새 가족 종강 파티

치고 잘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자체 성전이 생겨 교회가 히스빌로 이전한 후 새 가족들이 계속 들어옴으로 바나바 사역의 필요성이 다시금 절실해졌다. 이에 김종훈 목사는 직접 바나바 배지를 디자인하여 바나바 사역부원들에게 나누어 주고 새 가족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격려하였다.

바나바 사역부원들은 새 가족이 처음 교회에 왔을 때 친절히 도와주고, 예배 후에 등록할 수 있도록 인도하며, 등록을 마친 후에는 새 가족 성경 공부에 참석할 것을 권유한다. 새 가족 성경 공부는 2006년부터 최근선 전도사가 새 가족 담당 전도사로 부임하면서부터 체계적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5주를 한 기로 하여 현재까지 30기 새 가족 성경 공부가 진행되었는데, 새 가족 성경 공부를 마



새 가족을 교우들에게 소개하는 담당 목사

친 사람들은 교회에 완전히 정착이 된다. 5주 동안 매 주일 예배 전에 담임목사와 함께하는 이 공부는 믿음을 다시 한 번 재정비하는 데 도움이 되고, 함께 공부하는 사람들과 친교도 이루어져 소속감이 생긴다. 무엇보다 담임목사의 목회관을 이해하게 되고 그와 인격적 교제를 통해 안정감을 갖게 된다.

5주간의 공부가 끝나면 예배 시간에 새 가족 환영회를 하고, 그 주말에는 종강 파티를 하게 된다. 종강 파티는 새 가족들에게 잊지 못할 은혜와 감격의 시간이다. 함께 찬양하고 웃고 즐기는 동안 마음 문이 열려 진실한 기도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 때문이다. 함께 어우러져 기도하는 시간은 기쁨과 감사로 눈물바다를 이루며, 종강 파티의 하이라이트를 이루게 된다.

바나바 사역부원들은 새 가족들이 교회에 뿌리를 잘 내리도록 주일에는 2부, 3부 예배 때 새 가족을 영접하고 있으며, 3부 예배 후에는 새 가족들을 위한 식사 준비도 담당하고 있다. 주중에는 환영 카드, 환영 편지, 안내문 카드를 보내고 새 가족들을 위한 중보 기도 팀을 만들어 매일 새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또한 목장과 선교회로 연결시켜 주어 새 가족들이 잘 참석하도록 도와준다.

그리고 새 가족 만남이 끝나면 그다음 양육 단계인 101 제자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권면도 하고 있다. 이렇듯 활발하게 움직여 주는 바나바 사역부로 인해 새 가족 정착률이 90%에 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교회가 날로 부흥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③ 도서 사역

자체 성전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사역은 도서 사역이다. 성도들에게 좋은 신앙 서적을 통하여 그들의 영적 정원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다. 처음에는 어떤 모습일까 막연했는데 하나하나 윤곽을 잡아 지금의 아담한 북 카페 같은 도서실의 모습이 되었다. 성전 수리를 하면서 본



예일도서관 개관을 기념하며

당 강대상 뒤로 1만여 권의 책을 소장할 수 있는 아름다운 도서실이 들어섰다. 적은 경비에 효과적인 기능을 갖춘 Small Library Program을 선택하여 도서관 체계를 갖추었다.

이에는 이미 도서실을 운영하고 있는 이웃 교회 성도의 도움이 컸다. 텅 빈 책꽂이를 하나하나 채워 가는 기쁨은 말할 수 없이 컸다. 그러던 중 많은 양의 책을 쿠파출판사로부터 기증을 받고 나니 제법 도서실 같은 분위기가 풍겨나기 시작했다.

처음 시작하는 도서실이다 보니 크고 작은 소품들이 필요하였다. 우리 교회에 도서실이 생긴다는 기쁨에 각 선교회의 정성 어린 찬조로 테이블과 의자가 구비되고, 장로님들의 도움으로 컴퓨터와 도서관 프로그램이 마련되었다. 성도들의 책과의 만남, 휴식의 공간으로 자리 잡은 예일도서실은 이제 만 2년이 지나면서 약 300가정이 회원으로 등록하고, 아름다운 공간에서 주일마다 대출과 반납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도서실의 예산이 확보되어 매달 20~30권의 신간 기독교 베스트셀러 서적과 월간지, 그리고 특별히 읽고 싶은 희망 구입 서적이 구입되고 있다. 이러한 일들을 위해 도서 관리 사역부원들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더 나은 봉사로 맡겨진 일을 감당하려고 애쓰고 있다.

④ 찬양 사역

1993년 3월 남홍우 집사의 집에서 가정 교회로 모임 당시 김용경 집사의 지도 아래 5명의 인원으로 여성 중창단이 시작되었으며, 1993년 5월에 칼리지 포인트 세인트폴 성공회 교회로 이전하여 창립 예배를 드리고, 여성 9명과 남성 2명으로 정식 찬양대가 시작되었다. 찬양대원은 해를 거듭할수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증가하였는데, 1993~1998년에는 평균 20명의 찬양대가 활동하였고, 1998~2002년에는 평균 30명의 찬양대가 열심히 모여 찬양을 드렸다.

그로부터 창립 10주년이 되는 해인 2003년에는 지휘자로 이다윗 집사, 반주로 홍숙희 집사가 팀을 이루어 음악적으로 성장해 가는 계기가 되었고, 새로 부임한 이다윗 집사가 찬양대의 새 지평을 열었다. 이때 찬양대원의 수는 악기 연주자와 합하여 51명이 임명 받았다. 5명으로 시작된 찬양대가 10주년을 맞이하여 50여 명으로 장족의 발전을 이룬 것이다.

이 당시 창립 10주년을 기념으로 헨델의 <메시아> 곡 중 몇 곡을 발췌하여 체임버 오케스

트라와 연주하였다. 교회가 유대인 성전을 렌트해서 사용하므로 찬양대 오후 연습 시간에 마음대로 식사를 할 수가 없어서 유대인 회당 앞에서 김밥을 먹고 들어가 연습에 임하기도 하였다. 또 회당의 규율 관계로 예배 때마다 피아노를 옮겨야 했고, 연습 장소가 없어서 찬양대원들의 도움으로 대원들의 집을 빌려 연습하기도 하였다. 여러 가지 환경 여건이 좋지 않았지만, 모두 열심히 기쁨으로 모여 찬양을 준비해 정성을 다해 드리던 시기라 할 수 있다.

2005년 자체 성전으로 이사를 온 후로는 성전에 파이프 오르간이 설치되어 있어 차은경 집사가 파이프 오르간을 맡아 수고하였다. 그리고 1부 예배 찬양대로 처음에 4명이 중창으로 시작했으며, 2006년부터는 이름을 글로리아 찬양대로 명명하고 그해 2월 지휘에 박성하 집사(현 전도사), 반주자에 김승아 집사가 임명되었다. 처음 글로리아 찬양대의 구성원은 교회학교 교사들이 많이 있었으나, 2013년 현재 50여 명의 대원들로 성장하였다. 이른 아침부터 일찍 나와 겸손히 수고하는 모습에서 성도들이 많은 은혜를 받고 있고, 열심을 다해 충성되어 2부 예배를 섬기고 있다.

특히 2007년도에는 교회가 더욱 부흥하여 창립 14주년 기념 주일을 기해 2부로 드리던 예배를 3부로 드리게 되었다. 그래서 아침 일찍 7시 30분 1부 예배에서는 주로 학생들의 악기연주와 장년 관악부원들의 기악,



창립 초기의 찬양대



창립 10주년 기념 헨델의 <메시아> 찬양



할렐루야 찬양대와 글로리아 찬양대가 함께한 연합 찬양대



두나미스 중창단의 선교대회 헌금 찬양



에이레네 여성 중창단의 대외 활동

중창과 독창 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 예배가 3부로 확장됨에 따라 1부 글로리아 찬양대가 2부 예배 찬양대로, 그리고 2부 할렐루야 찬양대가 3부 예배 찬양대로 섬기게 되었다. 현재 할렐루야 찬양대 인원은 60여 명으로 성장하였고, 교회의 부흥과 함께 찬양대가 부흥함으로 자리가 모자라 찬양대석을 더 설치하는 아름다운 수고도 있었으니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하겠다.

예일교회 찬양 사역의 자랑이 있다고 한다면 예일 남성 중창단(두나미스)과 예일 여성 중창단(에이레네)이다. 남성 중창단의 역사는 2002년 1월에 '두나미스'라는 이름으로 결성된 것이 시발점이 된다. '두나미스'란 헬라어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성

령의 능력과 권능을 말하는데, 이같이 능력 있는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지은 이름이다. 15명의 남성대원들이 모여 시작된 남성 중창단은 초기 결성되었을 때 김인선 전도사가 지도했고, 박성하 전도사를 거쳐 김인철 집사가 지도하고 있다.

에이레네 여성 중창단은 2006년 주일 예배 헌금 특송을 준비하기 위해 몇몇 찬양대 여성대원들이 모여 연습하던 것이 2007년부터 여성 중창단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현재 지도에 임정현 집사가 수고하고 있다. 예일 여성중창단 에이레네는 여성의 뛰어난 감각으로 더욱더 섬세하며 세련된 찬양으로 많은 은혜를 끼치고 있다.

예일관악단의 태동은 2007년 11월 미주한인장로회(현 해외한인장로회) 뉴욕노회 주최로 뉴욕노회 찬양제가 우리 교회에서 열렸는데, 그중 한 교회가 관악단으로 연주하는 것을 지켜본 이인화 집사가 도전을 받고 이에 뜻을 같이한 몇몇 사람들과 함께 발기하였다. 2008년 초 관악단 모집을 하고 현재까지 매주 월요일에 모여 연습을 하고 있다. 악기로는 트럼펫,

색소폰, 클라리넷, 플루트, 호른 등 목관 악기와 관악기로 현재 20여 명이 연습을 하고 있다. 관악단 단장에 정건수 집사가 수고하고 있다.

크로마하프단은 예일교회의 또 하나의 자랑이다. 크로마하프단은 2008년 14명의 단원으로 창단되었다. 지금은 8명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 달에 두 번 선생님을 모시고 레슨을 받고 있으며, 매주 화요일 정기적으로 연습을 하고 있다. 크로마하프단은 교회 특별 예배인 성탄절과 교회 창립일에 연주회를 갖는다.

1999년 6월에 결성된 예일 찬양 팀은 김종훈 담임목사의 목회 계획에 발맞추어 찬양과 경배를 통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주일 찬양 예배와 수요일 기도회의 찬양은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의 소망과 기도를 곡조에 담아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2005년 히스빌 성전으로 이사하기 전까지 사용하였던 유대인 회당에서는 예배와 찬양을 드리기 위하여 마이크에서부터 연주용 악기와 스피커까지 모든 장비를 창고에서 가져와 설치하였다. 그리고 예배를 마친 후에는 다시 원래의 위치로 돌려놓고 협소한 사무실에서 다음에 드릴 찬양을 연습했다. 그러나 자체 성전으로 이사 온 후에는 그러한 시간과 수고를 절약하게 되었고, 보다 많은 시간을 찬양 사역 준비를 위해 할애하고 있다.



예일관악단 크리스마스 발표회



2008년 창단 당시의 크로마하프단



주일 찬양 예배 찬양을 인도하는 예일찬양단

2006년 찬양 팀은 예일찬양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단원들을 보강했다. 그해에 임직을 받은 성도들의 지원으로 악기와 장비를 업그레이드하여 한층 풍성한 찬양을 인도할 수 있게 되었다. 청년부에서부터 제2선교회원까지 여러 연령층이 함께 어우러져서 각자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열심을 다하고 있다. 2012년까지 박성우 집사가 단장으로 오랫동안 섬겼고, 2013년부터 김동환 집사가 찬양단 단장으로 섬기고 있다. 예일찬양단은 창립 20주년을 맞는 교회의 현 시점에서 찬양대와 함께 예일교회의 찬양을 이끄는 귀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⑤ 바디워십 사역

바디워십은 '몸으로 드러지는 예배'라는 뜻이다. 성경 속의 무용을 거울 삼아 배우고 순종하며 적용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을 몸으로 표현해낸 무용을 '바디워십'이라 일컬을 수 있다. 승리의 기쁨을 하나님께 감사하여 춤을 추었던 미리암이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기쁨으로 춤을 추었던 다윗 왕처럼 온몸으로 표현되는 찬양, 즉 바디워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바디워십 팀은 2007년 처음 시작되어 지금까지 사역하고 있다. 단원 모두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로 준비하면서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 무용이 십자가 사랑을 전달하는 시간들이 되고, 또 굳어지고 닫혀진 마음들이 열려서 주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열심을 다하고 있다.



몸으로 드러지는 예배 바디워십

⑥ 드라마 사역

2012년 성탄 절기 때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드라마 사역부는 1년에 두 차례 부활 절기와 성탄 절기에 봄(BOOM: Bring One Or More) 서비스로 드라마를 준비하여 예배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새신자나 초신자를 초청하여 친근감 있게 예배에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하나의 드라마를 완성하기 위해 모든 부원들이 기도하며 3개월 정도의 연습 기간을 갖는다. 지금까지 함께하신 하나님께만 영광과 감사를 돌린다.



부활절 새 생명 축제 BOOM Service의 드라마 공연

나. 커뮤니티 봉사

① 실버클럽

2013년 올해로 실버클럽이 시작된 지 햇수로 8년째이다. 실버클럽은 예일교회 커뮤니티 봉사 프로그램 중의 하나이다. 2005년 2월에 자체 성전을 구입한 후 이 성전은 예일교회 성도들뿐 아니라 교회가 속한 커뮤니티를 섬기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자각한 데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김종훈 담임목사의 교회 창립 이전부터의 목회적 비전에서 잉태되었다. 대상은 60세 이상의 어르신이고, 이분들께 천국의 기쁨을 조금이나마 맛보게 해



실버클럽 회원들이 서로 축복하는 시간



즐거운 점심 식사를 기다리는 실버 회원들



실버클럽 중강 파티를 마치고 담임목사와 스태프들과 함께

드리려는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1년에 두 번, 봄과 가을 학기로 나누어서 13주씩 실시하는데, 2006년 3월에 처음 시작되었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까지 4시간 동안 예배, 체조, 영어 배우기, 삶의 이야기 나누기, 점심 식사, 노래 배우기의 순서로 진행된다. 그리고 특별 프로그램으로 한방 진료, 미용과 네일 봉사, 동물원 방문, 단풍 구경, 건강

세미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모든 프로그램은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운영되는데, 이들의 의견을 들어 보면 이구동성으로 처음엔 봉사하러 나왔지만 어르신들을 섬기면서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

어르신들은 자원봉사자들의 헌신과 사랑으로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었다. 그리하여 2006년 봄 학기 첫 모임에는 15명의 어르신들이 모인 가운데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세 클럽으로 나누어서 진행되었는데, 지난 2007년 가을 학기에는 기존의 세 클럽에 화평과 온유 클럽이 신설되어 모두 5개 클럽이 되었고, 2013년 현재 평균 출석이 약 90명이나 된다. 자원봉사자들도 처음에는 7명이었는데, 이제는 약 15명이 되었다. 처음에는 교회가 위치한 롱아일랜드 지역의 어르신만 오셨지만, 점점 좋은 소문이 나서 이제는 뉴욕 퀸즈에 사시는 많은 분들이 참석하고 있다.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르신들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매 학기를 마칠 때면 언제 다시 시작하느냐고, 왜 방학을 하느냐고 말씀들을 하신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이다.

예일교회는 확실히 성령 충만한 교회이다.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는다고 하는데(행 2:17), 본 교회를 통해 노인들이 꿈을 꾸며 천국을 맛보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실버클럽으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예일교회를 통해 계속해서 충만히 일어나기를 겸손히 기도한다.

② Mommy & Me

예일장로교회가 2005년 1월 31일 자체 성전을 마련하고 이곳 히스빌에 새롭게 새 성전 시대를 열어 가고 있을 때 자연스럽게 생긴 것이 커뮤니티 봉사 프로그램이다. 이전에는 꿈도 꿀 수 없었던 프로그램이다. 셋방살이에 맘놓고 시공간에 규제받지 않고 발뺎어 볼 공간이 없었던 때와는 달리, 지금은 지역사회의 필요를 위해 허락된 환경적 요소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력과 시간, 노력과 열정,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여건이 된 것이다.

지역사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인 커뮤니티 봉사 프로그램은 예일교회가 위치한 히스빌과 플레인뷰, 사요셋 근처에 한인이 많이 유입된 것과 학교 전 교육의 기회가 많이 없다는 상황을 보고, 한인 가정의 젊은 엄마들을 도와주며 어린아이들에게 편안한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질 좋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착안된 것이다.

‘Mommy & Me’ 프로그램은 두 살부터 네 살 미만의 어린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보호자인 엄마와 함께 1시간 30분을 공부하게 된다. 한 주에 한 번,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운영하고 있다. 프로그램 디렉터로는 조유경 사모, AD(부디렉터)로는 박에스터 전도사가 담당하고 있다.

아이들의 연령과 발달에 맞게 고안된 ‘Mommy & Me’는 ‘Welcome time, Praising & Dance time, Reading time, Parachute time, Game time, Exercise time, Bubble time, Craft time’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년에 봄, 가을 학기별로 수업이 있다.



초창기의 Mommy & Me



디렉터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엄마와 자녀들

Mommy & Me는 2006년 봄 학기에 시작하여 벌써 만 7년이 넘었는데, 처음에는 등록된 학생 중 예일교인 가정의 자녀가 31%나 되었지만 두 번째 학기에는 18%, 세 번째 학기에는 4%로 차츰 지역의 주민과 타 종교인, 타 교인들이 주를 이루면서 지역사회 봉사 프로그램으로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

아이가 많은 가정의 엄마들은 자녀들을 연이어 보내고 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며 노래를 부르지도 않던 아이들이 한 학기 수업이 다 끝나 갈 즈음에는 노래와 율동도 잘하며 좋아한다고 부모들이 와서 말한다. 아이들이 이 시간을 무척 기다리고 우리 교회에서 하는 Mommy & Me 프로그램 자체를 매우 즐기고 있다며 종강 파티 때 엄마들이 매우 아쉬워한다. 또 Mommy & Me가 방학하는 동안 어떻게 보낼지 벌써부터 고민하기 시작하는 부모들도 있다.

다른 교육 기관과 차별화된 교육 진행으로 엄마들의 반응이 아주 좋으며, 더욱이 무료로 하는 것에 부모님들은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간식도 자원하여 돌아가며 부모님들이 준비해 준다.

바야흐로 Mommy & Me는 이 지역의 한인 가정의 젊은 엄마들에게 인기가 높아졌다. 엄마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서로 자녀 교육 정보의 나눔 장소도 되며,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만나 친해지게 되면서 좋은 학부모들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다.

③ 뉴욕 예일한국학교

한국학교는 1997년 3월 2일 주일 찬양 예배 시간에 한글학교로 처음 시작되었다. 초창기에는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본당 옆 교육관 건물 2층에서 한미연구소 발행의 <한글>이라는 교재로 한글 공부를 시작했다. 1998년 2월초 성전을 베이사이드로 이전하고 그해 가을부터 교사진이 보강되어 청년 위주의 교사에서 교회 직분자 위주의 교사들로



토요 한국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조직되면서 한글학교가 자리를 잡게 되었다.

1999년에는 정은숙 집사(전 중고등부 담당 전도사)가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을 위하여 8주 코스로 SAT2 한국어를 가르치기도 했다. 2001년에는 정태인 집사(현 권사)를 비롯하여 5명의 교사들의 헌신에 힘입어 한글학교 학생들에게 한글뿐만 아니라 한국 동요와 전래동화를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이에 한글학교가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면서 한글학교 발표회를 갖고 글짓기, 편지 쓰기, 그림 일기 등의 전시회와 아울러 애국가와 동요 부르기, 릴레이 옛날이야기, 간단한 연극 등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예일 한국학교의 김혜영, 이동원 학생이 뉴욕 한국학교 주최로 열리는 성경 이야기 대회에 출전하여 입상을 했다.

2002년부터는 한글학교 교장에 김종훈 목사, 교감에 이수일 집사, 교무에 정태인 집사, 교사 7명과 함께 조직을 정비하고 교재를 남가주한국학교의 <재미있는 한국어>로 바꾸었다. 그리고 교사들에게 담당 학년을 정해 줌으로써 맡은 학년에 대하여 전문성을 강조하고, 매년 교사연수회도 실시하여 교사들의 사명감과 질을 높임으로써 자체 성전이 확보될 때를 대비하여 완전히 독립된 한글학교로서의 기반을 다졌다.

2005년 히스빌의 자체 성전으로 1월에 이사를 온 후에도 2월부터 1년간을 전과 같이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한글학교를 계속하였다. 그러다가 2006년 3월부터 교회에서 커뮤니티 봉사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주일날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하던 한글학교를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로 연장하는 토요학교가 탄생하게 되었다. 교장에는 김종훈 목사, 교감에는 김현수 장로, 스피리추얼 디렉터에 박에스터 전도사, 프로그램 디렉터에 정태



뉴욕 예일교회 한국학교 학생들의 종강 발표회



한국학교의 한글 공부와 그림 그리기

인 권사가 맡고, 8명의 교사와 특별 활동으로 농구를 가르쳤다.

튼튼한 교사진으로 시작한 토요학교는 첫 학기에 102명의 학생 등록을 받았다. 커뮤니티 봉사 프로그램인 관계로 수업료는 무료로 하고 있으며, 모든 교사 또한 무보수로 봉사하고 있다. 프로그램도 한국어, 한국 동요, 한국 역사는 물론이고 특별 활동으로 합창, 태권도, 농구, 공작도 함께 가르치고, 봄학기가 끝나면서 종강식과 함께 발표회도 가진다.

재미 한국학교협의회에 가입하고 뉴욕총영사관에 한국학교로 정식으로 등록하면서 학교의 명칭도 '토요한글학교'에서 '뉴욕 예일한국학교'로 명명함으로 한국학교로서의 모습을 완전히 갖추게 되었다. 교재도 뉴욕총영사관에서 보내주는 대한민국 교육인적자원부 발행 <한국어>로 채택하였다.

2006년 가을 학기에는 156명의 학생이 등록하였고, 교사들의 요청에 따라 시간도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5시까지로 연장하였으며, 가을학기 종강식에 즈음하여 그동안 가르쳤던 동요들을 모아 동요 부르기 대회를 하여 학생들에게 한국 동요에 대한 관심도를 높였다.

2007년 봄학기부터는 연극반을 개설하였다. 학생들의 실력 향상을 위하여 전 학년 매주 받아쓰기 시험을 보아 학기말에는 개근상과 함께 최우수상과 우수상 시상도 하고 있다.

학교 행사도 봄학기에는 봄철 운동회와 종강식 및 발표회를, 가을학기에는 추석을 즈음하여 한국 전통놀이 및 한복 발표회와 동요 부르기 대회가 정착되었으며, 2007년 가을 제2회 동요 부르기 대회에는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의 관심이 고조된 가운데 치러졌다.

특히 2007년 가을학기부터는 중고등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요청에 따라 중고등부 한글반도 개설하여 10명의 학생들이 등록하였다.

160여 명의 많은 학생 수로 저학년, 중학년, 고학년으로 나누어 동요와 한국 문화 그리고 한국 역사를 학년에 맞게 가르치고 있으며, 특별 활동도 교사들의 묵화와 종이접기 연수를 통하여 묵화반과 종이접기반도 운영했다. 교사들을 가르치는 것이 우리 한국학교의 힘이라고 하는 교장 김종훈 목사의 권면에 따라,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교사 연수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2007년에는 한국학교의 대모인 허병렬 선생을 모시고 2월과 8월에 두 번 연수회를 하여 교사들에게 자긍심과 사명감을 심어 주는 기회가 되었다.

2008년 2월 강습회에는 아콜라 문화학교의 손현숙 선생이 “놀이를 통한 한국어 지도”를 강의해 주었고, 주님의교회 유혜경 사모가 “종이접기 지도와 작품”에 대해 강의해 주었다.

2009년 7월에 정태인 권사가 한국학교 프로그램 디렉터를 퇴임했고, 그해 9월에 홍정자 목사가 한국학교 프로그램 디렉터로 부임했다. 한국학교의 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 까지로 변경했고, 한글 읽기, 쓰기, 말하기에 초점을 맞추었다. 2010년 1월에 박에스터 전도사가 스피리추얼 디렉터를 1년 쉬었다가 2011년 홍정자 목사가 다른 부서로 전임하면서 박에스터 전도사가 디렉터로 부임했다. 2011년부터 한국학교는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12시 반까지 운영되었고, 교장에 김종훈 목사, 교감에는 커뮤니티 위원회 담당 장로로, 디렉터에 박에스터 전도사, 총무에 정정숙 집사, 디렉터 어시스턴트에 김정민 선생과 7명의 자원봉사 선생님들로 구성이 되었다.

2012년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봄학기에는 미 동북부 어린이 동요 대회에서 개인 금상을 강유진A 학생이, 합창 최우수상을 최사라, 강유진B, 김지혜, 박예은, 박현서, 한영화 학생들이 받았다. 가을학기에는 재미한국학교 동북부협의회회의 한영·영한 번역대회에서 초급 금상을 박현서 학생, 중급 동상을 황정빈 학생, 그리고 초급 셋별상을 한영화 학생이 수상해 뉴욕 예일한국학교를 빛냈다.

뉴욕 예일한국학교에서 한글을 배운 아이들이 이렇게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뉴욕 예일한국학교는 한글만 가르치는 곳이 아닌 한인의 자부심을 심어 주는 곳, 그리고 1세 조부모님과 부모님 세대와도 잘 소통할 수 있는 끈이 되는 한국학교가 되기를 바란다.

④ 봄성경학교와 여름성경학교(Yale Disciple Land & Spring Vacation Bible School)

예일교회가 창립된 이후 12년 만에 처음으로 여름학교와 봄성경학교가 2005년부터 시작되었다. 자체 성전이 없었던 때에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일들이었다. 인력이 있고 필요성을 절감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학교 학부형들이나 지역 주민들을 위해 장소가 없는 관계로 실시할 수 없었다. 그러나 자체 성전이 생긴 후로는 마음껏 쓸 수 있는 예배당과 교실로 말미암아 봄에는 봄성경학교를, 여름에는 여름학교를 운영해서 학부모들의 고민을 덜어 주



봄성경학교에서 말씀에 귀기울이는 아이들



여름학교 야외캠프



Disciple Land를 마치고 학급별 발표회

고, 아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것이다.

봄에는 봄방학을 이용해 3일 동안 9시부터 2시까지 봄성경학교인 Spring V.BS를 해마다 하게 되었다. 첫해에는 26교회에서 112명(본 교회 자녀 47명, 타 교회 및 불신자 가정 65명)의 학생들이 등록했고, 8명의 정교사와 9명의 보조 교사들이 수고하였다. 히스빌에 있는 한인 교회로서는 처음 있는 봄성경학교 프로그램인 관계로 여러 교회 소속의 어린이들이 예상 외로 많이 참여했다.

처음 시도한 봄성경학교였지만 뜨거운 반응과 학부모들의 호응으로 커뮤니티에 속한 학부모들과 어린이들에게 많은 기쁨과 도움을 주는 흡족한 결과를 낳았다. 예일교회에서 열린 봄성경학교에 어린 자녀들을 보낸 부모님들 중 타 교인들이지만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서 감사하다고 많은 과자와 과일들을 자원하여 보내 주는 학부모들도 있었다. Spring V.BS는 벌써 올해로 아홉 번째 열리게 되는데, 해당 학년은 PreK부터 6학년까지이며, 커뮤니티에 있는 자녀들에게 복음을 알리는 전도 효과를 위해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여름에는 여름방학이 길기 때문에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여름 한철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걱정하며 여기저기 학원과 캠프를 알아보지만, 수업료가 비싸고 시간도 짧을 뿐만 아니라

일주일 동안 마음 놓고 보낼 곳이 그리 많지 않아 늘 학기가 끝날 무렵이면 갈등과 고민에 빠지게 된다. 질 좋은 교육과 신뢰가 가는 기관, 믿을 수 있는 교사, 분위기가 좋고 가족적으로 잘 돌보아 줄 수 있으며 각종 운동과 수영, 즐거운 게임, 문화 체험과 과학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된 여름학교는 예일교회의 큰 자랑거리이자 이 지역 어린 자녀를 가진 한인 부모님들에게 인기 있는 항목이 되었다.

성경학교의 만족스러운 결과에 힘입어 매년 7-8월에 7주나 6주 동안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열렸다. 예일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과 비전에 따라 여름학교 이름을 그냥 여름학교라 하지 않고 'Disciple Land'라고 명명하였다.

여름학교를 'Disciple Land'라는 것은, 앞으로 이 'Disciple Land'를 통해 많은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경험적으로 만나 체험하고, 훈련 및 양육을 받아서 미래에 좋은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어 많은 주님의 일꾼들이 이곳으로부터 쏟아져 나오기를 바라는 기대에서 기인한다.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이 'Disciple Land'를 통해 많은 주의 백성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훈련되어서 이후에 장성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곳을 거쳐간 모든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류 사회에 공헌하는 훌륭한 인물들로 성장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내리신 여름학교를 통한 비전과 사명을 다하는 것이 될 것이다.

2005년에 시작된 Yale Disciple Land 여름학교는 조유경 사모가 디렉터로, 박에스터 전도사가 어시스턴트 디렉터로 시작했고, 2010년부터 박에스터 전도사가 디렉터를 맡았다.

2005년 첫해에는 23교회 소속의 83명 어린이들이 등록을 하고 7주간 수업을 잘 마쳤다. 선생님들과 보조 선생님들의 사랑을 여름 동안 듬뿍 받은 아이들이 사랑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2012년은 8년째 여름학교였다. 그동안 학생 수도 많이 늘어서 170명이 되었고, 학년도 PreK에서부터 8학년까지 받았다. 여러 민족과 종교의 아이들도 참석하였고, 여름학교를 통해 전도가 되고 구원을 받는 학생들도 있었다.

여름학교 교과 과정은 Reading, Math, Korean Culture, Worship, Sports, Arts & Crafts, Game, Swimming, Science, Field Trip 등으로 구성되며, 마지막 날은 Love Feast와 함께

발표회를 갖는다.

여름학교와 봄성경학교를 통해 예일교회에 주신 또 하나의 축복은 많은 2세 자녀들이 교사로 양성된다는 점이다. 중고등부 시절에 Work Camp와 여름 단기선교를 통해 훈련된 대학생 이상의 학생들이 여름 동안 우리의 동생들을 사랑과 믿음으로 가르치며 훈련시키게 되는데, 봄성경학교에서 교사로 봉사한 경험이 있는 교사에 한해 Disciple Land 교사로 섬길 수 있도록 원칙을 세워 놓아 세대 간에 믿음이 전수되도록 시도하고 있다.

또 하나 빠뜨릴 수 없는 자량은 여름 동안 수고하시는 어머니들의 손길이다. 6주 동안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되어 부엌에서 200명 분 이상의 음식을 매일 만들어 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따뜻한 홈메이드 음식을 어머니들이 직접 우리 아이들을 위해 사랑으로 만들어 주니 맛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입맛이 까다로운 아이들에게 한결같이 만족을 주며 점심 시간을 기다리게 만드는 것은 우리 어머니들의 정성과 애정의 손맛이 창출해 낸 결과이다.

뜨거운 열기 속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점심 식사를 위해 수고하는 자원봉사자 어머니들은 한여름 동안 부엌에서 함께 봉사한 어머니들끼리 서로 각별한 정과 친교를 나누게 된다. 이분들의 즐겁게 섬기는 모습은 'Disciple Land'의 또 하나의 자랑이다.

(4) 전도와 선교

가. 국내 선교

뉴욕 예일장로교회는 창립 당시부터 전도와 선교 사역을 적극적으로 감당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땅 끝까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교회로 성장시켜 주셨다. 창립 12주년을 맞는 2005년 1월에는 약속의 땅인 히스빌에 자체 성전을 허락하시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더 많은 사역을 맡기시고 감당케 하셨다.

국내 전도 사역을 네 가지 영역으로 정리하여 본다.

① 국내 선교지 지원 사역

우리가 몸담고 살고 있는 미국 땅의 구석구석에도 많은 복음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 창립 10주년 당시에 선교지 41곳(국내 10, 방송 5)을 섬겼고, 창립 20주년인 지금은 선교지 59곳(국내 23, 방송 8)을 섬기고 있다. 앞으로 창립 때 꿈꾸었던 선교지 100곳을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한다. 사역별로는 청소년과 가정 사역, 장애인 사역, 양로원 및 홈리스 사역, 신학생 후원 및 선교사와 선교단체 후원 사역, 문서 사역, 방송 선교 등으로 골고루 섬기고 있음을 볼 수 있다.

② 방송 선교

창립 때부터 시작한 기독교 방송(KCBN) 사역은 믿다가 낙심한 자들이 회복되게 하고, 믿는 자들에게 믿음의 안정과 확신을 주었고, 성도들로 하여금 행복한 교회 생활로 정착할 수 있는 귀한 매체가 되었다. 미주 기독교 방송과 더불어 복음 전파의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TV 방송이었다. 불신자들이나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들이 TV 설교를 듣고 예일 교회에 나오는 경우가 많았다. 다시는 방황하지 않기 위해 설교를 많이 들어 보고 그 교회 분위기에 어느 정도 익숙해질 때 찾아오는 경향을 보게 되었다.

③ 개인 전도 사역 및 맨해튼 전도

하나님께서는 예일교회를 사랑하시므로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을 주시고 개인적으로 전도에 힘쓰는 많은 지체를 세워 주셨다. 지하철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고, 자신의 재정으로 손수 작은 선물을 준비하여 사업체를 방문하며 전도하는 사람, 스페인어와 중국어로 된 전도지를 손수 장만하여서 매주 시간을 정해 놓고 전도하는 사람, 여행사에서 일하는 중에도 어떤 영혼을 내게 붙여 주시는가 기대를 가지고 삶으로 본을 보이며



다민족을 대상으로 하는 맨해튼 전도

전도하는 사람, 네일 가게에서 외국 사람에게도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복음을 제시하는 사람들 등을 통하여 복음의 씨앗은 계속 뿌려지고 있다.

특히 노방 전도 사역부에서는 조종희 장로 중심으로 JCW(Jesus Christ Witnesses), '예수 증인들'이란 명칭으로 2012년 10월에 시작하여 맨해튼 미드타운을 중심으로 다민족을 대상으로 전도하고 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따라 온 세계 모든 민족이 모여오는 맨해튼에서의 복음 전파는 곧 세계의 전도가 된다. 이곳은 이슬람이나 불교나 어느 국가나 종족에게도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상 최대의 황금 어장이다.

매주 토요일 11시 30분에 각 교회 평신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린 후 나가서 찬양으로 1시간 전도 후 팀별로 나누어 맨해튼 곳곳에서 복음을 전한다. 특히 찬양 전도 시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즉석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안 믿는 자에게는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증인이 되도록, 모든 교회에는 이 전도의 불이 붙기를 목표로 예배 시에는 살아 있는 전도 교육이 실시된다. 누구나 와서 자유롭게 전도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가 갖추어져 있다.

④ Work Camp

국내 단기선교 프로그램으로 지난 2001년 도에 시작된 Work Camp는 해가 지날수록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더욱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Work Camp는 여름방학 동안을 이용하여 학생들이 노약자나 장애우들의 집을 수리하는 봉사 프로그램이다. Work Camp는 규정상 학생들 다섯 명에 어른이 한 명 이상 꼭 동행을 해야 한다. Work Camp는 해외 단기선교와 마찬가지로 1세, 2세가 함께하는 신앙을 실천하는 좋은 기회이며, 또한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봉사하는 영적인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귀한 프로그램이다.



여름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어려운 사람들의 집을 고쳐 주는 Work Camp 크루들

Work Camp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미국 전역에서 모여 온 다른 청소년들과 어른들로 팀을 이루어 일을 한다. 보통 어른 1명과 청소년 5명으로 이루어진 워크 크루(Work Crew)는 다양한 연령과 경험, 그리고 각기 다른 지역에서 온 아이들로 구성되어 일주일간 함께 일하게 된다. 워크 크루 멤버들은 모든 수리 작업에 다 같이 참여하지만 일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역할 분담을 한다. 워크 크루 멤버들의 점심 식사와 간식 배급을 담당하는 Breakfast Maker, 소그룹 예배 인도자인 Devotion Reader, 필요한 재료와 연장들의 공급을 책임지는 Quarter Master, 작업을 진두지휘하는 Work Director, 일의 진척 사항을 보고하는 책임을 맡은 Progress Reporter, 그리고 응급 약품과 연락망을 책임진 Organizer로 역할을 나눈다.

Work Camp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밤에는 해당 지역의 학교 교실을 빌려 잠을 자며, 낮에는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저녁에는 예배와 각 교회별 성경 공부 시간을 갖게 된다. 예배는 청소년들에게 감성적으로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잘 짜인 여러 프로그램들로 진행되어 Work Camp에 참여하는 아이들이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다. 학생들은 Work Camp를 통해 그동안 보호받던 편안한 환경을 벗어나 믿음을 삶 속에서 실천하게 된다. 이 봉사를 통해서 섬기는 기쁨과 영적인 교제를 맛보며 아이들은 또 한 단계 성숙해진다. 또한 참여한 학생들은 30시간의 커뮤니티 봉사 수료증을 발급받게 된다.

나. 해외 선교

해외 선교는 예일교회가 지난 20년간 꾸준히 성장하면서도 결코 놓치지 아니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중요한 사명의 한 축이다. 예일교회는 이민의 삶에서 지치고 상처받아 찾아온 무리들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제자 훈련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현장에 직접 투입하는 단기선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매해 단기선교 팀을 구성하여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나라들을 방문하고 있다. 또한 성지 또는 선교지 방문 계획을 매년 실시하여 선교지와의 긴밀한 관계 및 안목을 넓혀 가고 있다.

20주년을 맞으면서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자체 성전의 은혜를 베푸시기까지 선교에 열심인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애쓰고 힘을 합하여 온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학생들과 장년이 함께 사역하는
예일교회의 필리핀 단기선교팀(2012)

결과는 먼저 담임목사인 김종훈 목사의 선교에 대한 열정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교회 창립 초기부터 본 교회가 선교에 쓰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시작하였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 마음이 조금도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더욱 심화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칠레에서 사역하는
허원구 선교사와 함께

실제로 본 교회 초창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모든 선교 여행, 단기선교 등에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고 직접 참여한 것을 보면 담임목사의 선교의 열정을 엿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담임목사의 솔선수범에 호응하여 당회와 온 성도들의 참여가 뒷받침되었기에 선교에 열심인 교회가 되었다. 실례로, 어느 집사는 그토록 기다리던 영주권을 받자, 그 감사함으로 한국을 가지 않고 먼저 단기선교에 참여하였고, 어느 성도는 다니던 직장을 포기하고, 또는 가게의 문을 닫고 참여하는 등 선교에 대한 열정을 더해 갔다.

이와 같이 직접 선교지를 방문하여 참가하는 것에 못지 않게 보내는 성도들의 열심 또한 대단하였다. 기도의 연결

을 통하여 지원할 뿐 아니라, 선교 현지를 돕기 위한 헌금과 학생들의 선교를 돕기 위한 바자와 동전 저금통 모으기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어느 성도는 단기선교 참가 희망자의 가게를 돌보아 주는 등 선교를 위하여 서로 돕고 격려하는 교회의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선교를 위하여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기꺼이 바치는 교회가 된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빼놓을 수 없는 점은 본 교회가 선교를 '하나님의 선교'로 알고 접근한 것이다. 그것은 본 교회의 재정상의 문제나 조직이나 교회 행사 문제 등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를 먼저 생각하고 고민한 데서 알 수 있다. 그리하여서 본 교회가 비록 자체 예배당 건물이 없어서 세 들어 지내는 형편이지만, 선교지에 대한 지원을 멈추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열심을 내어서 중국 연변에 희망의 집을 10채 지어 주었고, 니카라과 마사야에 제일교회, 볼리비아 라파즈에 생수교회와 선교관, 인도 뉴델리에 선다싱 기념교회, 러시아 세르프프홉스카야에 예일교회 건립 등을 지원하였다. 비록 자체 성전은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선교'를 우선한 예일교회의 자세와 지원받은 현지 선교사들의 감사의 기도들이 어우러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그릇을 준비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로 현재의 자체 성전을 허락받았다고 예일의 많은 성도들은 믿고 있다.

예일교회 단기선교의 특징 중 하나는 학생 팀과 장년 팀의 어우러짐에 있다. 담임목사의 '이민 1세들의 신앙은 반드시 2세들에게 전수되어야 한다'는 확고한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 전통이기도 하다. 실제로 이민 1세와 2세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문화적인 갭이 존재하며, 이로 인하여 서로 갈등하는 구조를 보여 왔음은 이민 교회의 내부를 조금만 관심 있게 들여다본 사람들이라면 대부분 인정하는 바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1세와 2세의 문화적인 차이가 보다 큰 문화적 차이를 보이는 타 문화권의 큰 압력 속으로 들어가면 서로의 동질성이 회복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실제로 본 교회의 대학 진학 후의 교회 참석률은 80~90%에 이르는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민 교회의 대학 진학 후의 교회 참석률이 10~20%라는 주장들과 비교할 때 엄청난 차이임을 알 수 있다.

① 1차 단기선교(칠레의 빈야 델마르, 1996)

1996년 처음으로 칠레 단기 선교 팀이 구성되었는데, 허원구 선교사가 섬기는 칠레의 빈야 델마르가 대상 지역이었다. 1차로 이수일 집사와 청년부 3명이 먼저 출발했으나, 이수일 집사는 직장 관계로 일주일 후에 돌아와야 했다. 2차로 김종훈 목사와 김연수 집사가 합류하여 은혜 가운데 마쳤다. 특히 청년부에서는 예배 후 친교 시간에 비빔밥을 만들어 선교 후원금을 모으기도 했다.

빈야 델마르는 산티아고에서 차를 타고 1시간 정도 들어간 곳에 있었다. 칠레의 경제 수준은 우리나라 1960년대 후반의 수준이었지만, 남미에서는 아르헨티나 다음으로 잘사는 나라여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상당히 힘들었다.

그때 칠레는 컴퓨터와 영어를 배우는 붐이 일어 허원구 선교사는 선교 방향을 기독교 학교를 지어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임마누엘 기독교 학교를 세웠다. 그곳에서 우리의 선교 팀은 오전에는 영어를 가르쳤는데 100여 명이 와서 열심히 배웠다. 오후에는 학교에 담장이 없어서 담장 공사를 했고, 저녁에는 허 선교사가 개척한 교회를 다니면서 김종훈 목사가 말씀을 증거하고 허 선교사가 통역을 하는데, 두 분의 호흡이 얼마나 잘 맞았는지 남미 전역을 돌자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또 저녁에 있을 집회를 위해 집집마다 다니면서 노방 전도도 열심히 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 사람들이 꽉 차서 나중에는 문 밖에까지 서서 말씀을 들었다.

칠레 현지인 개척 교회인 라 칼레라 교회를 방문했을 때의 일이다. 김종훈 목사가 설교하는 중에 사람들이 뒤로 넘어가는 사건이 있었다. 김종훈 목사는 하나님 말씀에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넘어지는 줄 알고 잠시 놀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허술한 나무 의자가 부서져서 넘어진 것이었다.

이때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벼룩이 뛰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찬양하며 기도하는 모습에서 천사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한다.

② 2차 단기선교(케냐, 2000)

2000년에는 케냐의 임금희 선교사가 섬기는 농아 교회를 위하여 선교 팀이 구성되었다. 선교부장인 김현수 집사(현 김현수 장로)를 단장으로 장년 7명과 학생 12명 총 19명으로 단기선교를 준비했다. 케냐는 농아 선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교 팀은 두 달 넘게 수화를 배우는 노력을 했다.

또한 학생들의 선교비를 3분의 1은 교회에서 지원하고, 3분의 1은 후원금이나 자비로, 나머지 3분의 1은 학생들이 서로 협력하고 수고하여 모은 모금 활동으로 마련하도록 함으로 준비부터 철저히 훈련을 시켰다.



단기선교 팀이 준비해 간 유니폼을 입고 기뻐하는 케냐 농아들

단기선교를 떠나기 전의 파송 예배는 사랑과 기도의 눈물로 진한 감동을 주었다. 파송 예배를 시작할 때 선교 팀의 입장 순서가 있었는데, 우리가 한국인이므로 태극기를 앞세우고, 또한 미국에 살고 있으므로 성조기를, 그다음 선교지인 케냐 국기를 들고 입장을 했다. 교회의 선교 사명의 메시지를 듣고 청소년들을 위한 기도 후원자들이 다 나와서 그들을 붙잡고 기도했다. 이 기도 후원 팀은 매일 밤 10시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계속 기도하기로 약속했다. 선교 사역으로 힘들 때마다 후방의 기도 후원 팀을 기억하며 청소년들은 많은 힘을 얻었다고 했다.

선교지에 가져가는 필요한 물품이 무려 70파운드, 이민 가방으로 38개나 되었다. 케냐뿐만 아니라 아프리카로 가는 물건들이 분실이 많다는 것과 통관 때문에 많은 기도가 필요했다.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도 쉬지 않고 계속 기도했는데, 그 결과 케냐의 나이로비에 도착했을 때는 물건이 하나도 분실됨이 없이 잘 도착하였고, 세관도 무사히 통과했다.

케냐의 기텡겔라 지역은 임금희 선교사가 5에이커의 땅을 시로부터 무상으로 얻었지만 10여 년 간 방치되었던 관계로 거친 광야와 가시나무들로 덮여 있는 단단한 땅이었다. 무던 연장을 가지고 가시나무들을 제거하고 쓰레기를 정리한 뒤 울타리 나무 심기를 마치니, 단기선교를 위해 열심히 불렀던 고희원 작사 작곡의 “파송의 노래”에 나오는 가사처럼 거친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우리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격이 되었다. 또한 농아들과 체육대회를 개최해서 배구, 축구, 달리기 등의 게임을 통해서 선교 팀과 농아들이 매우 가까워졌고, 농아들을 위한 팬터마임과 노방 전도, 매일 저녁 부흥회 인도로 천국 잔치가 베풀어졌다.

또 다른 지역 몸바사는 버스로 7시간 떨어진 해안 도시인데, 회교도가 많은 곳이었지만 두 팀으로 나누어서 버스 정류장을 중심으로 우체국 앞에서 또한 출퇴근하는 부두 앞에서 팬터마임과 연극, 노방 전도를 했다. 처음에는 학생들이 전도를 할 때 두려움이 있었으나, 담



기텡겔라에서 가시덤불 제거 작업을 하는 선교 팀

대하게 예수를 전한 뒤 기쁨으로 숙소로 돌아갈 수 있었다.

케냐는 또한 전기도 부족하고 비가 오지 않아 물이 너무 귀해서 화장실 문제와 물 한 바가지로 샤워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학생과 어른이 함께 가면서 안전의 문제와 건강까지 많은 염려가 되어 온 교회 성도들이 끊어지지 않는 기도 사슬을 만들어 기도 후원을 했다. 매일 오후 10시에 합심하여 단기선교를 위해 기도함으로 온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도 전체가 하나가 되는 듯했다. 학생들은 온종일 일함으로 피곤하고 힘들 때에도 나를 위해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에 많은 힘을 얻었다고 후원 기도회에 감사했다.

단기선교 기간 중 아침에는 QT, 저녁에는 저널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행하심을 체험했다. 이 단기선교 기간 중 아이들은 어른들로부터 믿음의 자세와 사랑으로 배려하며 돌보는 것을 배우고 이에 대한 감사를 했으며, 어른들은 아이들의 깨끗한 믿음과 생각을 서로 나눔으로 청소년들을 많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어 감사했다. 케냐 단기선교는 1세대들이 2세대들에게 신앙 전수를 시도한 계기가 되는 뜻깊은 시간들이었음을 후에 설문 조사를 통해 알게 되었다.

③ 3차 단기선교(중국 연변 희망복지촌, 2001)

예일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연변 희망복지촌은 미국 케네디 국제 공항을 출발하여 인천공항과 중국 북경을 거쳐 무려 28시간이나 걸려 도착했다. 연변은 특성상 외국인은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며, 공산국가라 말도 조심해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같이 갈 수가 없었다. 참가자들은 목사는 회장, 장로는 사장이나 원장으로 신분과 호칭을 달리해야 했다.

연변은 우리 조상의 개척자들과 일제 시대에 이곳에 이주해 독립운동을 하던 선구자들의 후예들이 삶의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다. 그런데 한국에 가면 잘살 수 있다는 소문에 한국을 가려다가 이민 초청장 브로커들에



연변 희망복지촌 앞에서 이윤식 회장과 함께

게 사기를 당해 집과 재산을 모두 잃어버리고 고국의 동포에게 배신감을 느끼며 갈 곳 없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런 사람들이 좌절과 절망을 딛고 일어나도록 돕는 일을 희망의 집에서 하고 있었다.

연변 희망복지촌에는 40여 채의 희망의 집이 완성되어 100여 명이 살고 있었는데, 그중 10채를 예일교회에서 기증했다. 또한 희망촌에 승합버스가 필요하여서 차량 구입을 위해 씨앗 헌금을 했는데, 그것이 자라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도 들려왔다.

생명과 인권이 완전히 무시된 공산권의 북한 동포들에 대한 소식들이 우리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지만 남북의 통일과 이산가족의 아픔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귀한 선교의 시간이었다. 이 단기선교 기간 동안에 QT를 이사야 40장부터 읽어 가면서 묵상했는데, 신기하게도 그날그날 주시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했다.

단기선교 팀은 연변 삼자교회를 방문하여 그곳의 부흥을 보았고, 훈춘의 농아 교회의 뜨거운 수화 예배를 드리면서 농아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느끼는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다. 또한 만리장성을 오르면서, 흉노족의 침범을 막으려고 실로 어마어마한 성을 쌓았지만 결국은 적들을 막지 못한 것을 보고 인간의 힘이 유한하고 미미함을 느꼈다.

감사하게도 선교 팀은 이윤식 회장의 안내로 백두산 천지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날따라 맑고 좋은 날씨를 주셔서 천지의 맑은 물을 잘 볼 수 있었다. 백두산을 중국에서는 장백산이라 부르는데 6·25 한국전쟁 이후 북한에서 백두산의 반쪽을 선물로 주었다고 한다. 장백산 입구에서 천지까지의 길은 차를 타고 올라가야 하는데, 매우 멀고 산을 빙글빙글 돌며 올라가는 길이었다. 그러나 꼬불꼬불하고 위험한 길에 난간 하나 되어 있지 않아 사고가 나면 천길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질 것 같아 모두들 가슴을 졸이며 차를 꼭 붙잡고 숨을 죽이며 올라갔다. 참으로 생명의 존엄성이 배제된 느낌을 받으며 인권이 얼마나 무시되고 있는지를 체험한 시간들이었다.



천지연 앞에서 통일을 기원하며

드디어 정상에 올라 천지를 내려다보며 백두산 정기를 마시고 선교팀 일행은 큰 바위 옆에서 조용히 예배를 드렸다.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주의 사랑을 저들도 체험하고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통일 조국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리며 드리는 예배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진지했다.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다. 성가대 대장이었던 윤희주 장로는 백두산 입구에 있는 조선족 식당 앞에서 물려드는 장사꾼과 잘 흥정하여 좋은 가격으로, 보기에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운 수삼 여러 봉지를 구입하고는 흐뭇해했다. 백두산 수삼 맛 좀 보자는 선교팀 일행의 요구를 물리치고 오로지 성가대원들에게 선물할 것이라며 손도 대지 못하게 하며 애지중지하였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며칠 뒤 그 수삼은 뉴욕에 도착하기도 전에 더운 날씨로 말미암아 다 상하여 곰팡이가 나고 말았다. 결국 성가대원들은 중국산 옥팔찌를 선물로 받게 되었다.

④ 4차 단기선교(니카라과, 2002)

단기선교를 떠나기 전부터 온 성도가 이를 위해 끊어지지 않는 삼겹줄과 같은 333기도로 후원 기도를 하였고, 또한 학생들도 수업이 없는 토요일에는 새벽 예배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로 준비하며 단기선교를 위한 기금 마련에도 애를 쓰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다.



니카라과 마사야 제일교회 성전 건축 벽돌 쌓기 사역

4차 단기선교에 가서 해야 할 일은 니카라과의 수도 마나구아로부터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남부 거점 도시인 마사야에 성전을 건축함으로, 이곳이 이 지역의 선교 센터가 되게 하는 것이었다. 선교 팀이 도착했을 때는 기둥과 바닥 콘크리트만 되어 있는 상태였다.

건축업을 하는 정건수 집사의 주도 아래 처음 벽돌을 쌓기 시작했다. 이곳은 날씨 때문에 벽돌을 물에 담가 두었다가 물을 흠뻑 먹은 무거운 벽돌을 운반하여 벽을 세워야 했다. 이곳 날씨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느낄 수 있었는데, 아침에 비가 무척이나 강하게 내리

다가 낮에 벽돌을 쌓을 때면 비가 그치면서 해를 구름으로 가려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하심을 느꼈다.

마사야 제일장로교회에서는 오전에는 건축 사역과 오후에는 두 팀으로 나누어 사영리 전도를 했다. 한순규 전도사는 그곳 아이들을 위해 성경 학교를 열어 열심히 하나님을 가르쳤고, 이선애 권사와 이종원 집사는 의료 선교를 하였는데, 약만 있으면 금방 나올 병도 약이 없어 방치되어 큰 병이 되는 그런 환경이었으니 두 분이 6시간 동안 진료한 환자들이 무려 340명이나 되었다.

그 외에도 Flores 지역에서는 여호수아 장로교회와 상 가브리엘 소망교회에서 찬양과 전도 집회를 가졌고, 에덴 장로교회에서와 난다이메 난민 정착촌, 에벤에셀 교회에서 찬양과 전도 집회가 계속되었다. 이러한 집회와 사역을 하는 중에 유명근 학생이 몸살이 났다. 아침에 QM을 할 때는 굉장히 심했는데, 오후에 찬양 집회 때 땀을 흘리며 열심히 찬양하다 보니 고통이 사라지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일도 있었다.

일주일 동안 건축 사역은 열심히 일한 결과로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이 쌓을 수 있었다. 이러한 건축 사역과 전도 사역과 찬양과 부흥회에 동참한 학생들은 참된 보람을 느끼고 다음 번 단기선교에도 제일 먼저 등록하기를 원한다고 말하였다. 이들은 미국 생활에서 느끼지 못했던, 크리스천으로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선교를 통해 깨달았다면서 단기선교에 다녀온 것을 매우 기뻐하였다.

⑤ 5차 단기선교(볼리비아 라파스, 2003)

볼리비아 라파스 단기선교는 한국의 MF 사태 이후 지원이 많이 끊어져 어려움을 겪고 있던 윤도근 선교사가 뉴욕노회에 참석하여 지원을 호소하는 것을 들은 김종훈 목사의 결심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해발 4,000m가 넘는 고지에서 오는 산소 결핍증을 극복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



해발 4,000m 이상의 고지에서 사역하는 윤도근 선교사와 함께

모든 선교 대원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두통과 호흡 곤란 등을 경험하면서 생수교회, 예루살렘 교회, 임마누엘 교회에서 각 3일씩 사역을 진행하였다. 사역은 구원 사역(Salvation Station), 의료 사역(Medical Station), 선물 사역(Gift Station)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구원 사역은 정은숙 전도사의 지휘 아래 학생들이 준비해 간 찬양, 팬터마임 등을 통하여 복음을 제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초청하였다. 학생들이 원주민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려가며 소리쳐 기도할 때 언어의 장벽은 소리 없이 무너져 버리고, 뜨거운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의료 사역은 진료와 MOM 선교회를 통하여 준비한 약품 공급과 안경 사역으로 구성되었다. 이번 선교부터 처음 실시된 안경 사역은 라이온스 클럽으로부터 기증받은 돋보기 안경과 선글라스를 나누어 주는 사역이었는데, 자신에게 맞는 안경을 끼고 사물이 환하게 보이자 그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는 것을 보는 것은 실로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이었다.

선물 사역은 본 교회 교우들이 정성껏 준비하여 준 선물들을 전달하면서 교회에 열심히 나올 것을 당부하였다. 가난하고 어려운 삶 중에 상처를 치료받고, 한아름 주어진 선물과 약봉투를 들고, 모자에 선글라스까지 쓰고 함박웃음 짓는 인디오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모든 대원들이 소망하며 기도하였다.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은 해발 4,300m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예루살렘 교회이다. 화장실이 따로 없어서 드넓은 대지 아무 데서나 볼일을 보라고 해서 여성 대원들이 무척이나 당황하였다. 귀한 손님이 왔다고 소풍에 구운 야마 고기에 상한 감자를 대접하고, 원주민들은 야마 뼈다귀와 국물에 새까맣게 썩은 감자(쭈노)를 먹고 있었다. 우리만 저희들과 다른 특별한 음식을 먹을 수 없다고 원주민들과 같이 그 쭈노를 몇몇 학생들이 먹었다. 아니나다를까, 숙소로 돌아온 그 학생들은 복통과 설사로 그날 밤을 지새워야 했다.

다음 날 몇몇 장로들의 주선으로 야마 고기를 넉넉히 준비하여 마을 잔치를 벌였다. 콜라와 사이타로 줄지어 앉은 원주민들을 대접하였는데, 문자 그대로 순한 양같이 따라주는 음료를 받아 마시는 모습이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 있다.

이번 선교는 29명의 대원 중에 산소 호흡기를 사용하지 않은 사람이 두세 명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그 환경에 굴하지 않고 복음의 전파를 위하여 장벽을 넘어

서고야 말겠다는 믿음이 승리하는 것을 몸으로 확인한 귀한 선교였다.

⑥ 6차 단기선교(인도, 2004)



비제이 싱 목사와 이명희 선교사를 지원하는 인도 단기선교 팀

인도 선교는 본 교회가 지원하는 싱 목사와 이명희 선교사의 사역지를 방문하기 위하여 계획되었다. 인도는 11억의 인구가 연 소득 450불의 가난에 허덕이고 있으나, 아직도 신분 계급 제도인 카스트 제도가 존재하는 힌두교의 나라이다.

뉴델리 공항을 나서면서 가장 처음 접한 광경은 엄청난 인파와 차량의 홍수였다. 신

호등이 바뀌자 홍수처럼 밀려드는 차량의 물결은 충격적이었다. 그 물결 속에는 최신의 벤츠부터 검은 매연을 내뿜는, 폐차를 시켜도 몇 번쯤은 시켰을 고물차, 오토바이, 자전거 등이 뒤엉켜 지나가고 있었고, 소들도 어슬렁거리며 거리의 한자리를 당당히 차지하고 있었다. 인도의 현재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었다.

뉴델리 거리 한편에는 거리에서 나서 거리에서 생활하고 거리에서 자녀를 낳고 거리에서 죽어가는 천민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 천민들은 근접도 할 수 없는 화려하고 웅장한 대리석의 힌두 성전들이 도시의 다른 한편에 드넓게 자리하고 있었다. 이 이상과 잡신이 들끓는 곳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신실한 종 싱 목사와 이명희 선교사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확장시켜 나가고 계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뉴델리에 북인도 신학교를 세우고 그 제자들을 통하여 인도의 복음화를 위하여 교회를 세워 가기를 10여 년, 이제까지 이 신학교를 통하여 세운 교회가 320여 개라니 하나님의 사람 쓰심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 신학교에는 인도 사람만이 아니라 인접하여 있는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모여 와서 신학을 공부하고 자신의 나라에 들어가 교회를 세운다는 것을 들으니, 이 신학교의 중요성을 새삼 알게 되었다.

그 신학교 안에 선다싱 기념 교회를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예일교회에서도 여기에

동참하고자 성도들이 준비하여 준 1만 달러를 전달하였다. 뉴델리에서 기차를 타고 낡잡에 있는 지역 교회들을 돌아보고 같이 예배드리고, 가지고 간 선물들을 나누어 주었다. 정말 신기하게도 우상이 득실거리는 이 인도 땅에 하나님은 의의 그루터기를 남겨 두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인도의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귀한 여행이었다.

⑦ 7차 단기선교(볼리비아, 2004)

2003년에 이어 또다시 볼리비아로 단기선교를 가게 된 것에는 윤도근 선교사의 장남 정열 군의 교통사고 사망으로 인한 선교사 가족의 위로와 선교지의 격려의 의미가 있었다. 아무도 찾지 않는 고산 선교지에서 당한 어려움을 작년에 가서 함께 사역하던 우리 교회가 아니면 누가 가서 위로할까 하는 마음에서였다.



고(故) 윤정열 군을 추모하면서

작년에 이어 세 개의 스테이션으로 사역을 진행했는데, 지난 경험을 바탕으로 훨씬 조직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 다섯 교회를 다니면서 사역하여 3,277명을 섬기고 돌아왔다. 처음 공항에 들어갈 때 선교 물품이 압류당하는 어려움도 있었으나, 그 일로 더욱 기도하고 선교 팀이 하나가 되어 넉넉히 이기는 체험도 잊을 수 없는 간증이다.

⑧ 8차 단기선교(러시아 세르프홉스카야 예일교회 설립, 2005)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가 파송한 이흥래 선교사가 고교 시절 하나님께 1만 명 전도서원한 것을 이루려 1992년 러시아의 수도인 모스크바에 모스크바 장로회신학대학을 설립했다. 그는 '러시아인에 의한 러시아 선교'라는 목표를 세우고 모스크바 장로회신학대를 통해 신학 공부를 한 현지인들을 키워 교회를 개척하도록 했다. 그는 100교회가 100명씩만 된다면 1만 명 전도가 된다는 착안으로 꾸준히 후원 교회를 찾아 훈련된 현지인 목회자와 연

결시켜 교회를 개척하도록 했다.

지금은 106개의 교회가 개척되었는데, 예일교회는 97번째 교회로 2005년 4월 3일 세르프홉스카야(모스크바에서 90km)에 담임 목회자 로만체프 예브게니 전도사와 40명의 성도와 함께 러시아 예일장로교회를 창립했으며, 지금도 계속 후원해 오고 있다.

⑨ 9차 단기선교(니카라과, 2005)

이동홍 선교사가 사역하고 있는 니카라과는 2002년에 이어 두 번째 방문하는 곳이다. 이번 사역은 이동홍 선교사가 개척한 6개의 교회와 니카라과 북부 지역에 위치한 리용의 고엽제 피해자들을 돌보는 보건소를 방문하여 실시되었다. 기존의 구원 사역, 의료 사역, 선물 사역 외에 이번 사역에는 치과와 이발 사역이 추가되었다.



완공 직전의 마사야 장로교회 전경

학생회를 중심으로 진행된 구원 사역은 찬양과 무언극, 복음 제시 외에 거리 전도를 나가서 가가호호 방문하여서 공작 풍선을 나눠 주면서 전도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 사역을 통하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결신자 71명 얻는 결실을 맺었다. 의료 사역은 현지인 의사 두 명을 고용하여 진료를 하고, 약품을 주고, 돋보기와 선글라스를 나누어 주는 안경 사역을 실시하였다. 이번에 처음 실시한 치과 사역은 서현숙 사모가 참석하여 발치를 위주로 아픈 이들을 치료하여 약 200여 명을 돌보아 주었다. 역시 처음 실시한 이발 사역도 많은 호응을 얻었다.

이번 선교의 또 하나 다른 점은 저녁 부흥 집회를 통한 구원에의 초청 시간이었다. 이 집회 시간에 이민우 집사와 노한나 집사가 번갈아 가면서 간증하였고, 김종훈 목사가 말씀을 증거한 후에 예수님의 영접 초청을 하였다. 새로운 결신자들을 붙들고 온 대원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의 그 뜨거움과 간절함은 언어와 인종의 벽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심을 맛보는 순간이었다. 감사한 것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모두 113명

의 결신자를 얻은 것이다.

리용의 고엽제 피해자들을 위한 사역 시에는 그 지역의 라디오 방송국이 생방송으로 중계하며 김종훈 목사와 인터뷰하여서 니카라과에서 한국인의 공지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귀한 기회가 되었다.

⑩ 10차 단기선교(필리핀, 2006)

2006년 단기선교는 필리핀 마닐라 장로회 신학교를 졸업한 목회자들이 근교에 개척한 교회의 담임을 맡아 사역하는 교회들을 중심으로 선교 활동을 펼쳤다. 마닐라 장로회 신학교는 예일교회에서 교육목사로 섬기던 변창욱 목사가 2003년 7월에 선교사로 파송되어 사역하게 된 곳이다.



본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된 변창욱 목사 내외 (현 장신대 교수)

한국 부산의 한 교회에서 지원한 감전선 교센터에 베이스캠프를 설치한 단기선교 팀은 도심 주위의 다섯 교회와 홈리스 사역을 하는 'Joyful Church'를 방문하여 준비한 사역을 담당했다. 개척한 다섯 교회 모두 도심 주위 빈민촌에 있었는데, 달동네나 쓰레기 처리장 주변 등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극빈자들을 위한 사역을 담당하고 있었다.

필리핀의 공식 사용 언어는 영어지만, 고등교육을 받지 못한 빈민들은 타갈로그(Tagalog)라는 영어의 발음을 빌린 가차 문자를 사용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번 선교 팀은 타갈로그어로 찬송을 익히는 시간을 따로 준비하고 많은 연습을 하여, 선교지 주민들과 함께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여느 단기선교 때와 마찬가지로 기상과 함께 시작하는 QIT 시간을 통해 사역을 위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루를 마치면 계획했던 대로 인도하신 성령님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나누는 저널 시간이 매일매일 새로운 역사를 감당하는 대원들의 원동력이 되었다.

메디컬 스테이션에서는 진료 도중 급성 영양실조 환자가 발생하여 구급으로 치치하는 경

우가 있었고, 평생 한 치 앞도 볼 수 없어 장님과도 같았던 노인이 시력에 맞는 안경을 쓴 후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도 일어났다. 'Joyful Church'의 홈리스 사역에 그곳 교회의 성도들이 수고하는 것을 도우며, 예배 후 홈리스들에게 나누어 줄 햄버거와 주스를 만드는 일도 함께 하였다.

사역 옛새째 되는 날, 선교팀장의 모친 부음을 접하였으나 동역하는 모든 선교대원들의 기도와 사랑에 힘입어 위로를 얻고 돌아와 추모 예배를 드렸다.

1960년까지만 하더라도 선교 팀의 조국인 대한민국보다 훨씬 부유한 국가여서 전쟁 이후 가난에 시달렸던 우리에게 원조를 해주었던 그들에게 이제는 복음을 통해서 그 빛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민족을 위해 부어 주시는 축복과 사랑을 전하기 위해 그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가 되었다.

⑪ 11차 단기선교(볼리비아, 2007)

이번 선교에는 지난 2004년의 경험을 교훈 삼아 윤도근 선교사의 지시대로 모든 준비를 하였건만, 또다시 선교 가방 56개를 공항 세관에 묶이는 일이 발생했다. 한 번 일이 틀어지자 모든 계획들이 어긋나기 시작했다. 윤 선교사와 김연수 전도사가 정부 관계자를 찾아 뛰어다니며 서류를 작성해 다음 날 마감 시간을 연장해 가면서까지 겨우 물건들을 찾았다. 선교 팀은 저녁 평가회 시간을 통하여 이 일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찾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남을 판단하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볼리비아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기를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였다. 이와 같은 기도회 후 상황은 반전되어서 모든 선교의 사역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강력하게 느낄 정도로 바뀌었다.

예일교회의 선교 사역의 핵심인 세 스테이션을 통해 이번에도 사역을 감당했다. 이번 사역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인 팀이



전문적인 의료사역과 안경사역을 준비한 단기선교 팀

바로 안경 사역 팀이었다. 선교를 떠나오기 전에 열심히 교육에 참가하여, 원시 근시는 물론 난시까지도 측정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춰 전문 사역의 가능성을 엿보이게 하는 팀이 형성되었다.

또 하나 이번 선교의 특이한 점은, 현지 청년들과의 긴밀한 교류를 꾀할 수 있다. 현지의 청년들과 협력하여 사역을 하면서 저들이 많이 성숙해졌음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 라파스의 교계 지도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크게 쓰임 받게 되기를 간구하였다. 지난 번에는 숨쉬기가 힘들어 천천히 걸어야 했으나, 이번에는 청년들과 배구 시합도 할 수 있었다. 산소 호흡기를 찾는 대원도 현격하게 줄었다. 그리고 사역 중 생수교회 바로 옆 건물이 좋은 가격에 나와서 선교 팀들이 2만 달러 가량 현금해서 선교관을 마련하는 기쁨도 맛보게 되었다.

⑫ 12차 단기선교(도미니카공화국, 2008)

이번 도미니카공화국 단기선교에 장년과 학생 34명이 참여하였다. 사역을 한 곳은 산페드로 시 주변의 밧페이 노동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다. 신발이 없는 아이들이 수도룩하고 모두 가난과 질병과 미신에 잡혀 살고 있었다. 선교 첫날과 둘째 날은 라우라 밧페이에서 사역을 했고, 금요일은 까체나 밧페이에서, 그리고 토요일에는 산페드로 시의 엘나자레노 교회에서 사역을 했다. 가난한 자들에게 옷, 슬리퍼, 사탕, 학용품을 나누어 주고, 복음 전도, 의사 진료, 안과 진료, 치과 진료를 해주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약품들을 나누어 주었다.

하루 사역을 마치면 저녁에는 부흥회를 했다. 간증, 찬양, 팬터마임, 설교, 구원 초청 등으로 진행되었는데,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

⑬ 13차, 14차 단기선교(뉴멕시코 나바호 인디언, 2009~2010)

이번 이덕재 목사가 사역하는 뉴멕시코 인디언 선교는 기존의 선교와는 다른 선교였다. 오전에는 Native American 어린이들에게 VBS를, 저녁에는 어른들을 위한 Revival Service를 열었다. 하나님께서 처음 하는 이번 선교에 많은 은혜를 부어 주셨다. 과거에는 많이 몰

려운 것이었다면, 이번에는 가가호호 방문하여 픽업해서 그들을 데리고 왔다. 참으로 한 생명의 귀중함을 발견하게 된 선교였다. 처음에는 무관심하게 대했던 사람들도 마지막 날에는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되고 큰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되었고, 모두 마지막 기도 시간에는 눈물이 쏟아지는 큰 은혜를 경험했다. 단기선교 팀이 은혜를 베풀러 갔다가 은혜 받는 너무나 귀한 선교 경험이었다.



뉴멕시코 나바호 인디언들을 섬기는 단기선교 팀

2010년에는 뉴멕시코 단기선교를 위해 장년과 학생 21명이 참여했다. 미국이 기독교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이 있다면 바로 인디언 보호 구역이다.

뉴멕시코 알바쿠키 공항에서 내려 약 2시간을 가면 나바호 인디언 보호 구역이 나온다. 이들은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미신적인 이야기를 통해 다신교인 토속 신앙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 중에 크리스천은 1%도 되지 않는다. 학교 출석을 제대로 하지 않아 퇴학률이 높고, 결과적으로 범죄와 방탕한 생활로 이어져 가정과 사회의 문젯거리가 되고 있다. 고등학교 졸업률은 1%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80% 이상의 실업률과 국가에서 주는 정부 지원금을 받아 빈둥거리며 알코올 중독, 그리고 문란한 성생활로 고통하고 있다. 나라에서 보조받는 생활비도 금요일에 받으면 카지노에서 다 소모해 버리기 일쑤이다. 이러한 생활이기에 그들에게는 복음이 절실이 필요하다. 이번 선교를 통해 단기선교 팀은 특별히 어린이들을 위한 여름성경학교와 어른을 위한 부흥회를 인도하였다.

⑭ 15차 단기선교(도미니카공화국, 2010)

한요한 선교사가 사역하는 도미니카 단기선교를 위해 장년과 학생 34명이 참여했다. 밧페이는 도미니카공화국에 산재해 있는 400개가 넘는 사탕수수밭 농장과 노동자 거주지를 총칭하는 말이다. 1900년 초 도미니카공화국 지도자들이 인근 국가인 아이티공화국 지도자들에게 돈을 지불하고 불법 이민 노동자들을 공급받아 개인 소유 사탕수수밭에 투입하면서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팔려오다 보니 족보가 없고, 그러니 학교는 물론 아무런 법적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극빈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긴장한 남성 하루 품삯이 5달러 정도로 가족의 하루 식사비를 겨우 해결하는 수준이다. 그리고 깨끗하지 못한 식수, 무지와 가난, 성적 부패, 각종 질병과 미신 숭배로 범벅이 되어 있는 곳이다.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번 단기선교는 종전과 같이 복음 사역, 의료 및 안경 사역, 선물 사역을 바스카 밧페이, 배우갈 밧페이, 마가레타 밧페이에서 펼쳤다. 종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사역을 마친 후 서너 그룹으로 나누어서 선물과 전도지를 들고 각 밧페이 안에 있는 집들을 방문하고 선물을 나누어 주고 복음을 전하며 기도해 준 것이다. 그들은 무척 고마워했고, 집에 선물을 가지고 찾아가서 축복 기도해 주는 우리 팀을 매우 반갑게 맞아 주었다. 열악한 환경 가운데 선교 팀은 기쁨으로 복음을 전했고, 귀한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

⑮ 16차 단기선교(볼리비아, 2011)

볼리비아 라파스는 볼리비아에서 가장 높은 지대이다. 평균 해발 4,150m 되는 곳이다. 공기 중 산소가 70%밖에 없기 때문에 쉽게 고산증에 시달리는 곳이다. 이런 곳에서의 사역이기에 도착 후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둘째 날부터 모두 잘 적응하며 사역을 잘 감당했다.

이곳에서의 사역은 VBS 사역, 안경과 의료 사역, 선물 사역으로 진행되었는데, 이곳을 섬기고 있는 윤도근 선교사가 그동안 양육한 교회 전도사들과 교사들이 통역, 시설물 준비, 진행 사항 보조 등 많은 부분을 잘 도와주어 큰 힘이 되었다.

볼리비아 라파스는 고산이라는 환경 때문에 많은 선교사들이 왔다가 고도가 낮은 곳으로 이동을 하기에 현재 윤도근 선교사만 이곳에서 홀로 22년째 섬기고 있다. 많은 기도가 필요한 선교지임을 깨달았다.

⑯ 17차 단기선교(필리핀, 2012)

필리핀 민다나오는 예일교회에서 파송한 박인호 선교사가 사역하는 곳이다. 이곳에 장년과 학생 모두 34명의 단기선교 팀이 참여했다. 이곳에서는 주로 학원 선교와 교도소 사역이 이루어졌다. 먼저, 마띠 고등학교에서는 1,300명, 익핏 고등학교에서는 1,000명, 디고스 고

등학교에서는 1,000명, 해변 마을에서는 600명을 섬겼고, 마띠 교도소에서 300명, 총 4,600명을 섬길 수 있었다. 사역을 하는 가운데 점점 질서가 잡혀 갔고, 참여한 학생들도 훌륭하게 사역을 잘 감당했다.

사역으로는 Salvation Station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고, 안경 사역 팀은 손이 모자라서 설 틈 없이 섬겼다. 의료 사역과 치과 사역은 현지 의사들이 와서 자기들의 의료 기기와 수고로 섬겼다. 약품도 보건소에서 간호원들과 함께 협조해 주어 큰 힘이 되었다. 민다나오에서의 사역이 이곳에서는 처음 있는 단기선교라 지역 주지사와 학교, 군부대 전체가 선교 팀을 환영하고 협조해 주었다. 이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박인호 선교사 부부의 수고가 매우 자랑스러웠다.



필리핀 민다나오 해변마을 사역

3) 담임목사의 대외 활동

(1) 총회 임원으로서의 섬김

김종훈 담임목사는 해외한인장로회 제 33회 총회 회의록서기, 34회 총회 규칙부 서기, 35회 총회 회의록서기, 36회 총회 특별재심위원회 위원장, 37회 총회 정치부 서기로 총회를 섬기고 있다. 해외한인장로회는 세 개의 치리기관이 있는데 그것은 당회, 노회, 총회이다. 제

29회 뉴욕노회 노회장으로 섬겼던 김종훈 목사는 성실히 목회를 하면서 노회가 필요로 할 때는 상회를 존중히 여기며 겸손히 섬기는 것이 목회자의 자세라고 설명한다. 그는 또한 뉴욕노회 선교부장으로 섬기면서 니카라과 마사야 선교대회를 6회째 이끌며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있다. 그는 총회를 섬기는 자세도 목회를 하는 자세로 임하고 있다. 권리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의무를 중요시한다. 그래서 노회나 총회, 그리고 신학교를 위한 상회비 의무를 언제나 솔선수범하여 수행하고 있다. 자기희생과 섬김을 통해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총회가 되기를 위해 기도하며 섬기고 있다.

(2) 대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 회장으로 피선

김종훈 담임목사는 2012년 10월 22일 제39대 대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 회장으로 피선되었다. 대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는 산하에 약 300개의 교회가 있는 해외 한인교회협의회 중 가장 규모가 크고 모범적인 교회 협의회로 알려져 있다.

2011년 부회장 후보로 출마했을 때의 이야기이다. 당회의 장로님들이 지금까지 교회만 열심히 섬겨 오셨지만 이제는 교계를 위해서도 일하실 때가 되었다면서 만장일치로 추대하였다. 협동장로님들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동조하였다. “선거를 치르려면 자금이 드는데 교회의 헌금으로 하면



39대 대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 회장직을 수락하는 김종훈 담임목사

성도들이 시험에 들 수 있으니 우리가 모으자” 라고 하면서 장로님들이 십시일반으로 선거에 필요한 자금을 모아 주었다. 김종훈 목사는 이 일이 눈물 나게 고마웠다고 한다. 그리고 장로님들이 아는 목사님들에게 전화해서 “우리 목사님께 한 표 부탁드립니다”며 전심을 다해 뛰어 주었다. 어떤 장로님은 평생에 선거운동이라고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담임목사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다. 회장으로 섬기면서 “그간 시끄러웠던 뉴욕 교협이 원만한 성격의 회장이 들어서면서부터 평화로워졌다”는 말을 들을 때 예일교회와 담임목사를 통해 뉴욕교계를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할 뿐이었다.

6. 뉴욕 예일장로교회의 미래를 바라보며



1) 담임목사 비전과 교회의 미래

야망과 비전의 차이는 내가 꾸는 꿈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냐의 차이일 것이다. 예일교회는 창립 시부터 야망으로 시작된 교회가 아니라 비전으로부터 시작된 교회이다. 그 비전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영광을 받으시는 “예수님 제일”의 비전이다. 개인의 개성을 중요시 하고, 절대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인 오늘날 교회의 대부분의 문제는 사람이 제일인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뉴욕 예일장로교회의 비전은 나의 꿈과 비전과 계획을 사랑하는 주님께 드리는 교회이다.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로서의 비전은 예수님이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예수 비전을 이루는 것이다(마 4:23; 9:35).

(1) 양육(Teaching)

하나님께서 보내 주신 양무리인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 목표이다(골 1:28). 훈련된 성도들이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당당히 이기며 기쁘게 섬기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복 받으려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받은 복으로 개인과 사회를 섬기며 사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만드는 것이다.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의 의미를 창조적으로 전달하는 영성이 있는 교회학교 교육을 꿈꾼다.

(2) 복음 전파(Proclaiming)

우리가 전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는 복음밖에 없다. 아무리 21세기에 종교다원주의가 거세게 바람을 일으켜도 예일교회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절대적 진리이다(행 4:12). 이 복음의 생명과 역동성을 위해 앞으로 전 교인이 1년에 한 주간 정도는 단기선교를 다녀오는 비전을 갖는다. 일주일에 한 번은 우리 주변에서 복음을 전하는 비전을 갖는다. 물은 흘러야 썩지 않는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전할 때 땅 끝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약속(마 28:20)을 날마다 신선하게 체험하게 되는 꿈을 꾸다.

(3) 치유 사역(Healing)

“When we work, we work. When we pray, God works.” 우리가 일할 때, 우리가 일한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민생활로 지치고 상처 난 영혼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며 찬양할 때 모인 무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고치시는 꿈을 꾸다. 나의 것을 가지고 외롭고 어려운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 사랑으로 섬길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케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공동체의 꿈을 꾸다. 금식하며 주린 영혼을 먹이며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기도할 때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여호와의 영광이 성도들 뒤에서 호위하시며, 성도들이

물댄 동산 같고, 물이 마르지 않는 샘같이 되는 꿈을 꾀다(사 58:6-12).

결론적으로 ‘아메리칸 드림’ (American Dream)과 ‘킹덤 드림’ (Kingdom Dream)의 차이로 예일교회의 미래를 설명한다. ‘아메리칸 드림’은 1931년 제임스 애덤스(James Adams)에 의해 처음 쓰여진 말로 기회의 나라인 미국에서 누구든지 큰 꿈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면 무엇인가 이룰 수 있다는 말이다. 여기에는 자신의 목표, 자신의 능력, 자신의 꿈이 들어있다. 그러므로 결국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게 된다.

‘킹덤 드림’은 자신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꿈이며,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말한다. 뉴욕 예일장로교회의 꿈은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교회가 되는가에 달려 있다.

디아스포라(Diaspora)는 ‘Dia’ (흩어진)와 ‘Spora’ (씨앗)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로 흩어 뿌린 씨앗이라는 뜻이다. 현재 미국이 맞이한 지속된 불경기는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말을 벌써 오래 전에 망각하게 했다. 이것은 인간의 힘의 한계를 절실히 표현해 주는 말이 되었다. 하나님은 한국 민족을 세계 176개국에 700만이나 흩어 뿌리셨다. 한국 민족은 어디를 가든지 먼저 교회를 세우고 교회 중심으로 생활을 하며, 성실히 일하고, 자녀들을 위해 열심히 교육하고 있다. 우리의 자녀들은 점점 전문분야로 나아가고 있다. 세계의 중심 도시인 뉴욕에 살고 있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삶의 환경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복음 전파의 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비전을 갖는다.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사는 삶을 살고 싶지 않다. 끝없는 경쟁 속에서 성공에 미쳐 사는 삶도 살고 싶지 않다. 작은 씨앗이라도 내가 선 자리에서 복음의 흩어진 씨앗, 즉 ‘디아스포라’로 살고 싶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와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차기까지 이런 꿈을 안은 성도로 가득 찬 교회가 뉴욕 예일장로교회가 되는 꿈을 꾀다(사 11:9; 합 2:14).



III. 부록



1. 제직 명단

<1993>

- 담임목사 : 김중훈
- 교육전도사 : 조유경
- 시무장로 : 박순영 송광수
- 은퇴장로 : 김성울
- 안수집사 : 우윤석 김연수 김현수
- 협동집사 : 이수일
- 시무권사 : 정남순 김옥순
- 은퇴권사 : 신윤희 장정순
- 서리집사(남) : 강수형 계영섭 권원철 김문배 김문호 김준호 남홍우 박판수 양승인 우윤숙 유만식 유준희 이요섭 이수근 임봉섭 한민구 (16명)
- 서리집사(여) : 고신화 곽영란 김난순 김미라 김순영 김영숙 김영자 김용신 김인순 김춘순 김행숙 방영희 안영주 양귀희 엄영순 이분단 이영주 이정호 이정화 이유화 임명순 임영애 임영희 장정숙 장효순 지종옥 차정희 한양숙 홍옥분 (29명)

<1994>

- 담임목사 : 김중훈
- 교육전도사 : 조유경 김형석
- 시무장로 : 박순영 송광수
- 은퇴장로 : 김성울
- 안수집사 : 우윤석 김연수 김현수
- 협동집사 : 이수일
- 시무권사 : 정남순 김옥순
- 은퇴권사 : 신윤희 장정순
- 서리집사(남) : 강수형 계영섭 공창일 김남훈 김문호 김윤태 김종호 김준태 김창열 남홍우 박명호 박판수 안정모 유만식 이수근 이요섭 이흥구 임봉섭 천일웅 최운규 한민구 한상근 (22명)
- 서리집사(여) : 고신화 곽영란 김난순 김명선 김미라 김순영 김영숙 김영자 김용신 김은경 김인순 김진이 김춘순 노청순 방영희 안미연 안영주 엄영순 이남숙 이분단 이영숙 이유화 이정호 이정화 이포영 임명순 임영애 장정숙 장효순 정영희 조길순 지종옥 차정희 한양숙 허승원 홍옥분 (36명)

<1995>

- 담임목사 : 김중훈
- 교육전도사 : 김형석(유초등부) 안종설(중고등부)
- 시무장로 : 박순영 송광수
- 은퇴장로 : 김성울
- 안수집사 : 김연수 김현수 우윤석
- 협동집사 : 이수일 이득배
- 시무권사 : 정남순 김옥순
- 협동권사 : 김정애

은퇴권사 : 신윤희 장정순 최확실 박형석 이만례

서리집사(남) : 강수형 계영섭 공창일 김남훈 김문호 김중호 김윤태 김준태 김창열 남홍우 박명호
박판수 유만식 이수근 이요섭 이홍우 임봉섭 최운규 한민국 한상근 (20명)

서리집사(여) : 고신화 곽영란 김남순 김명선 김미라 김순영 김영숙 김영자 김용신 김은경 김인순
김진이 김춘순 김행숙 노청순 방영희 안영주 엄영순 이남숙 이분단 이영숙 이유화
이정호 이정화 이포영 임계순 임명순 임영애 장정숙 장효순 정영희 조길순 지종욱
차정희 한양숙 홍옥분 (36명)

<1996>

담임목사 : 김종훈

교육전도사 : 김형석(유초등부) 안종설(중고등부) 이덕재(청년부)

시무장로 : 박순영 송광수

은퇴장로 : 김성울

안수집사 : 김연수 김현수 우윤석

협동집사 : 이수일 이득배 이백우

시무권사 : 정남순 김옥순

협동권사 : 김정애

은퇴권사 : 신윤희 장정순 최확실

서리집사(남) : 강수형 계영섭 공창일 김남훈 김두성 김문호 김윤태 김중호 김준태 남홍우 박명호
박판수 유만식 이수근 이요섭 이홍구 임봉섭 정수영 조휘석 최운규 한민국 한상근
(22명)

서리집사(여) : 고신화 곽영란 김난순 김명선 김미라 김숙자 김순영 김영숙 김영자 김용신 김유옥
김은경 김진이 김춘순 김행숙 노청순 방영희 안영주 엄영순 윤화실 이남숙 이영숙
이유화 이정호 이정화 이포영 임계순 임명순 임영애 장정숙 장효순 정영희 조길순
주정은 지종욱 최정희 한양숙 홍옥분 (38명)

<1997>

담임목사 : 김종훈

교육전도사 : 이덕재(유초등부/청년부) 안종설(중고등부)

시무장로 : 박순영 송광수

협동장로 : 윤희주

은퇴장로 : 김성울

안수집사 : 김연수 김현수 우윤석

협동집사 : 이수일 이득배 이백우 함영호

시무권사 : 정남순 김옥순

협동권사 : 김정애

은퇴권사 : 신윤희 장정순 최확실

서리집사(남) : 강수형 계영섭 공창일 김남훈 김두성 김문호 김윤태 김중호 김준태 남홍우 박명호
박판수 유만식 이수근 이영수 이홍구 임봉섭 정수영 조휘석 최운규 한민국 한상근
(22명)

서리집사(여) : 강혜옥 곽영란 김난순 김미라 김숙자 김순영 김영숙 김영자 김용경 김용신 김유옥
김은경 김진옥 김진이 김춘순 김행숙 노청순 방영희 안영주 엄영순 윤화실 이남숙
이영숙 이유화 이정호 이정화 이포영 이홍례 임계순 임명순 장정숙 장효순 조길순
주정은 지종욱 최정희 한양숙 홍옥분 (38명)

<1998>

담임목사 : 김종훈

교육목사 : 김용일(청년부)

교육전도사 : 한순규(유초등부) 안종설(중고등부)

시무장로 : 박순영 송광수

협동장로 : 윤희주 김관하

은퇴장로 : 김성울

안수집사 : 김연수 김현수
 협동집사 : 이수일 이득배 이백우 함영호 유학준 원건재
 시무권사 : 정남순 김옥순
 협동권사 : 김정애 김은숙
 은퇴권사 : 신윤필 장정순 최확실
 명예권사 : 조귀엽 차정희
 서리집사(남) : 강수형 계영섭 공창일 김남훈 김두성 김문호 김세운 김용훈 김운태 김종호 김준태
 남홍우 박명호 박성우 박승재 박관수 이수근 이영수 이흥구 임봉섭 정수영 조희석
 최윤규 한민구 한상근 (25명)
 서리집사(여) : 강혜옥 곽영란 김난순 김미라 김숙자 김순영 김신이 김영숙 김영애 김영자 김용경
 김용신 김우애 김은경 김진이 김행숙 노청순 박혜숙 방영희 안영주 원수자 윤화실
 이남숙 이영숙 이유화 이정호 이정화 이포영 이흥례 임계순 임명순 장정숙 장효순
 정영희 정은숙 조길순 주정은 지종옥 채경숙 최정희 한명숙 한양숙 홍옥분 (43명)

<1999>

담임목사 : 김종훈
 교육목사 : 변창욱(청년부)
 교육전도사 : 한순규(유초등부) 안종설(중고등부)
 시무장로 : 박순영 송광수 윤희주 김연수
 협동장로 : 김관하 한대영
 은퇴장로 : 김성율
 안수집사 : 김현수 김종호 이득배 이백우 이수일 함영호
 협동집사 : 지재홍 원건재 이주익 유학준 한기하
 시무권사 : 정남순 김옥순 한양숙 곽영란 방영희
 협동권사 : 김은숙 라은숙 이영희 이무연 우영자
 은퇴권사 : 신윤필 장정순 최확실 정은애

명예권사 : 조귀엽 차정희
 서리집사(남) : 강수형 계영섭 공창일 김남훈 김두성 김세운 김영길 김용훈 김운태 김정균 김준태
 남홍우 박명호 박성우 박승재 박영대 신재호 양승인 이민우 이수근 이영수 이인화
 이흥구 임봉섭 장성현 정건수 정수영 조희석 주용식 최성준 최윤규 한민구 한상근
 한필수 (34명)
 서리집사(여) : 강미혜 강혜옥 구숙자 김남순 김숙자 김순영 김신이 김애자 김영숙 김영애 김영자
 김용경 김용신 김우애 김은경 김종림 김진옥 김행숙 김진이 김필중 노청순 박혜숙
 복영미 안영주 원수자 유환순 윤화실 이강희 이경애 이남숙 이수정 이연희 이영숙
 이유화 이정호 이정화 이포영 이흥례 임계순 임명순 장정숙 정영희 정은숙 정태인
 조길순 주정은 지종옥 채경숙 천매자 최용이 최정희 한순자 홍옥분 (53명)

<2000>

담임목사 : 김종훈
 교육목사 : 변창욱(청년부)
 교육전도사 : 한순규(유초등부) 안종설(중고등부)
 음악전도사 : 김인선
 영어예배 : 안종설
 시무장로 : 박순영 송광수 윤희주 김연수
 협동장로 : 김관하 한대영
 은퇴장로 : 김성율
 안수집사 : 김현수 김종호 이득배 이수일
 협동집사 : 지재홍 원건재 이주익 유학준 한기하 서정환
 은퇴집사 : 채금융
 시무권사 : 김옥순 한양숙 곽영란 방영희
 협동권사 : 김은숙 라은숙 이영희 이무연 우영자 여승희
 은퇴권사 : 신윤필 장정순 최확실 정은애 정남순

명예권사 : 조귀엽 차정희

서리집사(남) : 강수형 계영섭 김남훈 김두성 김세운 김영길 김용훈 김운호 김정균 김준태 김태영
김윤태 남정현 남홍우 라용재 박명호 박성우 박승재 박영대 박원태 박재우 신재호
양승인 이민우 이수근 이영수 이인화 임봉섭 정건수 정수영 정희태 조희석 최성준
최운규 한민구 한상근 한필수 (37명)

서리집사(여) : 강미혜 강현아 강혜옥 구숙자 김경미 김난순 김석겸 김순영 김신이 김영숙 김영애
김영자 김영희 김용경 김용신 김우애 김은경 김종립 김진옥 김필중 김행숙 노청순
박영일 박혜숙 박희순 변정옥 송경엽 안영주 양은숙 원수자 유환순 윤화실 이강희
이경애 이남숙 이민희 이수정 이연희 이영선 이영순 이우자 이유화 이정호 이정화
이포영 임계순 임명순 장정숙 정영희 정은숙 정태인 조길순 주정은 지종옥 채경숙
천매자 최용이 최정희 하덕순 한순자 홍숙자 홍옥분 (62명)

<2001>

담임목사 : 김종훈

교육목사 : 변창욱(청년부)

교육전도사 : 한순규(유초등부) 정은숙(중고등부) 김 영(유아부)

음악전도사 : 김인선

영어예배 : 안종설

시무장로 : 박순영 송광수 윤희주 김연수

협동장로 : 김관하 한대영

은퇴장로 : 김성울

안수집사 : 김현수 김종호 이득배 이수일

협동집사 : 지재홍 원건재 이주익 유학준 한기하 김광운 박선동

은퇴집사 : 채금융

시무권사 : 김옥순 한양숙 곽영란 방영희

협동권사 : 김은숙 라은숙 이영희 이무연 우영자 여승희 노영실

은퇴권사 : 신윤필 장정순 최확실 정은애 정남순 박경애

명예권사 : 조귀엽 차정희

서리집사(남) : 강수형 권철훈 계영섭 김남훈 김두성 김영길 김용훈 김운호 김정균 김준태 김태영
김태운 남송현 남홍우 라용재 문관옥 박명호 박성우 박승재 박재우 박영대 박원태
박재우 성정환 신재호 양승인 윤강유 이동흙 이민우 이수근 이영수 이윤석 이의주
이인화 이해원 임봉섭 정건수 정수영 정희태 조희석 최성준 한민구 한상근 한필수
(44명)

서리집사(여) : 강미혜 강현아 강혜옥 구숙자 권미정 김경미 김난순 김순영 김영숙 김영애 김영자
김영희 김용경 김용신 김은경 김증자 김진옥 김필중 김행숙 노청순 박성원 박영일
박진희 박혜숙 박희순 송경엽 심옥섭 심은경 안영주 양은숙 원수자 유환순 윤화실
이강희 이경애 이남숙 이민희 이수정 이연선 이연지 이연희 이영선 이영순 이우자
이유화 이정호 이정화 이포영 임계순 임명순 장정숙 정자인 정태인 조길순
주정은 지종옥 차재열 채경숙 천매자 최용이 최정희 하덕순 한순자 홍숙자 홍옥분
(66명)

<2002>

담임목사 : 김종훈

교육목사 : 변창욱(청년부)

교육전도사 : 한순규(유초등부) 정은숙(중고등부) 김 영(유치부)

음악전도사 : 김인선(행정 겸임)

영어예배 : 김은주

시무장로 : 박순영 송광수 윤희주 김연수

협동장로 : 김관하 한대영

은퇴장로 : 김성울

안수집사 : 김현수 김종호 이득배 이수일

협동집사 : 지재홍 원건재 이주익 유학준 한기하 김광운 박선동 박인호

은퇴집사 : 채금융
 시무권사 : 김옥순 한양숙 곽영란 방영희
 협동권사 : 김은숙 라은숙 이영희 이무연 우영자 여승희 노영실 양경남 장청자
 은퇴권사 : 신윤필 장정순 최확실 정은애 정남순
 명예권사 : 조귀엽 차정희
 서리집사(남) : 강수형 권철훈 계영섭 계현민 김두성 김사원 김영길 김용훈 김윤호 김의태 김정균
 김준태 김진태 김태영 김태운 남홍우 라용재 박명호 박성우 박세종 박승재 박영대
 박원태 박인서 박재우 성정환 신재호 양승인 윤강유 이동흙 이민우 이범순 이송희
 이수근 이영수 이윤석 이의주 이해원 임봉섭 장병익 장영삼 정건수 정수영 정희태
 지종훈 최성준 한민구 한상근 한필수 (49명)
 서리집사(여) : 강미혜 강현아 강혜옥 곽재경 구숙자 권미정 김정미 김정자 김순영 김영숙 김영애
 김영자 김영희 김용경 김용신 김용아 김은경 김정순 김증자 김필중 김행숙 노청순
 박성원 박양희 박영일 박진희 박춘희 박혜숙 박희순 송경엽 심옥섭 심은경 안미미
 안영주 안정희 양은숙 오산나 오선에 우해숙 원수자 유환순 유희정 윤미숙 윤화실
 이강희 이경애 이남숙 이동선 이민희 이연선 이연지 이연희 이영선 이영순 이우자
 이유화 이정호 이정화 이포영 임경순 임명순 장연숙 장정숙 정린다 정은영 정태인
 조길순 지종옥 차재열 차정일 채경숙 천매자 최용이 최정희 최종옥 최지현 하덕순
 한순자 홍숙자 홍옥분 홍현숙 (81명)

〈2003〉

담임목사 : 김종훈
 교육목사 : 김윤배
 교육담당 : 조유경(유치부) 한순규(유초등부) 정은숙(중고등부) 김윤배(청년부)
 영어예배 : 김은주
 사무원 : 문윤화
 시무장로 : 박순영 송광수 윤희주 김연수 한대영 김현수

협동장로 : 옥치진
 은퇴장로 : 김성율 김관하
 안수집사 : 김종호 이수일 한기하 지재홍 유학준 남홍우 한상근
 협동집사 : 원건재 이주익 김광운 박선동 박인호 손상근 백낙환 양동안
 은퇴집사 : 채금융
 시무권사 : 김옥순 한양숙 곽영란 방영희 김은숙 라은숙 노영실 이영희
 협동권사 : 이무연 여승희 양경남 장청자 홍길자 양윤선
 은퇴권사 : 신윤필 최확실 정은애 정남순
 명예권사 : 조귀엽 차정희
 서리집사(남) : 강수형 권중기 권철훈 계영섭 계현민 김두성 김사원 김영길 김용훈 김윤호 김인기
 김준태 김진태 김창옥 김태영 라용재 박명호 박상준 박성우 박세종 박승재 박영대
 박인서 박재우 신재호 윤강유 이동흙 이민우 이범순 이병문 이상구 이성진 이송희
 이수근 이영수 이윤석 이정석 이해원 장병익 장영삼 장재호 정건수 정수영 정희태
 지종훈 최용석 한만강 한민구 한필수 허 혁 황승욱 (51명)
 서리집사(여) : 강미혜 강현아 강혜옥 곽재경 구숙자 권규희 권미정 김정미 김기영 김미향 김영숙
 김영애 김영자 김영희 김용경 김용신 김용아 김은경 김정순 김증자 김필중 김행숙
 김희경 노애자 노청순 노한나 박성원 박양희 박영일 박춘희 박혜숙 박혜원 박희순
 서은숙 서정옥 소원자 송경엽 신혜숙 심옥섭 심은경 안미미 안영주 양은숙 오산나
 오선에 옥현정 우해숙 원수자 유희정 윤미숙 윤화실 이강희 이경애 이연선 이연지
 이연희 이영선 이영순 이영애 이우자 이유화 이정호 이정화 이포영 임명순 정연숙
 장용곤 장정숙 정경숙 정린다 정태인 조길순 주지혜 지종옥 차재열 차정일 채경숙
 천매자 최광희 최정희 최종옥 최지현 하덕순 한순자 한영순 홍선영 홍옥분 홍현숙
 (88명)

〈2004〉

담임목사 : 김종훈
부목사 : 김윤배
교육담당 : 조유경(유치/유년부) 한순규(중등부) 정은숙(고등부) 김윤배(청년부)
영어예배 : 김은주
시무장로 : 박순영 송광수 윤희주 김연수 한대영 김현수
협동장로 : 옥치진
은퇴장로 : 김성울 김관하
안수집사 : 김종호 한기하 지재홍 유학준 남홍우 한상근 박선동 손상근 이주익 박인호 한민구
박명호 이영수 정수영
협동집사 : 원건재 김광운 백낙환 양동안 이다윗
은퇴집사 : 채금융
시무권사 : 김옥순 한양숙 곽영란 방영희 김은숙 라은숙 노영실 이영희 여승희 홍길자 양경남
김영자 구숙자 정태인 임명순 김용신
협동권사 : 이무연 장청자 양윤선 김순호 박문자
은퇴권사 : 신윤필 최확실 정은애 정남순 윤영애
명예권사 : 조귀엽 차정희
서리집사(남) : 강수형 권영신 권중기 권철훈 계영섭 계현민 김두성 김사원 김영길 김영보 김용호
김용훈 김윤호 김인기 김진태 김창욱 김태영 라용재 박성우 박성하 박승재 박인서
박재우 박형서 신영필 신재호 윤강유 이동흙 이민우 이범순 이상구 이성진 이송희
이수근 이용두 이윤석 이정석 이해원 임선호 장관우 장병익 장재호 정건수 정재수
정희태 조태성 지종훈 최용석 최정환 최종환 한만강 한송만 한민구 한필수 허 혁
황병호 (56명)
서리집사(여) : 강미혜 강민영 강성우 강현아 강혜옥 권규희 권미정 김경미 김기영 김미향 김복희
김송기 김수옥 김영숙 김영애 김영희 김용경 김용아 김정순 김정애 김증자 김필중
김행숙 김희경 노철순 노한나 문명숙 박민애 박사라 박성원 박양희 박영일 박인숙

박정숙 박정희 박춘희 박혜숙 박혜원 박희순 서정옥 송경엽 심옥섭 안미미 안영주
양은숙 오산나 오선에 옥현정 우해숙 원수자 유희정 윤미숙 이강희 이경애 이연배
이연선 이연지 이연희 이영선 이영애 이옥경 이우자 이운배 이유신 이유화 이정호
이포영 장용곤 장정숙 장혜원 정경숙 조길순 주지혜 지종옥 지혜승 차은경 차재열
채경숙 천매자 최광희 최성아 최종옥 최정희 최지현 하덕순 한미선 한순자 한영순
홍선영 홍숙희 홍현숙 (91명)

〈2005〉

담임목사 : 김종훈
부목사 : 김윤배
교육담당 : 조유경(유치부) 박에스더(유년부) 정은숙(중고등부) 김윤배(청년부)
영어예배 : 김은주
시무장로 : 박순영 송광수 윤희주 김연수 한대영 김현수
협동장로 : 옥치진 김춘경
은퇴장로 : 김성울 김관하
안수집사 : 김종호 한기하 지재홍 유학준 남홍우 한상근 박선동 손상근 이주익 박인호 한민구
박명호 이영수 정수영
협동집사 : 원건재 백낙환 양동안 이다윗 김진규
은퇴집사 : 채금융
시무권사 : 김옥순 한양숙 곽영란 방영희 김은숙 라은숙 노영실 이영희 여승희 홍길자 양경남
김영자 구숙자 정태인 임명순 김용신
협동권사 : 이무연 장청자 양윤선 김순호 박문자 엄영애 김근혜
은퇴권사 : 신윤필 최확실 정은애 정남순 윤영애 한금선
명예권사 : 조귀엽 차정희
서리집사(남) : 강수형 강윤기 권영신 권중기 권철훈 계영섭 계현민 김낙승 김남훈 김두성 김사원
김영길 김영보 김용호 김용훈 김윤호 김진태 김창욱 김태영 남송현 라용재 박성우

박성하 박승재 박인서 박재우 박형서 신영필 신재호 윤강유 이동흙 이민우 이송희
이수근 이용두 이윤석 이정석 이정우 이해원 장관우 장병익 장재호 정건수 정재수
정희태 조태성 지재환 지중훈 최용석 최정환 최종환 한만강 한송만 한필수 허 혁
황병호 홍찬희 (57명)

서리집사(여) : 강미혜 강민영 강성우 강현아 강혜옥 구영춘 권규희 권미정 권성희 김경미 김근희
김기영 김미향 김복희 김송기 김수옥 김용숙 김영애 김영희 김용경 김정민 김정순
김정애 김중자 김진옥 김필중 김행숙 김희경 노청순 노한나 문명숙 박민애 박사라
박성원 박양희 박영일 박인숙 박정숙 박정희 박춘희 박혜숙 박혜원 박희순 심옥섭
안미미 안영주 양은숙 오산아 옥현정 우해숙 원수자 유희정 윤미숙 이강희 이경애
이연배 이연선 이연지 이연희 이영선 이옥경 이운배 이유신 이유화 이정호 이포영
임란혁 장용곤 장정숙 장혜원 정유화 정경숙 정성희 조길순 지중옥 지혜승 차은경
차재열 채경숙 천매자 최경희 최광희 최상희 최성아 최연실 최종옥 최정희 최지현
하덕순 한미선 한순자 홍선영 홍성혜 홍숙희 홍현숙 (95명)

<2006>

담임목사 : 김종훈
부목사 : 김운배
교육담당 : 조유경(유치부) 박에스터(유년부) 정은숙(중고등부) 김운배(청년부)
심방담당 : 최근선
영어예배 : 김은주
시무장로 : 송광수 윤희주 김연수 한대영 김현수
협동장로 : 옥치진 김춘경 박중기 김창환
은퇴장로 : 김성울 김관하
안수집사 : 김종호 한기하 지재홍 유학준 남홍우 한상근 박선동 손상근 이주익 박인호 한민구
박명호 이영수 정수영
협동집사 : 원건재 백낙환 이다윗 김진규 김영길B 김태수 이근만 지장유

은퇴집사 : 채금용
시무권사 : 김옥순 곽영란 방영희 김은숙 라은숙 노영실 이영희 여승희 황길자 양경남 김영자
구숙자 정태인 임명순 김용신
협동권사 : 이무연 장창자 김순호 박문자 엄영애 김근혜 신영실 박승애
은퇴권사 : 신윤필 정은애 정남순 윤영애 이순옥
명예권사 : 조귀엽
서리집사(남) : 강수형 강윤기 권영신 권철훈 계영섭 계현민 김낙승 김남훈 김두성 김사원 김연국
김영길 김용호 김용훈 김윤호 김정호 김진태 김창옥 김태영 라용재 박성우 박성하
박승재 박인서 박재우 손건일 신영필 신재호 안성빈 윤강유 이동흙 이민우 이송희
이정우 이해원 장관우 장병익 장재호 장호순 정건수 정재수 정희태 조준익 조태성
지재환 차규섭 최용석 최정환 한만강 한송만 한필수 허 혁 홍재익 홍재철 황병호
홍찬희 (56명)

서리집사(여) : 강미혜 강민영 강성우 강순열 강현아 강혜옥 구영춘 권미자 권미정 김경미 김기영
김미향 김복희 김송기 김수옥 김영숙 김영애 김영희 김정민 김정선 김정순 김정애
김중자 김진옥 김필중 김희경 노청순 노한나 문명숙 문선희 박민애 박성원 박양희
박정숙 박정심 박정희 박춘희 박한자 박혜숙 박혜원 박희순 송용곤 신정애 심옥섭
안미미 양경순 양은숙 오산나 오순희 옥현정 우해숙 원수자 유희정 윤미숙 윤산월
이강희 이경애 이규희 이금선 이연선 이연지 이연희 이영선 이옥경 이유신 이유화
이윤미 이정호 이포영 임란혁 임정현 장만례 장정숙 장혜원 전유화 정경숙 정경자
정성희 조길순 조남이 조석영 조성무 지중옥 차은경 채경숙 천매자 최연실 최종옥
최정희 최지현 하경혜 하덕순 한미선 한순자 한영미 홍선영 홍성혜 홍인숙 홍숙희
(99명)

<2007>

담임목사 : 김종훈
부목사 : 김운배

교육담당 : 김송기(유치부) 박에스터(유년부) 정은숙(중고등부) 김윤배(청년부)
 교육전도사 : 김인선
 심방담당 : 최근선
 선교전도사 : 김연수
 영어예배 : 김은주
 은퇴전도사 : 김숙동 김귀임
 시무장로 : 송광수 윤희주 한대영 김현수 옥치진 한기하
 협동장로 : 김춘경 오현섭 조종희
 은퇴장로 : 김성울 김관하
 안수집사 : 김종호 지재홍 유학준 남홍우 한상근 손상근 이주익 박인호 한민구 박명호 이영수 정수영
 협동집사 : 원건재 김진규 김영길 김태수 이근만 지장유 신동근 구본요
 시무권사 : 김옥순 곽영란 방영희 김은숙 라은숙 노영실 이영희 여승희 홍길자 김영자 구숙자 정태인 임명순 김용신
 협동권사 : 이무연 장청자 김순호 박문자 엄영애 김근혜 이재덕
 은퇴권사 : 정은애 정남순 이순옥 김주상 조귀엽
 서리집사(남) : 강수형 강윤기 계영섭 계현민 권영신 권영환 권철훈 김광남 김낙승 김남훈 김두성 김사원 김선태 김연국 김영길 김용호 김용훈 김재욱 김정호 김진태 김창욱 김희경 라용재 박성우 박성하 박승재 박인서 박재우 손건일 신영필 신재호 윤강유 이동흙 이범순 이송희 이인화 이진배 장관우 장병익 장재호 장호순 정락문 정건수 정재도 정재수 정희태 조준익 조태성 지재환 차규섭 최용석 최진영 최 훈 탁성식 한만강 한송만 한필수 허 혁 한민수 홍재익 홍재철 홍주영 황병호 홍찬희 (64명)
 서리집사(여) : 강문구 강미혜 강민영 강선미 강성우 강순열 강현아 강혜숙 강혜옥 곽정은 곽영자 권미자 권미정 김경미 김경숙 김기영 김미향 김미정 김수옥 김승아 김영숙 김영애 김영희 김용숙 김유심 김정선 김정순 김정애 김증자 김진옥 김필중 김현주 김효미 김효숙 김희경 나현아 노청순 문명숙 박민애 박정숙 박정심 박정희 박춘희 박한자

박혜숙 박혜원 박희순 송용곤 신정애 심옥섭 안미미 양은숙 오산나 오순희 옥현정
 우혜숙 원수자 유희정 윤미숙 윤산월 윤혜숙 이강희 이규희 이수정 이연선 이연일
 이연지 이연희 이영미 이영선 이영순 이옥경 이유신 이유정 이유화 이윤미 이인숙
 이정호 이포영 임정현 장만례 장정숙 장혜원 전유화 정경숙 정경자 정성희 정수미란
 정한득 조길순 조남이 조석영 조성무 지종욱 차은경 차재열 채경숙 천매자 최연실
 최종옥 최정희 최지현 하경혜 하덕순 한미선 한순자 홍선영 홍성혜 홍숙희 (110명)

〈2008〉

담임목사 : 김종훈
 부목사 : 김윤배
 BM목사 : 김은주
 교육목사 : 김인선
 협동목사 : 윤승진
 교육담당 : 김송기(유치부) 박에스터(유년부) 유명근(중등부) 정은숙(고등부) 김윤배(청년부)
 심방전도사 : 최근선
 선교전도사 : 김연수
 은퇴전도사 : 김숙동 김귀임
 시무장로 : 송광수 윤희주 한대영 김현수 옥치진 한기하
 협동장로 : 김춘경 오현섭 조종희 김창성 한정원
 피택장로 : 유학준
 은퇴장로 : 김성울 김관하 유영식
 안수집사 : 김종호 지재홍 남홍우 한상근 이주익 박인호 한민구 박명호 이영수 정수영
 피택안수집사 : 김영길 정건수 정재수 조태성 김용호
 협동집사 : 원건재 김태수 이근만 지장유 신동근 백낙환 장봉용
 시무권사 : 김옥순 곽영란 방영희 라은숙 노영실 이영희 여승희 홍길자 김영자 구숙자 정태인 임명순 김용신

협동권사 : 이무연 장청자 김순호 박문자 김근혜 이재덕 이길자 오분례
 은퇴권사 : 정은애 정남순 이순옥 김주상 김은숙 김성애
 명예권사 : 조귀엽

서리집사(남) : 강성식 강수형 강윤기 강호정 계영섭 계현민 권영신 권철훈 김광남 김낙승 김남훈
 김동환 김두성 김사원 김선태 김성식 김연국 김영길 김용훈 김인철 김재옥 김정호
 김준식 김진태 김창옥 김창원 김희경 남정현 라용재 박성우 박성하 박승민 박승재
 박인서 박재우 손수엽 신영필 신재호 윤강유 윤용근 이동흙 이범순 이송희 이수근
 이승환 이용건 이인화 이진배 장관우 장병익 장재호 전영우 정길영 정락문 정병우
 정재남 정재도 정희태 조대은 조준익 지재환 최용석 최진영 최 훈 한만강 한송만
 한용석 한필수 함학렬 허 혁 현민수 홍석승 홍재익 홍재철 홍주영 홍찬희 황병호
 황진규 (78명)

서리집사(여) : 강문구 강미혜 강민영 강선미 강성우 강순열 강승원 강현아 강혜숙 강혜옥 광정은
 광영자 광정희 권미자 권미정 김경미 김경숙 김경옥 김기영 김미자 김미정 김미향
 김수옥 김순심 김승아 김연신 김연희 김영모 김영숙 김영애 김영희 김용숙 김유심
 김은하 김정선 김정에 김중자 김지현 김진옥 김필중 김현주 김효미 김효숙 김희경
 김희경 나현아 노청순 노한나 문명숙 박민애 박상미 박양희 박정숙 박정심 박정희
 박춘희 박한자 박혜숙 박혜원 박희순 송용곤 신정애 심옥섭 안영주 양경순 양은숙
 오산나 오순희 오정아 옥현정 우해숙 원수자 유희정 윤미숙 윤산월 윤혜숙 이강희
 이규희 이선경 이수정 이연선 이연일 이연지 이연희 이영미 이영선 이영재 이영주
 이옥경 이유미 이유신 이유정 이유화 이윤미 이인숙 이정은 이정호 이종매 이포영
 임미라 임정현 장순균 장정숙 장혜원 전유화 전은단 정경숙 정경자 정성희 정수미란
 정정숙 정한득 조경미 조길순 조남이 조석영 조유니나 조혜연 지종옥 차은경
 채경숙 천매자 최경희 최연실 최은숙 최정희 최지현 하덕순 한미선 한순자 함경미
 홍선영 홍성혜 홍숙희 (135명)

사무간사 : 김미향

〈2009〉

담임목사 : 김종훈
 교육목사 : 김인선
 협동목사 : 윤승진 홍정자
 교육담당 : 김송기(유치부) 박에스터(유년부) 유명근(중등부) 김성국(고등부)
 BM전도사 : 김재영
 심방전도사 : 최근선
 시무장로 : 송광수 윤희주 한대영 김현수 옥치진 한기하 유학준
 협동장로 : 오현섭 조종희 김창성 한정원 김준택
 은퇴장로 : 김성울 김관하 유영식 성태섭
 안수집사 : 김중호 지재홍 남홍우 한상근 이주익 한민구 이영수 정수영 김영길 정재수 정진수
 조태성 김용호
 협동집사 : 원건재 김태수 이근만 지장유 신동근 백낙환 장봉용 백종만 임병설 서병구 장철환
 시무권사 : 광영란 방영희 노영실 이영희 여승희 홍길자 김영자 구숙자 정태인
 협동권사 : 장청자 박문자 이재덕 이길자 오분례 정현아 김미라
 은퇴권사 : 정남순 이순옥 김주상 김은숙 김성애 라은숙
 명예권사 : 조귀엽 김종립

서리집사(남) : 강근형 강성식 강수형 강윤기 강호정 계영섭 계현민 권영신 권철훈 기 철 김광남
 김낙승 김남훈 김다니엘 김동환 김두성 김선태 김성식 김성진 김연국 김용훈
 김인철 김정호A 김종호B 김정업 김준식 김창옥 김현희 김희경 남광현 라용재
 박래연 박병규 박성우 박성하 박승재 박용훈 박인서 박인철 박재우 변성주 송수엽
 신영필 신재호 엄갑용 엄종현 오성섭 윤강유 윤강현 윤용근 이송희 이상엽 이성수
 이수근 이승환 이왕근 이용건 이인화 이진배 이철호 이호병 장경철 장관우 전영우
 정길영 정병우 정우양 정재남 정재도 정희태 조용철 조준익 조홍창 지재환 차기영
 최병철 최용석 최인득 최종선 최 훈 한만강 한송만 한수연 한용석 함학렬 현경환
 현민수 홍석승 홍성화 홍순천 홍재익 홍재철 홍찬희 황석남 (94명)

서리집사(여) : 강경희 강문구 강미혜 강민영 강성우 강순열 강승원 강정숙 강진이 강현아 강혜숙 강혜옥
 광경은 광영자 광정희 구분원 권미자 권미정 권병숙 권오임 김경미 김경란 김경숙 김경옥 김기영 김명숙 김미자 김미정 김미향 김수옥 김순옥 김승아 김애란
 김연신 김연희 김영모 김영숙 김영애 김오신 김옥희 김용숙 김정선 김정순 김정애 김지현 김진옥 김필중 김현주 김효미 김희경A 김희경C 나현아 노청순 노한나
 문명숙 박미란 박민애 박복임 박상미 박은선 박정숙 박종순 박지혜 박춘희 박한자 박혜숙 박혜연 박희순 신정애 심옥섭 안영주 양경순 양순화 여혜선 오순희 오연숙
 오영희 오정아 우해숙 원수자 유숙현 유혜미 유희정 윤산월 윤혜숙 이정화 이권희 이규희 이선경 이수정 이연희 이영미 이영선 이영주 이영진 이옥경 이유미 이유신
 이유정 이유화 이윤미 이인숙A 이인숙B 이정은 이정호 이종매 이주옥 이춘자 이포영 이해정 임미라 임정현 장연희 장정숙 장혜원 전복희 전유화 전인숙 정경숙
 정경자 정미혜 정성희 정소영 정수미란 정정숙 조경미 조남이 조수연 지종옥 차금주 차은경 차주영 채경숙 천매자 최경희 최길옥 최연실 최정희 최지현 하덕순
 한미선 한민자 한은희 한정희 함경미 현정원 홍선영 홍선자 홍성혜 홍숙희 황금자 (151명)

은퇴교역자 : 김귀임

<2010>

담임목사 : 김종훈
 교육목사 : 김인선
 협동목사 : 윤승진 홍정자
 교육담당 : 김송기(유치부) 박에스터(유년부) 유명근(중등부) 김성국(고등부)
 BM전도사 : 김재영
 심방전도사 : 최근선
 음악전도사 : 박성하
 시무장로 : 송광수 윤희주 한대영 김현수 옥치진 한기하 유학준

협동장로 : 오현섭 조종희 김창성 한정원 김준택
 은퇴장로 : 김성율 유영식 성태섭
 안수집사 : 김종호 지재홍 한상근 이주익 한민국 이영수 정수영 김영길 정재수 정건수 조태성 김용호
 협동집사 : 원건재 김태수 이근만 지장유 장봉용 백종만 임병설 서병구 장철환 김광운 김종수 이태호
 시무권사 : 방영희 이영희 홍길자 김영자 구숙자 정태인
 협동권사 : 장청자 박문자 이재덕 이길자 오분례 정현아 김미라 조춘자
 은퇴권사 : 정남순 이순옥 김주상 김은숙 김성애 라은숙 노영실 여승희 박재순 이방곡
 명예권사 : 조귀엽 김종립
 서리집사(남) : 강근형 강성식 강수형 강윤기 강철순 강호정 계현민 권영신 권철훈 기 철 김광남 김낙승 김남훈 김다니엘 김동준 김동환 김두성 김선태 김성식 김성진 김연국 김인철 김정업 김정호A 김종호B 김준식 김창옥 김희경 라용재 박기식 박래연 박병규 박성우 박승재 박용훈 박인서 박인철 박재우 배상준 소정환 손수엽 신영필 신재호 신희선 엄갑룡 오성섭 윤강현 윤용근 윤현동 이상엽 이성수 이송희 이승환 이왕근 이용건 이인화 이장호 이종서 이진배 이철호 이호병 임흥균 장경철 장관우 정길영 정병우 정우양 정재남 정재도 정희태 조용철 조준익 조홍창 지재환 차기영 차영재 최병철 최용석 최원걸 최인득 최종선 최형석 최 훈 한규만 한송만 한수연 한웅석 함학렬 현경환 현민수 홍석승 홍성화 홍순천 홍재익 홍재철 홍찬희 황석남 (97명)

서리집사(여) : 강경희 강문구 강미혜 강성우 강숙희 강승원 강정숙 강진이 강현아 강혜숙 강혜옥 광영자 광정희 구분원 권미자 권미정 권병숙 권오임 김경란 김경미 김경숙 김경옥 김기영 김명숙 김문차 김미자 김미향 김수옥 김순영 김순옥 김승아 김애란 김연신 김연희 김영모 김영숙 김영애 김오신 김옥희 김용숙 김정선 김정애 김정연 김주양 김지현 김진옥 김필중 김현주 김효미 김효숙 김희경 나현아 노청순 문명숙 박동희 박미란 박민애 박복임 박상미 박은선 박정숙 박종순 박지은 박지현 박지혜 박춘희

박한자 박혜연 박희순 배제미 신정애 신정화 양경순 양명옥 여혜선 오선영 오연숙
오영희 오정아 우해숙 원수자 유숙현 유은미 유희정 윤경선 윤산월 윤춘자 윤혜숙
이경화 이권희 이규희 이선경 이수정 이연희 이영미 이영선 이영주 이영진 이옥경
이유미 이유신 이유정 이유화 이윤미 이인숙A 이인숙B 이정은 이종매 이주옥
이춘자 이포영 이해경 이해정 임미라 임소혜 임정현 정연희 장정숙 장혜원 정복희
정소영 전유화 전인숙 정경숙 정경자 정린다 정미자 정미혜 정소영 정수미란
정정숙 조정미 조남이 조수연 지종옥 차금주 차은경 차주영 채경숙 천매자 최경희
최길옥 최상희 최연실 최정희 최지선 최지현 하덕순 한미선 한민자 한정희 한진영
함경미 허은주 현정원 홍선영 홍선자 홍성혜 홍숙희 황금자 황수진 (162명)

은퇴교역자 : 김귀임

<2011>

담임목사 : 김종훈
부목사 : 윤승진
전임전도사 : 강세훈
BM목사 : 안예중
교육담당 : 홍정자(영아부) 김송기(유치부) 박에스터(유년부) 김성국(중등부) 정은숙(고등부)
음악전도사 : 박성하
시무장로 : 송광수 윤희주 한대영 김현수 한기하 유학준
협동장로 : 오현섭 조종희 김창성 한정원 김준택
은퇴장로 : 김성울 유영식 성태섭 최영진
피택장로 : 이주익 지재홍 정수영
안수집사 : 한상근 이영수 김영길 정재수 정건수 조태성 김용호 이근만 임병설 강수형 이인화
장관우 윤용근 권철훈 신영필 박재우 권영신 박성우 김두성
협동집사 : 김태수 지장유 장봉용 서병구 장철환 김광운 김종수 이태호
은퇴안수집사 : 김종호

시무권사 : 방영희 이영희 김영자 구숙자 정태인 장청자 박문자 이재덕 이길자 오분례 권미자
최정희 노청순 이유화 박춘희 김영숙 이수정 이영선 이포영 차은경 강혜옥
협동권사 : 정현아 김미라 조춘자 정영신
은퇴권사 : 정남순 이순옥 김주상 김성애 라은숙 노영실 여승희 박재순 강애자 김말행 백성숙
박혜자 최진화
명예권사 : 조귀엽
서리집사(남) : 강성식 강윤기 강철순 강호정 계현민 권성철 김광남 김낙승 김남훈 김다니엘 김동
준 김동환 김선태 김성식 김성진 김성필 김연국 김영진 김인철 김정업 김정호A
김종호B 김준식 김진수 김창옥 김희경 라용재 박기식 박래연 박병규 박용훈
박인서 박제진 박종서 배상준 소정환 손정민 신재호 신희선 안춘기 엄갑룡 오성섭
옥기호 유성민 윤강현 윤현동 이상엽 이성수 이승희 이승환 이용건 이장호 이종범
이종서 이진균 이진배 이창원 이철호 이학용 이호병 임홍균 장경철 전세현 정길영
정병우 정우양 정재남 정재도 정희태 조용철 조준익 조홍창 주성우 주정호 지재환
차기영 차상연 차영재 최병철 최용석 최원걸 최형석 최 훈 한규만 한선수 한송만
한수연 한용석 한 진 함학렬 현경환 현민수 홍석승 홍순천 홍재익 홍재철 홍찬희
(97명)
서리집사(여) : 강문구 강미혜 강성우 강숙희 강승원 강정숙 강현아 강혜숙 고양숙 광영자 광정희
구본원 권미정 권병숙 권오임 김경미 김경숙 김경옥 김경애 김기영 김명숙 김문차
김미자 김미정 김미향 김수옥 김순영 김순옥 김순정 김승아 김애란 김연신 김연희
김영모 김영애 김오신 김용숙 김은희 김정선 김정에 김정현 김주양 김지에 김지현
김지형 김진옥 김필중 김현주 김효숙 김희경 김희숙 나현아 문명숙 민혜경 박동희
박미란 박민애 박복임 박상미 박성아 박은선 박정숙 박종순 박지은 박지현 박지혜
박혜연 박희순 배제미 손지현 신정애 신정화 신혜선 양경순 양명옥 오명진 오선영
오연숙 오영희 오정아 오현주 옥미정 우해숙 유숙현 유은미 유희정 윤경선 윤미숙
윤산월 윤혜숙 이경화 이권희 이규희 이선경 이세영 이연희 이영미 이영주 이영진
이유미 이유신 이유정 이윤미 이인숙A 이인숙B 이정은 이종매 이주옥 이화정

이혜경 이해정 이희숙 임미라 임소혜 임정현 장연희 장혜원 전복희 전소영 전유화
 정인숙 정경숙 정경자 정린다 정미자 정미혜 정소영 정수미란 정정숙 조경미 조남이
 조성미 조수연 조은희 주혜정 전규옥 지종옥 차금주 차주영 천매자 천미옥 최경희
 최길옥 최미화 최상희 최연실 최주영 최지선 하덕순 한미선 한민자 한지혜 한진영
 한혜현 함경미 허은주 현정원 홍선영 홍숙희 황금자 (160명)

은퇴교역자 : 김귀임

<2012>

담임목사 : 김종훈
 부목사 : 윤승진 강세훈
 BM목사 : 안예중
 교육담당 : 홍정자(영아부) 김송기(유치부) 박에스터(유년부) 이해은(중등부) 정은숙(고등부)
 음악전도사 : 박성하
 새생명전도 : 조태성
 시무장로 : 송광수 윤희주 한대영 김현수 한기하 유학준 이주익 지재홍 정수영
 협동장로 : 오현섭 조종희 한정원 김준택
 은퇴장로 : 김성울 유영식 성태섭 최영진 김창성
 명예장로 : 김종호
 안수집사 : 한상근 이영수 김영길 정재수 정건수 김용호 이근만 임병설 강수형 이인화 장관우
 윤용근 권철훈 신영필 박재우 권영신 박성우 김두성
 협동집사 : 김태수 지장유 장봉용 서병구 김종수 이태호 심도현 신동인 조성식
 시무권사 : 방영희 이영희 구숙자 정태인 박문자 이재덕 이길자 오분례 권미자 최정희 노청순
 이윤희 박춘희 김영숙 이수정 이영선 이포영 차은경 강혜옥
 협동권사 : 정현아 김미라 조춘자 정영신 이사라
 은퇴권사 : 정남순 이순옥 김주상 김성애 라은숙 노영실 여승희 박재순 강애자 김말행 백성숙
 박혜자 최진화 김영자 장청자 한상숙 문동진

서리집사(남) : 강성식 강성호 강윤기 강철순 강호정 계현민 권성철 김광남 김낙승 김남훈 김동준
 김동환 김선태 김성식 김성진 김성필 김연국 김영진 김인철 김정업 김정호A
 김종호B 김재운 김진수 김창옥 김형진 김홍석 김희경 라용재 마승범 박기식
 박래연 박병규 박용훈 박인서 박정호 박제진 박종서 배상준 소정환 손동희 손정민
 신재호 신희선 심재만 오성섭 오세훈 유성민 윤현동 이배준 이상엽 이성수A
 이송희 이용건 이종서 이진배 이창원 이철호 이학용 이호병 임홍균 장경철 전세현
 정길영 정병우 정우양 정재남 정재도 정희태 조용철 조홍창 주성우 주정호 지재환
 차기영 차상연 최병철 최용석 최원길 최형석 최 훈 한규만 한선수 한송만 한수연
 한웅석 한 진 함학렬 현경환 현민수 홍석승 홍순천 홍재익 홍재철 홍찬희 (95명)

서리집사(여) : 강문구 강미혜 강성우 강숙희 강승원 강현아 강혜숙 광영자 광정희 구분원 권미정
 권병숙 권오임 김경미 김경숙 김경옥 김경애 김기영 김명숙A 김명숙B 김명희
 김문차 김미자 김미정 김미향 김수옥 김순영 김순정 김승아 김애란 김연신 김연희
 김영모 김영애 김영주 김영희 김오신 김용숙 김은희 김정선 김정에 김정현 김주양
 김지애 김지형 김진옥 김필중 김현주 김효숙 김희경 김희숙 나현아 남은경 문명숙
 민혜경 박동희 박민애 박복임 박상미 박성아 박연미 박은혜 박정숙 박종순 박지숙
 박지은 박지현 박지혜 박혜연 박희순 배제미 성지하 손지현 신정애 신정화 신혜선
 심수연 양명옥 오명진 오연숙 오영희 오정아 우해숙 유숙현 유은미 유희정 윤경선
 윤미숙 윤산월 윤혜숙 이경화 이권희 이규희 이미자 이선경 이연희 이영미 이영진
 이유정 이윤미 이인숙A 이인숙B 이정은 이종매 이주옥 이진옥 이화정 이해경
 이해정 이희숙 임미라 임소혜 임정현 장연희 장혜원 전복희 전소영 전유화 전인숙
 정경숙 정경자 정미자 정미혜 정소영 정수미란 정주현 정정숙 조경미 조남이
 조성미 조수연 조은희 주혜정 전규옥 지종옥 차금주 차주영 채영남 천매자 천미옥
 최경희 최길옥 최상희 최순재 최주영 최지선 하덕순 한미선 한민자 한연정 한지혜
 한진영 한혜현 함경미 현정원 홍선영 홍숙희 황희진 (158명)

은퇴교역자 : 김귀임

2. 제직회 구성



1994년 회장: 김종훈 서기: 우윤석

제직 부서	부 장	총 무
예배부	송광수	한민구
교육부	송광수	천일웅
전도부	박순영	남홍우
선교부	김현수	공창일
친교부	이수일	이홍구
구제부	김연수	유만식
관리부	우윤석	박판수
홍보부	김연수	이수근
경조부	정남순	이요섭
봉사부	김중호	곽영란
재정부	박순영	김현수
신입교우부	김옥순	한양숙

1995년 회장: 김종훈 서기: 김연수

제직 부서	부 장	총 무
예배부	송광수	한민구
교육부	김연수	임봉섭
전도부	송광수	남홍우
선교부	김현수	공창일
친교부	이수일	박명호
구제부	김효삼	이수근
관리부	이득배	강수형
출판부	이수일	김윤태
경조부	정남순	박판수
봉사부	김중호	한양숙
재정부	박순영	김문호
신입교우부	김옥순	방영희

1996년 회장: 김종훈 서기: 김연수

제직 부서	부 장	총 무
예배부	우윤석	공창일
교육부	김연수	이홍구
전도부	송광수	임봉섭
선교부	김문호	이수근
친교부	이수일	박명호
구제부	이백우	한양숙
관리부	이득배	강수형
방송출판부	이수일	최운규
경조부	정남순	이요섭
봉사부	김현수	김용신
재정부	박순영	한민구
신입교우부	김옥순	방영희

1997년 회장: 김종훈 서기: 김현수

제직 부서	부 장	총 무
예배부	우윤석	임봉섭
교육부	김연수	이흥구
전도부	윤희주	박명호
선교부	박순영	이수근
친교부	이수일	이영수
구제부	이백우	한양숙
방송관리부	이득배	한상근
차량부	함영호	김준태
출판부	이수일	김숙자
경조부	정남순	남홍우
봉사부	김현수	임계순
재정부	송광수	한민구/김문호
신입교우부	김옥순	방영희

1998년 회장: 김종훈 서기: 김현수

제직 부서	부 장	총 무
예배부	윤희주	김문호
교육부	김연수	한민구
전도부	김관하	임명순
선교부	김현수	이수근
친교부	이영수	정수영
구제부	이백우	한양숙
방송관리부	이득배	한상근
차량부	함영호	강수형
출판부	이수일	김숙자
경조부	정남순	주정은
봉사부	남홍우	방영희
재정부	송광수	유학준/박명호
신입교우부	김옥순	김영자

1999년 회장: 김종훈 서기: 이득배

제직 부서	부 장	총 무
예배부	송광수	한기하
교육부	윤희주	한민구
전도부	한대영	방영희
선교부	김현수	곽영란
친교부	이수일	이민우
구제부	남홍우	한양숙
방송관리부	이득배	한상근
차량부	함영호	지재홍
출판부	김관하	이포영
경조부	정남순	주정은
봉사부	김종호	정태인
재정부	김연수	유학준/박명호
새가족부	김옥순	김영자

2000년 회장: 김종훈 서기: 이득배

제직 부서	부 장	총 무
예배부	송광수	한기하
교육부	윤희주	한민구
전도부	한대영	방영희
선교부	김현수	곽영란
친교부	이수일	이민우
구제부	남홍우	한양숙
방송관리부	이득배	한상근
차량부	송광수	지재홍
출판부	김관하	이주익
경조부	김은숙	원건재
봉사부	김종호	이포영
재정부	김연수	유학준/박명호/이영수
새가족부	김옥순	김영자

2001년 회장: 김종훈 서기: 이수일

제작 부서	부 장	총 무
예배부	송광수	한기하
교육부	윤희주	한민구
전도부	한대영	방영희
선교부	김현수	곽영란
친교부	이수일	이민우
구제부	남홍우	한양숙
방송관리부	이득배	한상근
차량부	송광수	지재홍
출판부	김관하	이주익
경조부	김은숙	원건재
봉사부	김종호	이포영
재정부	김연수	유학준/박명호/이영수
새가족부	김옥순	김영자

2002년 회장: 김종훈 서기: 이수일

제작 부서	부 장	총 무
예배부	김현수	김용훈
교육부	김연수	한민구
전도부	송광수	김광운
드라마 사역부	남홍우	채경숙
선교부	한대영	곽영란
찬양 사역부	윤희주	박인호
친교부	이수일	이민우
구제부	김종호	한양숙
방송관리부	한상근	방영희
차량부	지재홍	정건수
사진출판부	김관하	이주익
경조부	박선동	원건재
봉사부	한기하	이영희

재정부	박순영	유학준/박명호/이영수
새가족부	김옥순	김영자

2003년 회장: 김종훈 서기: 김종호

제작 부서	부 장	총 무
예배부	옥치진	노영실
교육부	송광수	홍길자
전도부	김종호	곽영란
드라마 사역부	박순영	원건재
선교부	윤희주	박인호
찬양 사역부	김현수	손상근
친교부	한기하	이민우
사회구제부	박선동	한양숙
방송관리부	한상근	양동안
차량부	이수일	백낙환
홍보출판부	김연수	이주익
경조부	남홍우	이영희
봉사부	지재홍	방영희/정건수
재정부	한대영	유학준/박명호/이영수
새가족부	김옥순	김은숙/라은숙

2004년 회장: 김종훈 서기: 김종호

제작 부서	부 장	총 무
예배부	옥치진	노영실
교육부	송광수	홍길자
전도부	김연수	곽영란/원건재
드라마 사역부	박순영	박명호
선교부	윤희주	박인호
찬양 사역부	김현수	손상근
친교부	한기하	이민우
사회구제부	박선동	한양숙

방송부	한상근	이범순
관리부	한민구	백낙환
차량부	지재홍	정진수
홍보출판부	이주익	양동안
경조부	남홍우	이영희
봉사부	김중호	정수영/방영희
재정부	한대영	유학준
새가족부	김옥순	김은숙/라은숙

2005년 회장: 김종훈 서기: 한기하

위원회	제작 부서	부 장	총 무
예배위원회 (위원장: 송광수)	예배 사역부	송광수	정재수
	미화 사역부	홍길자	김영애
	중보기도 사역부	방영희	구숙자
교육위원회 (위원장: 김현수)	유치 사역부	이강희	
	유년 사역부	김용신	
	청소년 사역부	김용호	
	청년 사역부	한기하	
	장년교육 사역부	김현수	장용곤
	한글학교 사역부	정태인	강미혜
	태권도 사역부		사범: 김준행
	King's Kid 사역부	박명호	코치: 한송만
	도서 사역부		김근희
선교위원회 (위원장: 김연수)	전도 사역부	방영희	구숙자
	선교 사역부	김연수	손상근
	드라마 사역부	백낙환	양은숙
찬양위원회 (위원장: 한대영)	바나바 사역부	김옥순	김영자
	성가 사역부	한대영	신영필
사회사업위원회 (위원장: 박순영)	찬양팀 사역부	한대영	빅상우
	사회구제 사역부	박선동	남홍우
	병원/넬싱흙 사역부	임명순	이연지

	장학 사역부	원건재	조태성
	커뮤니티 사역부	박순영	이영희
재정위원회 (위원장: 윤희주)	재정 사역부	윤희주	

(6개 위원회, 23개 사역부)

2006년 회장: 김종훈 서기: 지재홍

위원회	제작 부서	부 장	총 무
예배위원회 (위원장: 송광수)	예배 사역부	송광수	정재수
	미화 사역부	홍길자	김영애
	중보기도 사역부	방영희	구숙자
	방송 사역부	한상근	강윤기
	테이프 사역부	김진규	
교육위원회 (위원장: 김현수)	사진촬영 사역부		김미향
	유치 사역부		한미선
	유년 사역부	김용신	
	청소년 사역부	김용호	
	청년 사역부	정수영	
	장년교육 사역부	백낙환	장용곤
	토요학교 사역부	SD: 박에스터	
		PD: 정태인	
	Mommy & Me 사역부	디렉터: 조유경 AD: 박에스터	사범: 김준행
선교위원회 (위원장: 김연수)	King's Kid 사역부	신영필	코치: 김정호
	국내전도 사역부	방영희	구숙자
	세계선교 사역부	김연수	손상근
	드라마 사역부	백낙환	양은숙
	인터넷 사역부	권철훈	한만강
찬양위원회	출판 사역부	이주익	김태영
	바나바 사역부	김옥순	조태성
	글로벌리아(1부 예배)	한대영	

(위원장: 한대영)	할렐루야(2부 예배)	한대영	정수영
	예일찬양단	한대영	빅상우
사회사업위원회 (위원회: 박순영)	구제공홀 사역부	김춘경	이연지
	커뮤니티 사역부	박순영	이영희
	Silver Club	담당 교역자: 김윤배 목사	
관리위원회 (위원장: 옥치진)	교회관리 사역부	김종호	강수형
	정원관리 사역부	이혜원	이동흙
	교회버스운영 사역부	김영길	지장유
	주차장관리 사역부	정건수	이송희
봉사위원회 (위원장: 한기하)	식당운영 사역부	노영실	김필중
	친교 사역부	손상근	박재우
	봉사 사역부	이영희	박춘희
	경조 사역부	한민구	
	의료 사역부	김창환	권미자
재정위원회 (위원장: 윤희주)	재정 사역부	윤희주	

(8개 위원회, 37개 사역부)

2007년 회장: 김종훈 서기: 유학준

위원회	제직 부서	부 장	총 무
예배위원회 (위원장: 윤희주)	예배 사역부	유학준	정재수
	미화 사역부	홍길자	홍선영
	중보기도 사역부	방영희	차은경
	방송 사역부	한상근	강윤기
교육위원회 (위원장: 한기하)	유치 사역부	한미선	
	유년 사역부	김용신	
	청소년 사역부	김용호	
	청년 사역부	정수영	
	장년교육 사역부	곽영란	송용곤
	도서관리 사역부	강혜옥	윤미숙

	King's Kid 사역부	신영필	코치: 김정호
선교위원회 (위원장: 오현섭)	국내전도 사역부	이영희	김태수
	세계선교 사역부	김연수	이영수
	드라마 사역부	신동근	양은숙
	인터넷 사역부	권철훈	한만강
	출판 사역부	박인호	박성우
	바나바 사역부	김옥순	조태성
찬양위원회 (위원장: 송광수)	글로리아(1부 예배)	송광수	권미자
	할렐루야(2부 예배)	송광수	이주익
	예일찬양단	송광수	김영자
사회사업위원회 (위원장: 김춘경)	구제공홀 사역부	손상근	
	커뮤니티 사역부	이근만	
	Silver Club	담당 교역자: 김윤배 목사	
	Mommy & Me 사역부	디렉터: 조유경 AD: 박에스터	
	토요학교 사역부	SD: 박에스터 PD: 정태인	
관리위원회 (위원장: 옥치진)	교회관리 사역부	김종호	강수형
	정원관리 사역부	이혜원	이동흙
봉사위원회 (위원장: 한대영)	식당운영 사역부	노영실	김필중
	친교 사역부	정수영	박재우
	봉사 사역부	구숙자	이연희
	경조 사역부	한민구	
재정위원회 (위원장: 김현수)	의료 사역부	권미자	
	재정 사역부	김현수	
차량위원회 (위원장: 조종희)	교회버스운영 사역부	김영길	지장유
	주차장관리 사역부	정건수	이종희

(9개 위원회, 35개 사역부)

2008년 회장: 김종훈 서기: 남홍우

위원회	제직 부서	부 장	총 무
예배위원회 (위원장: 유학준)	예배 사역부	한민구	정재수
	미화 사역부	이영희	홍선영
	중보기도 사역부	김옥순	차은경
	방송 사역부	한상근	정재도
교육위원회 (위원장: 송광수)	유치 사역부	이연선	
	유년 사역부	김용신	
	중등부 사역부	김용호	
	고등부 사역부	계현민	
	청년 사역부	정수영	
	장년교육 사역부	곽영란	송용근
	도서관리 사역부	강혜옥	윤미숙
	King's Kid 사역부	신영필	코치: 김정호
선교위원회 (위원장: 조종희)	국내전도 사역부	방영희	김태수
	세계선교 사역부	디렉터: 김연수	지재홍
	드라마 사역부	남홍우	양은숙
	인터넷 사역부	권철훈	이주익
	출판 사역부	한만강	박성우
	바나바 사역부	조태성	홍재익
찬양위원회 (위원장: 윤희주)	글로리아(2부 예배)	윤희주	권미자
	할렐루야(3부 예배)	윤희주	정수영
	예일찬양단	지도: 김윤배	김영자
	예일관악단	신동근	이인화
사회사업위원회 (위원장: 오현섭)	구제궁홀 사역부	이근만	장봉용
	커뮤니티 사역부	홍길자	이윤미
	Silver Club	담당 교역자: 김윤배 목사	원건재
	Mommy & Me 사역부	디렉터: 조유경 AD: 박에스터	
	토요학교 사역부	SD: 박에스터 PD: 정태인	
	관리위원회 (위원장: 옥치진)	교회관리 사역부	김종호
	정원관리 사역부	이범순	

	전기 사역부	지재환	
	배관 사역부	정병우	
	냉난방 사역부	강수형	
봉사위원회 (위원장: 김현수)	식당운영 사역부	노영실	이재덕
	친교 사역부	이영수	박재우
	봉사 사역부	김필중	이포영/김광남
	의료 사역부	권미자	강성식
	재정위원회 (위원장: 한기하)	재정 사역부	한기하
차량위원회 (위원장: 한대영)	교회버스운영 사역부	김영길	지장유
	주차장관리 사역부	정진수	이송희

(9개 위원회, 39개 사역부)

2009년 회장: 김종훈 서기: 한상근

위원회	제직 부서	부 장	총 무
예배위원회 (위원장: 오현섭)	예배 사역부	김영길	정재수
	미화 사역부	이영희	김영애
	중보기도 사역부	차은경	박지혜
	방송 사역부	한상근	홍재익
	미디어 사역부	권철훈	
	서무 사역부	한민구	
	유치 사역부	정경숙	
교육위원회 (위원장: 한대영)	유년 사역부	김경옥	
	중등부 사역부	김용호	
	고등부 사역부	계현민	
	청년 사역부	정수영	
	장년교육 사역부	곽영란	한은희
	도서관리 사역부	강혜옥	김영모
	글로리아(2부 예배)	한기하	김동환
찬양위원회 (위원장: 한기하)	할렐루야(3부 예배)	한기하	조태성
	예일찬양단	지도: 김인선	김영자

선교위원회 (위원장: 김현수)	예일관악단	단장: 정건수	이인화
	크로마하프단	권미자	최정희
	남성중창단	지휘: 박성하	권철훈
	여성중창단	지휘: 임정현	장정숙
	바디워십	김효미	김연신
	국내선교 사역부	임병설	
	세계선교 사역부	지재홍	서병구
	드라마 사역부	남홍우	최 훈
	출판 사역부	신동근	박성우
	사진 사역부	김태수	정재도
	바나바 사역부	방영희	김광남
	교회관리 사역부	김종호	백낙환
관리위원회 (위원장: 송광수)	전기 사역부	지재환	
	배관 사역부	정병우	
	냉난방 사역부	강수형	
차량위원회 (위원장: 유학준)	교회버스운영 사역부	정수영	지장유
	주차장관리 사역부	신영필	이송희
사회사업위원회 (위원장: 조종희)	구제공활 사역부	이근만	장철환
	커뮤니티 사역부	홍길자	이윤미
	Silver Club	담당 교역자: 김인선 목사	
	Mommy & Me 사역부	디렉터: 조유경 AD: 박에스터	
	토요학교 사역부	SD: 박에스터 PD: 정태인	정정숙
YMCA위원회 (위원장: 윤희주)	Yale Christian Academy	디렉터: 강혜숙	
	식당운영 사역부	노영실	이재덕
	친교 사역부	이영수	박재우
	행사 사역부	이주익	김정호
	의료 사역부	권미자	강성식
봉사위원회 (위원장: 윤희주)	체육 사역부	정건수	장봉용
	재정위원회 (위원장: 옥치진)	재정 사역부	옥치진
	EM위원회 (위원장: 한대영)	EM 사역부	한대영

(10개 위원회, 46개 사역부)

2010년 회장: 김종훈 서기: 한상근

위원회	제직 부서	부 장	총 무
예배위원회 (위원장: 송광수)	예배 사역부	이주익	정재수
	미화 사역부	오분례	김영애
	중보기도 사역부	이영희	차은경
	방송 사역부	한상근	홍재익
교육위원회 (위원장: 한기하)	미디어 사역부	권철훈	윤강현
	유치 사역부	정경숙	
	유년 사역부	김경옥	
	중등 사역부	김선태	
	고등 사역부	계현민	
	장년교육 사역부	한민구	정태인
	도서관리 사역부	강혜옥	김영모
	글로벌리아(2부 예배)	김현수	오성섭
	할렐루야(3부 예배)	김현수	박재우
	예일찬양단	지도: 김인선	김영자
찬양위원회 (위원장: 김현수)	예일관악단	단장: 이인화	
	크로마하프단	권미자	최정희
	남성중창단	지휘: 박성하	권철훈
	여성중창단	지휘: 임정현	장정숙
	바디워십	김연신	정경숙
	국내선교 사역부	조태성	김광남
	세계선교 사역부	지재홍	서병구
선교위원회 (위원장: 윤희주)	바나바 사역부	방영희	박용훈
	드라마 사역부	임병설	최 훈
	출판 사역부	박성우	강호정
	사진 사역부	김태수	정재도
홍보위원회 (위원장: 김준택)	건물관리 사역부	강수형	홍순천
	비품관리 사역부	지장유	김종수
	정원관리 사역부	김종호	김성식
관리위원회 (위원장: 한대영)	교회버스운영 사역부	정수영	김두성
차량위원회			

(위원장: 오현섭)	주차장관리 사역부	신영필	이송희
구제경조위원회	구제 사역부	이인화	김광운
(위원장: 김창성)	경조 사역부	권영신	장철환
지역봉사위원회 (위원장: 한정원)	커뮤니티 사역부	이근만	이재덕
	Silver Club	디렉터: 김인선	장관우
	Mommy & Me 사역부	디렉터: 조유경 AD: 박에스터	
	토요학교 사역부	디렉터: 홍정자	정정숙
교회봉사위원회 (위원장: 조종희)	Yale Christian Academy	디렉터: 강혜숙	
	주방운영 사역부	최정희	이영선
	친교 사역부	정진수	김창옥
	행사기획 사역부	김영길	김정업
재정위원회 (위원장: 유학준)	의료 사역부	권미자	강성식
	재정 사역부	유학준	
차세대위원회 (위원장: 옥치진)	청년 사역부	정수영	김경민
	EM 사역부	김용호	

(12개 위원회, 44개 사역부)

2011년 회장: 김종훈 서기: 이영수

위원회	제직 부서	부 장	총 무
예배위원회 (위원장: 한기하)	예배 사역부	김영길	정재수
	미화 사역부	오분례	김영애
	중보기도 사역부	이영희	차은경
	방송 사역부	한상근	홍재억
교육위원회 (위원장: 오현섭)	영아 사역부	한진영	
	유치 사역부	정경숙	
	유년 사역부	김경옥	
	중등 사역부	이태호	
	고등 사역부	계현민	
찬양위원회 (위원장: 윤희주)	글로리아(2부 예배)	윤희주	최형석
	할렐루야(3부 예배)	윤희주	권철훈

전도위원회 (위원장: 김준택)	예일찬양단	단장: 박성우	김영자
	예일관악단	단장: 이인화	정진수
	크로마하프단	권미자	오연숙
	남성중창단	지휘: 박성하	정재남
	여성중창단	지휘: 임정현	김연희
양육위원회 (위원장: 조종희)	전도 사역부	조태성	김영숙
	드라마 사역부	임병설	최 훈
	바다위십 사역부	김경옥	김연신
	바나바 사역부	방영희	박용훈
홍보출판위원회 (위원장: 정수영)	제자훈련 사역부	윤용근	정태인
	내적치유 사역부	김종수	최형석
	도서 사역부	강혜옥	김영모
	출판 사역부	박성우	강호정
관리위원회 (위원장: 한대영)	사진 사역부	지장유	정재도
	미디어 사역부	권철훈	윤강현
	건물관리 사역부	강수형	홍순천
차량위원회 (위원장: 김현수)	비품관리 사역부	서병구	김광남
	정원관리 사역부	김태수	김성식
	교회버스운영 사역부	신영필	권영신
친교위원회 (위원장: 지재홍)	주차장관리 사역부	이인화	이송희
	이벤트 사역부	장철환	김동환
봉사위원회 (위원장: 유학준)	동호회 사역부	김창옥	조영철
	주방운영 사역부	이영선	김경숙
커뮤니티위원회 (위원장: 한정원)	의료 사역부	권미자	강성식
	커뮤니티 사역부	이근만	이재덕
	Silver Club	디렉터: 박성하	장관우
	Mommy & Me 사역부	디렉터: 조유경 AD: 박에스터	
	토요학교 사역부	디렉터: 박에스터 AD: 김경민	정정숙
선교위원회 (위원장: 이주익)	Yale Christian Academy	디렉터: 강혜숙	박은선
	선교비발송 사역부	박재우	최정희
	단기선교 사역부	정진수	한수연

재정위원회 (위원장: 송광수)	재정 사역부	송광수	
청년 사역부 (지도: 강세훈)	청년 사역부	정수영	김보연
EM 사역부 (지도: 안예중)	EM 사역부	김용호	강혜숙

(15개 위원회, 45개 사역부)

2012년 회장: 김종훈 서기: 김영길

위원회	제직 부서	부 장	총 무
예배위원회 (위원장: 김현수)	예배 사역부	정재수	신영필
	미화 사역부	오분례	김영애
	중보기도 사역부	이영희	이수정
	방송 사역부	신동인	홍재익
교육위원회 (위원장: 송광수)	영아 사역부	오연숙	
	유치 사역부	정경숙	
	유년 사역부	김경옥	
	중등 사역부	이태호	
	고등 사역부	계현민	
	장년교육 사역부	김종수	정태인
찬양위원회 (위원장: 유학준)	글로리아(2부 예배)	유학준	김광남
	할렐루야(3부 예배)	유학준	이근만
	예일찬양단	단장: 박성우	김희경
	예일관악단	단장: 이인화	정건수
	크로마하프단	권미자	오연숙
	남성중창단	지휘: 김인철	이근만
	여성중창단	지휘: 임정현	김연희
전도위원회 (위원장: 조종희)	노방전도 사역부	이태호	김필중
	새생명전도 사역부	심도현	차은경
양육위원회 (위원장: 한정원)	바나바 사역부	방영희	최형석
	도서 사역부	김미라	김영모

홍보출판위원회 (위원장: 오현섭)	출판 사역부	박성우	강호정
	사진 사역부	지장유	정재도
	미디어 사역부	권철훈	최길옥
관리위원회 (위원장: 지재홍)	건물관리 사역부	강수형	홍순천
	비품관리 사역부	김영길	김광남
	정원관리 사역부	김태수	김성식
차량위원회 (위원장: 이주익)	교회버스운영 사역부	권영신	서병구
	주차장관리 사역부	이인화	이송희
행사위원회 (위원장: 정수영)	친교 사역부	정건수	최병철
	드라마 사역부	임병설	최 훈
	바다위십 사역부	김경옥	김연신
봉사위원회 (위원장: 한기하)	주방운영 사역부	이영선	김경숙
	의료 사역부	이종서	강성식
커뮤니티위원회 (위원장: 김준택)	커뮤니티 사역부	이근만	이재덕
	Silver Club	디렉터: 강세훈	장관우
	Mommy & Me 사역부	디렉터: 조유경 AD: 박에스티	
	뉴욕예일한국학교	디렉터: 박에스티	정정숙
선교위원회 (위원장: 윤희주)	Yale Christian Academy	디렉터: 강혜숙	
	선교비발송 사역부	한상근	박용훈
	단기선교 사역부	박재우	한수연
재정위원회 (위원장: 한대영)	재정 사역부	한대영	
청년 사역부 (지도: 강세훈)	청년 사역부	정수영	강민석
EM 사역부 (지도: 안예중)	EM 사역부	김용호	강혜숙

(15개 위원회, 44개 사역부)



3. 교회학교 및 한글학교

1993년

교장	김종훈 목사	
유초등부	교역자	조유경 전도사
	교사	김양옥 김원태 김성덕 김진옥
중고등부	교역자	조유경 전도사
	교사	손희선 천일웅
청년부	교역자	김종훈 목사

1994년

교장	김종훈 목사	
유치부	교역자	김형석 전도사
	교사	김진옥
유초등부	교역자	김형석 전도사
	교사	김양옥 김원태 김성덕 이희영

중고등부	교역자	조유경 사모
	교사	김혜주 손희선 천일웅
청년부	교역자	김종훈 목사

1995년

교장	김종훈 목사	
유치부	교역자	김형석 전도사
	교사	김성원
	보조교사	강미혜
유초등부	교역자	김형석 전도사
	교사	김양옥 김성덕 조길순
중고등부	교역자	안종설 전도사
	교사	손희선 계현민
청년부	교역자	이수일 집사

1996년

교장	김종훈 목사	
유년주일학교	교역자	김형석 전도사
	교사	조길순 김성원 김성덕
중고등부	교역자	안종설 전도사
	교사	계현민 손희선 최윤선
청년부	교역자	이덕재 전도사

1997년

교장	김종훈 목사	
유년주일학교	교역자	이덕재 전도사
	부장	김용신
중고등부	교사	김선태 김성원 김양옥
	교역자	안종설 전도사

청년부	교사	계현민 손희선 최윤선
	교역자	이덕재 전도사
한글학교	교사	이남옥 이수일 이흥구 조길순

1998년

교장	김종훈 목사	
유년주일학교	교역자	한순규 전도사
	부장	김용신
	교사	김선태 김성원 김양옥 이윤선 한정희
중고등부	교역자	안종설 전도사
	교사	계현민 손희선 최윤선
청년부	교역자	김용일 목사
한글학교	교사	이수일 김태형 옥현정 옥유진 장혜원

1999년

교장	김종훈 목사	
유년주일학교	교역자	한순규 전도사
	부장	김용신
	교사	김양옥 김성원 장혜원 이윤선
	보조교사	김보경 송세라
중고등부	교역자	안종설 전도사
	교사	계현민 손희선 최윤선 박수선
청년부	교역자	변창욱 목사
한글학교	교사	김숙자 김 영 옥현정 이수일 정은숙 정태인

2000년

교장	김종훈 목사	
유년주일학교	교역자	한순규 전도사
	부장	김용신

	교사	정은숙 장혜원 김선태 이강희 이윤선 김보경 한연정
	보조교사	류희선
중고등부	교역자	안종설 전도사
	교사	계현민 손희선 최윤선
청년부	교역자	변창욱 목사
한글학교	교역자	한순규 전도사
	교사	김숙자 김 영 옥현정 이수일 정은숙 정태인

2001년

교장	김종훈 목사	
유치부	교역자	변창욱 목사
	교사	김사무엘 김정훈 김 영 박성자 박지영
유년주일학교	교역자	한순규 전도사
	부장	김용신
	교사	김선태 김보경 이강희 이윤선 장혜원 조길순 한송희 한연정
중고등부	교역자	안종설 전도사 정은숙 전도사
	교사	계현민 손희선 최윤선
청년부	교역자	변창욱 목사
한글학교	교역자	한순규 전도사
	교사	강미혜 김경미 김 영 주정은 정태인

2002년

교장	김종훈 목사	
유치부	교역자	변창욱 목사
	부장	김 영
	교사	옥현정 이강희 홍현숙
	반주	이재욱
유년주일학교	교역자	한순규 전도사

중고등부	부장	김용신
	교사	조길순 김보경 김선태 한미선 한송만 한송희
	반주	한운선
	보조교사	이방실 이호병
	교역자	정은숙 전도사
	교사	계현민 김태영 장혜원
	보조교사	박영옥 이성진
청년부	교역자	변창욱 목사
한글학교	교감	이수일
	교무	정태인
	교사	강미혜 강현아 우해숙 최지선

2003년

교장	김종훈 목사	
유치부	교역자	조유경 사모
	부장	이강희
	교사	박선애 옥현정 이유신 홍현숙
	반주	이재옥
	회계	주지혜
유년주일학교	교역자	한순균 전도사
	부장	김용신
	교사	이호병 한송만 권규희 김보경 한미선 한연정
중고등부	반주	한운선
	보조교사	이성진
	교역자	정은숙 전도사
	교사	계현민 김선태 김태영 장혜원
	보조교사	박영옥 유명근

청년부	교역자	김운배 목사
한글학교	교감	이수일
	교무	정태인
	교사	박영대 강미혜 김은숙 박현정 안미미 우해숙 윤미숙
	보조교사	이재옥

2004년

교장	김종훈 목사	
유치부	교역자	조유경 사모
	부장	이강희
	교사	박선애 옥현정 이유신 이운선 홍현숙
유년부	교역자	조유경 사모
	부장	김용신
	교사	권규희 김보경 이성진 이호병 한미선 한연정
AWANA	반주	한연정
	교역자	조유경 사모
	부장	김용신
중고등부	교사	박영옥 이성진 이호병 임명석
	교역자	한순균 전도사 정은숙 전도사
	교사	계현민 김민경 김용호 김태영 장혜원
청년부	보조교사	박영옥 유명근
	교역자	김운배 목사
	교장	김종훈 목사
한글학교	교감	송광수
	교무	정태인
	교사	강미혜 우해숙 윤미숙 주지혜 최상희 하덕순

2005년

교장	김종훈 목사	
유치부	교역자	조유경 사모
	부장	이강희
유년부	교사	박선애 옥현정 이유신 최광희
	보조교사	박혜원 오산나 조계형 지은혜
	교역자	박에스터 전도사
	부장	김용신
AWANA	교사	권규희 김보경 박영준 이성진 한미선
	보조교사	장 준
	교역자	박에스터 전도사
	부장	김용신
중고등부	교사	박영옥 이성진 임명석
	교역자	정은숙 전도사
	부장	김용호
	교사	계현민 김민경 김태영 유명근 장혜원
청년부	보조교사	김경철 박영옥
	교역자	김윤배 목사
한글학교	부장	한기하
	교장	김종훈 목사
	교감	김현수
	교무	정태인
	교사	강미혜 윤미숙 최상희 하덕순 안미미 이셋별 박성우 장관우 최성아

2006년

교장	김종훈 목사	
----	--------	--

유치부	교역자	조유경 사모
	부장	한미선
	교사	박선애 김정민 오산나 옥현정
유년부	보조교사	조계형 나현아
	교역자	박에스터 전도사
AWANA	부장	김용신
	교사	이규희 김진성 박영준 장 준 조은희
	교역자	박에스터 전도사
중고등부	부장	김용신
	교사	박영옥
	교역자	정은숙 전도사
	부장	김용호
청년부	교사	계현민 김민경 김태영 장혜원 김선태 구본원
	보조교사	김경철 박영옥 임명석
	교역자	김윤배 목사
토요학교	부장	정수영
	교장	김종훈 목사
	교감	김현수
	부장	박에스터 전도사(Spiritual Director) 정태인(Program Director)

2007년

교장	김종훈 목사	
유치부	교역자	김송기 전도사
	부장	한미선
	교사	박선애 옥현정 오산나 나현아 지은혜 이강희 이연선 옥여진 정경숙 정수미란

유년부	교역자	박에스터 전도사
	부장	김용신
	교사	이규희 김진성 박영준 장 준 조은희 이호병 박혜원 윤미숙
AWANA	교역자	박에스터 전도사
	부장	김용신
	교사	박영준 김진성 임명석
중고등부	교역자	정은숙 전도사
	부장	김용호
	교사	계현민 김선태 구본원 서현숙 한웅석 김경철
	보조교사	임명석 정준원
청년부	교역자	김윤배 목사
	부장	정수영
디딤돌	교역자	김연수 목사
예일한국학교	교장	김종훈 목사
	교감	한기하
	부장	박에스터 전도사(Spiritual Director) 정태인(Program Director)

2008년

교장	김종훈 목사	
유치부	교역자	김송기 전도사
	부장	이연선
	교사	한미선 이강희 박선애 오산나 지은혜 나현아 정경숙 정수미란
유년부	교역자	박에스터 전도사
	부장	김용신
	교사	이규희 김진성 박영준 조은희 이호병 박혜원 윤미숙
AWANA	교역자	박에스터 전도사

	부장	김용신
	교사	박영준 김진성
중등부	교역자	유명근 전도사
	부장	김용호
	교사	서현숙 구본원 김경철 한송만 강성식
고등부	교역자	정은숙 전도사
	부장	계현민
	교사	김선태 신유선
	토요모임	이범순(자원봉사자)
청년부	교역자	김윤배 목사
	부장	정수영
예일한국학교	교장	김종훈 목사
	교감	오현섭
	부장	박에스터 전도사(Spiritual Director) 정태인(Program Director)

2009년

교장	김종훈 목사	
유치부	교역자	김송기 전도사
	부장	정경숙
	교사	박은선 한정희 정수미란 나현아 지은혜 한미선 김경미
유년부	교역자	박에스터 전도사
	부장	김경옥
	교사	조은희 이규희 김진성 김성은 이호병 정태규
AWANA	교역자	박에스터 전도사
	부장	김경옥
중등부	교역자	유명근 전도사

고등부	부장	김용호
	교사	구본원 신유선 김승아
	교역자	김성국 전도사
	부장	계현민
청년부	교사	김선태 강성식 한송만 김경훈
	토요모임	김건아(운전봉사자)
	교역자	김인선 목사
영어예배	부장	정수영
	교역자	김재영 전도사
예일한국학교	교장	김종훈 목사
	교감	조종희
	부장	박에스터 전도사(Spiritual Director) 홍정자 목사(Program Director)

2010년

교장	김종훈 목사	
유치부	교역자	김송기 전도사
	부장	정경숙
	교사	한미선 나현아 정수미란 한정희 박은선 김문차 서주옥 오연숙
유년부	교역자	박에스터 전도사
	부장	김경옥
	교사	김성은 김진성 김정업 이왕근 배제미 최상희
AWANA	보조교사	김경민 박수라 전애진 최원섭
	교역자	박에스터 전도사
	부장	김경옥
중등부	교역자	유명근 전도사
	부장	김선태

고등부	교사	이태호 최길옥 김승아 정다운
	교역자	김성국 전도사
	부장	계현민
	교사	김경훈 한송만 강성식 박성아 윤강현 김은숙
청년부	토요모임	김건아(운전봉사자)
	교역자	김인선 목사
	부장	정수영
영어예배	교역자	김재영 전도사
	부장	김용호
예일한국학교	교장	김종훈 목사
	교감	한정원
	지도	홍정자 목사
	총무	정정숙
	교사	김선아 김경옥 김동환 김현주 나현아 박수라 이정은 전복희
		전애진 한진영

2011년

교장	김종훈 목사	
영아부	교역자	홍정자 목사
	부장	한진영
	교사	김지애
유치부	교역자	김송기 전도사
	부장	정경숙
	교사	한미선 나현아 정수미란 박은선 김문차 서주옥 오연숙 한규만
유년부	교역자	김주양
	부장	박에스터 전도사 김경옥

AWANA	교사	김진성 김정업 배제미 최상희 이호병 이창원
	보조교사	김경민 박수라 전애진 최원섭 박봉규 신정민
	교역자	박에스터 전도사
중등부	부장	김경옥
	교역자	김성국 전도사
	부장	이태호
고등부	교사	최길옥 박영준 김은숙 이화정 김승아
	교역자	정은숙 전도사
	부장	계현민
청년부	교사	김경훈 한송만 강성식 윤강현 최수진 정태규
	토요모임	김건아/한규만(운전봉사자)
	교역자	강세훈 전도사
영어예배	부장	정수영
	교역자	안예종 목사
	부장	김용호
예일한국학교	총무	강혜숙
	교장	김종훈 목사
	교감	한정원
	지도	박에스터 전도사
	총무	정정숙
	총무보조	김경민
	교사	김현주 나현아 한진영 한미선 방주영 권예나 최경희 이진옥 김보연 김진아 홍주희 김은영 정명철

2012년

교장	김종훈 목사	
영아부	교역자	홍정자 목사

유치부	부장	오연숙
	교사	김지애 나현아 박은혜
	교역자	김송기 전도사
유년부	부장	정경숙
	교사	한미선 정수미란 김문차 이정은 서주옥 한규만 김주양 한진영 하진실
	교역자	박에스터 전도사
AWANA	부장	김경옥
	교사	김진성 배제미 최상희 이창원 홍주희 전애진 최스테파니 박영준
	보조교사	김경민 박수라 전애진 최원섭 박봉규 신정민 박용훈
중등부	교역자	박에스터 전도사
	부장	김경옥
	교사	권은지
고등부	교역자	이혜은 전도사
	부장	이태호
	교사	최길옥 이화정 김승아 김정업 임미라 김명희
청년부	토요모임	강호정(운전봉사자)
	교역자	정은숙 전도사
	부장	계현민
영어예배	교사	김경훈 강성식 서현숙 김승아 홍지연 구한나
	토요모임	김건아/한규만(운전봉사자)
	교역자	강세훈 목사
영아부	부장	정수영
	교역자	안예종 목사
	부장	김용호

예일한국학교	총무	강혜숙
	교장	김종훈 목사
	교감	김준택
	지도	박에스터 전도사
	총무	정정숙
	총무보조	김경민
	교사	김현주 나현아 한진영 한미선 최경희 이진옥 김보연 홍주희 하진실 하성실 이재은 박지현



4. 교구 및 구역 변천사

1993년(구역)

구역	구역장	부구역장
제1구역	박관수 집사	노청순 집사
제2구역	우윤석 집사	차정희 집사
제3구역	김옥순 집사	임명순 집사
제4구역	곽영란 집사	김영자 집사
제5구역	이영주 집사	장정숙 집사
제6구역	김문호 집사	김미라 집사

1994년(구역)

구역	구역장	부구역장
제1구역	박관수 집사	김종호 집사
제2구역	우윤석 집사	차정희 집사
제3구역	김옥순 집사	김용신 집사
제4구역	임명순 집사	김영숙 집사

제5구역	곽영란 집사	김영자 집사
제6구역	한민구 집사	김진이 집사
제7구역	김문호 집사	이흥구 집사

1995년(다락방)

다락방	순 장	총 무
마가 다락방	박순영 장로	김종호 집사
믿음 다락방	한양숙 집사	노청순 집사
노아 다락방	우윤석 집사	강수형 집사
충성 다락방	임명순 집사	이유화 집사
요한 다락방	김연수 집사	이득배 집사
샬롬 다락방	김옥순 집사	임계순 집사
요셉 다락방	김현수 집사	임봉섭 집사
온유 다락방	곽영란 권사	이포영 집사
스데반 다락방	송광수 장로	한민구 집사
은혜 다락방	방영희 권사	김진이 집사
아가페 다락방	지도: 김종훈 목사	
청년회 다락방	지도: 이수일 집사	

1996년(다락방)

다락방	순 장	총 무
마가 다락방	박순영 장로	김종호 집사
믿음 다락방	한양숙 집사	노청순 집사
노아 다락방	우윤석 집사	강수형 집사
충성 다락방	임명순 집사	이유화 집사
요한 다락방	김연수 집사	한상근 집사
샬롬 다락방	김옥순 집사	김영숙 집사
요셉 다락방	김현수 집사	임봉섭 집사
온유 다락방	곽영란 권사	이포영 집사
스데반 다락방	이수일 집사	이득배 집사
은혜 다락방	조유경 사모	임계순 집사

아가페 다락방	지도: 김종훈 목사	
---------	------------	--

1997년(구역)

구 역	구역장	총 무
마가 구역	박순영 장로	김종호 집사
충성 구역	한양숙 집사	이유화 집사
요한 구역	김연수 집사	한상근 집사
샬롬 구역	김옥순 권사	김영숙 집사
요셉 구역	김현수 집사	임봉섭 집사
온유 구역	곽영란 권사	이포영 집사
스데반 구역	이수일 집사	이득배 집사
은혜 구역	임명순 집사	임계순 집사

1998년(교구)

교 구	구 역	구역장	총 무
제1교구/교구장 김연수 집사	요한 구역	김연수 집사	한상근 집사
	샬롬 구역	김옥순 권사	김영숙 집사
제2교구/교구장 송광수 장로	요셉 구역	송광수 장로	이수일 집사
	온유 구역	임명순 집사	이포영 집사
제3교구/교구장 윤희주 장로	스데반 구역	윤희주 장로	이득배 집사
	은혜 구역	조유경 사모	임계순 집사
제4교구/교구장 박순영 장로	마가 구역	박순영 장로	김종호 집사
	충성 구역	주정은 집사	이유화 집사

1999년(교구)

교 구	구 역	구역장	총 무
제1교구/교구장 김연수 집사	요한 구역	김연수 집사	한상근 집사
	샬롬 구역	김옥순 권사	김영숙 집사
제2교구/교구장 송광수 장로	요셉 구역	송광수 장로	이수일 집사
	온유 구역	김은숙 권사	이포영 집사
제3교구/교구장	스데반 구역	윤희주 장로	이득배 집사

윤희주 장로	은혜 구역	조유경 사모	임계순 집사
제4교구/교구장	마가 구역	박순영 장로	김종호 집사
박순영 장로	충성 구역	주정은 집사	이유화 집사
제5교구/교구장	엘리아 구역	한대영 장로	한기하 집사
한대영 장로	사랑 구역	곽영란 권사	정태인 집사

2000년(교구)

교 구	구 역	구역장	총 무
제1교구/교구장	요한 구역	김연수 집사	한상근 집사
김연수 집사	샬롬 구역	김옥순 권사	김영숙 집사
제2교구/교구장	요셉 구역	이수일 집사	정수영 집사
송광수 장로	온유 구역	정태인 집사	한순자 집사
제3교구/교구장	다니엘 구역	김현수 집사	박성우 집사
김관하 장로	화평 구역	김영자 집사	김영애 집사
제4교구/교구장	스데반 구역	윤희주 장로	지재홍 집사
윤희주 장로	은혜 구역	조유경 사모	조길순 집사
제5교구/교구장	마가 구역	박순영 장로	김종호 집사
박순영 장로	충성 구역	임명순 집사	이유화 집사
제6교구/교구장	엘리아 구역	한대영 장로	한기하 집사
한대영 장로	사랑 구역	곽영란 권사	구숙자 집사

2001년(교구)

교 구	구 역	구역장	총 무
제1교구/교구장	요한 구역	김연수 집사	한상근 집사
김연수 집사	샬롬 구역	김옥순 권사	김영숙 집사
제2교구/교구장	요셉 구역	이수일 집사	정수영 집사
송광수 장로	온유 구역	정태인 집사	한순자 집사
제3교구/교구장	다니엘 구역	김현수 집사	박성우 집사
김관하 장로	화평 구역	김영자 집사	김영애 집사
제4교구/교구장	스데반 구역	윤희주 장로	지재홍 집사
윤희주 장로	은혜 구역	조유경 사모	조길순 집사

제5교구/교구장	마가 구역	박순영 장로	김종호 집사
박순영 장로	충성 구역	임명순 집사	이유화 집사
제6교구/교구장	엘리아 구역	한대영 장로	한기하 집사
한대영 장로	사랑 구역	곽영란 권사	박진희 집사

2002년(교구)

교 구	구 역	구역장	총 무
제1교구/교구장	다윗 구역	한기하 집사	정진수 집사
김관하 장로	희락 구역	정태인 집사	박희순 집사
제2교구/교구장	요셉 구역	박인호 집사	박성우 집사
송광수 장로	온유 구역	정태인 집사	한순자 집사
제3교구/교구장	다니엘 구역	김현수 집사	정수영 집사
김현수 집사	화평 구역	김영자 집사	우혜숙 집사
제4교구/교구장	요한 구역	이영수 집사	김용훈 집사
김연수 장로	샬롬 구역	김옥순 권사	조길순 집사
제5교구/교구장	스데반 구역	지재홍 집사	김영길 집사
윤희주 장로	은혜 구역	김영숙 집사	이연희 집사
제6교구/교구장	마가 구역	유학준 집사	강수형 집사
박순영 장로	충성 구역	임명순 집사	박춘희 집사
제7교구/교구장	엘리아 구역	한대영 장로	한민구 집사
한대영 장로	사랑 구역	곽영란 권사	송경엽 집사

2003년(교구)

교 구	구 역	구역장	총 무
제1교구/교구장	다윗 구역	한기하 집사	백낙환 집사
송광수 장로	희락 구역	정태인 집사	박희순 집사
제2교구/교구장	요셉 구역	손상근 집사	박명호 집사
김현수 장로	온유 구역	노영실 권사	김영애 집사
제3교구/교구장	다니엘 구역	박인호 집사	정수영 집사
김연수 장로	화평 구역	김영자 집사	우혜숙 집사
제4교구/교구장	요한 구역	이영수 집사	장재호 집사

윤희주 장로	살롬 구역	김옥순 권사	최정희 집사
제5교구/교구장	스데반 구역	지재홍 집사	양동안 집사
박순영 장로	은혜 구역	김영숙 집사	이강희 집사
제6교구/교구장	마가 구역	유학준 집사	강수형 집사
한대영 장로	충성 구역	임명순 집사	박춘희 집사
제7교구/교구장	엘리아 구역	옥치진 장로	한민구 집사
옥치진 장로	사랑 구역	곽영란 권사	김은경 집사

2004년(교구 및 구역)

교 구	구 역	구역장	총 무
제1교구/교구장 김현수 장로	다윗 구역	한기하 집사	박재우 집사
	희락 구역	노영실 집사	박희순 집사
제2교구/교구장 김연수 장로	요셉 구역	박명호 집사	신영필 집사
	온유 구역	김용신 집사	양은숙 집사
제3교구/교구장 윤희주 장로	다니엘 구역	박인호 집사	정수영 집사
	화평 구역	김영자 집사	이연지 집사
제4교구/교구장 박순영 장로	요한 구역	이영수 집사	장관우 집사
	샤론 구역	김옥순 권사	최정희 집사
제5교구/교구장 한대영 장로	스데반 구역	지재홍 집사	양동안 집사
	은혜 구역	김영숙 집사	이강희 집사
제6교구/교구장 유학준 집사	마가 구역	유학준 집사	강수형 집사
	충성 구역	임명순 집사	박춘희 집사
제7교구/교구장 옥치진 장로	엘리아 구역	옥치진 장로	한민구 집사
	사랑 구역	곽영란 권사	김미향 집사
제8교구/교구장 송광수 장로	바울 구역	손상근 집사	백낙환 집사
	양선 구역	정태인 집사	안영주 집사

2005(목장)

목 장	목 자	총 무
예향 목장	한대영	최정희
벤엘 목장	곽영란	김영애

시온 목장	한기하	노영실
여리고 목장	정건수	안영주
하나 목장	김현수	김종호
새예루살렘 목장	박명호	백낙환
하사사 목장	박인호	정수영
제일좋은 목장	신영필	최정환
샤론 목장	김옥순	장관우
길갈 목장	이영수	양윤선
행복한 목장	최종환	이민우
초원 목장	유학준	권중기
에벤에셀 목장	옥치진	김미향
달리다굽 목장	송광수	이옥경
산돌 목장	손상근	박정숙
실로암 목장	윤희주	김근혜
예사모 목장	지재홍	박재우
옥토밭 목장	한순자	박희순
예꿈모 목장	김연수	김태영
오예 목장	김영자	최지현
푸른 목장	김영숙	김영주
선한 목장	임명순	지종옥
호산나 목장	박순영	박춘희

2006년(목장)

목 장	목 자	총 무
예향 목장	김영길B	김정선
벤엘 목장	곽영란	김영자
시온 목장	한기하	노영실
여리고 목장	정건수	안영주
하나 목장	김현수	김종호
새예루살렘 목장	박명호	김영길A
하사사 목장	박인호	정수영

제일좋은 목장	신영필	최정환
샤론 목장	김옥순	장관우
길갈 목장	이영수	지재환
행복한 목장	이민우	김정호
에벤에셀 목장	옥치진	이동흙
달리다굽 목장	송광수	이옥경
산돌 목장	손상근	정재수
실로암 목장	이주익	조태성
예사모 목장	지재홍	박재우
옥토밭 목장	한순자	박희순
예꿈모 목장	김연수	김태영
초원 목장	유학준	권중기
푸른 목장	김영숙	
에덴 목장	윤희주	김근혜
예사전 목장	한대영	최정희

2007년(목장)

목 장	목 자	총 무
예향 목장	김영길B	김광남
에벤에셀 목장	옥치진	이동흙
달리다굽 목장	송광수	이옥경
가고픈 목장	정건수	정재수
하나 목장	조종희	김종호
새예루살렘 목장	박명호	김영길A
예꿈모 목장	김용신	장재호
샤론 목장	김옥순	장관우
길갈 목장	이영수	지재환
초원 목장	유학준	권중기
예사전 목장	한대영	최정희
예찬 목장	박성우	최지현
샘솟는 목장	오현섭	홍재억

모퉁이돌 목장	김태수	지장유
벤엘 목장	곽영란	김영자
시온 목장	한기하	노영실
실로암 목장	이주익	조태성
예사모 목장	지재홍	박재우
은혜 목장	김현수	하덕순
제일좋은 목장	신영필	이근만
푸른 목장	김영숙	이무연
행복한 목장	김용호	김정호
에덴 목장	윤희주	권미자
키청 목장	정수영	김선옥
할렐루야 목장	장병익	
하사사 목장	김춘경	최진영

2008년(마을 및 목장)

마 을	목 장	목 자	총 무
제1예수마을 마을지기: 윤승진 목사	사랑 목장	노영실	라은숙
	초원 목장	유학준	박춘희
제2예수마을 마을지기: 유학준 장로	샤론 목장	김옥순	장관우
	행복한 목장	김용호	김정호
	새예루살렘 목장	박명호	김영길A
	은혜 목장	김현수	박희순
제3예수마을 마을지기: 김현수 장로	하나 목장	조종희	김종호
	예사모 목장	지재홍	박재우
	제일좋은 목장	신영필	신동근
	달리다굽 목장	송광수	이옥경
제4예수마을 마을지기: 송광수 장로	가고픈 목장	정건수	정재수
	실로암 목장	이주익	조태성
	키청 목장	정수영	김선옥

제5예수마을 마을지기: 한기하 장로	시온 목장	한기하	박한자
	예꿈모 목장	장재호	최 훈
	하꿈모 목장	김용신	구본원
	ING 목장	최지현	김순심
제6예수마을 마을지기: 윤희주 장로	에덴 목장	윤희주	김희경A
	예찬 목장	박성우	김효미
	임마누엘 목장	조남이	정재도
	예모 목장	김광남	강성식
제7예수마을 마을지기: 옥치진 장로	에벤에셀 목장	옥치진	이동흙
	벤엘 목장	곽영란	김영자
	예능 목장	이근만	강호정
	베데스다 목장	김창성	권미자
제8예수마을 마을지기: 한대영 장로	예사전 목장	한대영	최정희
	예향 목장	김영길B	정병우
	샘솟는 목장	오현섭	홍재억
	감사 목장	이인화	김기영
	모퉁이돌 목장	김태수	지장유

2009년(마을 및 목장)

마을	목장	목자	총무
제1예수마을 마을지기: 윤승진 목사	사랑 목장	노영실	라은숙
제2예수마을 마을지기: 유학준 장로	초원 목장	유학준	박춘희
	샤론 목장	김영숙	장관우
	행복한 목장	김용호	김정호
제3예수마을 마을지기: 김현수 장로	은혜 목장	김현수	박희순
	하나 목장	조종희	김종호
	하꿈모 목장	조태성	구본원
	예능 목장	이근만	홍순천
제4예수마을	달리다굼 목장	송광수	신동근

마을지기: 송광수 장로	가고픈 목장	정진수	정재수
	실로암 목장	이주익	최 훈
	키청 목장	정수영	김경민
제5예수마을 마을지기: 한기하 장로	시온 목장	한기하	박한자
	벤엘 목장	곽영란	김영자
	임마누엘 목장	조남이	정재도
	감사 목장	이인화	권철훈
제6예수마을 마을지기: 윤희주 장로	에덴 목장	윤희주	강현아
	예찬 목장	박성우	정수미란
	브니엘 목장	김효미	최지현
	할렐루야 목장	이왕근	김동환
제7예수마을 마을지기: 옥치진 장로	예모 목장	김광남	강성식
	베데스다 목장	옥치진	권미자
	모퉁이돌 목장	김태수	현경환
	샘솟는 목장	오현섭	홍재억
제8예수마을 마을지기: 한대영 장로	예사전 목장	한대영	최정희
	쉐키나 목장	오성섭	홍선자
	예향 목장	김영길	임병설
	예진 목장	정정숙	김정업

2010년(마을 및 목장)

마을	목장	목자	총무
제1예수마을 마을지기: 윤승진 목사	사랑 목장	노영실	라은숙
제2예수마을 마을지기: 김현수 장로	행복한 목장	박재우	김정호
	샤론 목장	이영수	장관우
	하나 목장	조종희	권영신
제3예수마을 마을지기: 한기하 장로	하꿈모 목장	이주익	김선태
	제일좋은 목장	신영필	홍순천
	에바다 목장	정재수	지재홍

	실로암 목장	조태성	최 훈
제4예수마을 마을지기: 유학준 장로	예능 목장	이근만	김두성
	시온 목장	정건수	박한자
	벤엘 목장	한민구	김영자
	달리다굽 목장	김준택	김종호
제5예수마을 마을지기: 한대영 장로	임마누엘 목장	조남이	정재도
	감사 목장	김태수	이인화
	에덴 목장	서병구	김경옥
	예찬 목장	박성우	곽정희
제6예수마을 마을지기: 송광수 장로	브니엘 목장	김효미	정수미란
	할렐루야 목장	이왕근	김동환
	예모 목장	오현섭	홍재억
	베데스다 목장	지장유	김연희
제7예수마을 마을지기: 윤희주 장로	샘솟는 목장	김광남	권미자
	예사전 목장	한정원	최정희
	예향 목장	김영길	임병설
	예진 목장	정정숙	정재남
제8예수마을 마을지기: 옥치진 장로	쉐키나 목장	오성섭	홍선자
	믿음 목장	김정업	강혜숙
	키청 목장	정수영	김경민
	EM 목장	김용호	

2011년(마을 및 목장)

마을	목장	목자	총무
제1예수마을 마을지기: 윤승진 목사	사랑 목장	노영실	라은숙
제2예수마을 마을지기: 한기하 장로	행복한 목장	박재우	김정호
	샤론 목장	이주익	박춘희
	하나 목장	조종희	권영신
	쉐키나 목장	윤강현	김정현

제3예수마을 마을지기: 유학준 장로	제일좋은 목장	신영필	홍순천
	에바다 목장	정재수	정희태
	실로암 목장	조태성	최 훈
	믿음 목장	김정업	이창원
제4예수마을 마을지기: 한대영 장로	예능 목장	이근만	강미혜
	시온 목장	정건수	이상엽
	벤엘 목장	김종수	박용훈
	달리다굽 목장	김준택	김창옥
제5예수마을 마을지기: 송광수 장로	임마누엘 목장	조남이	정재도
	감사 목장	이인화	권철훈
	에덴 목장	서병구	김경옥
	예찬 목장	박성우	강철순
제6예수마을 마을지기: 윤희주 장로	브니엘 목장	정경숙	정수미란
	할렐루야 목장	이종서	김동환
	예모 목장	오현섭	홍재억
	소망 목장	김태수	곽정희
제7예수마을 마을지기: 김현수 장로	샘솟는 목장	김광남	권미자
	예사전 목장	오연숙	최경희
	예향 목장	김영길	임병설
	예진 목장	최형석	정재남
제8예수마을 마을지기: 정수영 장로	청년부	담당 교역자: 강세훈 전도사	목자: 정수영
	EM	담당 교역자: 안예종 목사	목자: 김용호

2012년(마을 및 목장)

마을	목장	목자	총무
제1예수마을 윤승진 목사	사랑 목장	최영진	황금자
제2예수마을 한기하 장로	행복한 목장	김정호	김용호
	샤론 목장	김영숙	김필중
제3예수마을	하나 목장	권영신	이규희

한대영 장로	쉐키나 목장	박재우	김정현
제4예수마을	제일좋은 목장	신영필	이진배
송광수 장로	에바다 목장	박성하	정희태
제5예수마을	실로암 목장	조태성	최 훈
윤희주 장로	믿음 목장	김정업	이창원
제6예수마을	예능 목장	이근만	김인철
김현수 장로	시온 목장	정건수	이상엽
제7예수마을	벨엘 목장	김종수	유성민
이주익 장로	달리다굽 목장	박용훈	손정민
제8예수마을	임마누엘 목장	권성철	정재도
지재홍 장로	감사 목장	이인화	권철훈
제9예수마을	에덴 목장	서병구	김경옥
한정원 장로	예찬 목장	박성우	강철순
제10 예수마을	글로리아 목장	한수연	배상준
조종희 장로	할렐루야 목장	이종서	김성식
제11 예수마을	예모 목장	홍재억	한규만
오현섭 장로	소망 목장	김태수	곽정희
제12 예수마을	삼솟는 목장	김영길	김광남
김준택 장로	예사전 목장	강호정	오연숙
제13 예수마을	예향 목장	임병설	박기식
한기하 장로	예진 목장	최형석	정재남
제14 예수마을	청년부	담당 교역자: 강세훈 목사	목자: 정수영
정수영 장로	EM	담당 교역자: 안예중 목사	목자: 김용호



5. 선교 사역

1994년(10곳)

국내 선교	모국 선교	해외 선교	방송 선교
교협청소년센터 국제장애인선교회 대학생선교회	한국교정선교회 복음선교선한나호	케냐(임금희) 칠레(허원구)	미주기독교방송국 한국TV 방송(채널 53)

1995년(13곳)

국내 선교	모국 선교	해외 선교	방송 선교
교협청소년센터 국제장애인선교회 대학생선교회 살림문서선교회	한국교정선교회 복음선교선한나호 새빛맹인선교회	케냐(임금희) 칠레(허원구) 케냐(김승중) 베트남(태원수) 인도(V.K. SINGH)	미주기독교방송국 한국TV 방송(채널 53)

1996년(16곳)

국내 선교	모국 선교	해외 선교	방송 선교
교협청소년센터 국제장애인선교회 대학생선교회 살림문서선교회 미주한인장로회 뉴욕노회선교부	한국교정선교회 복음선교선한나호 새빛맹인선교회 전북 황길교회 전남 우천교회	케냐(임금희) 칠레(허원구) 베트남(태원수) 인도(V.K. SINGH) 탄자니아(민찬식)	미주기독교방송국 한국TV 방송(채널 53)

1997년(20곳)

국내 선교	모국 선교	해외 선교	방송 선교
교협청소년센터	한국교정선교회	케냐(임금희)	미주기독교방송국
국제장애인선교회	복음선교선한나호	칠레(허원구)	한국TV 방송(채널 53)
대학생선교회	새빛맹인선교회	인도(V.K. SINGH)	
살롬문서선교회	진도 주안교회	키르기스스탄(이찬우)	
밀알선교회	고흥 우천교회	탄자니아(민찬식)	
한민자선선교회	목포 성덕원		
미주한인장로회			
뉴욕노회선교부			

1998년(24곳)

국내 선교	모국 선교	해외 선교	방송 선교
교협청소년센터	한국교정선교회	케냐(임금희/성명구)	미주기독교방송국
국제장애인선교회	복음선교선한나호	인도(V.K. SINGH)	한국TV 방송(채널 53)
대학생선교회	새빛맹인선교회	칠레(허원구)	
살롬문서선교회	목포 성덕원	탄자니아(민찬식)	
밀알선교회	전남 남원진기교회	키르기스스탄(이찬우)	
한민자선선교회	전남 초도교회	필리핀(김영배)	
미주한인장로회		니카라과(이동홍)	
뉴욕노회선교부		칠레(다니엘)	
		카자흐스탄(김동권)	
		멕시코(임원석)	

1999년(28곳)

국내 선교	모국 선교	해외 선교	방송 선교
교협청소년센터	한국교정선교회	케냐(임금희/성명구)	미주기독교방송국
국제장애인선교회	복음선교선한나호	인도(V.K. SINGH)	한국TV 방송(채널 53)
대학생선교회	새빛맹인선교회	칠레(허원구)	T.K.C(채널 76)
살롬문서선교회	목포 성덕원	탄자니아(민찬식)	
밀알선교회	서울남노회	키르기스스탄(이찬우)	
한민자선선교회	미자립교회	필리핀(김영배)	
할렘선교회	전남 남원진기교회	니카라과(이동홍)	
미주한인장로회	전남 초도교회	멕시코(임원석)	
뉴욕노회선교부	경북 영천 좋은교회	케냐(유니스 뉴콤)	
		카자흐스탄(김동권)	
		칠레 라갈레아(다니엘)	

2000년(31곳)

국내 선교	모국 선교	해외 선교	방송 선교
교협청소년센터	한국교정선교회	케냐(임금희/성명구)	미주기독교방송국
국제장애인선교회	복음선교선한나호	인도(V.K. SINGH)	한국TV 방송(채널 53)
대학생선교회	새빛맹인선교회	칠레(허원구)	T.K.C(채널 76)
살롬문서선교회	목포 성덕원	키르기스스탄(이찬우)	
밀알선교회	전남 남원진기교회	니카라과(이동홍)	
한민자선선교회	실로암안과병원	멕시코(임원석)	
브니엘선교회	할렘루야축구단	케냐(유니스 뉴콤)	
미주한인장로회	전남 초도교회	카자흐스탄(김동권)	
신학대학	경북 영천 좋은교회	연변(이윤식)	
		에콰도르(최상호)	
		칠레 라갈레아(다니엘)	

2001년(35곳)

국내 선교	모국 선교	해외 선교	방송 선교
교협청소년센터	한국교정선교회	케냐(임금희/성명구)	미주기독교방송국
국제장애인선교회	복음선교선한나호	인도(V.K. SINGH)	한국TV 방송(채널 53)
대학생선교회	새빛맹인선교회	칠레(허원구)	T.K.C(채널 76)
살롬문서선교회	목포 성덕원	키르기스스탄(이찬우)	
밀알선교회	실로암안과병원	니카라과(이동홍)	
한민자선선교회	할렘루야축구단	멕시코(임원석)	
브니엘선교회	목포 미교교회	케냐(유니스 뉴콤)	
싱글미션	전남 원포교회	카자흐스탄(김동권)	
무지개의 집	고성 대진 중앙교회	연변(이윤식)	
미주한인장로회	경북 영천 좋은교회	에콰도르(최상호)	
신학대학		북방선교훈련원	
		칠레 라갈레아(다니엘)	

2002년(37곳)

국내 선교	모국 선교	해외 선교	방송 선교
교협청소년센터	한국교정선교회	케냐(임금희/성명구)	미주기독교방송국
국제장애인선교회	복음선교선한나호	인도(V.K. SINGH)	한국TV 방송(채널 53)
대학생선교회	새빛맹인선교회	칠레(허원구)	T.K.C(채널 76)
살롬문서선교회	실로암안과병원	키르기스스탄(이찬우)	
밀알선교회	할렘루야축구단	니카라과(이동홍)	

한민자선선교회 브니엘선교회 싱글미션 무지개의 집 KPCA 뉴욕장로회 신학대학	여수 내경도교회 여수 황금교회 무안군 기독교회 고성 대진 중앙교회 경북 영천 좋은교회	멕시코(임원석) 케냐(유니스 뉴콤) 카자흐스탄(김동권) 에콰도르(최상호) 북방선교훈련원 중국(김-충) 볼리비아(윤도근) 중국(Hope Mission) 칠레 라갈레아(다니엘)
---	---	--

2003년(41곳)

국내 선교	모국 선교	해외 선교	방송 선교
교협청소년센터 국제장애인선교회 대학생선교회 살롬문서선교회 밀알선교회 한민자선선교회 브니엘선교회 싱글미션 무지개의 집 KPCA 뉴욕장로회 신학대학	한국교정선교회 복음선교선한나호 새빛맹인선교회 실로암안과병원 여수 내경도교회 여수 황금교회 고성 대진 중앙교회 경북 영천 좋은교회	케냐(임금희/성명구) 인도(V.K. SINGH) 칠레(허원구) 키르기스스탄(이찬우) 니카라과(이동홍) 멕시코(임원석) 케냐(유니스 뉴콤) 카자흐스탄(김동권) 에콰도르(최상호) 북방선교훈련원 중국(김-충) 볼리비아(윤도근) 중국(Hope Mission) 우크라이나(엄주철) 중국(서종석) 터키(김진영) 필리핀(변창욱) 마사야 교회 MOM 칠레 라갈레아(다니엘)	미주기독교방송국 한국TV 방송(채널 53) T.K.C(채널 76)

2004년(48곳)

국내 선교	모국 선교	해외 선교	방송 선교
교협청소년센터 국제장애인선교회 대학생선교회 살롬문서선교회 밀알선교회 한민자선선교회 브니엘선교회 뉴욕장로회신학교 싱글미션 무지개의 집 KOSTA USAAMEN.NET BBN Agape 치유센터	한국교정선교회 복음선교선한나호 새빛맹인선교회 실로암안과병원 여수 내경도교회 여수 황금교회 경북 영천 좋은교회 예천군 감천교회	터키(임금희) 인도(V.K. SINGH) 칠레(허원구) 키르기스스탄(이찬우) 니카라과(이동홍) 니카라과(마사야 제일장로교회) 멕시코(임원석) 케냐(유니스 뉴콤) 카자흐스탄(김동권) 에콰도르(최상호) 칠레 라갈레아(다니엘) 연변(희망의 집) 북방선교훈련원 중국(서종석) 볼리비아(윤도근) MOM 우크라이나(엄주철) 터키(김진영) 필리핀(변창욱) 미얀마(인관일) 필리핀(이교성) World Vision 조용철 선교사	미주기독교방송국 한국TV 방송(채널 17) T.K.C(채널 76)

2005년(49곳)

국내 선교	모국 선교	해외 선교	방송 선교
교협청소년센터 국제장애인선교회 살롬문서선교회 밀알선교회 한민자선선교회 브니엘선교회 뉴욕장로회신학교 싱글미션	한국교정선교회 복음선교선한나호 새빛맹인선교회 실로암안과병원 여수 내경도교회 여수 황금교회 경북 영천 좋은교회 예천군 감천교회	인도(V.K. SINGH) 에콰도르(최상호) 키르기스스탄(이찬우) 니카라과 T국(임금희) 카자흐스탄(김동권) 케냐(유니스 뉴콤) 니카라과(이동홍)	미주기독교방송국 한국TV 방송(채널 17) T.K.C(채널 76)

무지개의 집 KOSTA Agape 치유센터 밀알선교합창단 MOM		멕시코(임원석) 칠레(최종남) 연변(희망의 집) 북방선교훈련원 C국(서종석) 볼리비아(윤도근) T국(김진영) 우크라이나(엄주철) 필리핀(이교성) World Vision(필리핀) World Vision(이라크) 조용철 선교사 루마니아(최정권) C국(이브리스길라)	
---	--	--	--

2006년(51곳)

국내 선교	모국 선교	해외 선교	방송 선교
교협청소년센터 국제장애인선교회 살롬문서선교회 밀알선교회 한민자선선교회 브니엘선교회 뉴욕장로회신학교 싱글미션 무지개의 집 KOSTA Agape 치유센터 밀알선교합창단 MOM YWCA KCCC	한국교정선교회 복음선교선한나호 새빛맹인선교회 실로암안과병원 여수 내경도교회 여수 황금교회 경북 영천 좋은교회 예천군 감천교회	인도(V.K. SINGH) 에콰도르(최상호) 키르기스스탄(이찬우) 니카라과 T국(임금희) 카자흐스탄(김동권) 케냐(유니스 뉴콤) 니카라과(이동홍) 멕시코(임원석) 칠레(최종남) 연변(희망의 집) 북방선교훈련원 C국(서종석) 볼리비아(윤도근) T국(김진영) 필리핀(변창욱) 우크라이나(엄주철) 필리핀(이교성) World Vision(필리핀)	미주기독교방송국 한국TV 방송(채널 17) T.K.C(채널 76) USAAMEN.NET BBN

		볼리비아 신학생(2명) 조용철 선교사 루마니아(최정권) C국(이브리스길라) C국(김만식)	
--	--	---	--

2007년(52곳)

국내 선교	모국 선교	해외 선교	방송 선교
교협청소년센터 국제장애인선교회 살롬문서선교회 밀알선교회 한민자선선교회 브니엘선교회 뉴욕장로회신학교 싱글미션 무지개의 집 KOSTA Agape 치유센터 밀알선교합창단 MOM KCCC	한국교정선교회 복음선교선한나호 새빛맹인선교회 실로암안과병원 여수 내경도교회 여수 황금교회 경북 영천 좋은교회 예천군 감천교회	인도(V.K. SINGH) 에콰도르(최상호) 키르기스스탄(이찬우) 니카라과 T국(임금희) 카자흐스탄(김동권) 케냐(유니스 뉴콤) 니카라과(이동홍) 멕시코(임원석) 칠레(최종남) 연변(희망의 집) 북방선교훈련원 C국(서종석) 볼리비아(윤도근) T국(김진영) 필리핀(변창욱) 우크라이나(엄주철) 필리핀(이교성) World Vision(필리핀) 볼리비아 신학생(2명) 루마니아(최정권) C국(이브리스길라) C국(김만식) C국(이기석) 탄자니아(최재성) 키르기스스탄(제임스하)	미주기독교방송국 한국TV 방송(채널 17) T.K.C(채널 76) USAAMEN.NET BBN

2008년(54곳)

국내 선교	모국 선교	해외 선교	방송 선교
교협청소년센터	한국교정선교회	인도(V.K. SINGH)	미주기독교방송국
국제장애인선교회	복음선교선한나호	에콰도르(최상호)	한국TV 방송(채널 17)
살롬문서선교회	새빛맹인선교회	키르기스스탄(이찬우)	T.K.C(채널 76)
밀알선교회	실로암안과병원	T국(임금희)	USAAMEN.NET
한민자선선교회	예천군 감천교회	케냐(유니스 뉴콤)	BBN
브니엘선교회		니카라과(이동홍)	
뉴욕장로회신학교		멕시코(임원석)	
무지개의 집		연변(희망의 집)	
KOSTA		북방선교훈련원	
밀알선교합창단		C국(서종석)	
MM		볼리비아(윤도근)	
KCCC		T국(김진영)	
인디언 선교		필리핀(이교성)	
YWCA		World Vision(필리핀)	
JAMA		C국(이브리스길라)	
Family in Touch		볼리비아 신학생(2명)	
선교사의 집		C국(김만식)	
		C국(김영호)	
		C국(이기석)	
		탄자니아(최재성)	
		키르기스스탄	
		(제임스하)	
		도미니카공화국	
		(한요한)	
		볼리비아 어린이 구제	
		미얀마 고아(2명)	
		필리핀(김정철)	
		Wycliff Bible Translator	
		(박인호)	

2009년(56곳)

국내 선교	모국 선교	해외 선교	방송 선교
교협청소년센터	한나호	인도(V.K. SINGH)	미주기독교방송국
국제장애인선교회	새빛맹인선교회	에콰도르(최상호)	한국TV 방송(채널 17)
살롬문서선교회	실로암안과병원	키르기스스탄(이찬우)	T.K.C(채널 76)
밀알선교회	예천군 감천교회	케냐(유니스 뉴콤)	USAAMEN.NET
한민자선선교회		니카라과(이동홍)	Christian Herald
브니엘선교회		멕시코(임원석)	
뉴욕장로회신학교		연변(희망의 집)	
무지개의 집		북방선교훈련원	
KOSTA		C국(서종석)	
밀알선교합창단		볼리비아(윤도근)	
MM		T국(김진영)	
KCCC		필리핀(이교성)	
인디언 선교		World Vision(필리핀)	
YWCA		C국(이브리스길라)	
JAMA		볼리비아 신학생(2명)	
Family in Touch		C국(김영호)	
선교사의 집		C국(이기석)	
Youth & Family Focus		탄자니아(최재성)	
InterVarsity		키르기스스탄	
		(제임스하)	
		도미니카공화국	
		(한요한)	
		볼리비아 어린이 구제	
		미얀마 고아(2명)	
		필리핀(김정철)	
		Wycliff Bible Translator	
		(박인호)	
		토론토 인디언 신학교	
		몽골(이현호)	
		YWCA(조영철)	

2010년(56곳)

국내 선교	모국 선교	해외 선교	방송 선교
교협청소년센터	한나호	인도(V.K. SINGH)	미주기독교방송국
국제장애인선교회	새빛맹인선교회	에콰도르(최상호)	한국TV 방송(채널 17)
살롬문서선교회	실로암안과병원	키르기스스탄(이찬우)	T.K.C(채널 76)
밀알선교회	예천군 감천교회	케냐(유니스 뉴콤)	USAAMEN.NET
한민자선선교회		니카라과(이동홍)	Christian Herald
브니엘선교회		멕시코(임원석)	
뉴욕장로회신학교		연변(희망의 집)	
무지개의 집		북방선교훈련원	
KOSTA		C국(서종석)	
밀알선교합창단		볼리비아(윤도근)	
MM		T국(김진영)	
KCCC		필리핀(이교성)	
인디언 선교		World Vision(필리핀)	
YWCA		C국(이브리스길라)	
JAMA		볼리비아 신학생(2명)	
Family in Touch		C국(김영호)	
선교사의 집		C국(이기석)	
Youth & Family Focus		탄자니아(최재성)	
Intersity		키르기스스탄	
		(제임스하)	
		도미니카공화국	
		(한요한)	
		볼리비아 어린이 구제	
		미얀마 고아(2명)	
		필리핀(김정철)	
		Wycliff Bible Translator	
		(박인호)	
		토론토 인디언 신학교	
		몽골(이현호)	
		YWCA(조영철)	

2011년(56곳)

국내 선교	모국 선교	해외 선교	방송 선교
교협청소년센터	새빛맹인선교회	인도(V.K. SINGH)	미주기독교방송국
국제장애인선교회	실로암안과병원	에콰도르(최상호)	TKC
살롬문서선교회	예천군 감천교회	키르기스스탄(이찬우)	USAAMEN.NET
밀알선교회	어의도선교	케냐(유니스 뉴콤)	기독교방송
한민자선선교회		니카라과(이동홍)	CZZONEUS.NET
브니엘선교회		C국(Hope World)	CIS
뉴욕장로회신학교		북방선교훈련원	
무지개의 집		C국(장자매)	
KOSTA		T국(김진영)	
밀알선교합창단		볼리비아(윤도근)	
MM		필리핀(이교성)	
KCCC		World Vision(필리핀)	
인디언 선교		C국(이브리스길라)	
YWCA		미얀마 고아(좋은토양)	
JAMA		탄자니아(최재성)	
Family in Touch		필리핀(김정철)	
선교사의 집		키르기스스탄	
Youth & Family Focus		(제임스하)	
생명의 전화		도미니카공화국	
고어헤드		(한요한)	
		Wycliff Bible Translator	
		(박인호)	
		토론토 인디언신학교	
		몽골(이현호)	
		YWCA(조영철)	
		로마장로교회(한인성)	
		터키(임금희)	
		니카라과(김인선)	

2012년(59곳)

국내 선교	모국 선교	해외 선교	방송 선교
교협청소년센터	새빛맹인선교회	인도(V.K. SINGH)	미주기독교방송국
뉴욕한인청소년센터	실로암안과병원	에콰도르(최상호)	TKC
국제장애인선교회	예천군 감천교회	키르기스스탄(이찬우)	USAAMEN.NET
살롬문서선교회		케냐(유니스 뉴콤)	기독교방송
밀알선교회		니카라과(이동홍)	Kidoknews.net
한민자선선교회		멕시코(임원석)	CIS
브니엘선교회		C국(장자매)	교회넷
뉴욕장로회신학교		T국(김진영)	기독일보
무지개의 집		볼리비아(윤도근)	
밀알선교합창단		World Vision(필리핀)	
MM		C국(이브리스길라)	
Family in Touch		미얀마 고아(좋은토양)	
선교사의 집		탄자니아(최재성)	
Youth & Family Focus		필리핀(김정철)	
생명의 전화		키르기스스탄	
고어헤드		(제임스하)	
농아인선교		도미니카공화국	
만국교회		(한요한)	
선한이웃어린이선교회		Wycliff Bible Translator	
나눔의 집		(박인호)	
국제사랑재단		토론토 인디언 신학교	
뉴욕노회 미자립 교회		몽골(이현호)	
(2곳)		YWCA(조영철)	
		로마장로교회(한인성)	
		터키(임금희)	
		니카라과(김인선)	
		우크라이나 신학교	
		(김오현)	
		북방선교훈련원	
		(시민교회)	

표어

예수님 제일 (마 16: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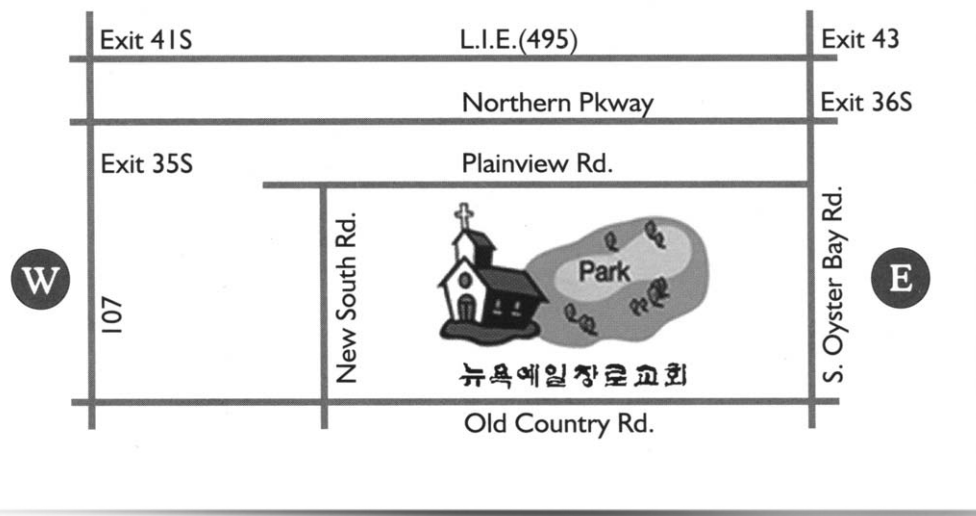
실천목표

1. 영감있는 예배
2. 십자가 사랑의 교제
3. 땅 끝까지 복음 전파
4. 천국일꾼 훈련 양성
5. 이민 가정의 치료
6. 능력있는 기도 생활

예일교회 신앙생활 표준 7가지

1. 주의 날을 거룩하고 소중하게 지킨다.
(출 20:8-11; 사 58:13-14)
2. 온전한 십일조를 섬기는 제단에 드려 청지기의 사명을 다한다.
(말 3:7-12)
3. 각 종 예배마다 힘써 참석하여 주께 드려지는 제물이 된다.
(요 4:23-24)
4. 최선을 다하여 1년에 성경 1독 이상을 한다.
(계 1:3; 시 119:11, 103-105)
5.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린다. 아니면 주일만이라도 드린다.
(행 10:1-5, 16:30-34; 시 55:17)
6. 사람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1년에 1사람 이상 전도하여 구원 얻게 한다.
(단 12:3-4; 마 16:26)
7.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
(고전 10:31)

○ 찾아오시는 길



담임목사 김 종 훈
Rev. Jong Hoon Kim, Pastor



해외 한인 장로회
뉴욕 예일 장로교회
YALE KOREAN PRESBYTERIAN CHURCH IN NEW YORK

관 권
소 유

예수님 제일 그 20년

2013년 4월 5일 인쇄
2013년 4월 15일 발행

발행처 | 뉴욕 예일장로교회
발행인 | 김종훈
위원장 | 윤희주
총 무 | 권철훈
위 원 | 이영선 강혜옥 차은경 김영애 임정현 임미라 정수미란
사 진 | 유성민 신동인
편 집 | 박성우
감 수 | 강세훈 이주익
주소 | 17 New South Rd., Hicksville, NY 11801
TEL | (516) 938-0383 FAX / (516) 938-3824
홈페이지 | <http://www.yalechurch.org>

제작처 | 쿼란출판사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화동 184-3
TEL | 02-745-1007, 745-1301~2, 747-1212, 743-1300
영업부 | 02-747-1004, FAX / 02-745-8490
본사평생전화번호 | 0502-756-1004
홈페이지 | <http://www.qumran.co.kr>
E-mail | qrbooks@gmail.com
qrbooks@daum.net
한글인터넷주소 | 쿼란, 쿼란출판사

등록 | 제1-670호(1988.2.27)

* 이 출판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할 수 없습니다.
* 잘못된 책은 교환해 드립니다.

“예일의 행진이 계속되기를 기원하며.....”